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동련 · 김호월

트레킹 코스 이용자의
웨이파인딩(Wayfinding)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 정서적 요인 연구

- 제주 올레길을 중심으로 -

A Study of Physical and Emotional Factors
Affecting Trekkers' Wayfinding on Trails

- Focusing on the Jeju Olle Trail -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시각디자인전공

김 신 혜

2013년 6월 28일



HONGIK UNIVERSITY

트레킹 코스 이용자의
웨이파인딩(Wayfinding)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 정서적 요인 연구

-제주 올레길을 중심으로-

A Study of Physical and Emotional Factors
Affecting Trekkers' Wayfinding on Trails

- Focusing on the Jeju Olle Trail -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28일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시각디자인전공

김 신 혜



HONGIK UNIVERSITY

김신혜의 박사학위 논문을 추천함

2013년 6월 28일

지도교수 장동련 · 김호월

홍익대학교 대학원



HONGIK UNIVERSITY

김신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審 査 委 員

審査委員長

權明光

審査委員

장동연

審査委員

김호원

審査委員

김려서

審査委員

조현주

審査委員

송규반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HONGIK UNIVERSITY

국 문 요 약

최근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자연주의(naturalism)등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안에서의 걷기인 트레킹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올레길이나 둘레길과 같은 트레킹 코스에 대한 인지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걷는 환경’에 대한 연구와 그 이동 과정을 위한 ‘웨이파인딩’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연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한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각 지역의 트레킹 코스의 개발,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웨이파인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인간과 웨이파인딩의 밀접한 관계로 방증되는 웨이파인딩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웨이파인딩이 단순히 사람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내적으로 존재하는 경험 및 심상과도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실제 분석을 위한 논리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웨이파인딩의 개념과 이용자의 유형 및 특징에 관하여 논하였고, 이용자의 환경 인지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웨이파인딩 수행 전략을 가지며, 인지지도의 형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용자가 경로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단순한 선형적 인지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각과 인지, 환경 요소, 환경 정보 등이 있는데, 이중 웨이파인딩과 관련된 시각적 요소로서 사인 시스템, 랜드마크,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 내에서의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으로서 어포던스 및 행동습성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또 하나는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다. 환경의 ‘이미지’는 장소에의 특징적 요소에 의하여 강화되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또한 환경에서의 ‘기억과 경험’은 환경에 대한 ‘장소감’을 형성한다. 또한 환경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내적 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웨이파인딩에 있어 환경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웨이파인딩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있어, 일반적으로 웨이파인딩의 성공은 강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나, 그에 반해 실패는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일으키고, 장소에 대한 거부감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위적 공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으로 회귀하는 공간을 ‘제4의 공간’으로 명명하고, 트레킹 코스와 같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의 웨이파인딩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 환경인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트레킹 및 트레킹 코스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트레킹 코스에서 타 환경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은 첫째, 트레킹 코스는 일반적 웨이파인딩 과정과 달리, 경로선택이 아닌 주어진 루트를 잘 따라가느냐 아니냐(success or fail)의 on-off적 과정의 연속이라는 점, 둘째, 트레킹 코스에서는 환경이 이용자에게 다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 셋째, 트레킹 코스에서는 인지지도 형성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리고 트레킹 코스의 실제 해외 사례로서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과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 그리고 ‘일본의 시코쿠 88사찰 순례길’과, 국내 사례로서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그리고 ‘동해 해파랑길’을 개괄하고 웨이파인딩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근거 이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선택하였다. 연구 대상은 제주 올레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올레길 관련 인터넷 SNS 후기 중에서 웨이파인딩 관련 부분을 추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물리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을 추출



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의 특성’,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및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내용에 있어 기존의 연구 문헌과 비교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물리적 요인에서는 웨이파인딩의 실패와 그 원인을 중심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코스 이용자들은 코스 진입 시에 대중교통과 코스 시작점의 연결이 어려운 점과 시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초행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웨이파인딩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트레킹을 진행하는데 있어,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한 문제와 이용자 자신의 행동 습성으로 인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길을 잃는 상황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이용자 자신이 코스 선상에 있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유의한 웨이파인딩 문제 상황으로 나타났다. 셋째, 트레킹의 종료 시점에서 종점을 찾지 못하거나 스탬프를 찍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으며 이는 시인성의 문제가 원인이다. 또한 정보 부족의 원인으로 대중교통으로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웨이파인딩 문제 상황이 나타났다.

정서적 요인에서는 웨이파인딩과 관련된 이용자의 정서 반응과 그에 따른 행동을 중심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한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는 웨이파인딩의 성공 여부와 함께 코스 관리 측에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둘째, 웨이파인딩 수행의 성공 여부에서, 성공 시에는 장소에의 충성도 생성으로 이어지고, 실패 시에는 부정적 정서와 함께 트레킹의 포기가 발생되며, 이는 다시 관리 측에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코스에서의 비예측 상황 중, 동물 출현과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 상황은 코스 이용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코스 기피, 또는 중도 포기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넷째, 트레킹 종료 시에 종점이 갖는 의미성이 충족될 경우, 이용자의 재방문 의도를 강화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된다.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의 특징은, 일반적 웨이파인딩 환경과 비교하여 사인의 가시성이나 규격화가 크게 중시되지 않는 반면, 사인의 자연 친화성이나 아이덴티티가 중요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사인이며, 이용자가 웨이파인딩을 하는데 있어 가장 의존하는 사인이므로 결정 지점에서의 체계적인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요소는 이용자들에게 정서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며, 랜드마크, 아이덴티티, 장소 이미지의 역할을 전부 함과 동시에 장소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은 물리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과 강한 상호적 영향관계에 있으며, 성공적인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한 기획과 디자인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활용방안으로서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아이덴티티 요소의 요건 및 사인 정보의 요건, 그리고 사인 설치를 위한 요건에 관한 개괄적 가이드를 제안함으로서 향후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 환경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



목 차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4
1.3 논문의 구성	5
1.4 선행 연구 검토	7
 제 2 장 웨이파인딩 연구의 고찰	14
2.1 웨이파인딩 연구의 개괄	14
2.1.1 웨이파인딩 개요	14
2.1.2 웨이파인딩 연구의 전개	15
2.1.3 웨이파인딩의 주체와 수행 특성	21
2.2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	34
2.2.1 환경에 대한 지각과 인지	34
2.2.2 웨이파인딩에서의 환경 요소	36
2.2.3 웨이파인딩을 위한 환경 정보	38
2.2.4 환경 내에서의 행태적 특성	47
2.3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	53
2.3.1 환경의 이미지	53
2.3.2 기억과 경험에 의한 정서	57



2.3.3 환경과 정서의 상호 작용	63
2.3.4 웨이파인딩 수행 결과에 따른 정서	68
제 3 장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의 특성	73
3.1 트레킹 및 트레킹 코스 개괄	74
3.1.1 트레킹의 개념	74
3.1.2 트레킹의 특성	76
3.1.3 트레킹 코스의 분류	79
3.2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특성	81
3.3 해외 트레킹코스 사례	86
3.3.1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7
3.3.2 미국 존뮤어 트레일	91
3.3.3 일본 시코쿠 88사찰 순례길	94
3.4 국내 트레킹코스 현황	98
3.4.1 제주 올레길	101
3.4.2 지리산 둘레길	107
3.4.3 동해 해파랑길	112
제 4 장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18
4.1 요인 분석 방법의 개요	118
4.1.1 질적 연구 방법의 도입	118
4.1.2 연구 방법의 평가	118
4.1.3 연구 대상의 선정	119
4.1.4 자료 수집과 절차	121



4.2 분석 방법의 설계	123
4.2.1 분석을 위한 틀	123
4.2.2 분석의 방법	124
4.3 물리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의 추출	126
4.3.1 물리적 요인의 추출	126
4.3.2 정서적 요인의 추출	140
4.4 분석의 결과	153
4.4.1 물리적 요인의 분석 결과	153
4.4.2 정서적 요인의 분석 결과	166
4.4.3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 정서적 요인 모형	182
 제 5 장 결론	 191
5.1 연구의 요약 및 논의	191
5.2 연구의 활용 방안	196
5.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201
 참고 문헌	 204
Abstract	212
부록	216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 (국외)	10
표 1-2 선행연구 (국내)	13
표 2-1 공간구문론에 의한 분석 지표	19
표 2-2 Wapnar의 인간의 특성 분류	22
표 2-3 환경 인지 유형의 분류	22
표 2-4 인간의 이동패턴의 분류	26
표 2-5 공간적 정위와 웨이파인딩의 차이점	28
표 2-6 웨이파인딩시 고려할 장애의 종류	32
표 2-7 Lynch의 환경 요소	37
표 2-8 웨이파인딩 환경정보의 분류	39
표 2-9 미야자와의 사인 분류	41
표 2-10 사인의 6가지 분류	42
표 2-11 색채의 기능별 특성	46
표 2-12 인간이동행태 연구 공통사항 비교	52
표 2-13 인간이동행태의 주요 습성	52
표 2-14 환경이미지의 분석 요소	54
표 2-15 환경 이미지의 역할	55
표 2-16 지향적 은유의 예시	67
표 3-1 선(線) 중심여행 형태의 장점	76
표 3-2 도보여행길 분류	80
표 3-3 트레킹 코스 형태에 따른 분류	80
표 3-4 트레킹 코스의 테마별 분류	81
표 3-5 주요 국가 트레킹 코스 조성 현황	86
표 3-6 산티아고 순례길의 코스 개요	88
표 3-7 존 뮤어 트레일 개요	92



표 3-8 시코쿠 순례길 개요	95
표 3-9 문화생태형 트레킹코스 투자 예산	99
표 3-10 문화생태 트레킹 코스 조성 및 계획 현황	100
표 3-11 제주 올레길 현황	102
표 3-12 제주 올레길 전체코스과 거리 현황 종합표	102
표 3-13 지리산 둘레길 현황	108
표 3-14 지리산 둘레길 전체코스과 거리 현황 종합표	108
표 3-15 동해 해파랑길 현황	113
표 3-16 동해 해파랑길 전체코스과 거리 현황 종합표	113
표 4-1 자료수집 관련 사이트 및 표본 추출 현황	122
표 4-2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에 있어 물리적 요인의 추출	139
표 4-3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에 있어 정서적 요인의 추출	151
표 4-4 물리적 요인에서의 이용자의 특성 관련 데이터	153
표 4-5 이용자의 시간 인지 관련 데이터	153
표 4-6 이용자 원인으로 인해 사인을 못보는 상황 관련 데이터	154
표 4-7 웨이파인딩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행태적 습성 관련 데이터	154
표 4-8 이용자가 사인을 놓치기 쉬운 환경 관련 데이터	155
표 4-9 사인이 잘 안보여서 웨이파인딩이 어려운 상황 관련 데이터	156
표 4-10 사인 자체가 혼란을 주는 상황 관련 데이터	157
표 4-11 이용자가 사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 관련 데이터	159
표 4-12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개선 요구 사항 관련 데이터	160
표 4-13 2차 정보로 인한 혼란 상황 관련 데이터	161
표 4-14 트레킹 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관련 데이터	162
표 4-15 트레킹 코스 내 쉼터 및 화장실의 언급에 대한 데이터	164
표 4-16 트레킹 코스 시·종점의 식별성 관련 데이터	164
표 4-17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데이터	165
표 4-18 정서적 요인에서의 이용자의 특성 관련 데이터	166



표 4-19 트레킹에 앞선 이용자의 사전 준비 관련 데이터	166
표 4-20 트레킹 여정에 있어 이용자의 즉흥적 상황 관련 데이터	168
표 4-21 이용자들의 여행 vs 관광 인지 개념의 차이에 관한 데이터	168
표 4-22 이용자의 트레킹 코스 방문 의도 관련 데이터	169
표 4-23 사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 관련 데이터	171
표 4-24 사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 관련 데이터	173
표 4-25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실패상황에 대한 정서반응 관련 데이터	173
표 4-26 전화 안내에 대한 정서반응 관련 데이터	174
표 4-27 이용자가 자주 언급한 장소 관련 데이터	177
표 4-28 이용자의 기대심상과 환경의 불일치 상황 관련 데이터	178
표 4-29 이용자들이 동물과 마주친 상황 관련 데이터	178
표 4-30 동물과 마주쳤을 때 공포감을 표현한 빈도 관련 데이터	179
표 4-31 주변이 어두워져 두려움을 느낀 상황 관련 데이터	180
표 4-32 시·종점에 관한 이용자의 정서 관련 데이터	181
표 4-33 스탬프 관련 이용자 정서에 대한 데이터	182
표 5-1 트레킹 코스에서 웨이파인딩과 연관된 물리적·심리적 요인 요약	192
표 5-2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아이덴티티 요소	196
표 5-3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사인의 제공	197
표 5-4 트레킹 코스 사인의 설치 요건	198
표 5-5 결정 지점에서의 사인 설치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199
표 5-6 사인의 인지가 어려운 곳의 사인 설치	200
표 5-7 트레킹 코스에서 사인 설치에 있어 기타 고려할 사항	201



그림 목차

그림 1-1 다각적 측면에서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웨이파인딩	3
그림 1-2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역사적 흐름에서 웨이파인딩의 두 가지 측면	16
그림 2-2 웨이파인딩 개념의 진화	21
그림 2-3 인지지도 형태에 있어서의 개인차	26
그림 2-4 웨이파인딩 수행 과정	28
그림 2-5 웨이파인딩에 있어 인지지도의 형성 과정 다이어그램	29
그림 2-6 사인의 일반원칙	41
그림 2-7 비주얼 사인 시스템	43
그림 2-8 Norman의 어포던스 개념도	50
그림 2-9 경험의 개념 범위	58
그림 2-10 장소와 장소성의 관계	61
그림 2-11 장소성 형성 과정	62
그림 2-12 장소이미지 축적과 방문 의사결정 과정	63
그림 3-1 트레킹 코스에서 걷기의 효과	74
그림 3-2 트레킹 코스의 구성	79
그림 3-3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코스 지도	87
그림 3-4 산티아고 순례길의 심벌마크	88
그림 3-5 산티아고 상징인 조개껍데기를 매단 코스 이용자의 배낭	88
그림 3-6 산티아고 순례길의 표지석	89
그림 3-7 산티아고 순례길의 화살표 사인	89
그림 3-8 다양한 장소에 개성 있게 그려진 화살표	89
그림 3-9 산티아고 순례길의 꼬레덴시알과 스탬프	90
그림 3-10 순례를 마쳤다는 증명서	90
그림 3-11 존 뮤어 트레일 코스 지도	91



그림 3-12 존 뮤어 트레일의 로고	92
그림 3-13 존 뮤어 트레일의 사인	93
그림 3-14 시코쿠 순례길 지도	94
그림 3-15 오헨로의 모습	95
그림 3-16 시코쿠 순례길의 로고	96
그림 3-17 시코쿠 순례길의 원형 스티커 사인	96
그림 3-18 시코쿠 순례길의 방향 사인	96
그림 3-19 에도 시대에 제작된 표시석과 현대의 사인이 함께 있는 모습	97
그림 3-20 영문으로 된 스티커형 사인	97
그림 3-21 납경장 표지와 납경장에 주인과 목서를 받은 모습	98
그림 3-22 납경소에서 목서를 써주는 모습	98
그림 3-23 시코쿠 순례길의 결원증명서	98
그림 3-24 제주 올레길 지도	101
그림 3-25 제주 올레 로고	103
그림 3-26 올레길의 페인트 화살표	104
그림 3-27 올레길의 리본 사인	104
그림 3-28 올레길의 간세 사인과 화살표 설치물	105
그림 3-29 간세 사인의 정보 안내	105
그림 3-30 올레길의 안내 표지석	106
그림 3-31 스탬프 보관함과 표지석, 방향표시 간세가 함께 있는 모습	106
그림 3-32 올레 패스포트 및 스탬프	106
그림 3-33 지리산 둘레길 지도	107
그림 3-34 지리산 둘레길 로고	109
그림 3-35 둘레길의 방향표시 사인	110
그림 3-36 둘레길의 페인트 화살표	110
그림 3-37 둘레길 종합 안내 표지판	111
그림 3-38 둘레길 구간 시작 표지판	111



그림 3-39 둘레길의 순례수첩 및 Stamp	111
그림 3-40 둘레길 완주 인증카드	111
그림 3-41 동해 해파랑길 지도	112
그림 3-42 동해 해파랑길 로고	115
그림 3-43 해파랑길의 표식과 리본	116
그림 3-44 해파랑길의 페인트 화살표	116
그림 3-45 해파랑길의 스티커형 사인	117
그림 3-46 해파랑길의 설치물 사인과 게시판	117
그림 3-47 해파랑길의 패스포트	117
그림 4-1 연구에 있어 분석의 틀	124
그림 4-2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과 물리적·정서적 상관요인 정리	152
그림 4-3 이용자의 시간 인지 관련 그래프	153
그림 4-4 웨이파인딩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행태적 습성 관련 그래프	154
그림 4-5 사인 자체가 혼란을 주는 상황 관련 그래프	158
그림 4-6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개선 요구 사항 관련 그래프	161
그림 4-7 트레킹 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관련 그래프	163
그림 4-8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그래프	165
그림 4-9 트레킹에 앞선 이용자의 사전 준비 관련 그래프	166
그림 4-10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실패상황에 대한 정서반응 관련 그래프	174
그림 4-11 이용자들이 동물과 마주친 상황 관련 그래프	178
그림 4-12 동물과 마주쳤을 때 공포감을 표현한 빈도 관련 그래프	179
그림 4-13 시·종점에 관한 이용자의 정서 관련 그래프	181
그림 4-14 물리적 요인의 실패-원인 모형	183
그림 4-15 정서적 요인의 반응-행동 모형	186
그림 4-16 일반적 웨이파인딩 환경에서의 정서 모형	187
그림 5-1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영향관계	193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이동을 한다. 움직여서 어딘가로 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그중에서도 걷기는 인간의 원초적인 이동 수단이며, 시대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에 상관없이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한 때부터 행해져온 행위이다. 이렇듯 사람의 이동과 걷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나, 한편으로는 길을 찾아나가는(wayfinding) 이동 환경 안에서의 걷기는 그 중요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박한 현대인의 삶에 대한 반기로서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그리고 자연주의(naturalism)라는, 인간의 삶의 질에 관한 커다란 물결이 대두되고, 그에 따라 걷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 물결은 아마도 점점 더 그 강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기에 ‘걷는 환경’에 대한 연구와 그 이동 과정을 위한 ‘웨이파인딩’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공간 환경 안에서 길을 찾기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분야인 웨이파인딩 개념이 1960년대에 처음 서구에서 제안된 이래,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공간 환경 안에서 목적하는 바를 위한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물리적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웨이파인딩은 그 개념은 물론이고, 용어 자체도 일반에게 매우 생소하다. 어떤 공간이든 일정 규모의 사람이 모이고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원활하고 효율적인 웨이파인딩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웨이파인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웨이파인딩을 포함한 공간문제해결이라고 하면, 사인에 국한된 협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웨이파인딩 디자인의 주요 부분인 사인에 있어서도,



특정 환경의 심층적 연구 및 이용자의 행태와 심리에 입각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저 탁상위의 발상으로 배치를 하고, 효율성과 사용성보다는 시각적 스타일링에 치중하는 경향이 아직도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까지의 사람의 웨이파인딩에 대한 연구는 건물이나 공원 등 인공적 환경(built environment)에 한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이용자의 외부적 요인에 주로 포커스를 둔 반면, 웨이파인딩 시 이용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역학과 본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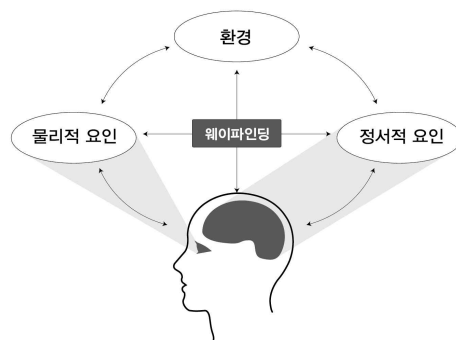
그러나 웨이파인딩은 단순히 사람이 길을 찾도록 도움을 준다는 효율성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Weisman(1984; 정무웅 2009: 399 재인용)이 주장한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공간 환경 내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재해발생이나 비상시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웨이파인딩으로 더욱 큰 재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웨이파인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혹자는 현재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의 발전으로 더 이상 웨이파인딩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Lynch(1960/2003: 80)가 미국 자동차안전관리재단(Automotive Safety Foundation)의 책자를 인용하여 운전시의 웨이파인딩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보면, 운전시의 이용자와 환경과의 관계 정립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들은 적절한 준비 없이 핸들을 꺾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전체적인 전경에 대한 방향감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운전자들이 위성 디지털 네비게이션 장치를 가지고도 낯선 곳에서 헤매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기계장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다. 즉 물리적 장치를 소지해야 한다거나, 장치가 고장 나거나 위성통신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 또는 시각적 제한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인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웨이파인딩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연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로 보존한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주로 연구되어왔던 인공 환경에서의 웨이파인딩과의 연관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웨이파인딩은 장소에 대한 시각적·인지적 정보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기억, 관습과 문화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서적인 내면의 본능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행하는 점도 본 논문이 가진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다각적 측면에서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웨이파인딩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기본적 이동행위인 걷기에 있어 사람들의 웨이파인딩 행태를 파악하고, 최근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올레길이나 둘레길과 같은 자연과 함께하는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을 위한 조사를 행하여, 이러한 트레킹 코스에서의 성공적인 웨이파인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외에서는 물론, 근래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트레킹 코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즉 도보여행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대되는 지역의 수익 창출과 발전 등에 크게 주목하고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연구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좋은 웨이파인딩은 단순히 길을 잘 찾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웨이파인딩 시스템이 방문자에게 주는 신뢰감이나 안전감, 장소에 대한 인지와 브랜드 가치 등의 긍정적인 심리효과를 생각한다면 웨이파인딩이 가진 무형의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트레킹 코스에서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트레킹 코스에서의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은 이용자의 웨이파인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은 일반적 웨이파인딩 환경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마지막으로, 트레킹 코스에서 웨이파인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트레킹 코스에서 이루어지는 웨이파인딩을 연구하는 동시에, 트레킹 코스에서의 성공적인 웨이파인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각 지역의 트레킹 코스의 개발,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대상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트레킹 코스 중 문화체육관광부(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인들에게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트레킹 코스인 제주 올레길을 중심적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 해외 사례로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 미국 존뮤어 트레일(John Muir Trail), 그리고 일본 시코쿠 88사찰 순례길(四國八十八ヶ所靈場めぐり) 등 유럽, 미주, 일본의 대표적 트레킹 코스 3곳과, 국내 사례로서 국내 지리산 둘레길과 현재 조성중인 동해 해파랑길을 조사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제주 올레길이 개장한 2007년 이후부터 2012년 12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상적 범위는 본 연구의 중심적 연구대상지인 제주 올레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올레길의 설립주체인 (사)제주올레 관계자와 기타 트레킹 코스 관계자 및 트레킹 경험이 많은 도보여행자들을 포함하였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 심층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시도



하였다. 첫째, 문헌적 연구방법(literature study)을 통하여 국내·외 서적, 학술 및 학위 논문, 각종 간행물,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기존 문헌에 대한 고찰을 행하였다.

둘째, 실증적 분석을 위해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정성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방법으로 우선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이며 인터넷 동호 카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에서 회원 수가 많은 제주 올레길 관련 카페를 선정하여, 여행자들이 올린 트레킹 코스 여행 후기를 수집 및 추출하였다. 그리고 제주 올레길 공식 홈페이지에 여행자들이 올린 후기도 수집 및 추출하였다.

셋째, 대상지를 연구자가 직접 걸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행하고 주변 여행자들 및 환경에 대한 관찰 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대상지에 대한 세부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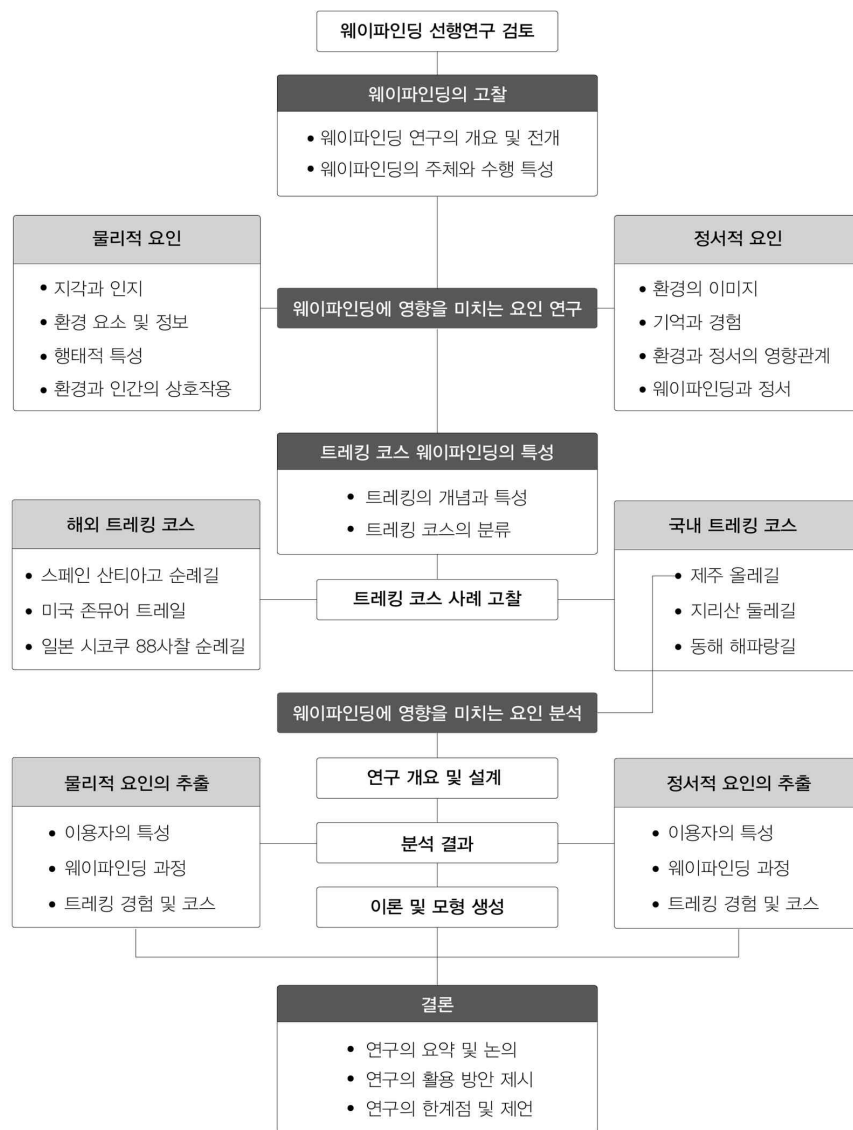
넷째, (사)제주올레 관계자와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또한 그 외 트레킹 코스 관계자 및 국내외 트레킹 코스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좀 더 심층적인 통찰(insight)의 기회를 모색하여 보다 진전되고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과 선행연구 검토로 이루어진다. 제2장은 본 연구의 주제인 웨이파인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웨이파인딩의 역사와 개념 및 사람이 웨이파인딩을 하는데 있어 그 과정과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웨이파인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론적 방향의 틀을 정하고 그에 대한 고찰과 웨이파인딩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한편, 웨이파인딩 수행에 있어서의 환경과 사람간의 연관성을 도출하여 그 체계를 세운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 환경인 트레킹 코스의 개념과 특성 등을 검토하여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특성을 규명한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의 대표적 트레킹 코스의 사례를 통하여,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의 현황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단계로서 질적 연구 방법론의 근거이론에 대한 개요를 밝히고, 연구 설계 및 SNS 자료를 이용한 정성적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결론을 통하여 본 논문의 연구에 대한 요약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로 마무리를 한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1.4 선행 연구 검토

웨이파인딩은 지금까지 환경심리학과 건축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왔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인공적 건축 환경(built environment)에서의 웨이파인딩에 집중되어 온 편이다.

Lynch(1960)의 “The Image of the City”는 환경이 사람에게 주는 이미지에 관하여, 미국 보스턴, 저지시티, 로스엔젤레스 등 3개 도시가 가진 환경이미지를 정성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서, 웨이파인딩 분야의 고전이자 웨이파인딩이란 개념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연구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힌 환경의 이미지 요소 및 도시에 관한 관찰 결과는 다른 웨이파인딩 관련 연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속적으로 인용되어 오고 있다.

Passini의 1977년 논문은 웨이파인딩을 주제로 한 첫 박사논문으로,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사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선구적 논문으로 파악되며, 웨이파인딩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요소와 구조, 과정을 연구하였고, 사인 및 지도, 음성적 정보전달 등의 웨이파인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Passini는 1992년 웨이파인딩 분야의 또다른 선구자로 알려진 Arthur과의 공동집필을 통해, 건축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웨이파인딩의 개념과 과정, 웨이파인딩의 주체 및 상황, 설계시의 건축적 레이아웃과 사인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자를 위한 청각, 촉각을 이용한 웨이파인딩 정보 전달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로도 Passini는 웨이파인딩 관련하여 활발하게 도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1992년의 “Wayfinding in Architecture”에서는 건축 공간을 중심으로 한 웨이파인딩을 고려한 설계를 위한 전문서적으로, 인간이 미로에서 겪는 원초적 경험부터 시작하여 웨이파인딩 행태를 자세하게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인지에 관련된, 감각·기억·추론 정보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1996년 논문을 통하여 웨이파인딩 디자인은 현실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고 전제하며, 그에 대한 전체적 개요를 소개하고 그에 내재된 웨이파인딩 디자인 논리를 정리하였다.

“Wayfinding Behavior: Cognitive Mapping and Other Spatial Processes”는 University of California의 지리학교수인 Golledge가 편집한, 웨이파인딩 행태에 대한 연구를 모은 앤솔로지 형식의 연구서로, 인지심리학과 인지신경학으로부터 인공지능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웨이파인딩 연구를 수행하여 폭넓고도 다각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Chen et al.(2003)은 Passini의 웨이파인딩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대만의 사립관에서 사람들이 길을 찾는 과정을 옆에서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정성적 연구를 행한 논문이다. 피실험자들이 취하는 행태의 특징과 인지지도의 형성에 있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웨이파인딩에 있어서의 새로운 개념으로 생각되는 유열성(Pleasurability)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지 못한 것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Nothegger et al.(2004)은 웨이파인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 논문으로 랜드마크를 가지고 웨이파인딩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가설을 근거로 하여 정성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랜드마크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과 관찰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랜드마크가 결정 지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랜드마크로서 건물정면(Facade)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연구에서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Brown & Laurier(2005)의 새로운 시각의 논문은, 이전 웨이파인딩 관련 연구들에 있어 오랫동안 인지적 접근, 즉 인지지도(cognitive map)의 개념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것에 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웨이파인딩을 민족지학(ethnography)에 바탕을 둔 사회·문화적 행위로서 새롭게 접근하였다. 이 논문은 민족지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지도를 이해하는 경우를 관찰하기 위하여 피실험자들의 비디오 촬영 대화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론으로써, 급한 용건이나 뚜렷한 목적지를 가지지 않은 레저 목적의 웨이파인딩 행위에 있어서, 이전까지



의 인지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했던 연구들과 달리, 개인적인 내면의 인지지도를 참고할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고 이러한 다른 접근법이 향후 웨이파인딩에 있어 실증적 연구에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oluccia et al.(2007)은 웨이파인딩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웨이파인딩 전략을 사용하며, 랜드마크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남녀차이가 없음을 연구결과에서 밝혔다. Speirs & Maguire(2008)은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재정리하고 사람들이 웨이파인딩 여정에 있어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웨이파인딩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Xia et al.(2008)은 호주의 코알라보존센터(Koala Conservation Center)에서 사람들이 웨이파인딩을 하는데 있어 랜드마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한 방문 유경험자와 첫 방문자 등 센터의 지리에 대하여 낯선 경우와 친숙한 경우에 어떠한 웨이파인딩 과정의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밝혔고, 중간정도의 친숙도를 가진 방문자에 비해 첫 방문자와 친숙한 방문자가 더 랜드마크를 주요 단서로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 이유까지는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Smith(2008)의 논문은, 웨이파인딩을 주제로 한 구미권의 논문에 대한 본 연구자의 리서치에서 거의 유일하게 확인된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나온 박사 논문으로 질적연구 방법론중 내러티브 탐구 기법을 사용, 일지(journal)에 가까운 본문과 케이스 스터디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의 논문이다. 미국 Schreiner University의 캠퍼스에서 행해진 일련의 관찰을 통하여, 학생들의 웨이파인딩 행태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적 단서(visual cue)를 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하거나 제거함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결론적으로 환경 안에서 디자인된 시각적 단서가 웨이파인딩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	연구 주제
Lynch (1960)	The Image of the City
Passini (1977)	Wayfinding: A Study of Spatial Problem Solving with Implication for Physical Design
Arthur & Passini (1992)	Wayfinding: People, Signs, and Architecture
Passini (1992)	Wayfinding in Architecture
Passini (1996)	Wayfinding Design—Logic, Application and Some Thoughts on Universality
Golledge (ed. 1999)	Wayfinding Behavior: Cognitive Mapping and Other Spatial Processes
Chen et al. (2003)	Psycho-Pleasurability of Maps for Wayfinding
Nothegger et al. (2004)	Selection of Salient Features for Route Directions
Brown & Laurier (2005)	Maps and Journeys: An Ethno-methodological Investigation
Coluccia et al.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ap Drawing and Spatial Orientation Abilities: A Study of Gender Differences
Xia et al. (2008)	The Wayfinding Process Relationships between Decision-making and Landmark Utility
Speirs & Maguire (2008)	The Dynamic Nature of Cognition during Wayfinding
Smith (2008)	Finding the Way: A Non-fiction Narrative Concerning the Case Study of Visual Cues in Communication Desig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Design with Emphasis on Wayfinding Utilizing Visual Cues

[표 1-1] 선행연구 (국외)

국내 연구로는 웨이파인딩 분야에서는 최초로 박사논문이 1992년도(김종환)에 의해 건축분야에서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 체도 활발히 이루어진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웨이파인딩 분야의 연구가 주로 건축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물의 내부 공간 배치 등 건축요소 관련 연구가 많은 편이다. 김종환의 연구는 건축공간이 제시하는 정보가 혼란한 것을 안내표시체계로 완벽하게 표현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안내표시 체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을 판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찾기 쉬운 공간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보조수단 정도로 이해하였으나, 실증적 분석 결과에서



는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이용수단으로 80% 이상의 이용자가 안내표시체계에서 지시하는 환경정보를 이용하며 약 10%의 이용자가 내부에 놓여있는 설치물 즉 심볼(symbol)에 의존하여 웨이파인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론으로서는 안내표지판의 설치위치나 설치 빈도에 기준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문자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최승희(1996)는 병원을 대상으로 웨이파인딩을 위한 색채모형개발을 진행하였는데, 병원환경은 다양한 이용자 집단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접근하기 쉬운 환경(Wayfinding)으로 계획하는 것으로서 미를 통한 기능적, 심리적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윤경 외(1998)는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이루어진 웨이파인딩 실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웨이파인딩의 주체들이 보이는 행태를 조사하였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간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분석하였는데, 웨이파인딩이 어려운 건물에서 상세한 사인체계를 갖춘다고 해서 웨이파인딩이 용이해지지 않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간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승호 외(2002)는 공간 구조는 웨이파인딩 과정에서 경로의 선택뿐만 아니라 웨이파인딩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남효 외(2002)는 웨이파인딩의 주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지의 정도를 바탕으로 웨이파인딩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강주(2003)는 사인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사인시스템은 방향, 확인, 정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정보를 잘 조직하여야 하며, 일관된 디자인으로 시지각적인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인시스템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점과 예측 가능한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시각 및 내용적인 구조화가 되며, 메시지의 대상 및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지석 외(2006)는 대규모 지하공간이나 실내공간에서는 낮과 밤의 구별이 없고, 사인시스템에 의존하여 길을 찾아야 하는 경우 등 보행자의 웨이파인딩 문제점을 거론하며, 웨이파인딩 단서들이 보행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주는지 조사하여 혼란을 감소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중 길을 찾는 방법으로 실내 환경에 있는 웨이파인딩 단서 중 대부분이 표지판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지판



을 대체로 결절점으로 인식하여 웨이파인딩의 분기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기증(2006)은 병원 건축의 경우 기능성이나, 효율성의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움직임의 패턴을 예측하면서 목적지로의 도달이 순조롭도록 진로 인지와 같은 환경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라고 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인지의 향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환경인지와 환경지각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공간으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시각적인 정보전달체계에 따른 방향성 및 공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접근은 공간의 위계성 및 영역성 또한 진로인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시지각적 진로인지 요소를 상호보완적 정보제공방법으로 활용하여 진로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권효석 외(2008)는 웨이파인딩 보조수단이 웨이파인딩 수행 및 공간지식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웨이파인딩 능력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고정 지도를 이용할 때 웨이파인딩 수행에 있어 방향감각 수준과 공간지식 습득은 지도 활용력 및 시공간 지각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웨이파인딩 능력이 낮은 경우 심적 회전이 필요하지 않은 회전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웨이파인딩과 공간지식 습득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은희(2009)는 가로형 소비 공간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웨이파인딩 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공간에서의 보행자 흐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웨이파인딩과 공간구조 및 환경정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행태에 부응하는 공간구성과 적절한 환경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종원 외(2010)는 일상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공간문제인 웨이파인딩 및 경로 선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길 안내에 초점을 맞추어 제한된 수의 간이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의 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랜드마크라도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물리적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목적 달성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거나, 심미적 만족감 및 이동 행태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접근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	연구 주제
김종환 (1992)	건축공간 지각특성과 경로탐색 측면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최승희 (1996)	병원실내의 Wayfinding 효과를 위한 색채계획 접근방법
최윤경 외 (1998)	공간구조와 학습이 길찾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승호 외 (2002)	공간구조와 길찾기 효율성의 상관관계 분석
김남호 외 (2002)	리모델링된 종합병원단지의 경로선택에 관한 연구
이강주 (2003)	길찾기 행태를 고려한 상업용 지하공간의 Sign System 연구
안은희 (2004)	대규모 상업시설물의 환경특성과 길찾기 성능에 관한 연구
정지석 외 (2006)	코엑스몰에서의 시각적인 길찾기 단서에 따른 보행자의 길찾기에 관한 연구
한기증 (2006)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진료인지계획에 관한 연구
권효석 외 (2008)	길찾기 능력수준에 따라 지도회전이 길찾기와 공간지식에 미치는 영향
김신혜 (2008)	Wayfinding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사인 시스템
안은희 (2009)	가로형 소비공간의 환경특성이 길찾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원 외 (2010)	어디에 표지판을 세울 것인가 길 안내 과제를 통한 개인의 공간인식 및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
김신혜 외 (2011)	공공시설에서의 이용자 Wayfinding 행태연구
김신혜 (2012)	플레이스 브랜딩(Place Branding)을 위한 웨이파인딩(Wayfinding) 적용 연구

[표 1-2] 선행연구 (국내)



제 2 장 웨이파인딩 연구의 고찰

2.1 웨이파인딩 연구의 개괄

2.1.1 웨이파인딩 개요

Lynch(1960)가 웨이파인딩이란 용어를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 아래서 사람이 길을 찾는데 필요한 지식, 지각, 그리고 능력’이라는 의미로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다양한 연구자가 웨이파인딩을 연구하며 그 정의를 수립해왔다. 그 중 웨이파인딩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Passini(1977, 1985, 1992)는 논문 및 도서 등의 연구 결과물에서 웨이파인딩을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동적인 문제해결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웨이파인딩을 사람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설명으로서 공간 안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뜻하며, 그 해결에 있어서 ‘결정-실행-정보처리’의 세 가지 절충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의 정의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는 1999년 출간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웨이파인딩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집대성한 도서, ‘Wayfinding Behavior’에서 Golledge가 정리한 웨이파인딩 정의가 본 논문의 주제에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정의를 따라 웨이파인딩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목적의식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동기가 부여된 행위’라는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웨이파인딩이란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길찾기(안은희, 2004; 양재혁 외, 2009; 조현정, 2011 등)로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Wayfinding이라는 원문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유상준, 2009; 김신혜, 2008 등). 그 외 경로탐색(김종환, 1992), 공간정보(David Gibson, 김성학 역, 2009), 진로인지(한기증, 2007) 등 다양한 명칭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의 Wayfinding 개념이 가지는 포괄적인 뉘앙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듯하다. 일본의 경우, 디자인 분야 및 일반 영일사전에서는 ウェイファインディング라고 원어의 발음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JST 과학기술 용어사전에서는 案内路確認(안내로확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번역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드는 바이다. 이에 연구자는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처럼 ‘웨이파인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되기에, 본 논문에서는 웨이파인딩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김신혜, 2010).¹⁾

2.1.2 웨이파인딩 연구의 전개

‘길을 찾는다’라는 명제는 아마도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생존에 필요한 기본 조건 중 하나일 것이다. Lynch(1960)가 웨이파인딩의 고전이 된 그의 책, ‘The Image of the City’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시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정확하게 지역을 기억하고 길을 찾는다는 것은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모빌(Morbille, 1999/2006)은 웨이파인딩의 초기의 예로 산길에 있는 나무껍질에 표시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원초적인 형태에서 조금씩 발전하며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이것은 사람이 항상 어디서든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여정(旅程)은 인류가 살아온 역사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게 길을 잃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음식이나 물, 동반자를 찾아 나섰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전 역사에 걸쳐 인간 생존에 기본적인(fundamental)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용어나 개념 또한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인류는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발전시키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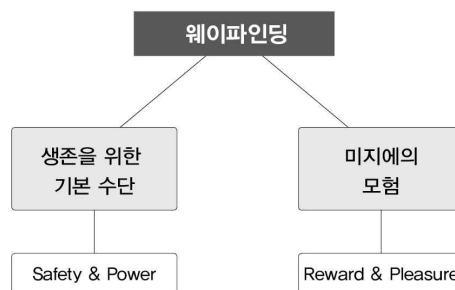
이처럼 길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했기에, 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마술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웨이파인딩에 관한 지식은 특정 계급에 한정되는 것이기도 했다. 천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어떻게 원주민들이 길을 찾아 항해를 하는지가 주목을 받았을 때, 그곳의 항해사들은 지배계급이었고, 그 지

1) 인용의 경우에도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웨이파인딩 이외의 다른 용어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도 본론에서 칭하는 웨이파인딩과 같은 개념인 경우에는, 웨이파인딩으로 용어를 변환하였다.



식은 대대로 전달되는 것이었으며, 매우 폐쇄적인 것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Lynch, 1960/2003). 역사적으로 글자를 아는 것이 지식계급의 전유물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처럼, ‘길을 찾는다’는 것도 그에 상응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길을 찾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길을 제대로 찾아 돌아다니고 같은 사회의 구성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면에서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미지에의 모험을 뜻하기도 하였다. Morbille(1999/2006)은 우리가 미로나 미궁에 대해 매혹을 느끼는 것은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일찍이 유럽에서 행해진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찾거나 전설의 왕국, 프레스터존을 찾아 떠나는 모험은 유럽이 향후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열쇠가 되었었다. 이렇듯 길을 찾는다는 명제의 중요성과 위험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여, 그 결과 등대, 나침반, 육분의(六分儀), 정밀 시계(chronometer) 등과 지도 및 해도 발명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림 2-1] 역사적 흐름에서 웨이파인딩의 두 가지 측면

과학적 연구 역사의 초기에, Charles Darwin은 동물들의 이동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힘에 의한다고 한바있고, George Gray는 인간의 웨이파인딩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뇌가 충분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질서하고 특징 없는 환경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길이 없는 바다나 사막, 정글 등을 누비고 다닌다는 점에서 물리적 가시

성의 중요성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Lynch(1960/2003: 15)는 이것에 대하여 ‘막막한 바다라 할지라도 해와 별뿐만 아니라 바람, 해류, 해조, 바닷물의 색과 같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다고 밝히고,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바다를 향해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심리학자인 Tolman(1948)의 연구는 근대 웨이파인딩 연구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그는 웨이파인딩 분야의 고전이 된 논문 “Cognitive Maps in Rats and Men”에서 쥐를 미로에서 달리게 한 실험을 하여 최초로 공간을 머릿속에 도식화하는 ‘인지지도(cognitive map)’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쥐는 여러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최선의 통로를 선택하는데, 다른 조건하에 놓는 경우에도 내부구조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더 빨리 길을 제대로 찾는 것을 관찰하고 쥐들의 머릿속에 환경에 대한 표상화(representation)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이 표상을 인지지도(cognitive map)라고 명명했고, 이것이 현대 웨이파인딩 개념의 시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웨이파인딩 연구는 두 개의 커다란 갈래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Lynch(1960)의 연구를 필두로 하는,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웨이파인딩 환경에 대한 연구이고, 또 하나는 Passini(1977)를 필두로 하는 인지적 관점에서의 웨이파인딩 연구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웨이파인딩 연구가 주로 건축 분야에서 이루어져왔기에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웨이파인딩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으로 공간 자체의 명료도(legibility)와 공간구문론(Space Syntax)를 꼽아왔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기에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명료도

명료도(legibility)는 이해하기 쉬운 공간(건축물)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Weisman은 사람들이 웨이파인딩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축물의 명료도를 들었고, Passini도 명료도를 웨이파인딩 관련 정보가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환경의 질로 정의하였다. 또한 Kaplan & Kaplan은 명료성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이용이 쉬워지고 선호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안은희, 2004: 11 재인용).

명료도는 주로 건축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언급되었기 때문에, 명료도를 높여주는 요소에 있어서도 평면구성형태(plan configuration), 둘째, 건축적 차별성(architectural differentiation), 셋째, 시지각적접근성(perceptual access) 등의 인위적 건축 환경과 관련된 것이 제시되고 있다. 평면구성형태는 이용자가 쉽고 정확하게 공간구성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건축물의 평면 형태를 의미하는데, Weisman은 평면의 단순성(simplicity)은 웨이파인딩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축적 차별성은 특정 영역이 가지는 건축적 특질의 차별화로서, 웨이파인딩 과정시 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기억을 쉽게 떠올리게 해준다. 그리고 시지각적 접근성은 공간에 대한 시각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의 위치와 목표지점간의 상대적 관계를 파악하게 해주고, 시지각적 접근성이 좋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따라 웨이파인딩 수행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안은희, 2004).

건축 분야에서는 공간배치에 의한 시지각적 접근성이 전통적 사인 시스템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거나(Carpman, 1986; 안은희, 2004: 재인용) 사인 시스템은 공간 배치 문제의 부수적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Beaumont; Weisman, 1981; 백승호 · 최재필, 2001 재인용)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건축분야에서 이루어진 실증조사에서 이용자의 많은 수가 사인에 의존하고 있거나(김중환, 1992) 사인이나 색채 등의 체계를 강조한(한기증, 2007)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와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Peponis(백승호 · 최재필, 2001 재인용)가 1990년에 행한 실험을 살펴보면, 실험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이것은 건축 환경에 있어 공간 구조 자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건축물이 대형화, 복잡화 되는 추세에서는 내부 공간의 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더욱이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인공 환경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환경 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환경에서는 이러



한 시지각적 접근성의 좋고 나쁨을 논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②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은 보행로를 그 기본 분석단위로 삼고 있으며, 이들의 연결 관계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한다(백승호 · 최재필, 2001).

통합도 (Integration Value)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 여기서 통합도의 값이 낮을수록 그 공간에 대한 접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결도 (connectivity Value)	연결도는 한 단위공간이 서로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한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공간의 수로 정의된다.
통제도 (Control Value)	주변의 공간에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 통제도가 높을수록 주변의 공간을 가기위해서 이 공간을 거쳐가야 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 공간구문론에 의한 분석 지표 (백승호 · 최재필, 2001: 2)

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공간의 연결 관계에서 중심부분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구조상 전체 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며, 통합도가 낮은 공간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이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공간이다. 웨이파인딩을 할 때 이러한 접근성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통합도가 높은 공간을 이용하는 경향이 생긴다.

통제도가 높은 공간은 그 주변의 공간에 가기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정도가 높은 공간으로, 전체 공간을 이동하는 중에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연적인 현상으로 통제도가 높은 공간에 대한 공간 이용 빈도가 높다.

연결도가 높은 공간은 그 공간을 이용할 때 다른 공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되어, 연결도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웨이파인딩을 수행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최재필 · 백승호(2002)는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공간외의 모든 환경요소가 배제된



상황으로서의 실험(서울 코엑스 대상)을 통해 통합도, 통제도, 연결도의 값이 클수록 그 공간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고, 공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웨이파인딩을 할 때에는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가 높은 공간이 많이 이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간구문론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 환경에서의 웨이파인딩 연구는, 벽과 바닥, 천정 등 기본적 건축 요소를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순수한 건축 요소만 있는 공간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간구문론으로 파악되는 공간구조와 웨이파인딩 난이도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려는 실증적 실험연구가 몇 번 시도되었지만 크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지 못하였다 (최윤경 1998; Peponis 1990; 최재필·백승호, 2002 재인용). 그 이유는 실제 장소에서 웨이파인딩 실험이 수행되었을 때, 사인이나 랜드마크 등 공간구조와는 관련이 없으나 웨이파인딩에는 유용하게 쓰이는 다른 환경 요인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공간구조 이외의 환경요인이 혼재한 상황에서는 공간구조 자체의 웨이파인딩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안은희(2004)의 연구에서도 대형영화관 같은 유인요소가 있는 시설에서의 공간구문론에 의한 분석은 한계가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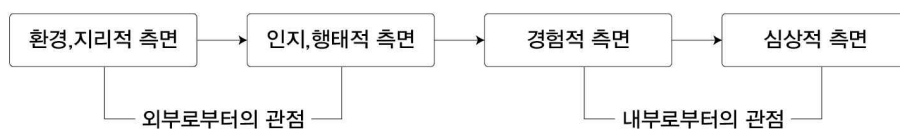
따라서 다른 환경요인이 혼재한 상황이 오히려 실제 웨이파인딩 상황에 더 가깝다는 점과, 공간구문론은 인공적 건축 환경을 설계할 때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본 논문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자연 환경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공 환경(마을 등)을 최대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안은희(2004: 14)의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명료도가 높은 공간이 웨이파인딩이 용이하다는 공통적인 이론적 전제를 가진다’고 지적한 것처럼, 평면 형태가 단순할수록 웨이파인딩이 용이해진다고 할 때, 즐거움이나 호기심 충족이라는 인간의 또 다른 본능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웨이파인딩은 인간의 이동이라는 원초적이고도 필수적인 개념을 다루는 분야이



기에, 근래 들어 웨이파인딩 연구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 그러나 디자인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웨이파인딩 계획이 정보를 인지적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사인 등을 포함한 시설물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웨이파인딩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환경, 지리적 측면과 인지, 행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심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웨이파인딩 개념의 진화

2.1.3 웨이파인딩 주체와 수행 특성

환경에 있어 웨이파인딩의 주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인종, 연령, 성별, 성격이나 능력, 사회계층, 경험 등의 차이에 따라 생기며, 한 사람은 독자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그룹에 다각적으로 속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면서 여성이며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 등의 상태로 분류될 수 있다.

일본건축학회(1998/2002: 187)는 Wapnar를 인용하여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 생물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웨이파인딩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건축학, 가정학, 의료복지학, 농학, 환경학, 인간공학, 지리학, 디자인학, 교육시설학, 노년학, 색채학, 인지심리학, 환경심리학, 경험심리학, 컴퓨터정보학, 인지과학, 인류학, 경영학, 관광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물을 확인하였다.

생물적 차원	인간의 발달적 변화(연령), 성별, 능력, 역량 등의 개인적 속성을 위시하여 심신의 건강, 장애 등의 상태에 따라 환경에의 대응이나 사용이 다르다.
심리적 차원	개인의 성격,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규정하는 환경에 대한 욕구, 가치, 기대가 동기에 따라 환경과의 관계에 차이를 초래한다.
사회·문화적 차원	경험, 가치관, 윤리관등이 사람들의 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표 2-2] Wapnar의 인간의 특성 분류

또한 정무웅 외(2009: 419)는 웨이파인딩에 있어 웨이파인딩 주체들은 학습과 기억의 축적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웨이파인딩 전략을 시행하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전략적 움직임은 웨이파인딩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웨이파인딩이 이루어지는 전체 환경과 목표지점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바탕으로 상당히 체계적인 전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1) 환경 인지의 유형과 인지지도의 형성

(1) 환경 인지의 유형

환경인지 타입의 분류에 있어 성별, 나이, 교육정도, 직업, 문화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 웨이파인딩 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Xia et. al., 2008: 446). 웨이파인딩 수행에 있어서는 환경적 세팅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특정 정보에 대한 선호도로도 결정된다. 환경을 인지(Cognitive mapping)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³⁾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신혜, 2008).

선형적 유형 (Linear organization)	경로의 개념으로 주변을 구성
공간구성적 유형 (Spatial organization)	환경 안에서 주요 인지 요소간의 지형상 관계로 인식

[표 2-3] 환경 인지 유형의 분류

3) Arthur & Passini(1992)가 제안한 개념으로 원문에서는 Sequential leading과 Coordinate leading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Chen et. al.(2003)의 논문에서 쓰인 Linear organization과 Spatial organiz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선형적 유형은 이용자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 방향 전환할 때의 각도, 지점과 지점간의 거리로 환경을 인지하므로, 방향 지시 사인과 같은 선형적 정보가 중요한 반면, 공간구성적 타입은 특정 경로나 결정 플랜을 머릿속에 전개하고서 웨이파인딩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지도와 같은 공간구성적 정보로 환경을 인지한다. 전자는 랜드마크나 회전을 어디서 하는지 등의 정보인 경로 단서(route knowledge)를 사용하고, 후자는 목적지의 대략적인 방위각을 헤아려서 그 방향으로 가는 전체적인 조망(spatial knowledge)을 통해 웨이파인딩을 수행한다(권효석·이장한, 2005).

한편 Malkin(1989: 108)은 웨이파인딩 수행에 있어 사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과 주어진 공간을 이해하는데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히며, 웨이파인딩 디자인은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2) 인지지도의 형성

앞서 언급한대로 웨이파인딩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개념 중 하나는 인지지도(認知地圖: cognitive map)라고 할 수 있다. 인지지도란 사람들이 공간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머릿속에 전체적인 환경적 세팅을 이미지화하는 것을 말한다. Tolman(1948)의 연구에서, 쥐들이 공간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를 학습함에 따라 웨이파인딩의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여 인지지도라고 명명한 이래, 웨이파인딩 관련 연구에서 인지지도는 거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선 인지지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지지도는 사람에게 지각된 환경 특성이나 요소 및 그들 간의 공간적 관계에 관한 내적인 표현방식(internal representation)이다(Golledge, 1999: 6). 환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랜드마크라 불리는 주요 지점과 그 지점들을 연결하는 주변 지역으로 구성되며(Couclelis et. al., 1987; Tversky, 2000; 이종원 외, 2010: 146 재인용), 객체들과 운동 감각 및 시각적, 청각적 암시들의 기억으로 구성되는 정신적 모형(mental model)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Yu & Park, 2002; 유승동, 2003: 16 재인용).



한편 김종환(1992: 34)은 Fisher et. al.(1984)를 재인용하여 인지지도는 정보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 ① 자아중심형 (Egocentric orientation system)
- ② 고정된 위치형 (Fixed Reference system)
- ③ 단일자표 체계형 (Coordinated System)

이러한 분류는 연령에 따른 경험의 축적으로 인하여 발달되기 때문에, 인지능력의 발달단계와 관계가 깊으며, 사람이 환경에 적응을 함에 있어 인지지도의 작성은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일상적인 행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Fisher et. al.은 인지지도의 작성은 ‘어디에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하는가’ 라는 사람에게 있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관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지도의 형태와 특성에 대하여 분류를 시도한 연구에 관하여 이종원 외(2010)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정보의 양과 체계는 개인의 인지지도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고, 형태와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지지도를 ‘경로지도(route map)’와 ‘조망지도(survey map)’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환경 유형의 선형적 유형과 공간구성적 유형과도 관련된다.

경로지도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주요 랜드마크를 연결하는 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한 가지 경로만 계속 이용할 경우 등의 환경에 대한 제한된 경험의 결과이다. Prestopnik & Roskos-Ewoldsen(2000; 이종원 외, 2010: 147 재인용)은 경로지도 구성타입의 경우, 선형의 경로 정보에 의존해 길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친숙한 경로를 이탈할 경우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반면에 조망지도는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리적 정보가 네트워크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로서, 주변 지역을 다양한 경로로 탐색, 경험하거나, 지도나 항공사진 등 환경 전체를 조망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통하여 구성된다. 환경에 대해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양한 경로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대체 경로를 찾아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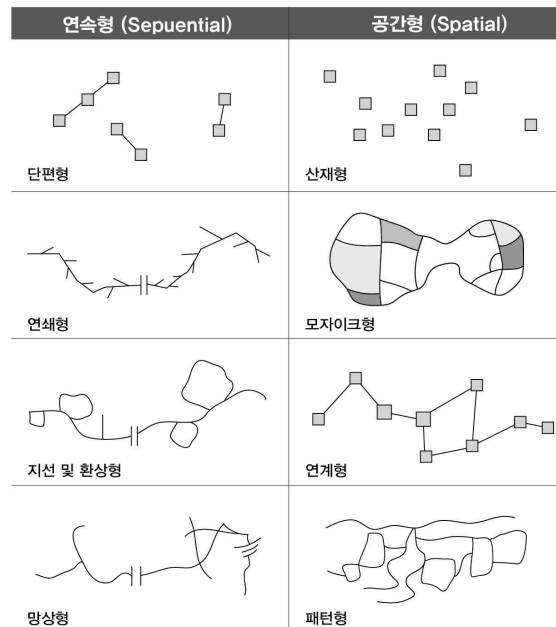


경우 등의 문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Appleyard(1970)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에서의 경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지지도는 경로지도 형태에서 조망지도 형태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지지도의 유형의 차이는 환경인지를 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개인별 차이 및 웨이파인딩 능력과 관련이 깊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절에서 더 논의를 하고자 한다.

Downs(1973; 유승동, 2003 재인용)에 의하면 사람이 인지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감각적 양식을 통한 방법과 지도와 같은 기호 표현을 통한 방법, 그리고 유사한 다른 공간적 위치에서의 경험을 통해 습득된 환경에 대한 추론적 방법 등의 세 가지 상호 보완적 방법을 통하는데, 개인적인 감각적 양식을 통한 방법이 다른 간접적 원천들보다 인지지도 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한편 인지지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Chen et al(2003)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자들이 반영도는 실제 현장과 공간적 관계를 떠올렸으나 나머지 받은 그들이 사용한 지도를 떠올렸다고 하였다.

Appleyard는 1970년 연구를 통해 인지지도의 패턴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2-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연속적인 특질이나 공간적인 특질 중 한쪽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타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다. Appleyard의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시티에 관한 연구에서 표본집단의 33%는 고리형의 지도를 그렸으며, 21%는 지선 및 환상형을, 15%는 망상형의 지도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로는 환경을 조직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견해를 강조하는 것이다(Lang, 1996).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 그리는 지도는 크기나 내용, 정확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차이점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심적 이미지에서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인지 아닌지까지는 확실히 결론짓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 속에 포함시키는 요소들과 그것들을 도입시키는 순서, 그 특질의 중요성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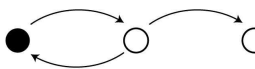




[그림 2-3] 인지지도 형태에 있어서의 개인차 (Lang, 1996: 218)

2) 이동 성격에 따른 웨이파인딩 패턴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있어 우치다(1984: 159)는 이동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의 패턴으로 분류하였다.

이동의 내용	이미지	행동	속도	상태 보행속도(m/min)
F1 지점간의 위치 이동이 행동의 목적		통근, 대피, 약속, 방문	빠름	바쁨~급박 (80~150)
F2 다른 행동 목적 때문에 위치를 이동		유희, 관광, 견학, 쇼핑, 진료	중간	여유~약간 바쁨 (40~80)
F3 이동 과정이 행동의 목적		산책, 하이킹, 조깅, 배회	중간~ 느림	여유 (50~70)
F4 흐름이 정체됨		대기, 휴식, 정체,	느림~ 정지	여유 or 초조 (0)

[표 2-4] 인간의 이동패턴의 분류 (우치다, 1984: 160; 연구자 내용 추가 및 재정리)

F1은 이동의 주된 기능을 다하는 흐름으로, 대개 방향·경로가 일정하고 목적지까지 최단거리가 선택된다. F2는 정해진 규칙 없이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위치 및 방향·경로를 선택적으로 바꾸는 흐름이다. 일상생활에서는 F2의 흐름이 많이 보이며, 반드시 최단 경로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간 배치나 사인 등의 연출에 따라 이동 공간이 선택된다. F3은 여행 등에서 볼 수 있는 패턴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이상으로 이동 과정이 중요하며, 경로는 대개 사전에 계획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결정에는 경로 도중의 쾌적성이나 의외성, 경관의 유무, 피로감 등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F4는 이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며 흐름의 조절에도 필요하므로 이동의 한 상태로 포함된다.

한편 Allen(1999; Nothegger et. al.: 2004 재인용)은 웨이파인딩의 이동 패턴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친숙한 목적지에서의 이동, 둘째, 친숙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탐험적 이동, 셋째,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이다. 인간 생활에 있어 이동 패턴은 한 가지씩 독립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조합되어 출현하며, 한 장소라 하여도 이동의 성격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행태적 성격을 확인하고 각 성격에 맞는 웨이파인딩 정보와 이용자 경험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웨이파인딩 수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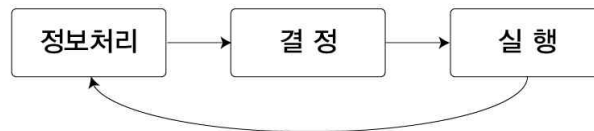
환경심리학자인 Passini(1984)는 최초로 웨이파인딩을 사람이 길을 찾는데 있어 정적인 심리적인 인지지도 작성 자체로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공간문제의 해결과정(spatial problem solving)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무웅 외(2009: 400)는 웨이파인딩을 공간적 정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웨이파인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간적 정위(spatial orientation)	웨이파인딩(wayfinding)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	특정의 목적지에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
정적(static) 인식 과정	연속적인 동적(dynamic) 과정

[표 2-5] 공간적 정위와 웨이파인딩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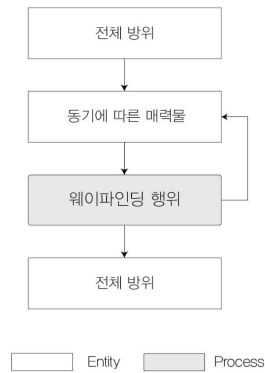
Passini는 웨이파인딩의 구체적 프레임으로써 공간 정보를 인지하고 이미지화 하는 ‘정보처리과정(information processing)’ 단계⁴⁾,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결정(decision making)’ 단계, 행동 계획을 올바른 장소에서 적절한 행위로 실행하는 ‘실행(decision executing)’ 단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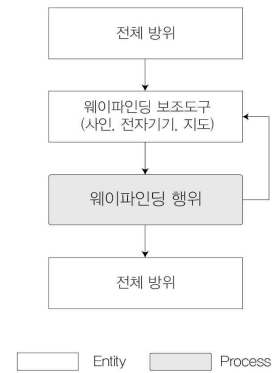
[그림 2-4] 웨이파인딩 수행 과정

Xia et. al.(2008: 448~451)은 호주 코알라보존센터(Koala Conservation Center)에서 이용자들의 웨이파인딩 과정을 연구하고 환경에 대한 친숙도의 단계별로 웨이파인딩 과정을 [그림 2-5]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환경에 대하여 친숙하지 않을수록 웨이파인딩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환경에 대하여 친숙해지고 인지지도가 형성이 될수록 그 과정은 더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지지도가 점차 단순한 경로지도에서 조망지도로 발전한다고 한 기존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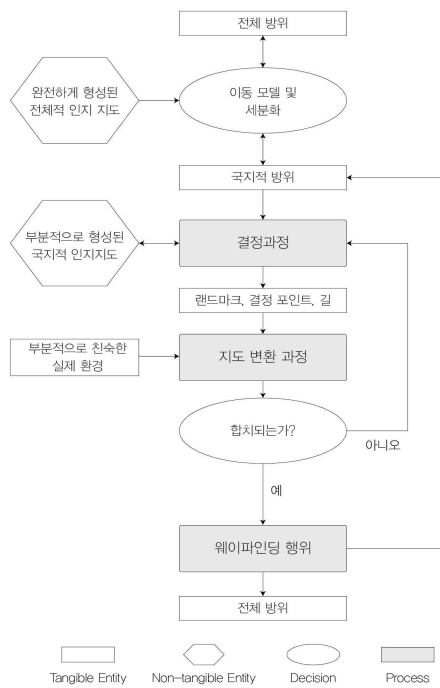
4) 정보 처리는 결정과 실행 과정을 하는데 있어 정보기반을 이루는 환경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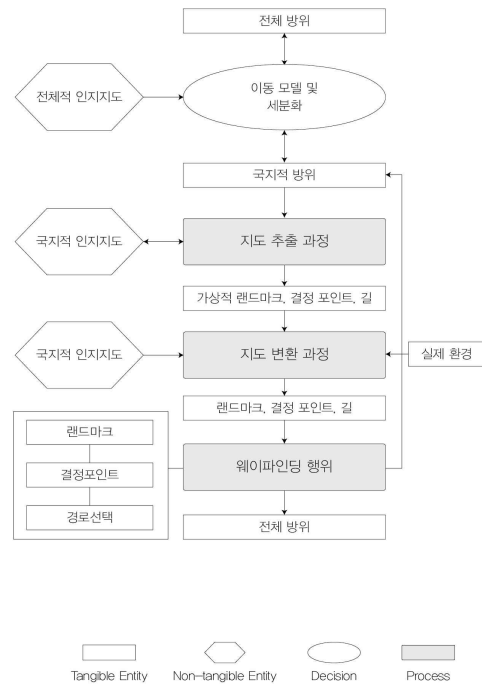
1) 여정에 앞서 인지도가 형성되지도 않고
랜드마크의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의
웨이파인딩 과정



2) 랜드마크는 있지만 여정 전에 인지도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웨이파인딩 과정



3) 부분적으로 인지도가 형성된 상황에서의
웨이파인딩 과정



4) 완전한 인지도가 형성된 상황에서의
웨이파인딩 과정

[그림 2-5] 웨이파인딩에 있어 인지도의 형성 과정 다이어그램

한편 웨이파인딩에서 결절점(結節點) 등 이용자들이 웨이파인딩 수행을 위한 결정을 주로 하는 지점을 결정 지점(Decision Point)이라고 하는데, Arthur과 Passini(1992: 56)는 웨이파인딩 정보 유닛은 결정 지점 또는 그 직전에 반드시 인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정보는 주의를 끌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강주(2003) 역시 많은 사인들이 그저 인터섹션에 사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더 상위개념의 웨이파인딩 결정 플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4) 웨이파인딩 수행 성능의 변인

(1) 웨이파인딩 능력의 차이

권효석·이장한(2005: 2)은 웨이파인딩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서 ① 방향 감각 ② 경로에 대한 지식의 습득 ③ 개괄적 지식의 습득 능력 ④ 지식의 효과적 활용 ⑤ 성별 ⑥ 웨이파인딩에 대한 염려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공간 능력이 좋은 경우는 지도를 보고 쉽게 머릿속에 넣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공간적으로 변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웨이파인딩 수행에 있어 웨이파인딩 능력이 낮은 사람은 주로 특정 건물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랜드마크지식(landmark knowledge)’이나 어디서 회전해야 되는 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식하는 ‘경로지식(route knowledge)’을 이용하는 반면, 웨이파인딩 능력이 높은 사람은 대상들 간의 위치관계를 새가 하늘에서 조망하듯이 인식하는 ‘조망지식(survey knowledge)’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Kato & Takeuchi, 2003 재인용). 따라서 지도를 이용한 목적지 탐색은 조망지식의 습득에 익숙하지 않은 웨이파인딩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지도가 제공한 조망지식을 실제로 웨이파인딩 수행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로지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때 개입되는 심적 회전(mental rotation)⁵⁾ 능력이 웨이파인딩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이용한 웨

5) 지도의 위쪽 방향과 자신이 위치한 방향이 다를 때 지도를 통해 본 지형을 자신이 위치한 방향이나 가야할 방향에 맞게 머릿속에서 계속 회전시키는 작업



이파인딩은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권효석·이장한, 2008: 880).

Arthur & Passini(1992)는 웨이파인딩에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 ① 주어진 정보(information)에 충분한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② 정보를 보고나서 금방 잊기 쉽다.
- ③ 기본적인 픽토그램의 의미를 이해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 ④ 건축적 레이아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웨이파인딩의 실패가 항상 이용자의 잘못만은 아니라, 나쁜 위치 선정, 효율적이지 못한 디자인,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너무 복잡한 지도, 너무 작은 사이즈 등 열등한 디자인 때문일 때도 있다는 점 또한 함께 언급하였다.

(2) 젠더(gender)의 차이

웨이파인딩의 능력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시행되어 왔는데, McGuinness & Sparks(1983; Coluccia et. al., 2007: 142 재인용)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랜드마크 위치를 더 정확한 곳에 그렸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환경에 대하여 익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성별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우선 랜드마크 이름과 장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고, 공간 요소인 길은 소홀히 했다고 밝히고, 공간에 대하여 익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랜드마크 이름과 장소를 더 강화하고 여전히 길은 소홀히 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남성들은 랜드마크 이름, 랜드마크 장소, 몇 개의 길 등 지도의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집중을 시작했고, 시간이 길어지면 랜드마크 장소를 지나가는 길에 집중했다고 보고하였다.

Saucier et. al.(2002)은 남녀가 다른 공간 방향적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방향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남성들은 조망형태의 전략(survey-configuration strategies)을 선호하는데 그것이 다른 전략보다 대개 효율적일 때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한편 Bosco et. al.(2004)도 시각적 공간기억(visuo-spatial working memory)과 정위능력(spatial orientation ability)과의 상관관계는 남자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길의 방향 자체보다는 랜드마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uccia et. al., 2007: 143 재인용). 남성은 랜드마크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동서남북 등의 기본 방위(cardinal direction)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랜드마크를 확인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기억에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Schmitz, 1999; Xia et. al., 2007: 446 재인용).

그 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남성은 조망지식에 의존하는 경향, 그리고 여성은 경로 지식이나 랜드마크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을 제시하고 있어,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웨이파인딩 수행 능력의 차이와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 Coluccia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랜드마크 단서가 있는 경우에 웨이파인딩 수행의 남녀 차이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3) 이용자의 문제 상황

웨이파인딩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공간 내에서의 웨이파인딩이라고 할지라도 종종 커다란 도전을 요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웨이파인딩에서 고려해야할 장애의 종류이다(Arthur & Passini, 1992: 63~74).

지각 장애자 (perceptual impairment)	• 시각 장애자: 나쁜 시력, 부분적 시력, 색맹 등 (시각 장애가 웨이파인딩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고 심각한 지각 장애이다) • 맹인: 시각 능력이 없거나 거의 없음 • 청각 장애자: 청각에 장애가 있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 • 귀머거리: 청각 능력이 없음
인식 장애 (cognitive impairment)	• 발달 장애: 학습 장애, 정신 이상/ 또는 인식 능력이 떨어진 노인 • 상황적 장애: 일시적으로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분노, 혼란, 걱정, 중압감 등을 느끼는 사람, 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노출된 사람



식자 장애 (illiteracy)	· 기능적 식자장애(Functional Illiteracy): 문맹(Illiteracy)으로 인하여 정보가 언어로 표현된 경우에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없음 · 다중어 식자장애 (Multi-lingual illiteracy): 외국에 나갔을 때나, 캐나다 같이 두 개 이상의 국어를 사용하여 언어가 다른 지역의 정보를 읽지 못함
이동성 장애 (mobility impairment)	· 걸을 수 있는 이동장애: 힘이 없거나 균형을 맞출수 없는 상태/ 지팡이나 기타 보행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심장장애나 기타 이동성을 저해하는 건강 상태인 경우 (이런 경우의 문제중 하나는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휠체어 이용자: 영구적/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의지해야 이동이 가능한 경우

[표 2-6] 웨이파인딩시 고려할 장애의 종류

그리고 도보상황에서 환경의 이용자라고 하면 대개 일반인, 즉 장애가 없는 사람(Unimpaired)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나, 위의 상황적 장애에서 언급된 대로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비장애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
- 커다란 박스를 두 손에 들고 있는 택배원
-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영상통화를 하는 청소년
- 전날 밤을 새서 극도로 피곤한 직장인
- 불이 나서 패닉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
- 심야에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빌딩 안에 고립된 사람
- 불쾌한 일을 겪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사람
- 밤길에 괴한이 따라오는 듯 하여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

등은 정상적 인지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일시적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반적인 정상 상황과 같은 웨이파인딩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2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

2.2.1 환경에 대한 지각과 인지

과거에는 인간이 길을 찾는 능력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으나, 인간의 탐색행동은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지각(視知覺)에 의한 인지에 인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것은 현재까지 웨이파인딩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우선 시지각에 대하여 일본건축학회(1998/2002: 56)가 정리한 웨이파인딩에 있어서의 시각이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윤곽을 강조한다.

환경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밝기나 색의 경계부분(edge)이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⁶⁾

② 밝기에 순응한다.

시각적 감지하는데 있어, 시각계(視覺系, visual system)의 감도가 환경의 밝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화⁷⁾하나, 실외 등 밝은 장소에서 갑자기 캄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30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최고의 감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영화관이나 암실 등)은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인접공간에 인위적 조명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③ 깊이를 느낀다.

사람의 시각은 물체나 환경을 볼 때 입체적인 깊이를 느낀다. 이것을 거꾸로 이용한 것이 트릭아트이다.

④ 보고 싶은 것을 탐색한다.

별 생각 없이 환경을 보고 있을지라도 사람의 눈은 흥미를 끄는 대상과 만나게 되면 중심 시야의 선명한 스포트라이트를 맞추어 주시하게 된다. 즉 같은 행동을

6) 그러나 이것이 윤곽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웨이파인딩 사인 서체에서 강조를 위해 윤곽선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이다.

7) 순응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밝은 상태에서부터 어두운 상태로 익숙해져가는 암순응이 있고, 이것은 얼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에 반해 명순응은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익숙해지는 것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에 흥미를 갖는가,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시선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것은 웨이파인딩의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차이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며, 필요성 및 흥미의 유무에 따라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나 물체를 볼 때는 동공이 확대되어 매력을 기록하고자 하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볼 때는 동공은 무의식적으로 축소가 된다.

Schemyakin의 연구를 보면, 그는 사람이 시각에 의해 주변 환경을 인지, 기억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10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눈을 가리고 자신의 방향감각에 의해 똑바로 걸어가도록 하였다. 시각에 의지를 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원을 그리거나 오른쪽, 왼쪽 또는 자신이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관찰하여 보고하였다(안은희, 2004: 9).

그러나 웨이파인딩 상황에서 사람이 의존하는 것은 시각 자체만은 아니다. Correy(1982; 이연희, 2012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주로 시각적 수단에 의존하여 환경을 지각하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오감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정도는 시각 87%, 청각 7%, 후각 3.5%, 촉각 1.5%, 미각 1%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Lynch(1960/2003: 194)는 Brown의 연구를 인용하여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Brown은 피험자들의 눈을 가린 상황에서 미로를 걷도록 하는 실험을 통해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방위 인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첫째, 자신의 움직임을 순서에 따라 기억을 하는 것과, 둘째, 위치에 대한 식별을 도와주는 랜드마크를 사용하는 것 (널빤지의 감각, 소리, 태양광선의 따뜻함 등), 셋째, 방의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위치 및 방향 감각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방을 이동하면서 공간을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한편 사람이 외부 환경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으로는 지각과 인지가 있는데, 먼저 지각(perception)의 뜻을 보면, 지각은 감각기관의 생리적 반응을 통하여 외부의



환경적 자극(stimuli)을 받아들이는 과정 또는 행위를 뜻한다. 지각이 물리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지(cognition)는 그보다 좀 더 심적인 차원의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지식(knowing)에 관계되며, 감지(sensation), 지각(perception), 심상(image), 기억(retention), 회상(recall), 추론(reasoning) 및 판단과 평가의 단계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지각은 사람이 ‘지금/여기’에서 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인 반면 인지는 그 정보가 관련되어있는 과거의 기억 또는 추론이나 판단과 같은 하나의 지식이 획득되기까지의 모든 심리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일본건축학회, 1998/2002: 126). 그리고 환경인지(envIRONMENTAL cognition)는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이나, 어떤 환경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이는 과거 및 현재의 외부적 환경과 현재 및 미래의 인간행태를 연결 지어 주는 앎(awareness) 혹은 지식(knowing)을 얻는 다양한 수단 및 개인의 환경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거나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임승빈, 2007).

그러나 일본건축학회(1998)의 주장에 의하면 환경의 의미가 사람이 접하는 외계의 정보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심적 과정에 있어 지각과 인지의 구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사람은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과 인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최근에는 이미지가 지각적 현상이며, 이용자의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을 통하여 형성되고, 지각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의 양면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종환(1992)은 웨이파인딩을 하는데 있어 인지의 갈등구조에 의한 조건적 반응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반응에 의한 경로선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의 주장은 건축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웨이파인딩에 있어 시각적 인지를 넘어선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에 대한 무의식적 심상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2.2 웨이파인딩에서의 환경 요소

Lynch(1960)는 환경 요소의 유형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논하다 보면 부분과 전체



의 상호관계를 허술히 다루기 쉽다고 지적하며, 공간 이미지의 내용물로 통로(Paths), 가장자리(Edges), 구역(Districts), 교점(Nodes), 랜드마크(Landmarks)의 5가지로 정리하였고, 이것은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다.

	성격	예	이미지
통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줄기. 통로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환경을 관찰하고 다른 환경적 요소와의 관계를 구성함.	도로, 산책로, 통과로, 운하, 철길	선
가장자리	통로로 사용되지 않거나 고려되지 않는 선형의 요소 두 면들 사이의 선형으로 지속되는 경계. 웨이파인딩에 있어서는 장애물에 가까움.	해안이나 철로에 의해 잘린 선, 개발지의 경계, 벽	선
구역	2차원적인 넓이를 가진 부분으로, 사람들은 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음.	건물, 지역, 공원, 공터	면
교점	통로의 접합점으로 구역의 초점.	길과 길이 만나는 모든 곳	점
랜드마크	환경의 정체성과 구조를 밝히기 위한 단서로 이용되는 환경 안에 존재하는 물리적 객체.	탑이나 언덕, 상점의 파사드 등 식별성과 차별성을 가진 세부 요소	점

[표 2-7] Lynch의 환경 요소 (연구자 내용 추가 및 재정리)

환경에 있어 구역은 교점에 의해 구성되며, 가장자리에 의해 제한되며, 통로에 의해 관통되고, 랜드마크에 의해 흩어져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Lynch는 위의 다섯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제공되는 것은, 공간 이미지의 밀도를 높이고 생생하게 한다고 밝힌 후, 그것은 마치 모든 단원이 참가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비유하고, 그것을 전체로서의 느낌(The Sense of the Whole)이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미야자와(1987)는 웨이파인딩에 있어 환경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환경의 스케일과 환경의 분위기, 그리고 환경 구조를 꼽았다. 그는 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단일 요소가 아닌, 각 방문자가 선택한 요소들이 원래 있는 정보와 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정보로서 거리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공간의 문제가 단일 요소가 아닌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이미지로서 형성된다는 Lynch(1960)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2.2.3 웨이파인딩을 위한 환경 정보

인간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으며, 그 환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미야자와(1987/2003: 106)는 일본의 사회심리학자 혼마 미치코(本間道子)를 인용하여 환경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성질로서 다음의 7가지를 들고 있다.

- ① 환경은 시간, 공간에 고정돼 있지 않다.
- ② 환경은 모든 감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 ③ 환경은 중추적인 정보와 말단적인 정보가 있다.
- ④ 환경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상 정보를 발신한다.
- ⑤ 환경은 행위에 의해 규정되며, 경험하게 된다.
- ⑥ 환경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 ⑦ 환경의 경험은 언제나 응집성이 있고, 체계적이며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이 주는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지적, 감성적, 경험적, 상징적 등 다양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Passini(1984)는 웨이파인딩이 사람이 목적지로 가기 위한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현상과 다양한 방식,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기억과 학습, 그리고 이를 위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의 세 가지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웨이파인딩을 보조하는 환경정보로서 사인, 지도, 구두안내, 건축공간의 네 가지를 열거하였다.

Passini는 그 후 Arthur과 함께 쓴 “Wayfinding : People, Signs, and Architecture(1992)”에서 웨이파인딩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건축가와 디자이너, 건물 관리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는 항상 순서대로 제공하며, 둘째, 방문객이 건물 안으로 들어선 시점에 목적지에 관한 정보가 보이도록 해야 하고, 셋째, 사람들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정보는 세 개 정도라는 것과, 넷째, 단순함이 효과적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동일한 정보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웨이파인딩 환경에서 이용자는 다양한 단서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단서는 사인이나 지도로부터 추출되거나 사람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획득될 수도 있고, 또한 자연물이나 인공물로부터 얻어질 수도 있다. 즉 환경 정보는 사람이 웨이파인딩



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대상의 내용, 위치, 시간적 요소로 구성된다(Passini, 1984).

또한 Arthur & Passini(1992)는 사람이 환경적 세팅에서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단서뿐만 아니라 장소 및 그 장소와 비슷한 환경, 또는 일반적 과거 경험에 의한 기억과 지식 또한 환경정보로서 인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웨이파인딩 환경 내에서 지각과 인지는 개념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환경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감각정보(Sensory information):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이다.

② 기억정보(Memory information): 환경에서 주어지는 정보이나, 감각 정보와의 차이는 이것이 직접적 감각정보 없이도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③ 추론정보(Inferred information): 감각정보와 기억정보를 결합하여 얻어지는 정보로, 예를 들어 사람이 자신의 복도를 발견하고 (감각정보), 자신의 목적지는 복도에 있다는 것을 알면 (기억정보), 자신이 목적지에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추론정보) 된다는 것이다.

		분류	정의	내용
웨이파인딩 환경정보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내용 요소	대상이 무엇이나?를 규정	물체, 사람, 장소로서 표현됨.
		위치 요소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정	위치에 대한 상태와 처리과정을 포함함.
		시간 요소	대상이 언제 발생하는가?를 규정	주어진 사건이 발생하는 시각을 설명함.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류	감각 정보	직접 지각될 수 있는 요소들로서 구성된 정보	건축요소, 사인요소, 인적요소로 분류됨.
		기억 정보	주어진 세팅 또는 그와 유사한 세팅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미 저장된 정보	경험된 사실에 의해 축적된 정보를 말함.
		추론 정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추론되어야 하는 정보	감각정보와 기억정보의 조합으로 구성됨.

[표 2-8] 웨이파인딩 환경정보의 분류 (정무웅, 2009: 406)



또한 웨이파인딩에 있어 환경이 사람에게 주는 정보 요소는 사인만이 아니라, 건축, 인테리어, 타인, 음성정보나 촉각정보 등 많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Brown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일련의 촉각에 의한 운동감각 패턴을 종합함으로써 미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인간은 공간적 구도나 공간적 지도보다는 일련의 움직임에 배우며, 여행의 단계마다 이정표를 기억하고 실수가 도움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Tuan, 1977/1995).

본문에서는 감각 정보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로서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인 시스템, 랜드마크, 아이덴티티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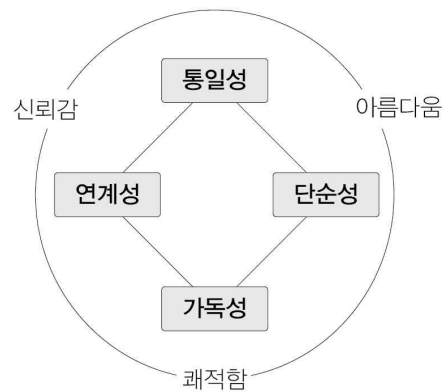
1) 사인 시스템

사인 시스템은 웨이파인딩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수단중 하나로서, 이용자의 위치 확인과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표식·표현·몸짓·손짓·소리·언어 등의 기호체계로서 인간 행위에서 공간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는 지시·표시·유인 기능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며, 문자와 그림을 포함하는 매체이다(宮汝功, 1992; 안상락, 2008: 10 재인용). 웨이파인딩에 있어서의 사인은 영어에서는 ‘Signage’란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웨이파인딩의 선구자적 인물 중 하나인 Paul Arthur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어떤 환경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인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말로 구미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Sims, 1991: 8).

사인의 커뮤니케이션학적 개념은, ‘의미의 내용이 제삼자(第三者)에게 알기 쉽고 시각적으로 신속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안상락, 2008: 11). 좋은 사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사인의 일반 원칙으로서, 가독성, 단순성, 통일성, 연계성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신뢰감이나 아름다움, 쾌적함 등의 심리적 요소를 포함할 때 사인으로서 만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Arthur & Passini(1992: 87)는 사인에 있어 비슷한 기능은 반드시 특정한 물리적 특성을 공



유해야 하나, 규모가 큰 복합적 공간 안에서 모든 사인이 같은 경우 이용자들이 웨이파인딩에 있어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확실성은 웨이파인딩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림 2-6] 사인의 일반원칙 (田中直人, 2002; 안상락, 2008: 12 재인용, 연구자 재정리)

사인의 분류에 있어서는 크게 매체에 따른 분류와 기능상 분류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미야자와, 1987/2003: 121~123).

분류	사인 종류
매체에 따른 분류 (표시 계열 매체 · 비표시 계열 매체)	· 자연계 사인: 태양, 별, 눈에 띄는 산(후지산, 남산 등), 특징적인 나무 등
	· 토목계 사인: 도로, 철도, 다리, 탑 등
	· 조원(造園)계 사인: 공원이나 정원, 가로수, 화단 등
	· 건축계 사인: 특징적 건축물, 연이은 건축물의 배치 등
	· 옥외 시 설계 사인: 전화 부스, 벤치, 우체통, 버스 정류소, 파출소 등
기능상 분류	· 기명(記名) 사인: 대상물 자체를 나타내는 사인
	· 유도사인: 그림과 방향을 나타내는 문자나 화살표, 현재 장소의 거리 등의 도로 상 연속된 마크나 색채, 조명 등
	· 안내사인: 지구나 지역, 내부 건물, 시설 등 전체적인 상황을 표시하고, 일반적으로 기명사인이나 유도사인과 관련지어 사용됨
	· 설명사인: 정보 주체 측의 의도나 사물 내용, 역사, 조작 방법 등을 해설하기 위한 안내판, 게시판 등
	· 규제사인: 안전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 행동을 촉구하는 기능

[표 2-9] 미야자와의 사인 분류

미국 환경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 (The Society of Environmental Graphic Designers; SEG D)는 사인을 목적에 따라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지도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환경아래서 이용자의 위치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orientation sign, 디렉토리 등과 같이 목적지, 사실,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information sign, 공항이나 역, 병원 등에서 볼 수 있는 목적지의 방향을 알려주는 directional sign, 주소표기사인, 시설 간판 등과 같이 목적지를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identification sign, 주차 금지 등 규칙을 알려주는 regulatory sign, 벽화, 건물장식 등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ornamentation sign 등이 있다(金信惠, 1999: 21). 그 외 니시카와는 사인을 ① 공간 사인 ② 방향 사인 ③ 식별 사인 ④ 설명 사인 ⑤ 관리 사인 ⑥ 랜드마크 사인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분류 명칭을 사용한다(西川潔, 2002 : 10).

사인의 분류						
미국 환경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SEGD)	Orientation Sign	Information Sign	Directional Sign	Identification Sign	Regulatory Sign	Ornamentation Sign
니시카와(西川潔)	공간 사인	설명 사인	방향 사인	식별 사인	관리 사인	랜드마크 사인

[표 2-10] 사인의 6가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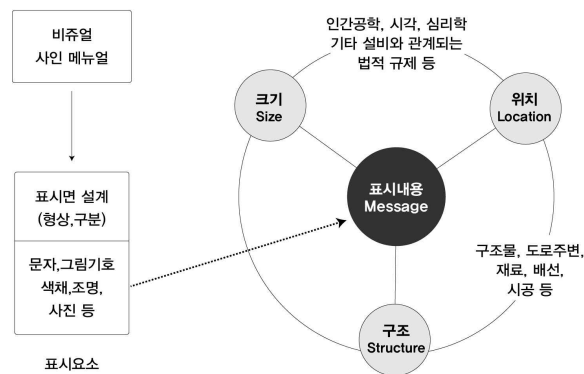
그 외에 사인의 기능의 분류로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내(direction & information) 기능, 환경적 측면에서 상징적(identity & symbol) 기능, 프로모션 측면에서 홍보 및 오락기능(advertising & entertainment)으로 환경변화와 인간 행동 변화에 함께 필요한 안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이정교 · 왕종은, 2001).

사인을 이용하는 대표적 순서는 ① 이용자가 먼저 안내 사인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목적지 위치, 방향, 도착 방법 등)을 기억다. ② 유도 사인으로 기억한 정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동한다. ③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 기명 사인을 통해 목적지 일치여부를 최종 확인한다(미야자와, 1987/2003: 133). 그 외 설명사인이나 규제사인은 장소 상황에 맞게 단독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인시스템이란 “Dictionary of Graphic Design and Designers”에 의하면 ‘도시 환경, 빌딩 또는 전람회 등과 같이 주요한 이벤트와 관련하여 방향지시, 안내 등에 필요한 조직화된 사인 체계’이다. 사인 시스템은 이용자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기능적 역할도 하지만, 설치 위치나 시각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환경의 전체적 이미지 형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김진용 외, 1996: 30).



[그림 2-7] 비주얼 사인시스템 (全国空港ビル協, 1993; 안상락, 2008: 13 재인용)

미야자와(1987/2003: 82)는 사인 시스템은 단순히 시설물 표시 계획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 계획으로서 파악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표시 계획 단계를 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는 행정 관청 측의 일방적인 방향 제시, 주민 혹은 이용자의 자기중심적인 요구, 설계자의 이상론 중 어느 한 가지만 선행해도 사인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2)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웨이파인딩의 맥락에서 사람이 공간을 이해하고 조직하는데 활용하는 준거의 역할(이종원 외, 2010: 146)을 하는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서, 배경에 형성된 맥락과 시각적으로 구별되어 나타나는 대상을 지칭한다(박혜경, 2006:

356). Lynch(1960/2003)는 그의 저서에서 랜드마크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찰자의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가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속된 랜드마크에는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나 관찰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에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능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도감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랜드마크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징으로 ‘배경과 대조를 이루는 특이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랜드마크가 반드시 대형물체일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위치가 더 문제라며 더 많이 주목될 수 있도록 특정한 범위에 위치시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브라운(Brown, 1932; Lynch, 1960/2003 재인용)은 매우 인공적이며 특징이 없는 애매모호한 실험실의 미로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판자와 같은 단순한 랜드마크에도 그것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많은 애착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한편 Mikunda(2004)는 랜드마크를 사람들을 장소로 끌어들이는 요소 중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이것은 장소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랜드마크는 눈에 띄고 사람에게 놀라움이나 다른 자극을 줌으로써 기억에 남는다는 점에 서 즐거움이나 호기심 같은 유열성(Pleasurability)과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Morgan et. al.(2004)는 책의 첫머리에 장소는 항상 브랜드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설령 어떠한 장소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소 특히 도시를 생각할 경우에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나 심지어는 단하나의 상징적 랜드마크를 떠올린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등,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 장소의 랜드마크이자 아이덴티티로서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미야자와(1987/2003: 57)는 랜드마크를 지리적인 심벌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징적인 사물, 예를 들면 그 지역 문화, 역사, 생활, 주민의 희망이나 꿈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는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아이덴티티를 적용하는 것은 그 환경 내의 구성원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그들이 공감하는 환경적 의미를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손일권, 2003; 문상용, 2009: 5 재인용).

Passini(1992: 84)는 웨이파인딩 수행 시 결정이 행동으로 진행되기 전에 그 장소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장소에 뚜렷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아이덴티티는 미야자와(1987/2003)가 언급한 것처럼, 시각디자인의 영역에서 말하는 심벌마크나 로고 타입, 색채계획 등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풍속, 건물, 맛, 예술, 인정, 가구, 표지, 토목시설 등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전통, 습관, 예의범절, 사람, 이벤트 등의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을 시키는 광의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미야자와는 도시를 예로 들며, 표정을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도시나 지역이 태양, 신록, 물, 바다, 동물, 꽃 등 평이한 모티브를 차용하는 예가 자주 보인다고 보고하면서, 그것들이 과연 도시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시의 특징적 요소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무엇을 아이덴티티로 확립해야 하는가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Lynch(1960/2003)는 환경에 대한 심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양, 색, 배치 등이라 하였는데, 이중 색채는 물리적인 지각현상과 더불어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에 의하여 성립되는 시각적 감각으로, 물체의 색이 눈의 망막에 의해 지각됨과 동시에 생겨나는 느낌이나 연상, 상징 등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색채는 의미나 상징성, 거리감, 질감 대비 등을 느끼게 하는 수단이 된다(우석진, 2003; 홍정인, 2012 :19 재인용).

따라서 색채는 기호로서의 사용 가치 외에도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환경에서의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있어서도 강력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색채의 상징성은 특정한 색을 보았을 때 떠올리는 연관된 이



미지, 즉 색채의 연상에서 비롯된다(박연선, 2007; 우경훈·김면, 2010: 58 재인용). 예를 들어, 빨간색은 피나 불, 태양, 사과를 연상시키고, 추상적인 이미지로서는 사랑이나 정열 등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색채의 연상 및 상징의 효과는 역사와 더불어 인류의 생활과 밀착되어 왔으며,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컬러 심벌에 의해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종교에 있어 색은 상징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국가나 지위 등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도 색의 상징성이 이용되고 있다(임경애, 2002: 14).

특정 색채를 보고 어떤 연상을 하는지는 개인차가 있으나, 비교적 개인차가 적은 경우를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연상이라고 일컫는다(박연선, 2007; 우경훈·김면, 2010: 58 재인용). 색채는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며, 집단적 무의식과 개인적 무의식의 두 개 영역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색의 연상이 많은 사람에 의해 공통성을 가져 일반화되면 그 색채는 특정한 의미와 함께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색채의 상징이 뜻하는 의미는 ‘색채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회적 보편성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사물이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편성은 마치 언어처럼 그 사회 안에서의 일반화된 의미를 갖게 되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임경애, 2002: 14).

또한 색채의 특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각 정보로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시각유도기능	색채는 형태와 상관없이 파악되어 자극을 주고 무의식 속으로 전달되어 행동을 좌우한다. 또한 색채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각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표현 기능	형태에서 이미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색채의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사물일 때에 색채가 첨가됨으로 유형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며, 색을 보고 대상의 이미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색 기억이나 색 연상, 색의 상징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상징 기능	색의 연상은 많은 사람에 의해 반응의 공통성을 가지며 전통과 연결되어 일반화되어지면 그 색채는 특정한 의미와 함께 상징성을 지니게 되는데 색채의 상징 반응효과는 언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어 사회성을 갖게 된다.



식별 기능	색은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작용을 주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크기나 형태의 사물일지라도 색채의 차이로써 유형별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색의 식별기능은 형태에 의해 변화되긴 하지만 역으로 색채로서 다양한 요소에 통일감을 부여하여 그룹화 함으로써 식별되게 할 수 있다.
미적 기능	색채는 어떤 상징이나 자연물에 대한 모방 또는 기록의 필요에 의한 도구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인류문화가 발전하자 미적기능이 대두되었다. 미적기능은 그 자체로서 이미지를 전달한다.

[표 2-11] 색채의 기능별 특성 (임경애, 2002: 14~15)

김정희(2013)는 색채가 정보를 소통하고 제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정보이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색채의 적용에 있어 정보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특성에 맞는 색채 정보의 역할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색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2.4 환경 내에서의 행태적 특성

1)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행태심리학자 Barker는 특정한 시간 및 공간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야기하는 사회적·물리적인 상황을 행태적 장(Behavior setting)⁸⁾이라 명명하였다. 행태적 장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Lang은 의해 행태적 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① 반복되는 활동 (a standing pattern of behavior: 정형적 행동), ② 환경의 특정 레이아웃 (milieu: 환경 요소), ③ 1과 2가 일치된 관계 (synomorphy), ④ 특정 시간대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일본건축학회, 1998/2002: 153).

8) 행태심리학에 있어 기본적인 연구단위로서, 집, 강의실, 놀이터 등의 작은 규모부터 단지, 지역, 도시전체와 같은 큰 규모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태적 장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만이 아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임승빈, 2007). 행태적 장에 있어 환경의 기능적 측면 외에 사람의 행동, 집단의 분위기, 주변 건조물의 특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안에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행하여지는가도 고려되어야 한다(우치다, 1984).



Tuan(1977/1995: 120)은 사람이 낯선 환경에서 길찾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가장 먼저 시각적 단서에 의존한다고 밝히고, 또한 사람들이 이미지나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심상 지도(mental map)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 더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종환(1992)은 근래 들어 공간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은 전통적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problem-oriented approach)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가치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user-oriented approach)으로 변모해 가는 추세라고 밝히며, 종래에는 환경이 인간의 행태를 결정한다는 환경결정론적 사고체계였다면, 이제는 환경행태 심리학적⁹⁾ 사고체계의 특성인 과정지향적이며 이해중심 위주의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디자인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 안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인간행태로서 외향적 행태(overt behavior)와 사람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재적 행태(covert behavior) 두 가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태는 사람의 사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위로서 출력(out-put)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외부자극을 획득·수용하는 지각과정(perceptual process) 및 사고나 느낌, 기억의 과정을 포함하는 인지과정(cognition process)을 거쳐 유기체의 동작과 반응으로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출력으로서의 행태과정(behavior process)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거나,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 동기부여(motivation), 정서(effect), 발달(development) 등의 보조적 과정을 통해 행동양식을 보완하게 된다. 행동(behavior)은 목표지향적(goal-oriented)인 것으로서, 행태의 목적성은 지각-인지-행태 과정의 주요 결정인자이다. 즉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체계를 조직하며, 만일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환경정보를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행태적 반응을 보인다.

9) 행태심리학은 실생활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행동, 즉 일상적인 사건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실험심리학과는 다른 접근이 이루어진다(일본건축학회, 1998/2002).



그 외에 정무웅(2009: 419)이 제시한 환경행태 심리학에서 말하는 웨이파인딩에 있어서의 행태적 특성은 다음 두 가지이다. 사람들은 학습과 기억의 축적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웨이파인딩 전략을 시행한다는 것과, 사람들이 웨이파인딩을 위한 정보가 부족할 때 일반 통행인들이 많은 공간을 빈번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과의 높은 조우 가능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문제발생시 안도감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Lewin은 인간행태는 ‘개인의 특성 및 기타 개인적인 인자’와 ‘개인에게 지각되는 환경의 함수’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함수 관계를 유의성(vale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의 생활공간 안에서의 사물이나 상황, 또는 타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유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목마른 사람에게 음수대는 가까이 가고 싶은 긍정적인 유의성을 띄게 되고,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직사광선은 부정적인 유의성을 띄게 되어 이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작용을 일으킨다. Lewin은 인간의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적 유의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유의성은 외적 환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내적 욕구나 필요성, 또는 지각된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임승빈, 200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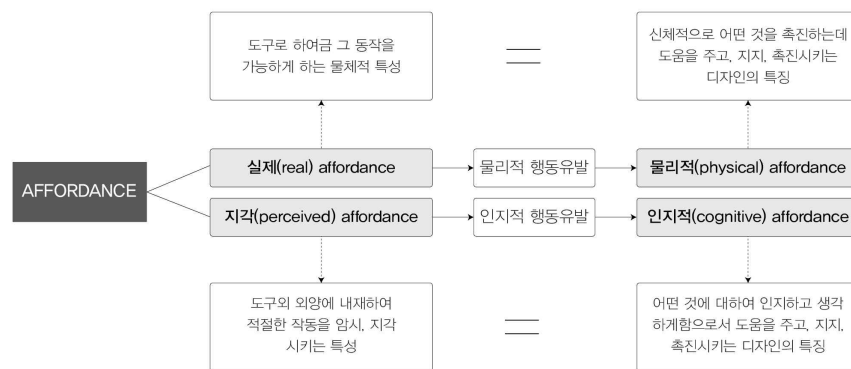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과 인간과의 유의성은, Gibson에 의해 어포던스(affordance: 행동유도성)라는 개념으로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 그는 1979년 출간된 그의 저서 “The Ecological Approaches to Visual Perception”에서 어포던스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제공해주고 자극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한바 있다. Gibson의 연구는 행위자에 의한 ‘직접적인 지각(direct perception)’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직접적인 지각은 어포던스와 그 어포던스를 규정하는 환경내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위를 유발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뜻한다(Joanna McGrenere & Ho, 2000; 김영호, 2004: 20 재인용).

Gibson의 어포던스 개념은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그에 대한 올바르게 못한 적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그 개념에 인지론적 개념을 보강하여 어포던스의 다양한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Norman이다. 그는 어포던스를 ‘사물의 지각된 특성, 실제적 특성, 사물을 어떻게 다루면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권니아, 2011: 12).

Norman은 어포던스를 물리적 어포던스와 인지적 어포던스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물리적 어포던스는 신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촉진시키는 것인 반면, 인지적 어포던스는 어떤것을 인지하고 생각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 어포던스가 물리적 어포던스를 유도하지 못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Hartson, 2003: 권니아, 2011 재인용).



[그림 2-8] Norman의 어포던스 개념도 (김영호, 2004: 23)

어포던스는 문화, 관습, 환경 및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과도 매우 연관이 높은 행태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 있어 사람과 정서의 관련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2) 이동 시의 행태적 습성

사람이 이동을 하는 상황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우치다(1984: 169)는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성을 정리한 토가와를 재인용하여 좌측통행, 좌회전¹⁰⁾, 지름길을 이용, 본능적 습성에 의해 통행

10) 이 자료는 일본에서 연구된 것이므로 일본인의 행태라고 한정될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좌측통행 및 좌회전에 관한 항목은 이전에는 일본과 동일했으리라 추측되나,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우측통행 실시 이후로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시행 초기부터 한동안은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혼란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서서히

로를 선택¹¹⁾한다는 것과 이러한 특성에 더하여, 비상시의 행동 특성으로 퇴피(退避) 본능¹²⁾, 지광(指光) 본능, 추종(追從) 본능을 꼽았다.

또한 Peponis(1990; 김영신 외, 1998: 46 재인용)이 정리한, 웨이파인딩에서 나타난 보행습성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회귀(backtracking)를 피하고, 조건이 비슷하다면 같은 통로로 계속 이동하게 되며, 넓은 공간이나 활기 있는 공간 및 시각적 접근성이 좀 더 멀리까지 나타나는 곳을 지향하고, 이미 경험한 경로 보다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경로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환(1992)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람에 의해 공간 내에서 웨이파인딩 시 표출되는 행태적 속성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속성을 들었다. 첫째, 좌측통행하여 최단거리 경로로 이동하는 경향, 둘째, 평상시 이용하는 경로로 습관적으로 이동하는 경향, 셋째, 어두운 곳 보다는 밝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 넷째, 가급적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석/판단하여 길을 찾으려는 경향,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주 동선에 추종하여 군집행동을 하는 경향 등이다.

그리고 Xia et. al.(2008: 452)은 관찰 결과로서 사람들이 웨이파인딩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게 걸리는 시간’, ‘가장 적은 방향 전환’, 또는 ‘가장 경치가 좋은 길’이라고 보고했고, 이 선택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종원(2010: 156)의 실험에서도 실험참가자들이 경로를 선택할 때 고려한 것으로, ‘최단거리’, ‘큰 도로’, ‘경관이 좋은 경로’, ‘갈림길이 적은 길’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한국인의 행태적 습성도 점차 우측통행으로 속성이 바뀌리라 추측되는 바이다. Underhill(1999/2000: 93)이 미국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무심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국내 역시 연구자의 최근의 실제 관찰에서도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관찰하였으나, 이것을 밝히는 것은 본 논문의 주제와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파악은 하지 않았다.

- 11) 낮선 곳에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동물 세계에서도 위험을 느꼈을 때 본래의 출입구로 돌아가는 본능으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해 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지의 경로를 선택하기보다는 온 길로 되돌아가거나 일상 흔히 사용되는 경로로 탈출을 꾀한다.
- 12) 환경에서 이상상태를 감지한 후 재해 등 이상이나 위험이 확인이 되면 반사적으로 그 지점에서 먼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습성	우치다 (1984)	Peponis (1990)	김종환 (1992)	Xia (2008)	이종원 (2010)
좌측통행	○		○		
지름길/최단거리	○	○	○	○	○
본능적 습성/습관	○	○	○		
퇴피	○				
밝은 곳	○		○		
추종/군집	○		○		
넓은곳/풍광 좋은 곳/활기있는곳		○		○	○
시각적 접근성이 좋은곳		○			
새로운 경로 선호		○			
스스로 해결			○		
방향 전환 적은 곳				○	○

[표 2-12] 인간이동행태 연구 공통사항 비교

위 연구들의 이동행태에 있어서의 습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큰 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람은 가급적 최단 거리를 택하고, 직선으로 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본능적 또는 무의식적인 습관에 따라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넓거나 밝은 쪽을 선호하고 활기 있고 풍광이 좋은 쪽으로 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흐름이 있는 쪽으로 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대개 무의식적 레벨에서 행해지는 행태습성이다.

이동행태 습성	
1	가급적 최단 경로 및 직선 경로 ¹³⁾ 를 선택한다.
2	본능적 습성이나 무의식적 습관에 따라 이동한다.
3	넓거나 밝은 쪽, 활기 있고 풍광이 좋은 쪽을 선택한다.
4	사람들의 흐름을 추종한다.

[표 2-13] 인간이동행태의 주요 습성

- 13) 사람은 직선 경로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직선으로 정면을 향해 앞으로 걸어간다. Underhill(1999)은 이 사실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반적인 상업적 환경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옆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 그려진 인물들처럼 옆걸음질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웨이파인딩 환경에서 많은 사인 관련 요소들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2.3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

바슐라르(Bachelard, 1957: 114)는 “공간의 시학”을 통해 ‘지리학자들이 먼 나라들을 답사하여 오두막집들로 이루어진 마을의 사진들을 우리들에게 가져와도 소용 없는 것이다. 전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들의 과거는, 우리들이 본 모든 것,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거기서는 오히려 이미지가 우리들을 인도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환경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인간의 삶과 경험에 전 생애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미지, 즉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심상 및 상징성과 그에 대한 표현은 지금까지 수많은 인문학자, 철학자, 문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연구되어 왔다. Ward & Russel(1981; 강제정 2003: 222 재인용)도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만으로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은 환경의 복잡한 이미지를 연구하는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정장소의 이미지는 그 장소의 물리적 속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문·철학적 관점을 포함한 정서적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내재된 공간 환경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2.3.1 환경의 이미지

웨이파인딩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는 환경의 이미지(image)로서, 개개의 인간이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합적인 심상을 뜻한다(김중환, 1992: 32). 웨이파인딩에 있어 최초로 인간이 환경을 느끼는 이미지로서 연구를 한 학자는 Lynch이다. 그는 우리가 객체로서의 환경 그 자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쉽게 이미지화(imageable) 될 수 있는 공간은 잘 형성되고, 잘 구별되고, 뚜렷하게 보임으로서 사람들에게 쉽게 수용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Lynch, 1960/2003: 23).

Lynch는 그의 책 본문에서 도시 시민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¹⁴⁾, 그녀



는 장소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은 경우 오직 사인에 의존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Lynch(1960)는 연구 대상 지역인 보스턴, 로스엔젤레스, 저지시티의 이용자인 시민과 방문객이 가지고 있는 도시 곳곳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웨이파인딩을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시각적 단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이미지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거리에서 특별한 용도 또는 행동이 집중하게 되면 관찰자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야자와(1987/2003: 66)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웨이파인딩에 있어 인상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장면 이미지(scene image) 조사 결과, 평균적인 거리구성 요소에 있어 해당 면적이 큰 것이 많기는 했으나, 그보다는 다른 곳에는 없는 특징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Lynch에 의하면 뛰어난 환경이미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 감성적인 안정을 주므로, 그는 외부 세상과의 조화로운 관계 확립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관계는 길을 잃었을 때의 두려움과 반대되는 것으로써, 환경이 친근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 구분되어 질 때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웨이파인딩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는 개인에게 전달된 환경이 반영되어 나타난 외부 세상에 대한 내적 이미지인 것이다. 이 이미지는 즉각적인 감각과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기억의 생산물이며, 또한 정보를 해석하거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이용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환경이미지를 정체성, 구조, 의미의 세 가지로 분석하였는데, 이 요소들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체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먼저 물체가 다른 물체와 구별될 수 있고 독립된 실체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구조	그 물체와 관찰자 및 다른 물체와의 공간적이고 패턴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의미	물체는 관찰자에게 실질적이며 감성적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 2-14] 환경이미지의 분석 요소 (Lynch, 1960/2003: 20)

- 14) “내가 페어뷰 에비뉴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곳을 알아 볼 수 있나구요? 바로 도로의 표시죠. 당신이 이 도시에서 어떠한 거리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별되는 것은 없어요. 단지 아파트와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Lynch, 1960/2003: 51)



이렇듯 환경이 물리적 객체로서 주는 개념이 아닌 사람이 환경에 대하여 주관적 주체로서 받아들이는 심상적 개념을 이미지어빌리티(Imageability)라고 하며, 이것은 물체들이 보이기 쉽다는 것 외에도 강렬하게 감각에 호소한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기 쉬움(legibility), 아니면 보기 쉬움(visibility)과도 같다고 하였다(Lynch, 1960/2003: 22).

Downs & Stea(1973; 김종환, 1992 재인용) 또한 형태의 명료성과 조화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환경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는 환경 내에서 이동을 하고 길을 찾아가는데 있어 인간의 행동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인간의 행동과 지식을 축적하는 체계가 되며,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웨이파인딩 (Wayfinding)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몇 가지의 감각적인 단서가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조직됨으로써 가능.
일반적 인식의 틀 (General Frame of Reference)	이미지는 인간들이 행동하고 지식을 축적하는데 참조되는 틀로서 작용하며 이는 가치관, 관습, 문화체계와 같은 것임.
행동의 형성 (Organizer of Activity)	특정 장소가 지닌 이미지는 그곳에서 인간에게 공간적인 특성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
안정감 부여	이미지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순화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정립시킴.

[표 2-15] 환경 이미지의 역할 (김종환, 1992: 32 연구자 재정리)

Lynch는 웨이파인딩 환경에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공간에의 이미지는 연속되는 것으로, 한 요소가 혼란스러운 경우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자체는 정확하거나 실제의 축소 모형이 아니며 현실을 일관되게 유추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이미지는 현실의 요소들을 줄이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현실에 어떠한 요소를 추가하는 작업을 통하거나 현실의 요소를 섞거나 왜곡하거나, 부분을 관계시키거나 구성하여 생겨난다. 비록 이미지가 현실을 재정리하고 왜곡한 ‘비논리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것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환경을 이미지화 하는데 있어, 현실의 왜곡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실에 대한 지형적 불변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즉 방향은 뒤틀어지고, 거리는 늘어나거나 줄었고, 커다란 형태는 정확한 비례에서 바뀌어 있었으나 순서는 거의 정확한 반면, 지도는 다른 순서로 다시 맞추어져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속성은 환경 이미지가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도 피력하였다. 환경에 있어 이미지어빌리티를 높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환경의 부분을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일을 의미하며, 통로는 동선의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환경 및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강한 기억과 느낌으로 남아, 많은 작가들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곤 해왔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는 그의 소년시절 지냈던 마을의 교회 첨탑을 묘사하였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첨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낮은 지붕들 위에 갑자기 솟아있어서 언제나 그 주위 것들을 위압하고 있었다.’고 하며, 그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낱낱이 표현하며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미지를 묘사하였다(Proust, 1954; Lynch, 1960/2003: 189 재인용).

Lynch는 사람들이 도시를 생각하거나 기억할 때 쓰이는 일관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실제로 그 환경을 관찰하고 있을 때 생기는 이미지와는 상이하게 다른 것이다. 사람이 환경을 지각, 인지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의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물리적 환경요소 가운데 강한 인상 혹은 의미를 주는 요소는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곧 지워진다(안은희, 2004). 미야자와(1987/2003)가 사인은 문화를 전하고 키우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웨이파인딩과 관련된 환경 이미지는 단순한 인지적 정보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이나 경험, 관습, 생활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은희(2004: 57) 역시 대규모 상업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에서, 공간간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자들이 ‘분위기’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답



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요소보다는 요소들의 합으로 여겨진다고 추측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이미지의 구분을 살펴보면,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된다. 인지적 이미지는 어떤 장소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믿음(belief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서적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feelings)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지식이나 객관적인 정보의 의해 형성되는 인지적 이미지와 달리 정서적 이미지는 주로 개인들의 가치나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프랑스에선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프랑스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에 해당하고, 프랑스하면 낭만적인 느낌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는 정서적 이미지에 해당한다(Gartner, 1993; 정철 외, 2010: 19 재인용).

2.3.2 기억과 경험에 의한 정서

1) 환경에서의 기억과 경험

Perin(1970; 김종환, 1992: 37 재인용)은 환경정보가 기억에 의존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환경은 환경적 정보를 기호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사람은 그 의미를 해득(解得)하고 행동결정의 바탕으로 삼는다. 기억은 협의의 기억과 광의의 기억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는 어떤 사항이 과거에 특정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다는 분명한 느낌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인지발달에 따른 모든 산물에 대한 축적으로써 이전에 획득한 선형적 도식(Schema)을 기억 속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형적 도식은 환경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간은 선형적 도식에 의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미래 행동을 준비하기도 한다.

한편 Murakoshi(2000; 안은희 2004 재인용)는 환경 내에서 길을 찾는데 있어 장면(Scene)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장면은 공간관계를 위한 주요 지점(anchor), 즉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을 정확



하게 그려내지는 못하더라도, 장면을 기억함으로써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인지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Kahneman(2010)이 기억과 경험에 관하여 강연한 내용은 웨이파인딩 과정에 있어서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는 사람에게 있어 ‘경험의 주체’와 ‘기억의 주체’가 다르며, 어떠한 경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그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주 발생하는 예로써, 누군가가 일주일의 환상적일 정도로 멋진 여행을 경험한 후, 마지막에 공항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면 그에게 있어 그 여행은 멋진 일주일을 보냈다가 마지막에 잠깐 안 좋았던 여행이 아닌, 모처럼의 일주일의 여행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여정에 있어 마지막의 순간이 사람에게 주는 느낌은 매우 특별하고, 만일 그것이 흐지부지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더욱이 웨이파인딩에 있어 여정의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웨이파인딩 실패를 넘어서는 정서적 재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Tuan은 Oakeshott를 재인용하여 경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2-9] 경험의 개념 범위 (Oakeshott, 1933; Tuan, 1977/1995: 23 재인용)

Morbille(1999/2006)은 장소에 있어서는 경험이 곧 브랜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지보다 이용자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브랜드는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장소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긍정적인 경험은 장소에 대한 충성도 및 장소 브랜드의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권민(2010: 34)은 스캇 데밍의 말을 인용하여, ‘브랜드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나 신념이 될 정도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브랜드는 느끼는 것이며, 사람들은 감정을 수반하는 적절한 경험들을 통하여 브랜드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며, 사람들이 정말로 감동하는 부분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닌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경험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장소야말로 경험의 과정을 최적화시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서적 이미지로서의 장소감

Tuan(1977/1995)은 장소를 공간과 대비시킴으로서 그 의미를 공고히 하였는데, 장소와 공간은 연속선상에 있기에 각각을 정의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밝히고 인간의 경험에 있어 공간과 장소의 의미는 종종 혼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간(space)은 ‘구체적인 거리, 방향,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곳, 즉 물리적 형태와 공간의 내부에 주목하는 개념인 반면, 장소(place)는 가시적(tangible)이거나 비가시적(intangible) 형태 둘 다를 포함하는, 인간의 경험과 인식 같은 관념적 차원까지 포함하며 관계와 맥락에 주목하는 개념이다(박상훈 · 장동련, 2009: 39).

일반적으로 장소는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지만, 그 기능적 특성을 볼 때, 어느 특정한 지점 혹은 지역을 다른 곳과 구분해주는 의미’이기도 하며, 특정 공간과 관련된 친근감, 상징, 문화적 실체를 포함한 총체적 삶의 가치가 구현되는 장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과 이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이규목, 1988; 조현주, 2010: 76 재인용). 장소는 일정한 공간 내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유된 가치 · 신념을 보유하는 곳(이진희, 2003: 21)이며, 장소를 아는 것은 시간을 요하며 또한 잠재의식적인 중



류의 인식이 된다(백선헌, 2005: 63). 이러한, 장소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의식적이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상에 대한 연구는, 사람이 낮은 환경일지라도 순조롭게 길을 찾아 나아가고 또한 그 장소에 대한 친밀감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uan(1977/1995)에 의하면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에 됴에 따라, 그리고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이 명확한 뜻과 의미를 획득할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

사람이 활동을 이루는 장소는 크게, ‘주거 공간’과 ‘일터’가 있으며, 그 외에 대중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사회적 공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Mikunda(2004)는 그것을 각각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 제3의 공간으로 명명한다. 지금까지의 공간¹⁵⁾이 주거, 일터, 그리고 인위적으로 건조되고 연출된 사회적 공간의 개념이었다면, 지금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자연주의적 환경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조명 받아왔던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서 ‘제4의 공간’이라고 불리어져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공간은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만들었으며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 어쩌면 인간의 오만한 공간이었다면, 제4의 공간은 자연이 주인이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 일부분일 뿐인, 즉 인간과 다른 개체가 동등하다는 겸허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연 안에서의 이동환경을 생각해볼 때, 제3의 공간이 사람이 내 집같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연출되고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면, 엄밀한 의미의 종교적 순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례라는 표현을 쓸 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성스럽기까지 한 경험으로서의 제4의 공간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자연을 느끼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나를 느끼는 공간이며, 불편함과 고통도 감수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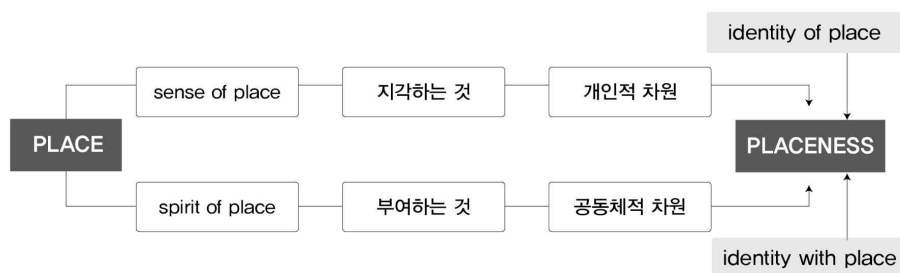
15) 본 논문에서 논의한 바로는 제1의 장소, 제2의 장소 등과 같이 장소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나, 일상생활의 사용에 있어 공간과 장소,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장 자체 내의 맥락에 따라 혼용되는 경향이 있고,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이래, 이러한 경우에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거의 표준화된 느낌을 주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있다. 그러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 갑자기 자연만 존재하는 원시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절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의 환경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백선헌(2005)는 기존 논의를 종합하여 장소의 요소를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문화적 요소, 상대적 요소, 정서적·상징적 요소 등 네 가지 요소로 재구성하였는데, 이중 장소의 정서적 요소는 인간의 기억과 애정으로 구성이 되며,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며, 장소애는 애착을 바탕으로 하는 친밀감의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해석된다. Tuan(1977/1995)은 또한 장소에 있어 정서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 안에서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정서적 차원의 고려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어떤 장소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사람이 그 장소에 대하여 장소감을 기르고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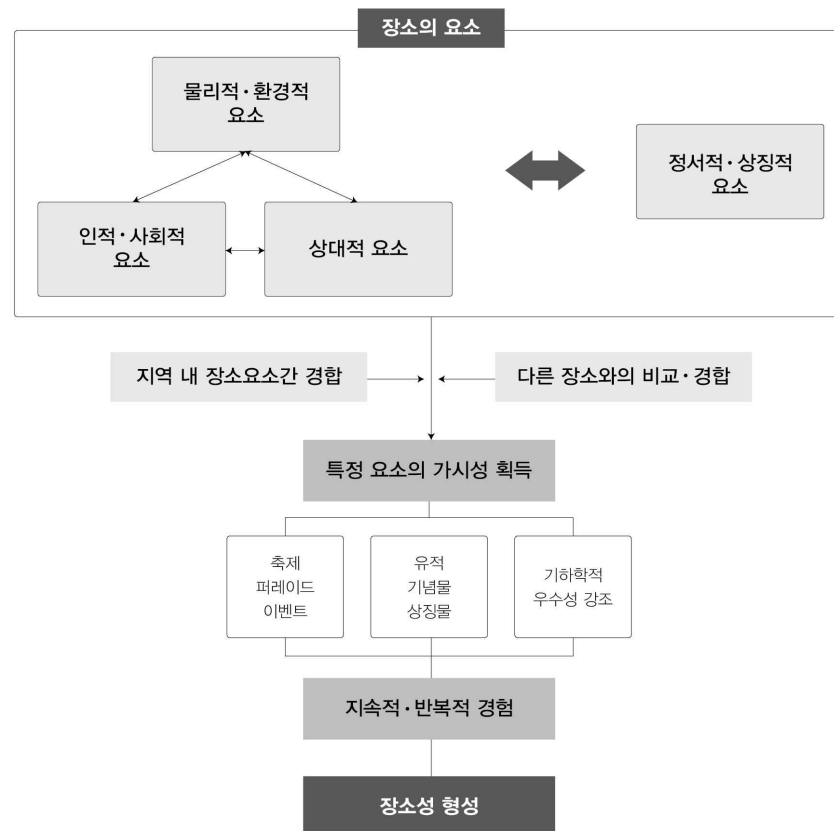
한편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총체적 특성을 ‘장소성(placeness)’이라고 한다(최막중·김미옥, 2001: 154). 장소성은 구체적으로 장소가 지니는 의미이며,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그림 2-10] 장소와 장소성의 관계 (황용섭, 2010: 73)

장소성의 형성요인으로는 ① 물리적 요인, ②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활동, ③ 이들이 존재하게 되는 시·공간적인 맥락, ④ 이들이 갖는 의미의 4가지 요인의

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장소성 형성의 재료가 되어 장소의 이용자들에게 독특한 장소성을 제공하게 된다(이진희, 2003).



[그림 2-11] 장소성 형성 과정 (백선헌, 2005: 66)

Tuan(1977/1995)은 장소성의 형성 요소로 ‘시간’과 ‘가시성’을 들었는데, 전자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측면에서의 시간이고, 후자는 장소의 특정 요소가 가시화되고, 이러한 가시화된 요소를 이용자들이 경험한다는 측면이다. 환경에서 같은 활동이 반복되거나 연관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이 곳은 어떠한 곳이다’라는 장소에 대한 인식이나 의미인 장소성이 형성되는 만큼, 이용자의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특질을 갖추고, 그에 부합되는 경험이

기대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장소성과 관련된 장소의 이미지 축적과 방문 의도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2-12] 장소이미지 축적과 방문 의사결정 과정
(Gunn, 1972; 이정훈 외, 2006: 22 재인용)

2.3.3 환경과 정서의 상호 작용

1) 환경에 대한 정서

웨이파인딩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는 인지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환경과 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웨이파인딩 개념을 논할 때 인간의 기본적 행태와 행태적 장(behavioral setting)에서 사람이 환경에 가지는 정서적 특성을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미야자와(1987/2003: 52)는 환경이 인간의 정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심리상태가 다시 외부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환경심리학자 Canter의 흥미로운 실험에 대해 인용하고 있다.

그는 미적인 단계가 서로 다른 4개 방, 즉 아름다운 느낌, 평균적 느낌, 보기 싫은 느낌을 주는 환경에서 피실험자들이 사람 얼굴 사진을 보고 어떤 인상을 받는지 관찰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같은 재료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즉 환경이 인간의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웨이파인딩 환경과 관련되어 많이 언급되어온 정서는 ‘즐거움’과 ‘호기심’이다. 우치다(1984: 251)는 생소한 환경으로 들어간 경우 새로운 대상과 맞닥뜨렸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인지하기 쉬운 것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고 당황하는 행동(wayfinding behavior)을 나타내나, 한편으론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대상이 아니면 호기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Morbille(1999/2006) 또한 어딘가에 물건을 숨겨놓고 그 것을 찾도록 인터넷 상에 올리는 웹사이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지의 것을 찾아 가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 본능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스터리(Mystery)와 신비감(Fantasy)도 인간이 장소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전감이 전제로 될 때만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테마파크에서 무서워하면서도 유령의 집에 들어가거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안전하다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스릴이 쾌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야자와(1987/2003) 역시 사이클링 코스 전용 사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고, Lang(1996: 209)도 여행자들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을 돌아다니며 길을 찾는 일은 상황의 통제 안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한 즐거운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2) 환경에 대한 심상의 형성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받으며, 사람의 환경, 문화, 관습 등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 지속적인 정보를 쌓아나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굳이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며 이동해간다. 사람이 가진 이러한 환경 내에서 이동행위를 함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상에 대한 고려 또한 웨이퍼인딩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심상 중 꼽을 수 있는 것이 환경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징’과 환경에 내재된 ‘은유’가 있다.

(1) 환경이 나타내는 상징성

상징은 대상물이 갖는 기능적 용도 이상의 함축적 의미를 말하는데, 이러한 대상은 물질, 사람, 또는 환경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일종의 심리적 연상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사건으로부터 유래된다(Lang, 1996: 309). Lynch(1960/2003)는 Gautier et al.(1908)을 인용하여 사하라 사막을 누비는 미즈베드족에 대하여 쓰면서, 사막위의 교차지점에 돌이 쌓여 표식이 되었는데, 그 표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표식은 신성할 정도의 특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예를 언급하고, 풍경을 상징으로 구성하는 것은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인간과 환경 사이에 감정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성립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임승빈은 환경에서의 행태심리에 관하여 논하면서 시각적 선호를 결정짓는 변수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중 상징적 변수(symbolic variables)에 관하여 비중있게 다루었다. 그는 Heath(1968)가 발견한 일정 환경에 함축된 상징적 의미 또한 시각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Heath, 1968; 임승빈, 2007: 135 재인용). 예를 들어 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일한 슬라이드에 호수(lake)와 저수지(reservoir)로 각각 이름을 붙여 그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호수라고 한 경우에 시각적 선호도가 더 높았고, 숲의 경우에는 자연림(natural forest)과 수목농장(tree farm)으로 명명하여 비교한 결과 자연림이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Anderson, 1981; 임승빈 2007: 135 재인용). 즉 동일 경관이



라 할지라도 그 것이 더 자연에 가까운 의미를 내포할 때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Lang(1996: 211)은 Carr(1967)을 인용하여 우리가 인습의 포로라고 칭하고, 사람은 모두가 동의하는 공간적 상징 및 사람이 환경 안에서 명시적이고도 함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공간적 상징물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은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에 대해, 예를 들어, ‘빈민가’나 ‘고급주택지’ 등의 명칭을 부여한다. 이러한 명칭들은 각각 그것과 연관된 행동 장치에 대한 이미지를 상기시키며, 우리는 그것이 특정한 고정 행동 패턴과 환경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디자인에 있어서도 영향을 발휘한다.

인용을 통하여 임승빈은 디자이너들이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고 밝히고(Agrest, 1977; Jencks, 1972; Stephens, 1979; 임승빈, 2007: 135 재인용), 환경에 있어 그곳에 내포되어야 하는 상징적 의미를 밝혀내고, 물리적으로 적절한 구성을 통하여 그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환경에 내재된 은유

Lakoff & Johnson(1980/2006)은 자연에서 공간적 의미를 갖는 은유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어, 사고, 행동에 널리 스며들어 있다고 밝히고, 사람의 개념은 사람이 감지하는 방식이나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방식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사고방식과 경험, 일상의 행위들은 많은 부분이 은유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개념체계는 은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방식 또한 은유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언어인지학에서는 은유가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닌, 사건과 행위를 이해하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Lakoff & Johnson이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로써 제시한 많은 예시들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된 예로서 두 가지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은유	물리적 근거	예시	환경 심상 적용
건강과 삶은 위/ 아픔과 죽음은 아래 (Health and life are up/ Sickness and death are down)	죽으면 당신은 물리적으로 '아래'쪽에 있다.	그의 건강은 최고의 상태이다. (He's in top shape)	병실의 경우, 건강해지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므로 위쪽의 위 치가 이용자의 심상과 합치.
		그는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He dropped dead)	장례식장은 지하에 위치해있는 것이 이용자의 심상과 합치.
높은 지위는 위/ 낮은 지위는 아래 (High status is up / Low status is down)	지위는 (사회적) 힘과 상관관계가 있고, (물리적) 힘은 '위'이다.	그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다.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회사 사장실, 중역실은 고층에 있을 때 심상과 합치.
		그는 사회 계층의 밑바닥에 있다. (He's at the bottom of the social hierarchy)	청소관리실은 낮은 층이나 지 하에 있는 것이 심상과 합치.

[표 2-16] 지향적 은유의 예시

이러한 공간의 은유는 이동과 여행에서도 이어진다. Solnit(2003: 117)은 만일 시간이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공간적으로 여행하는가와는 상관없이 삶을 구성하는 시간의 전개는 여행이 된다고 표현한바 있다. 걷기와 여행은 우리의 사유와 언어에서 핵심적 비유가 되었고, 너무나 깊숙이 박혀있어 오히려 거의 알아챌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또한 이동의 비유는 ‘똑바로 나아가다, 목표를 향해 가다, 앞서 가다’ 등 무수하며, 우리가 ‘이정표로 나아갈 때’ 뭔가가 ‘길을 가로막고’, ‘길을 찾게 도와주고’, ‘선두에 서게’ 된다, 우리는 ‘갈림길을 만나고’, ‘궤도에 오르고’, ‘수순을 밟는다’, 그리고 난관에 봉착한 사람은 ‘길 잃은 영혼’이고, ‘발을 잘못 디딘 사람’이며,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언어와 이동의 은유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웨이파인딩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람의 무의식의 레벨에 각인된 공간과 환경에의 심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이용자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환경에 대한 심상과 시각적으로 주어지는 인지적 정보가 합치가 될 때,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성공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2.3.4 웨이파인딩 수행 결과에 따른 정서

사람이 웨이파인딩 수행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위치나 목적지의 방향설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과밀현상 및 정체현상을 야기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요시간의 증대와 육체적 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게 된다(정무웅, 1989).

Arthur과 Passini(1992)가 건축 환경의 경우에 있어, 웨이파인딩의 관점에서 이용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로 꼽은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내가 맞는 장소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 건물 안이 미로같이 느껴진다.
- 사인을 못보고 지나쳤다.
- 사인이나 디렉토리를 봤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 지도를 봤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
- 웨이파인딩 정보가 서로 상충된다.
-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필요한 정보취득이 어렵다.

이러한 웨이파인딩 환경에 있어 이용자들의 심리적 반응은 크게 웨이파인딩 실패시의 반응과 웨이파인딩 성공시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실패 시 이용자 정서

김종환(1992)은 환경의 시각적 요소가 불확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방향이나 각도를 구별하기 위해 큰 집중력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고, 이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개개의 사물이나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면 환경의 아름다움 등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며, 그 경우 아름다움은 그저 2차적 정보일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환경의 풍광이나 분위기, 기타 다른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웨이파인딩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Morbille(1999/2006)은 도시 공간의 판독성은 단순히 길을 찾는 문제를 넘어서, 도시 자체에 대해 갖는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부담스럽고도 겁이 나는 일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되면 도시의 이미지는 손상을 입는 반면, 형태와 기능이 조화된 지형의 표식은 도시의 이미지를 훨씬 향상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웨이파인딩에 실패하여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Weisman의 조사에 따르면, 반감(Berkeley, 1973), 분노(Dixon, 1968), 시간감 및 거리감에 대한 왜곡(Spivack, 1967), 안전에 대한 불안(Izumi, 1970)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이강주, 2003 재인용).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델러스 공항 터미널 내에서 길을 잃은 대학 교수가 착란상태에 빠져 수확공식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옷을 찢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며(Weisman, 1989: 113), 네덜란드에서는 한 노파가 쇼핑센터에서 길을 잃고 사흘 동안 헤매다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는 사례도 있다(Weisman, 1987; 정무웅, 2009 재인용).

이러한 사례들은 웨이파인딩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혼란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웨이파인딩에 실패한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대상 장소에 관련된 일들을 되도록 피하려는 경향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Werner, 1984). Passini(1996)는 웨이파인딩의 실패가 쇼핑센터에 대한 공포감을 일으켜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사례를 제시하였고, 김신혜·김호월(2011)의 연구에서도 웨이파인딩에 실패하는 경우, 우선 당황, 공포, 불안, 원망 등의 심리 반응이 환경에 대한 공격성이나 장소의 회피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Lynch(1960)은 앞서 ‘길을 잃었다(lost)’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리적인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특히 재해발생이나 비상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를 상상한다면 웨이파인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Weisman, 1987).



방향 감각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이용자의 부정적 정서 반응은 그 외에도 다양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tkin(1949)은 비행기 조종 시 수직적 공간 감각을 잃어버린 베테랑 조종사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말하였고, Brown(1932)은 잘못된 방향감각이 사라지지 않아 낮은 마을에서 계속 어지러움증을 느낀 사람에 대한 예를 제시한바 있다(Lynch, 1960: 184 재인용).

또한 웨이파인딩의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웨이파인딩 환경 시설의 이용률 저하나 비효율적 이용 등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Dewar의 조사에서 캐나다 켈거리 대학의 경우, 조사대상 병원 근무자의 3분의 1이 매일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웨이파인딩 질문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시간으로 환산되는 경제적인 낭비 역시 크리라는 가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병원 대상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입원기간이나 방문객의 사적 공간 확보보다 웨이파인딩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으며, 전문 안내원이 아닌 전문 직원들이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총 8,000시간 이상이며 이것은 4명의 직원이 1년 간 일하는 시간과 맞먹는다고 추정되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Arthur & Passini, 1992; 김신혜, 2008: 141 재인용).

지금까지의 웨이파인딩 연구를 종합해보면, 웨이파인딩의 실패는 장소에 대한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낳게 되고, 그것은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경제적 손실까지 입힘을 알 수 있다.

덧붙여, 급박한 웨이파인딩 컨디션인 비상상황에서의 이용자 반응에 대한 연구도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화재 등의 심각한 비상 상황일 경우 사람들이 패닉을 일으킬 것이라고 추측하나, Sims(1991)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추측이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갈 수 있거나 구해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은 대개 이성적이고 제어력을 가진다. 대신 그들의 행동 원리는 외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환경에 대한 정보이



다. 그렇기에 그들이 화재용 비상구를 무시하고 평소에 다니던 길로 대피를 하는 것을 두고 이성을 잃은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패닉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공공시설에서 화재사실을 알리는 것을 지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비상시 웨이파인딩 행태에 있어 항상 패닉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는 동반이 된다. 스트레스는 상황과 강도에 따라 행동을 더 신속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늦추기도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극도의 걱정 등의 정서와 동반하게 되면, 걱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 인지적 기량이 걱정 쪽으로 소진되므로 웨이파인딩을 위한 여력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길을 헤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비상시의 웨이파인딩 행태에서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위험자각, 불확실성, 시간 제약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 인위적으로 제어 가능한 부분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상시에는 정보를 주는 것이 최선이며, 상황과 위치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비상시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보의 제공이다 (Arthur & Passini, 1992).

2) 성공 시 이용자 정서

Underhill(1999)은 체인점을 대상으로 수행한 대규모 조사를 통하여, 매장에서의 경험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매장의 재방문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당연히 매출 증대 효과를 가지고 오며, 쇼핑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매율이 높아짐은 물론, 일회 지출 비용 또한 증가가 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안은희(2004)의 실험에서도 웨이파인딩이 용이할수록 대상 공간에서의 체류시간이 길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웨이파인딩 난이도와 만족도, 재방문의사, 구매율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도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웨이파인딩의 속성상, 사람이 어떤 환경 안에서 별 문제없이 길을 찾을 경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심코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 지금까지의 웨이파인



딩 연구에 있어 성공적 웨이파인딩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단 Passini(1992)가 그의 책에서 웨이파인딩을 금연빌딩에 비유한 것은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건물 내에서 흡연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는 자신들이 나쁜 공기를 마시며 사는지 어떤지 무감각하지만, 일단 금연빌딩을 시행함으로써 그 쾌적함을 경험한 후에는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사람들이 만일 잘 계획된 웨이파인딩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아마도 웨이파인딩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 심리적으로 더 큰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며, 좋은 웨이파인딩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웨이파인딩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환경은 그 이용자에게 쾌적함과 편리함뿐만 아니라 장소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안전감을 느끼게 해 줄 것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 장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장소성의 확립에 기여를 할 것이다.



제 3 장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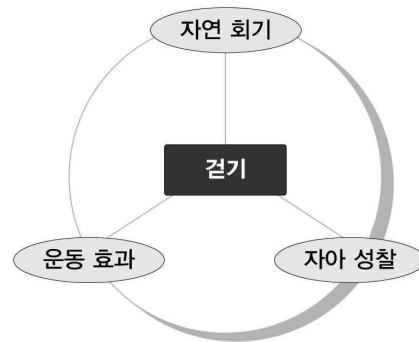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길을 걷는 여정-트레킹(trekking)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 올레길로 촉발된 도보길 트레킹은, 여행의 목적이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는, 예전에 없던 형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트레킹은 국내에서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서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여행 패턴은 패키지 관광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관광 형태와는 많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건강과 친환경을 중시하는 최근의 라이프스타일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인들은 빠르고 각박한 도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 공해, 무관심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연구자가 ‘제4의 공간’으로 명명한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기 시작했다. 실제로 TV, 잡지, 신문 등 각종 매체에 연일 전원주택(田園住宅)이나 귀농, 귀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자연을 맞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끊이지 않는다. 올레길을 비롯한 각종 트레킹 코스에 관한 내용도 물론 가득하며, 이러한 장소는 TV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점령하며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다. 트레킹은 자연을 꿈꾸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탈출하여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인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운동이 부족한데 비해 영양섭취는 과도한 경향을 보이는 현재,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 등의 발생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선진국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걷기는 가장 쉽고도,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운동으로써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자연 안에서 걷는 것의 명상적 효과 및 자연 치유 효과도 높이 인식되고 있다. 특히 느림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장처럼, 슬로 트렌드(Slow trend)의 4대 키워드인 ‘감속’, ‘친환경’, ‘감성’, ‘건강’을 모두 충족하는 걷는 길로서, 제주 올레를 필두로 한 트레킹 코스가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고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이성용, 2010), 이러한 트레킹 코스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인 필요성과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트레킹 코스에서 걷기의 효과

3.1 트레킹의 개념 고찰

3.1.1 트레킹의 개념

먼저 트레킹(trekking)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이주한 것에서 어원이 시작되어 유럽 사람들이 대자연을 찾아 천천히 걸어 여행한 것에서 유래된 단어로, 전문 산악인들이 개발한 네팔의 히말라야 등 험한 산악길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트레킹이라는 용어로 정착했다. 트레킹은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으며, 하루 도보거리는 15~20 km 정도를 걸으며, 산의 높이를 기준으로 5,000m 이상은 등반, 그 이하는 트레킹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두산백과).

국내에서의 선행연구에서의 트레킹은 ‘도보 여행(walking tour)’이라는 용어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도보 여행이라는 용어의 본래의 의미가 가지는 어감은 집을 나서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도보로 여행을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목적지에서만 걷는’ 여행의 형태에는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올레길과 둘레길 등의 많은 대표적 트레킹 코스가 산을 오르는 등반도 아니고 평지를 걷는 산책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이면서도 때로는 등반과

산책의 형태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트레킹의 정의에 합당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트레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다.¹⁶⁾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2010: 12)에서의 트레킹 정의를 살펴보면, 길을 따라 종교·문화·역사자원이나 자연·생태자원 등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학습하기를 즐기는 걷는 여행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본 논문에는 트레킹을 ‘여정의 주 목적이 걷기 그 자체이며, 걸으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 현지의 생활과 정서를 느끼고 경험하며, 또한 걷기를 통하여 자아 성찰과 건강을 위한 운동의 기회로 삼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중심적 주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는 ‘트레킹을 하는 곳’이라는 물리적 장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국내 연구나 보고서에서 트레킹 코스는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보길, 보행로, 탐방로, 도보 여행길, 숲길¹⁷⁾, 트레일 등의 용어 사용이 확인되었다. 영문에서는 trail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산림학자인 Banton이 쓴 저서 “Appalachian Trail”에서 trail에 대하여 첫째, 도시와 차가 없는 길, 둘째, 마음의 길, 셋째, 발견하는 길이라고 쓴 것처럼, trail은 길이 제공하는 경험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Jubenville, 1976; 한국관광공사, 2011 재인용)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걷기’ 환경이 최우선시 되고 있으나, 그 ‘걷는다’는 행위가 기존의 일반 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최종목적지를 가기 위한 이동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걷기 그 자체가 행위의 목적’이며 트레킹 자체를 위하여 여정이 성립되는 새롭고도 특수한 환경에서의 웨이파인딩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냥 우연히 걷는 길이 아닌, ‘트레킹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한 환경’이라는 의미

16) 인용의 경우, 본 논문에서 사용한 트레킹의 의미로서 다른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트레킹으로 용어를 변환하였다.

17) 한국관광공사의 2011년 보고서(강원도 동해안권역 해파랑길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1년 3월 9일 개정·공포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탐방로’, ‘산책길’, ‘트레킹길’, ‘둘레길’, ‘올레길’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운영되어 왔던 전국의 길을 ‘숲길’로 규정하고, ‘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도보용 길에는 해안길과 들길, 마을길 등도 포함되기에 일률적으로 숲길로 통일시키는 데에는 개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를 강조하기 위해 트레킹 코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트레킹 코스는, ‘걷기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방문하는 이용자를 주체로 하여,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고,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몇 달까지 장기 및 단기적 도보를 가능토록 한 길로서, 방문자들이 그 코스 안에서 안전하게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문화, 현지의 생활과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이어진 길’이라고 하겠다. 단 코스의 총 길이가 트레킹 시 하루 도보거리의 평균으로 알려진 15km 이하인 경우는, 트레킹 자체를 위한 목적지가 되기 어렵고 다른 여정 중에 들렀다가는 산책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 관계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트레킹 코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1.2 트레킹의 특성

트레킹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의 여정이 트레킹 코스를 중심으로 한 선형적 구조를 띤다는 점일 것이다. 기존의 여행 형태는 관광 매력물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특정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점(點)’을 지향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트레킹 여행은 길을 중심으로 하는 선(線)을 지향하는 형태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12).

환경영향	· 길은 이미 존재함으로 새로운 코스 개설을 위해 대규모 개발이 필요 없음. · 관광객들이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방지됨.
지역주민	· 대규모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이 코스 곳곳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저비용의 투자로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음.
이용자	· 무대화되지 않은 자연경관과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트레킹 코스를 이용할 수 있음.

[표 3-1] 선(線) 중심여행 형태의 장점 (문화체육관광부, 2010: 12)

즉 패키지 관광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여행 패턴에서는 이동은 어디까지나 특정의 목적지에 가기위한 것으로 어찌 보면 낭비되는 시간이며 최대한 단축해야만 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새로운 선형적 형태인 트레킹은 이동 자체가 목적이며 그 이동 중간 중간에 있는 관광매력물이나 기타 시설에 들러 가며 지속적인 이동을 한



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풍광을 감상하거나 동행자와 대화를 하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길을 즐기는가가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또한 단체보다는 개별적 여행이 크게 선호되는데, 다른 여행 형태에 비해 홀로 여행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소수의 인원이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100).¹⁸⁾ 여러 자료를 보면 혼자 여행을 와서, 트레킹 코스나 숙박 시설에서 만난 다른 여행자와 함께 즉석에서 동행을 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도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별 여행의 선호는, 트레킹 코스에서 느리게 걸으면서 가지는 장소의 체험과 관찰, 사유(思惟) 과정이 동반되는 특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김광중(2010)은 올레길을 예로 들며, 올레길의 열풍에는 걷기라는 신체적 활동과 관찰과 사유라는 정신적 활동의 합일에 따른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그는 Solnit의 통찰을 인용하여, '걷는 것은 생각하는 동시에 바라보는 것으로서, 걷기의 리듬은 사유의 리듬이며, 풍경 속을 지나가는 움직임은 사유 속을 지나가는 움직임을 반영하거나 자극한다'고 전했고, 편안하게 일상의 긴장을 해소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자극이 그 동인이라는 여가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과도 일치한다고 하였다(성영신 외, 1996; 김광중, 2010: 31 재인용).

걷기와 사유의 밀접한 관계는 걷기와 관련된 많은 철학·인문관련 도서에서도 발견이 된다. 프랑스 철학자 Lamoure(2007)는 걷기와 생각하기는 밀접하게 연관된 두 행위라고 밝히고, 그 이유로서 둘 다 몸과 정신을 동시에 이용하고 노력을 필요로 하며, 마지막엔 그러한 고생을 100배 이상 보상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18) 문화체육관광부 (2010: 100)의 조사에 따르면, 동반자의 수를 묻는 질문에서 2명이 함께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4명, 3명, 홀로 여행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홀로 여행의 경우 16%의 적지않은 비율을 보인점과 2~4명사이의 소규모로 동반하겠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나 향후 관련 산업에서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과 가족 및 소규모 여행객의 취향에 맞는 시설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고하였다.



Solnit(2003)은 걷기의 리듬은 사유의 리듬을 낳으며, 풍경 속을 지나는 움직임은 사유 속을 지나는 움직임을 반향하거나 자극하고, 내적 이동과 외적 이동이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마음은 일종의 풍경이며 실제로 걷는 것은 마음속을 거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 많은 철학자들의 에피소드가 말해주듯, 걷기와 사유는 마치 거울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서 회자되어 왔다. 또한 이것은 장거리 트레킹의 기원이 종교적 순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순례는 여행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세속적인 걷기가 몸을 편안하고 능률적으로 만드는 장치와 기술을 사용하는데 반해 순례는 여행을 좀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 그것은 여행travel의 어원인 노동travail을 연상시킨다. 순례는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을 화해시키는 작업이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혼의 목적지를 향하여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여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여행을 떠남으로써 그러한 이미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걷기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이며 철학적 행위이고, 그렇기에 여정으로서의 걷기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내적 경험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현상학자 후설이 1931년에 쓴 “살아 있는 현 세계와 유기체 외부의 주변 세계의 구성”을 인용하여, Solnit은 걷기를 ‘중대한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걷기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관계하는 우리의 육체를 이해하게 되며, 육체란 항상 여기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한편 Lamoure(2007)는 걷기가 가진 느낌의 미덕을 얘기하며, 오직 느낌만이 우리를 세상의 해아릴 수 없는 매력 속으로, 무한히 풍부하고 재미있는 자연의 틈새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던 사물의 시시콜콜하고 섬세한 부분이 느린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며, 느린 움직임인 걷기는 이 점에서 세상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보게 해준다고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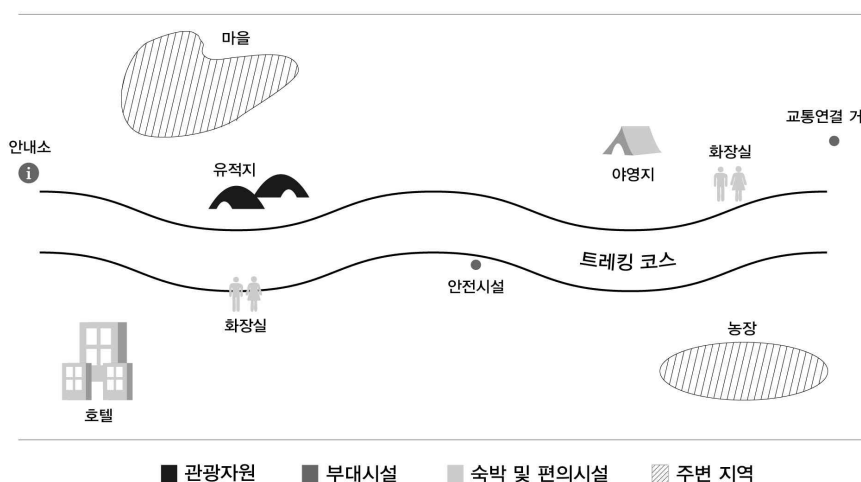
이러한 점으로 인해 트레킹이 단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만이 아닌 사유적이고 영적인 자아성찰의 심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트레킹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 정량적 조사와 박영아·현용호(2009)의 정성적 조사에서 여행 동기로서 나



타난 결과에도 드러났으며, 정철 외(2010: 16)는 제주 올레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기존 관광동기 연구에서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기사색과 성찰에 대한 욕구와 그에 대한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아·현용호(2009)는 구체적 제주 올레 방문의 동기로서 자연친화·체험, 호기심, 자기사색, 자아성취, 자기정화, 건강증진, 가족관계증진, 사고 등 8가지 요인을 제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자연경치를 즐김, 산책할 장소, 스트레스 해소, 단조로운 일상탈출, 평화로움 추구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여행의 형태 또한 눈으로 보는 정적인 관광 형태에서 체험을 수반하는 동적인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3.1.3 트레킹 코스의 구성과 분류

트레킹 코스에 있어 핵심은 물론 길 자체이나, 그 외 관광자원(유적지나 관광명소)과 부대시설(안내소, 교통연결 거점, 안전시설 등), 숙박 및 편의시설(호텔이나 민박,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및 휴게실, 매점, 식당 등), 주변 지역(트레킹 코스 주변의 마을이나 농장, 공장,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2] 트레킹 코스의 구성

트레킹 코스의 분류에 있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도보 여행길로서 다음과 같은 6개의 분류를 제시한 바 있다.

숲길	숲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걷기 수요 창출
등산길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길. 트레킹길은 ①둘레길(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과 ②트레일(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로 분류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탐방로	삼림생태를 체험, 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 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표 3-2] 도보여행길 분류 (채동렬·안점판, 2012: 15)

그러나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위 표에서 정의한 숲길, 트레킹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은 모두 행위와 장소가 거의 겹치는 경향이 있고, 등산길도 넓은 의미에서 트레킹 코스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며, 레저스포츠 길의 경우 도보인 경우는 트레킹에 포함이 되고, 산악자전거나 기타 이동수단이 이용되는 경우는 더 이상 도보에 의한 여행의 정의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즉, 트레킹 코스는 위에서 분류되고 정의된 모든 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표적 트레킹 코스인 올레길을 예로 보면, 숲과 산, 오름, 해안, 섬, 도심 및 마을길과 목장, 시장 등 트레킹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다채로운 코스를 포함하고 있어, 트레킹 코스의 범위는 더욱 넓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트레킹 코스는 그 분류에 있어, 트레킹 코스 자체의 형태 및 환경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환형(環形) 트레킹 코스	길 전체가 고리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코스. (예: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계속 진행을 하면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선형(線形) 트레킹 코스	길이 길게 선 모양으로 뻗어있는 코스. (예: 동해 해파랑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표 3-3] 트레킹 코스 형태에 따른 분류

환형과 선형의 두 형태 모두 이용자가 경로를 선택할 수 없고 하나의 길로 연결된 선형적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어있으며, 이것이 트레킹 코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경로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그물형 코스에 대한 언급이 있는 연구도 있었으나(양지혜 · 김한일, 2012: 219), 연구 표본인 402개 트레킹 코스중 단 한 개의 그물형 형태도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듯 그물형 형태는 이미 트레킹 코스의 기본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그리고 코스의 성격에 따른 테마별 유형 분류도 가능한데, 크게 자연중심형 코스(nature-based course)와 문화중심형 코스(culture-based course)로 나눌 수 있으며, 장거리 코스의 경우 대개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자연중심형	자연생태 감상, 명상 및 치유, 심신단련 등
문화중심형	역사문화 체험, 문학 및 인물 탐방, 현지생활 체험, 종교적 순례 등

[표 3-4] 트레킹 코스의 테마별 분류

그 외에 산길, 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등 코스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코스를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적 트레킹 코스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킹 코스 자체보다는 트레킹 코스 내의 세부 구간에 대한 구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본다.

3.2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특성

‘오솔길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역동적인 대상인가!’라고 일찍이 Bachelard (1957/2003: 86)는 피력하였다. 그는 언덕을 기어오르던 길을 역동적으로 눈앞에 되 그릴 때면, 그 길 자체가 근육과 역근육(逆筋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인이 트레킹 코스에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것일 것이다.

Tuan(1977/1995: 121)은 공간의 통합은 점진적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입구



와 출구, 그리고 중간지점을 향한 움직임은 그것들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고 묘사하고, 미로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용자가 실수 없이, 혹은 약간의 실수를 하면서 통과를 할 수 있을 때, 전체 미로는 적절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하나의 '장소'가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환경이 처음에는 무차별적 공간으로 시작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목적지 또는 하나의 장소로써 끝을 맺게 된다.

그는 또한 웨이파인딩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지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출발점(here)과 목표점(there), 그리고 산재해 있는 중간지의 이정표들을 감지한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는 스케치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동할 때는 정확성이 필요 없고, 그저 일반적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이동의 각 단계에서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선형적 형태의 이동 경로를 특징으로 하는 트레킹 코스의 특성에서도 이러한 Tuan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연구되어 온 웨이파인딩 환경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첫 번째는 웨이파인딩 과정에 있어서 경로선택 단계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트레킹 코스는 일반적 웨이파인딩의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결정점(node)등의 결정 지점(decision point)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난 후에 행위로 이어지는 선택의 과정이 아닌, 주어진 한 개의 루트를 잘 따라가느냐 아니냐(success or fail)의 on-off적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트레킹 코스의 자연 환경이 이용자에게 다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트레킹 코스는 이용자가 오로지 걷기와 걷는 동안 느껴지는 환경에 집중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 안에서 이용자들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할 다양한 감각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며 느끼게 된다. 즉 시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새소리나 풀벌레소리, 개울물 소리, 파도 소리 등의 청각적 자극, 꽃이나 나무에서 나는 향기나 가축들의 축사에서 나는 냄새, 논, 밭과 과수원에서 나는 냄새, 바다나 어촌의 비릿한 냄새 등의 후각적 자극,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의 세기나 스쳐지나가는 나무와 풀의 느낌, 그리고 흙길이나 돌길, 모래사장, 잔디밭, 숲길, 포장길 등에 따라 발밑에 느껴지는 감촉의 차이 등의 촉각적 자극 등 일반적 환경



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진행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비(非)시각적 감각은 시각적 요소처럼 구체적이지는 못할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한 ‘느낌’으로 선형적 여정 중간 중간의 장소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이것은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과 관련된 요소가 됨과 동시에 코스가 가지는 고유의 장소성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세 번째는 인지지도(cognitive map)의 형성에 따른 차이점이다. 인지지도는 그 환경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미리 주어지거나 이용자가 그 환경에 이미 익숙하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트레킹 코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지지도의 생성에 있어 일반적인 인공 환경과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인공 환경은 공간구문론과 같은 건축적 고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공간의 명료함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는 경향이 있으나, 트레킹 코스와 같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는 환경의 경우, 공간의 명료성을 위한 인위적인 공간배치를 하기 어렵다.

② 트레킹 코스 자체의 스케일이 매우 길고 크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대한 세부적 또는 구체적 인지지도가 형성되기 어렵다.

③ 특정 트레킹 코스를 여러 번 또는 자주 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공간의 학습을 통한 인지지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있다.

Golledge(1999: 8)는 웨이파인딩에 있어 새롭고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 특정한 규칙이나 귀납적 방법에 따라 열심히 찾고 탐색한다. 둘째, 지도나 설명, 사진, 동영상 등 인간만이 가지는 전략인 환경에 대한 2차 정보 자료를 통하여 친숙해진다. 셋째, 현재 지점을 중심으로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환경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초행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가 우선 의존하는 것은 지도나 가이드북, 사진 자료나 코스 경험자에게서 제공된 정보가 될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트레킹 코스의 방대한 규모로 봤을 때 이러한 2차 정보자료에 의한 세부적 인지지도가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트레킹 코스의 특성상 풍경을 즐기고 대화를 즐기거나 생각에 잠기는 경향이 있는 이용자들이 2차 정보자료를 끊임없이 보며 인지지도를 그리기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다. 오히려 트레킹 코스에서는 이용자가 무의식적으로 관습적, 귀납적 습관에 의거해 이동을 해 나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트레킹 코스는 경로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닌, 대개 정해진 경로위에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므로, 그 환경 내에서 자신이 맞는 길 선상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되돌아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코스 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Golledge가 언급한 것처럼 왔던 길을 안전하게 되돌아 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에 있어 내적 인지지도의 작성은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중대한 특징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인지지도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대부분의 다른 일반적 환경에서는 중요한 일이나, 트레킹 환경에서는 그 중요성이 낮고 인지지도 역시 험고도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트레킹 코스의 2차 정보들에 의해 주어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하여 점들이 구성되고 그 점을 잇는 형태인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2장에서 제시한 Appleyard의 인지지도 유형 중 ‘연결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트레킹 코스를 표현함에 있어 ‘점과 점을 잇는 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ppleyard가 환경에서의 경험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지지도는 선형 형태에서 공간구성적 형태로 변화한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하면, 트레킹 코스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선형 형태의 단순한 인지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트레킹 코스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지지도가 일반적 웨이파인딩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



는 점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트레킹 코스에서는 타 웨이파인딩 환경과 달리 이동에 있어 '즉흥성'과 '즐거움'이라는 요소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첫째, 즉흥성은 인지지도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Brown & Laurier(2005: 29)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정에 있어 매우 특징적인 것은 '미래조망·회고적(prospective-retrospective)'성격이다. 즉 미리 계획하고, 다시 돌아보고 그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가장 잘 짜인 계획일지라도, 그 여정이 실제로 수행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여정이 시작되고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때, 계획에 있어서의 공백이 '채워지게' 되며 구체적이 된다. 여정이 끝나고 그들이 무엇이 실제로 이루어졌나를 돌아볼 때 비로소 그 여정이 계획대로 정연하게 진행된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Brown & Laurier는 여행자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 포인트에서, 여정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더 잘 보여주었다고 보고 하였다. 즉 여정에 있어 새롭고 경험하지 못한 것과의 조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정은 '경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연구자는 두 가지 다른 여정을 비교하여 관찰하였는데, 목적지가 명확한 출장의 경우, 지도를 수시로 확인하며 헤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효율적인 웨이파인딩 전략을 펼쳤지만, 명확하게 정해진 목적지가 없이 친구들과 레저 상황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는 각 도착지에 가서야 그 다음 여정을 어떻게 갈지를 알아나가는 모습을 보고하였다. 이 두 번째 경우에 연구자들은 피관찰자들이 '인지지도'를 참고할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있어 웨이파인딩은 그들의 인지 안에 감춰진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열려있고 투명하며 설명 가능한 행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그들에게 있어 앞길을 알 수 없어 가지게 되는 놀라움(a surprise)은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었다고 피력하였다.

둘째, 즐거움에 관하여 말하자면,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의 목적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이용자가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자 목적인 내적 만족감 또는 의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은 이용자로 하여금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을 이끌어낸다고 추



측할 수 있다. 위에서 놀라움이 좋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즐겁고 기대되는, 모험에 가까운 일인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안전이 보장된 상황이라면, 이용자는 태초에 모험을 떠나는 탐험가들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며, 굳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3.3 해외 트레킹코스 사례

국내에 올레길로 대표되는 트레킹 코스의 개념이 일반에게 알려진지는 매우 짧으나, 외국의 경우 트레킹 코스 개설의 역사가 깊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거나,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1). 특히 역사적인 순례길이나 기타 자연스럽게 조성된 장거리 루트를 트레킹 코스로 발전시킨 경우, 그 역사가 매우 길어 그에 따른 역사유적이나 스토리가 다양하게 있고, 또 트레킹 코스의 유형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나, 자연을 만끽하고 코스 안과 주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 생활 체험 등의 이용자 경험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구분	명칭	개념	계획연도	총길이 (km)	연간 이용자수(명)
미국	Trail	야외 휴양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과 자연자원 및 역사적 자원의 보존을 조화롭게 도모하면서, 공공의 접근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	1968년	약 80,000	
영국	Footpath	자연 속에서 도보, 자전거, 승마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장거리 루트	1946년	약 4,000	1,200만명
일본	自然歩道	산과 자연을 찾을 때 단순한 등산에서 벗어나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제대로 구석구석 느끼고 자연과 공존해 살아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탐방하는 것	1970년	약 25,000	6,100만명
프랑스	Randonnee	각박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듯 걸으며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	1988년	약 180,000	1,500만명

[표 3-5] 주요 국가 트레킹 코스 조성 현황 (윤정준, 2008: 105)



본 연구에서는 해외 트레킹 코스의 사례로서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과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 그리고 ‘일본의 시코쿠 88사찰 순례길’을 조사하였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은 캐나다의 웨스트코스트 트레일과 더불어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로 꼽히는 곳으로 각각 유럽과 미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일본의 시코쿠 88사찰 순례길을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트레킹 코스로서 선정하였다.

3.3.1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Camino de Santi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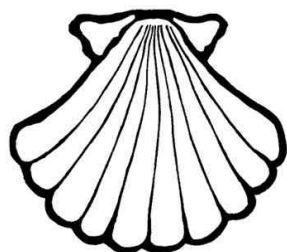
[그림 3-3]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코스 지도 (문화체육관광부, 2010: 45)

국내에도 순례길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트레킹 코스로,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대성당을 목적지로 하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가톨릭 성지 순례길이다. 대성당까지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로 일컬어지는 길은 가장 인기 있는 길인 ‘카미노 데 프란 세스’이며, 이 코스는 프랑스의 국경도시 생 장 피드포르를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까지 이어지는 800km의 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44).

파울로 코엘료의 문학 작품인 ‘순례자’의 모티브가 된 길로서도 유명하며, 제주 올레길 탄생의 모태가 된 길이기도 하다. 800Km에 이르는 여정 중 주요 유적이 1,800곳에 이르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길을 거쳐 산티아고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1987년 카미노 전체가 유럽문화유산 1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항목	주요내용
코스 의 형성	거친 산과 들을 관통하며 예수의 열두제자 중 하나인 사도 야고보의 무덤까지 가는 가톨릭 순례길이었음
총 길이	약 800km
코스 형태	선형
테마 유형	종교적 순례, 역사문화 체험, 명상 및 치유
관리 주체	산티아고 순례길 사무국 (Pilgrims' office)
연간 방문인원	600만명 이상

[표 3-6] 산티아고 순례길의 코스 개요



[그림 3-4] 산티아고 순례길의 심벌마크



[그림 3-5] 산티아고 상징인 조개껍데기를 매단 코스 이용자의 배낭
("길 위에서," 2008)

산티아고 순례길을 대표하는 상징은 조개껍데기(가리비)와 노란색 화살표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가 오랜 만큼, 그 상징이 조개껍데기가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유래가 어떻든 순례자들은 산티아고까지 그들의 여정이 무사하길 기원하는 의미로 조개껍데기를 지니고 다녔고, 그 것은 오늘날까지도 순례자의

상징으로써 이어져 내려온다. 여행자들은 여정을 마치고 나면 신발이나 옷을 태우는 의식을 하고, 이 조개껍데기를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 조개껍데기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심벌로서 트레킹 코스 전반에 걸쳐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웨이파인딩 요소로서도 물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3-6] 산티아고 순례길의 표지석 (“길 위에서,” 2008)



[그림 3-7] 산티아고 순례길의 화살표 사인 (“산티아고에서,” 2010)

또한 산티아고 순례길의 가장 특징적 웨이파인딩 요소인 노란색 화살표는 만든 사람의 개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또한 산티아고 순례길의 명물이자 산티아고 순례길이 가진 장소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림 3-8] 다양한 장소에 개성 있게 그려진 화살표 (“세계여행,” 2012)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크레덴시알(Credencial)이라는 일종의 순례자 수첩을 발급하고, 트레킹 코스의 여정 중에 들르는 도시에서 스탬프를 받는다. 크레덴시알이 있어야 순례자라는 증거가 되고, 순례자용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코스 이용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품이다. 또한 순례길을 100km 이상 걸으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의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순례길을 걸었다는 ‘증명서(Compostela)’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순례길 100km 지점부터 증명서를 받기 위해 이용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이 증명서를 가지면 항공료나 기차요금 등의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증명서를 받는 순례길 완주자들에게는 깊은 의미를 주고 있어, 이 증명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3-9] 산티아고 순례길의 크레덴시알과 스탬프
(이강혁, 2010: 17)



[그림 3-10] 순례를 마쳤다는 증명서
(“100Km 이상,” 2012)

3.3.2 미국 존 뮤어 트레일 (John Muir Tr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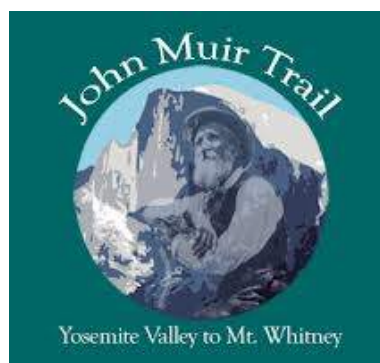
[그림 3-11] 존 뮤어 트레일 코스 지도 (“잔무어 트레일,” 2009)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은 태초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에게겐 꿈의 코스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할 만큼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존 뮤어 트레일은 세계 환경운동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존 뮤어의 이름을 따서 1938년 환경운동단체 시에라 클럽에 의해 완성된 길로서 1968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위치하고 있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출발하여 미국 본토 최고봉이라고 하는 휘트니 산을 넘어 종착점인 휘트니 포탈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코스이다. 해발 4천미터 이상의 고산지대를 오가는 높은 난이도의 트레킹 코스로서, 타 사례 대상지와는 달리 혼자서 트레킹을 하는 것이 어려운 곳이며, 또한 숙박시설이 아닌 텐트에서 묵고 식사를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영장비와 식량을 짊어지고 다니는 백패킹 여정이다. 또한 존 뮤어 트레일은 순수한 자연이 보존된 ‘야생의 길’이라고 불릴 만큼, 코스 선상에 나무 등이 쓰러지거나 해도 야생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치우지 않거나, 예전에 지어졌던 별장들을 모두 헐

조를 얻어 철거하는 등, 사람의 편의보다는 자연의 보존을 더 중시한다. 길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코스 내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저가 상주하며 관리감독하고 있다. 코스의 이용자는 어떤 쓰레기도 버려서는 안 되는 등 까다로운 이용 수칙을 지켜야하며, 위법 시에는 레인저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거나 강제로 퇴장당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입장인원을 통제하여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이용자는 150명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

항목	주요내용
코스의 형성	150년전 서부 개척시대의 말이 다니면서 조성된 길을 따라 존 뮤어가 답사하던 길을 이어서 트레킹 코스로 개발.
총 길이	357km
코스 형태	선형
테마 유형	자연 생태, 심신 단련
관리 주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연간 방문인원	약 6만명

[표 3-7] 존 뮤어 트레일 개요



[그림 3-12] 존 뮤어 트레일의 심벌마크
(존 뮤어 트레일 홈페이지, 2012)

존 뮤어 트레일의 심벌마크는 존 뮤어와 산의 사실적 묘사로 되어 있으나, 이

심벌마크는 트레킹 코스 상에서 응용사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심벌마크의 색채는 무채색이며, 그 외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하는 색채의 사용 역시 없어, 코스 경험자들도 존 뮤어 트레일에 대한 이미지는 자연 그 자체로서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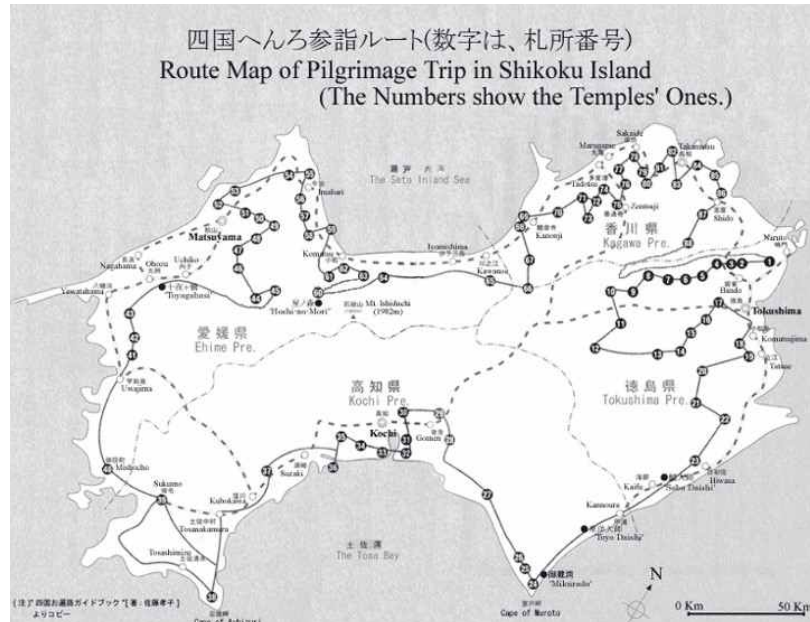
웨이파인딩에 있어서는 군데군데 나무나 밤색의 설치물 형태로 만들어진 투박한 느낌의 안내 사인과 갈림길에서 방향을 간략하게 알려주는 정도로만 제공이 되고 있어, 길을 찾아가는데 있어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코스 이용자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림 3-13] 존 뮤어 트레일의 사인 (자료원: 권봉우)

또한 종주를 함에 있어서도, 끝나고 나서 이용자들의 완주에 대한 만족감으로 끝이 나고 타 코스와 같은 어떤 기념적인 의식이나 상징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스 경험자들이 존 뮤어 트레일의 상징은 ‘곰’이라고 느낄 만큼, 코스에서 곰에 대한 주의는 끊임없이 환기되며, 자연 안에서 곰이 주인이고 이용자는 객이라는 의식으로 트레킹이 진행된다고 보여지며, 이용자를 위한 웨이파인딩 요소의 제공도 최소한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존 뮤어 트레일은 본 연구 사례 중 타 코스들과 성격과 장소성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곳이지만, 코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코스 이용자의 관리 및 학습 강화에 대한 부분은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3.3.3 일본 시코쿠 88사찰 순례길 (四國八十八ヶ所靈場めぐり)



[그림 3-14] 시코쿠 순례길 지도 (시코쿠 순례 길, 2010)

시코쿠 순례길은 일본 남부 시코쿠 지역의 해안을 따라 이어져있는 트레킹 코스로,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인 코보 대사(弘法大師, 774~835)의 자취를 따라 88개의 절을 참배하는 순례길이다. 번호가 매겨진 88개의 절을 1번 절부터 시계방향으로 순례, 다시 1번 절로 돌아오는 1,400킬로미터의 길로써, 오랜 역사를 지닌 길이며 일본 전국에서 순례자가 방문하는 코스이다. 88개의 절 이외에도 번외(番外)라고 하는 곳들이 코스 선상에 있고, 코스를 걸으면서 사찰 사이의 자연과 일상생활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시코쿠 순례길을 걷는 이용자는 ‘오헨로’ 또는 ‘헨로’라고 일컬어지며, 코스는 헨로가 걷는 길이라는 뜻의 ‘헨로미치’라고 통칭된다. 이용자는 흰 겂옷과 삿갓을 쓰고, 코보 대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드는데, 이것이 오헨로의 상징이다. 이런 차림을 한 이용자는 사찰을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란 징표이므로, 순례길 도중 일반인들에게 ‘오셋다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양을 받으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기도 한다.

다. 오셋다이로서 음식이나 음료수, 기타 오헨로가 필요할만한 것을 주는데, 이것은 순례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처에게 공양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하며,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시코쿠 순례길의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3-15] 오헨로의 모습 (“일본 시코쿠,” 2012)

시코쿠 순례길은 문화와 경관의 보전을 위해 4개현과 57개 시정촌이 연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코쿠 사찰 88개소와 순례문화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한국관광공사, 2011: 53), 시코쿠 순례길의 정비나 복원 사업, 표식의 정비나 표지석의 건립등은 민간단체인 헨로미치보존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항목	주요내용
코스의 형성	9세기 코보 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다녔던 순례길로, 코보 대사가 다녔던 88개의 사찰을 순례하는 것이 승려들로부터 시작되어 일반 신도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음.
총 길이	약 1,400km
코스 형태	환형
테마 유형	종교적 순례, 역사문화체험, 명상 및 치유
관리 주체	헨로미치 보존협력회
연간 방문인원	약 30만명

[표 3-8] 시코쿠 순례길 개요



[그림 3-16] 시코쿠 순례길의 심벌마크

시코쿠 순례길의 방향 사인은 다른 트레킹 코스와 달리 코스의 심벌마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보 대사의 실루엣을 모티브로 한 이 심벌마크는 선명한 붉은 색으로 눈에 잘 띄고, 따라 그리기 쉬운 점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코스 이용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코쿠 순례길에는 사인위에 동행이인(同行二人)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이것은, 순례자가 길을 때 코보 대사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스티커 형태로 인쇄되거나 손으로 그린 것들이 많은데, 선명한 빨간색으로 인해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시코쿠 순례길 코스의 안내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원형 스티커의 경우, 상당히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전봇대 등에 붙이는데 시코쿠 순례길 이용자의 경험담으로는 익숙해지면 이것도 눈에 잘 보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림 3-17] 시코쿠 순례길의 원형 스티커 사인
(시코쿠 순례길, 2010)



[그림 3-18] 시코쿠 순례길의 방향 사인
(좌: 自転車へんろ2, n.d.; 우: 遍路のみちしるべ,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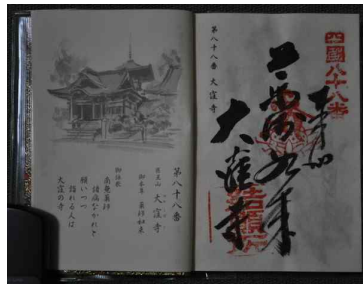


[그림 3-19] 에도 시대에 제작된 표시석(사진 왼쪽)과 현대의 사인이 함께 있는 모습 (시코쿠 순례길, 2010)



[그림 3-20] 영문으로 된 스티커형 사인.
(시코쿠 순례길, 2010)

오헨로는 절에 들어서면 일련의 의식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수돗가에서 입과 손을 행구고 나서 본당에서 향과 초를 바치고 종을 쳐서 도착을 알리고, 이름과 주소, 날짜를 적은 종이 ‘오사메후다’를 함께 넣고, 시주를 한 후 반야심경을 읊는다. 대사당에서 똑같은 차례를 반복한 후, 납경소로 가서 주인(도장)과 묵서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시코쿠 순례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순례자 수첩과 비슷한 ‘납경장’이라는 한지로 만들어진 순례증명 책자가 있는데, 이 납경장에 1번부터 88번 사찰까지 사찰 안에 위치한 납경소에서 직원이 자필 붓글씨로 써주는 묵서를 받고 도장을 받는 것이다. 정성껏 써주는 직원의 모습에 이용자들이 강한 정서적 감동을 받는 모습도 보이곤 한다. 88개의 사찰을 전부 돌면, 88번째 방문한 절에서 결원증명서를 받는다. 이 납경장에 주인과 묵서를 받기위해 순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이고, 결원증명서는 일본에서는 집안의 가보로 전시한다고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시코쿠 순례길을 다녀온 한국여행자의 여행담에서도 이 납경장을 일컬어 타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느낀다고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3-21] 납경장 표지와 납경장에 주인과 묵서를 받은 모습 (“시코쿠 순례의,” 2010)

[그림 3-22] 납경소에서 묵서를 써주는 모습 (“일본 시코쿠,” 2012)



[그림 3-23] 시코쿠 순례길의 결원증명서 (시코쿠의 순례용품, 2010)

3.4 국내 트레킹코스 현황

최근 국내에서는 걷기 열풍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트레킹 코스에의 여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쉬지 않고 달려온 것에 대한 피로감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림의 여유를 맛보고 자아를 성찰하며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근래 들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와 지리산을 단지 걷기위해 찾는 여행객이 한 해 수만 명에 이르고 있어,

‘걷기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으며 (박영아 외, 2009), 이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열기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환경부에서는 전국단위의 국토 생태 탐방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트레킹 코스의 경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길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의 중복투자는 물론, 지역 길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트레킹 코스의 관리 운영의 전문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체계를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특화하여 기부 등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영주(2009)는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 같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고 관은 공공부문에서 간접적 행정 지원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11 재인용).

국내 트레킹 코스의 효시는 2007년 9월 제주 올레길 첫 구간의 개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어서 지리산 둘레길이 2008년 4월 ‘지리산길’이란 명칭으로 첫 구간을 개통하였다. 이후 전국 60여개 도시에 100여개의 코스가 생겨났다고 하며, 현재도 많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트레킹 코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우리마을 녹색길	2년간 800억원을 투자 예정
환경부 생태탐방로	2008~2017년의 기간 동안 총 1,626억원 투자 예정 (국비 760억원, 지방비 866억원)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생태탐방로	현재까지 총 37개 노선, 연장거리 1,324km의 문화생태 탐방로가 조성됨. 2017년까지 기금, 국고, 지방비 등 1,000억원 투자 예정

[표 3-9] 문화생태형 트레킹코스 투자 예산 (채동렬·안점판, 2012: 7~12)



연도	트레킹 코스 명
2009년 (7개, 482km)	소백산 자락길 (132km), 강화 둘레길 (100km), 삼남대로 따라가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55km), 동해 트레일 (영덕 55km, 삼척 24km 구간),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31km), 고인돌과 질마재를 따라 100리길 (40km), 여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 (45km)
2010년 (10개, 291km)	땅끝길, 새재넘어 소조령길 (48km), 대관령 너머길 (36km), 백의종군로 (18km), 토성산성어울길 (20km), 쇠돌레 평화길 (27km), 토영이야기길 (25km), 남해 바래길 (55km), 청산여수길 (19km), 증도 모실길 (43km)
2011년 (10개, 286km)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13km), 사비길 (10km), 서울성곽길 (19km), 금강 하구길 (32km), 갈재길 (9km), 섬진강길 (99km), 동강길 (56km), 두물머리길 (28km), 승부역가는길 (12km), 담양수목길 (8km)
2012년 (10개, 265km)	내포안개길 (9km), 선비문화탐방로 (11km), 태백산맥 문학기행길 (8km), 흥부길 (10km), 위례길 (30km), 중원문화길 (30km), 낙동강 하구 생태길 (22km), 무돌길 (52km), 금강생태탐방길 (39km), 갯벌 낙지길 (54km)

[표 3-10] 문화생태 트레킹 코스 조성 및 계획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트레킹 코스의 사례로서 본 논문의 주제 대상 트레킹 코스인 제주 올레길,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및 동해 해파랑길을 조사하였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은 국내 트레킹 코스의 양대 산맥이자 대표적 코스이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동해 해파랑길은 우리나라 동해를 남과 북으로 잇는 초장거리 코스이며, 다수의 시·도를 관통하는 현재진행형으로 조성중인 코스의 사례로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4.1 제주 올레길

1) 올레길의 개요



[그림 3-24] 제주 올레길 지도 (자료원: (사) 제주 올레)

제주 올레길은 제주 출신 전 언론인인 서명숙 현 (사)제주 올레 이사장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후 영감을 얻어 2007년부터 제주도에 길을 잇기 시작하여,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로서 자리매김하였고, 국내에 트레킹 열풍을 불러 일으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올레길’은 자기 집 마당에서 마을의 거리길로 들고나는 진입로를 뜻하는 제주 방언인데(서명숙, 2008: 41), 코스가 가진 선구자적 의미와 함께 기억에 쉽게 남는 명칭으로 인해, 이제는 트레킹 코스를 뜻하는 보통명사화 되어 쓰이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섬의 해안을 둘러싸는 아일랜드 코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2012년에 총 422km의 전체 구간이 완성되었다. 올레길은 제주의 자연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코스 자체도 바다와 오름, 내륙 및 섬을 아우르는 다양한 환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주 올레길은 첫 코스가 개장된 이후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세에 있고, 제주도의 방문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트레킹 코스가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린 가장 성공적인 개발사례로서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제주 올레

의 관리주체인 (사)제주 올레는 친환경적 길 조성을 중시하고, 철저한 민간 주도의 사업 구성과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올레길을 경험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점차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다.

올레길이 제주도에 끼친 경제적 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보고되고 있으며, 제주도 방문의 주된 목적에 대한 조사에서도 올레길 트레킹이 빈도수에서 1위를 차지하여(문화체육관광부, 2010), 타 지역 트레킹 코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사)제주 올레는 일본 큐슈 지방정부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큐슈 올레’ 코스 조성 노하우와 브랜드를 수출하면서 국내 트레킹 코스 브랜드 수출의 첫 사례가 되었다.

항목	주요내용
코스의 형성	(사)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방문하고 영감을 얻어, 고향인 제주의 오솔길을 잇는 길을 조성함.
총 길이	422Km
코스 형태	환형
테마 유형	자연생태 감상, 역사문화 체험, 현지생활 체험
관리 주체	(사)제주 올레
연간 방문인원	110만명 추산 (제주/서귀포 시청 집계)

[표 3-11] 제주 올레길 현황

구간명		거리	난이도
1코스	시흥광치기 올레	15.6km (4~5시간)	중
2코스	광치기-온평 올레	18.1km (5~6시간)	하
3코스	온평표선 올레	20.7km (6~7시간)	상
4코스	표선남원 올레	22.9km (6~7시간)	상
5코스	남원쇠소깍 올레	14.7km (4~5시간)	중
6코스	쇠소깍외돌개 올레	14km (4~5시간)	하
7코스	외돌개월평 올레	13.8km (4~5시간)	상
8코스	월평대평 올레	19.2km (5~6시간)	상
9코스	대평화순 올레	7.1km (3~4시간)	상
10코스	화순모슬포 올레	14.8km (4~5시간)	중
11코스	모슬포무릉 올레	18km (5~6시간)	상
12코스	무릉용수 올레	17.5km (5~6시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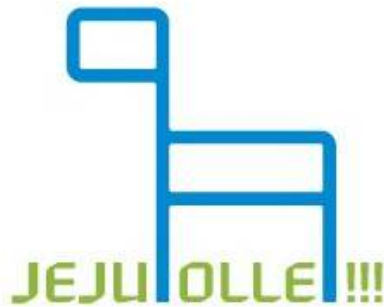


구간명		거리	난이도
13코스	용수저지 올레	14.8 km (4~5시간)	중
14코스	저지한림 올레	19.3km (6~7시간)	중
15코스	한림고내 올레	19km (6~7시간)	중
16코스	고내광령 올레	17.8km (6~8시간)	중
17코스	광령산지천 올레	18.4km (6~8시간)	중
18코스	산지천조천 올레	18.8km (6~7시간)	중
19코스	조천김녕 올레	18.8km (6~8시간)	중
20코스	김녕하도 올레	16.5km (5~6시간)	중
21코스	하도 종달올레	10.7km (3~4시간)	중
1-1코스	우도올레	15.9km (4~5시간)	하
7-1코스	경기장과돌개 올레	15.1km (4~5시간)	중
10-1코스	가파도 올레	5km (3시간)	하
14-1코스	저지무릉 올레	18.8km (7~8시간)	상
18-1코스	추자도 올레	17.7km (6~8시간)	상

[표 3-12] 제주 올레길 전체코스과 거리 현황 종합표 (제주올레 공식사이트)

2) 올레길의 웨이파인딩 시스템

(1) 아이덴티티



[그림 3-25] 제주 올레 심벌마크 (제주 올레 홈페이지, n.d.)

현재 제주 올레길의 심벌마크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동물인 조랑말을 형상화한 것이며, (사)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이 제주어로 게으름뱅이를 뜻하는 간세다리에서 따온 ‘간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컬러 아이덴티티로서는 초기부터 제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적용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올레길하면 사람들이 파란색을 먼저 떠올릴 만큼, 파란색은 올레길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 외에 종점에서 시작점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트레킹을 하는 이용자를 위해서는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황금색 감귤을 모티브로 한 색이다.

(2) 사인 시스템

올레길의 사인 시스템은 화살표와 리본, 설치물로 이루어진다. 특히 파란색의 화살표는 올레길의 상징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올레길을 대표하는 사인이다. 파란색의 정방향, 주황색의 역방향 화살표는 올레길의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표시로써, 대개 페인트로 전신주, 노면, 돌담 등 길 곳곳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화살표는 설치물로도 제작되어 코스 곳곳의 주요 갈림길에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목재 화살표가 설치되어 있다.

파란색과 주황색의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리본은 주로 나뭇가지에 달려있지만, 돌담이나 전신주, 그 외 환경이 허락하는 다양한 곳에 달려 있다. 리본은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코스 선상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에 따라 방향 표시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3-26] 올레길의 페인트 화살표



[그림 3-27] 올레길의 리본 사인

조형물 사인인 ‘간세’는 주요 갈림길에서 방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거나, 주요 장소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안내 사인의 역할을 한다. 사인이 이름을 가지고 불

리는 독특함 때문에 올레길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간세는 올레길 로고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있는데, 디자인 시 의도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통과시키는 형태는 바람이 강한 제주도의 특성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간세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길의 진행 방향이며, 간세의 몸통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스 및 이용자가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확인가능하게 해주는 위치 번호,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이나, 미감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크기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 트레킹 시작 시에 초행자들에게 학습시킬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28] 올레길의 간세 사인과 화살표 설치물



[그림 3-29] 간세 사인의 정보 안내

간세는 처음에는 친환경적 재료인 옥수수 당분을 원료로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폐기 시 땅에 묻으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태풍이 많은 기후 및 사람들에 의해 파손되기 쉬운 내구성의 문제와 일사광에 쉽게 퇴색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금은 내구력 있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데, 비록 친환경은 아니지만 파란색의 선명도가 높아져 환경에서의 시인성이 높아졌으며, 배경의 주조색이 초록색인 상황이 많아 환경에서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절묘하게 배경과 어울리는 색의 조합을 보여주곤 한다.



[그림 3-30] 올레길의 안내 표지석



[그림 3-31] 스탬프 보관함과 표지석, 방향표시 간세가 함께 있는 모습

코스 각 시·종점에서 볼 수 있는 안내 표지석은 제주를 대표하는 돌인 현무암을 사용하고, 제주의 태풍에도 끄떡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돌에는 시작되는 코스 번호가 부착되어 있고, 안내판에는 현 위치와 구간 약도, 그리고 구간별 각 주요 장소의 정보가 순서대로 적혀있다.

(3) 올레길 패스포트와 스탬프

코스 이용자를 위한 여행 수첩인 올레 패스포트는 일반 여권 크기로 파란색과 주황색의 두 가지가 있으며, 파란색은 제주 남부 서귀포시 권역의 1~12코스까지, 주황색은 제주 북부 제주시 권역의 나머지 코스로 나뉘어 있다. 내용은 코스별 페이지와 메모란, 기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패스포트 소지자는 각 코스의 시작점, 중간점, 종점에서 각각 3개의 서로 다른 모양의 스탬프를 찍을 수 있으며, 이중 2개 이상의 스탬프를 찍으면 해당 구간을 완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종점에 비치된 스탬프에는 각 구간의 특징적 이미지가 들어있다.



[그림 3-32] 올레 패스포트 및 스탬프 (제주 올레 홈페이지, n.d.)

3.4.2 지리산 둘레길

1) 둘레길의 개요



[그림 3-33] 지리산 둘레길 지도 (산림청 홈페이지, n.d.)

지리산 둘레길은 산림청의 녹색자금 지원을 받는 (사)숲길이 2007년 ‘환지리산 트레일 코스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에 환형으로 연결된 총 374km의 전 코스가 개통되었다. 둘레길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3개 도와 5개 시·군, 120여개 마을을 관통하는 길로, 다양한 유형의 길을 연계시킨 길이다. 지리산은 역사적으로 영·호남을 아우르며 발전되어 온 곳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거기에 얹힌 숱한 이야기들과 그에 따르는 문학적 상상력의 보고이기도 하다(윤정준, 2008). 둘레길의 지향점은 도시와 농촌, 자연과 사람을 잇고, 수직의 산행문화를 수평의 문화로, 그리고 빠름의 문화를 느림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며(한국관광공사, 2011), 현재 제주 올레길과 함께, 한국의 양대 대표적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항목	주요내용
코스의 형성	지리산 곳곳에 걸쳐있는 옛길과 숲길과 마을길 등 기존의 길을 연결함.
총 길이	274km
코스 형태	환형
테마 유형	자연생태 감상, 역사문화 체험, 현지생활 체험
관리 주체	(사)숲길 (산림청 등록 비영리법인)
연간 방문인원	40~50만명 추산

[표 3-13] 지리산 둘레길 현황

구간명	거리	난이도
주천-운봉	14.3km (6시간)	중
운봉-인월	9.4km (4시간)	중
인월-금계	19.3km (8시간)	중
금계-동강	11km (4시간)	상
동강-수철	11.9km (5시간)	중
수철-어천	14.5km (5시간)	중
어천-운리	13.3km (4시간 30분)	상
운리-덕산	13.1km (5시간)	상
덕산-위태	10.3km (4시간)	하
위태-하동호	11.8km (5시간)	하
하동호-삼화실	9.3km (4시간)	하
삼화실-대축	16.9km (7시간)	중
하동읍-서당	7.1km (2시간30분)	하
대축-원부춘	8.6km (4시간30분)	상
원부춘-가탄	12.6km (7시간30분)	상
가탄-송정	11.3km (6시간30분)	상
방광-산동	13.1km (6시간)	상
오마-방광	12.0km (5시간)	중
오마-난동	18.6km (7시간)	하
송정-오미	9.2km (5시간 30분)	중
가탄-송정	11.3km (6시간 30분)	상
목아재-당재	7.8km (3시간)	중
산동-주천	15.9km (7시간)	중

[표 3-14] 지리산 둘레길 전체코스과 거리 현황 종합표 (지리산 둘레길 공식사이트)



2) 둘레길의 웨이파인딩 시스템

(1) 아이덴티티



[그림 3-34] 지리산 둘레길 심벌마크 (자료원: (사) 숲길)

지리산 둘레길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리산 둘레길의 심벌마크는, 내용적으로는 둘레길의 여러 구간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다는 솔방울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솔방울의 외곽 형태는 전체 둘레길 코스를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솔방울 무늬의 색은 다섯 개의 시와 군을 상징하며, 둘레에 있는 라인은 다양한 길의 형태로 존재하는 트레킹 코스를 상징한다고 한다. 이 심벌마크는 웨이파인딩 요소에서는 방향표시목에 표시되어 사용되거나, 브로셔나 기타 인쇄물에 일반적 용도로 사용되는 외에는 다른 응용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선 형태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디자인의 응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무엇보다도 심벌마크의 형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솔방울을 지리산의 특별한 상징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벌마크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색채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까닭에, 의미의 전달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¹⁹⁾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 타 사례에서 심벌마크나

19) 의미의 전달성에 대한 연구자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20~40대 연령의 10명에게 지리산 둘레길의 심벌마크를 보여주고 어느 지역과 관계되는 로고라는 것만을 알려준 후,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물어본 결과 파인애플(5명), 산업지역(2명), 산

색채 등의 아이덴티티가 다양하게 이용되는 상황과 비교할 때에는 개선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2) 사인 시스템

둘레길의 사인 시스템은 화살표와 다양한 종류의 설치물로 이루어진다. 둘레길은 산길이라는 특성을 살린 통나무 원목을 이용한 이정목이 대표적 사인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사람 또는 전통적 장승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친근감을 주며, 정방향과 역방향의 양방향성을 가리키는 형태로 설치된다. 이정목은 나무의 모양과 재질, 만듦에 따라 조금씩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 형태의 통일감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며 환경과 잘 어울리면서도 눈에 잘 띄는 편이다. 둘레길을 위해 처음 제작되었으나, 최근 강원도 편치불 둘레길 및 백두대간 트레일 등에서도 같은 이정목이 설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35] 둘레길의 방향표시
사인 (자료원: (사) 숲길)



[그림 3-36] 둘레길의 페인트 화살표
(자료원: (사) 숲길)

둘레길은 포장된 노면의 경우, 바닥에 페인트로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하는데 빨간색이 정방향이고 검은색이 역방향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둘레길은 리본이나 기타

관련 올림픽/레포츠(2명), 경기도(1명) 순이었다. 20대(4명)는 답변자 모두 파인애플을 떠올린 것이 흥미로운데, 사선으로 만들어지는 패턴 외에 색채가 열대(tropical) 지역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나 10명의 표본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므로 참고점으로만 삼고자 한다.

코스 선상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블레이즈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 가보면 산악회 리본이 많이 보여 미관을 해치는 느낌을 주었으나, 최근 임시 리본 사인을 도입했다고 하므로 향후 그에 대한 관리가 주목된다.



[그림 3-37] 둘레길 종합 안내 표지판
(자료원: (사) 숲길)



[그림 3-38] 둘레길 구간 시작 표지판

(3) 둘레길 순례수첩과 스탬프

둘레길도 이용자들을 위한 순례수첩과 스탬프를 제공하고 있다. 순례수첩은 (사) 숲길이 운영하는 안내센터에서 등록한 후 각 센터에 들리면 구간 스탬프를 받는다. 전 구간을 완주한 경우, 최종 완주한 곳에서 신청을 하면 ‘숲속의 친구들’이라는 완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림 3-39] 둘레길의 순례수첩 및 스탬프
(자료원: (사) 숲길)



[그림 3-40] 둘레길 완주 인증카드
(자료원: (사) 숲길)

3.4.3 동해 해파랑길



[그림 3-41] 동해 해파랑길 지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10)

1) 해파랑길의 개요

해파랑길은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201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조성중인 트레킹 코스로, 동해안을 따라 국토의 남북을 잇는 총 770km에 달하는 초장거리 코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해파랑길이 지나는 강원도, 경상북도 및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19개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2010년 트레킹 코스 전문가와 문화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 한국의 길과 문화가 함께 개발 중이며, 전체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해파랑길의 명칭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는데, ‘해파랑길’의 의미는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색인 ‘파랑’, 그리고 ‘~와 함께’라는 조사‘랑’을 조합한 합성어로,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

이라는 뜻이다(한국관광공사, 2011).

국토 동부 최남단 오륙도의 해맞이 공원을 기점으로 하여,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끝을 맺는 해파랑길의 특징은 기존에 조성된 도보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간 곳곳이 타 명칭 트레킹 코스나 산책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항목	주요내용
코스의 형성	동해를 따라 국토를 종단함
총 길이	770km
코스 형태	선형
테마 유형	자연생태 감상, 역사문화 체험
관리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 한국의 길과 문화
연간 방문인원	연간 130만명 예상 (관리자 측 예측)

[표 3-15] 동해 해파랑길 현황

해파랑길은 크게 부산구간, 울산구간, 경주구간, 포항구간, 영덕구간, 울진구간, 삼척~동해구간, 강릉구간, 양양~속초구간, 고성구간 10구간으로 분류되며, 다시 세부적인 코스로 나뉜다.

	구간명	세부 코스	거리	난이도
1	부산 구간	오륙도해맞이공원-미포	6km (3시간)	하
2		미포-대변항	12km (4시간)	중
3		문탠로드	2km (1시간)	중하
4		해안포구길	4km (1시간30분)	중상
5	울산 구간	진해해변-덕하역	18.4km (4시간8분)	중하
6		덕하역-솔마루길 입구	16.9km (6시간36분)	상
7		솔마루길 입구-성내삼거리	17.2km (5시간44분)	하
8		성내삼거리-일산해변입구	14.7km (5시간18분)	중하
9		일산해변입구-정자항	19.2km (6시간36분)	중
10	경주 구간	정자항-나이해변	14.5km (4시간40분)	하
11		나이해변-감포항	19.9km (6시간50분)	중
12		감포항-양포항	13km (4시간20분)	하

	구간명	세부 코스	거리	난이도
13	포항 구간	양포항-구룡포항	19.9km (6시간43분)	하
14		구룡포항-호미곶등대	15.7km (5시간14분)	하
15		호미곶등대-흥환보건소	13km (4시간40분)	중상
16		흥환보건소-송도 해변	19.6km (6시간32분)	중하
17		송도 해변-칠포 해변	17.7km (5시간54분)	중
18		칠포 해변-화진 해변	20.4km (6시간44분)	중하
19	영덕 구간	화진 해변-강구항	15.7km (5시간14분)	하
20		강구항-영덕해맞이공원	18.8km (7시간26분)	중상
21		영덕해맞이공원-축산항	12.2km (4시간4분)	중하
22		축산항-고래불 해변	16.1km (5시간54분)	중하
23	울진 구간	고래불 해변-후포항입구	10.2km (3시간24분)	하
24		후포항입구-기성면소재지	20.4km (6시간48분)	중
25		기성면소재지-망양정	21.6km (7시간32분)	하
26		망양정-죽변등대	17.1km (5시간42분)	중
27		죽변등대-나곡 해변	12.7km (4시간14분)	중
28	삼척·동해 구간	나곡 해변-원덕읍버스정류장	9.3km (3시간31분)	상
29		원덕읍버스정류장-임원항입구	10.9km (4시간3분)	상
30		임원항입구-공양왕릉입구	14.6km (5시간24분)	상
31		공양왕릉입구-덕산 해변	10.9km (3시간50분)	중상
32		덕산 해변-추암 해변	22.6km (7시간44분)	중하
33		추암 해변-묵호역	13km (4시간20분)	하
34	강릉 구간	묵호역-옥계면소재지	19.2km (6시간29분)	상
35		옥계시장-정동진역	14km (5시간10분)	중
36		정동진역-안인 해변	9.4km (3시간20분)	중상
37		안인 해변-오독떼기전수관	17.5km (6시간)	상
38		오독떼기전수관-솔바람다리	18.5km (7시간)	중상
39		솔바람다리-사천진리 해변공원	16km (5시간30분)	하
40	양양·속초 구간	사천진리 해변공원-주문진 해변	12.5km (4시간)	하
41		주문진 해변-죽도정	12.5km (4시간10분)	하
42		죽도정-하조대 해변	9.4km (3시간8분)	중하
43		하조대 해변-수산항	9.4km (3시간8분)	하
44		수산항-속초해맞이공원	13km (4시간30분)	하
45	고성 구간	속초해맞이공원-장사항	16.7km (5시간34분)	하
46		장사항-삼포 해변	15.6km (5시간10분)	하
47		삼포 해변-가진항	9.9km (3시간20분)	하
48		가진항활어회센터-거진활어회센터	15.6km (5시간15분)	하
49		거진활어회센터-명파초교	16km (5시간30분)	중
50		명파초교-통일전망대	8km (2시간40분)	중

[표 3-16] 동해 해파랑길 전체코스과 거리 현황 종합표

2) 해파랑길의 웨이파인딩 시스템

(1) 아이덴티티



[그림 3-42] 동해 해파랑길 심벌마크 (한국의 길과 문화 홈페이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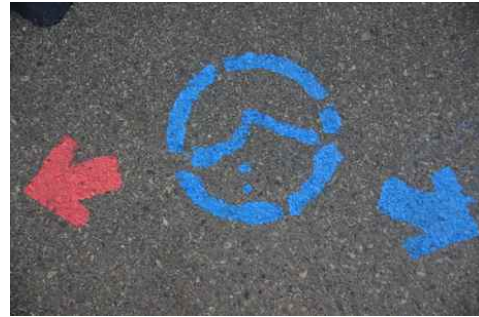
해파랑길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특화 환경 디자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여 2011년에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파랑길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해파랑길 심벌마크는 국제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East Sea of Korea'를 나타내는 동해안의 해안 형태와 울릉도, 독도의 모습을 상징화하였으며, 동해안의 일출, 그리고 파도의 모습과 사람의 옆모습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1: 65). 그러나 국내외 사례 트레킹 코스 중 코스명 자체가 색(파랑)과 연관된 유일한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덴티티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 사인 시스템

해파랑길의 사인 시스템은 크게 화살표와 리본, 안내 표식과 스티커, 설치물 사인으로 이루어진다. 화살표는 해파랑길의 심벌마크를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그려지는데, 나침반의 색을 응용하여 북쪽으로 진행 방향은 붉은 색, 남쪽 방향은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3-43] 해파랑길의 표식과 리본
(자료원: (사) 한국의 길과 문화)



[그림 3-44] 해파랑길의 페인트 화살표
(자료원: (사) 한국의 길과 문화)

리본은 해파랑길이 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눈에 띄기 쉽게 로고 아이덴티티 색조의 그라데이션을 차용하여 주황색과 노란색의 두 가닥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안내 표식은 타 코스와 같은 설치물이 아닌 나무나 기둥, 벽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사이즈로 되어있으며, 현재 디자인은 해파랑길 이름과 로고 외에 현재 코스번호와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다.

스티커형 사인은 국내 타 코스에서 보기 어려운 특징적 사인인데, 이것은 일본 시코쿠 순례길에서 보여졌던 형태로서, 간편하게 부착이 가능하고 작은 사이즈이지만 선명한 색감으로 눈에 띄기 쉽게 되어있다. 또한 해파랑길이 타 코스와 겹치는 구간이 많은 점을 고려해, 타 코스 안내 스티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채롭다. 그러나 연구자의 웨이파인딩 시스템 연구 논문을 통하여 스티커 사인은 그 사용성의 편리함 때문에 남발되기가 쉽고 또한 쉽게 손상되거나 오염되어 지저분하게 보이기 쉬워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한바 있기에(金信惠, 2000), 본 사례지에서도 그에 대한 고려와 원칙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설치물의 경우, 원통형의 지주식 사인으로 디자인되어 주요 장소로의 방향과 거리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 3-45] 해파랑길의 스티커형 사인
(자료원: (사) 한국의 길과 문화)



[그림 3-46] 해파랑길의 설치물 사인과
게시판 (자료원: (사) 한국의 길과 문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해파랑길은 기존의 코스에서의 사인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하여 여러 가지 웨이파인딩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현재 사인의 설치 및 적용이 초기 단계이지만, 각 요소가 해파랑길의 아이덴티티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아이덴티티 색채와 형태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국외 및 국내 사례에서 사람이 수작업(hand-made)을 함으로써 나타났던 다양성의 경우, 트레킹 코스의 아이덴티티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고 한편으론 장소성의 요소가 되었으나, 이렇게 대량 생산된 사인의 경우에는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해파랑길 패스포트와 스탬프

해파랑길 역시 이용자들을 위한 패스पोर्ट를 제공하여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해파랑길의 개성이 부여된 디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 시점에서는 아직 코스의 개장이 진행 중이라 실제 배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3-47] 해파랑길의 패스포트

제 4 장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1 연구의 개요

4.1.1 질적 연구 방법의 도입

인터넷 SNS 자료의 분석이라는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을 시도한 본 연구에서는,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에 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 중 근거이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근거이론은, 효과적인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개념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비교적 직접적이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일대일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반구조적 질문지 등을 통한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나, Glaser & Strauss(1967; Pandit, 1996 재인용)가 말한 것처럼 자료 수집의 기법이나 연구자가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자료의 종류에 있어 한계를 두지 않는다.

근거이론을 개발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목적은 ‘현상(Phenomenon)의 총체성(Totality)을 설명하는 명제의 집합(a Set of Propositions)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규, 2006: 154). 근거 이론은 이론의 개발을 강조하며, 본 연구 주제인 트레킹 코스에서의 특징적인 물리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자료를 먼저 탐색하고 핵심 범주의 발견을 추구하며 그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실증적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1.2 연구 방법의 평가

질적 연구 방법은 수집한 자료의 추출에 있어, 같은 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근거이론에서 주로 쓰이는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에서 같은 질문을 다양한 형태로 하였을 때 같은 반응



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정보의 일관성의 증거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개입이 전혀 되지 않은, 인터넷에 이미 작성되어 올라와 있는 SNS 게시글을 자료수집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기본적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위에 빈번히 나타나는 내용을 취합함으로써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

연구에 있어 연구 대상의 측정과 그 변수들의 대표성에 집중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연구의 대상인 특정 현상의 본질, 정수, 의미 및 특징을 이해하고 지식을 얻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즉 질적 연구의 목표는 측정이 아닌 현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권혜진, 1994). Denzin & Lincoln(2005; 이도희·김현미, 2013: 152 재인용)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일종의 의미전달의 중재자라고 표현하였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중요한 도구가 되며, 연구자의 자질과 역량, 연구자의 준비정도 등에 따라 질적 연구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정성 확보가 중시되며, 본 연구의 엄정성을 위하여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관리를 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실명이 있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녹취하는 경우에는 인터뷰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 동의를 얻었다. 또한 자료의 중복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글이 복수의 사이트에 중복 게시된 경우, 하나의 게시글 만을 걸러내려고 노력하였다. 1차 오픈코딩에서 걸러지지 않은 경우라도, 재범주화 과정을 통해 중복 게시글을 걸러냄으로써 최종적으로 자료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4.1.3 연구 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트레킹 코스에 있어, 이용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 트레킹 코스인 제주도 올레길의 트레킹 경험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트레킹 코스 경험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인터넷 SNS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시도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용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강한 인상의 내용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설문 조사가 가지기 쉬운 한계인 의도적이거나 강제적인 면을 배제하고, 연구자의 영향이 답변에 나타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트래킹 코스 경험을 한 다른 개인이 올리는 정보가 정보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SNS 데이터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분석하는데 있어 연구자가 본 인터넷 SNS 연구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 ① 직접 경험한 이들의 얘기를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인 만큼 직접적이고 솔직한 의견의 수렴이 가능하였다.
- ② 조사자의 영향이 없는 순수한 이용자 의견을 취득할 수 있었다.
- ③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사) 제주 올레 등)의 실무진이나 실제로 길을 내는데 참여한 작업자 등의 목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어, 다양하고도 다각적인 시각의 자료 확보가 가능하였다.
- ④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길을 걸으면서 현장에서 글을 올리는 경우도 보였고, 또는 길을 걸은 당일 또는 며칠 내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며, 또한 자세한 경험을 잊기 전에 올릴 수 있다.
- ⑤ 다른 환경의 피드백에 비해, 트래킹 코스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건의 사항도 많이 올리며, 그에 대한 다른 이들의 댓글도 같이 올라오고 그에 대응하는 관리자 측의 입장도 확인 가능하였다.
- ⑥ 이용자가 기꺼이 길의 개선을 위해 돕고자하는 마음가짐이 있어, 개선을 위한 제언도 많이 볼 수 있었다.



- ⑦ 기억에 남는 사항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써서, 숨어있는 디테일을 찾아내기가 용이한 편이었다.
- ⑧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읽고 도움을 받은 후 자신도 도움을 주기 위해 쓰는 사람이 많아,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게시하려고 애쓴다.
- ⑨ 사진까지 같이 올려주는 경우도 많아 효율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였다.
- ⑩ 트레킹 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자료 조사 시점뿐만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트레킹 코스에 대한 변화과정의 추적이 가능하였다.

단점은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연령대의 이용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조사를 진행해 보았을 때, 20~40대의 비율이 높아 주 이용자의 연령층의 폭이 넓은 편이었고,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성별과 연령대에 있어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직접 후기를 올린 연령대는 확인된 것으로는 초등학교부터 70대 노인까지 있었고, 그 외 후기 작성자와 동행한 케이스로서 초등생부터 80대 노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부자유자 등이 있었다.

4.1.4 자료 수집과 절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근거이론 방법론의 개념에서 언급했듯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의 시도로서 인터넷 SNS를 통하여 트레킹 코스 관련 경험에 관한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인터넷 SNS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 대표적 포털 사이트이며 인터넷 동호카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에서 제주 올레길 관련 카페를 검색하여, 그중 가장 회원 수가 많은 카페를 확인하였다. 회원 수와 관련 게시물 수를 확인하여 제주 관련 카페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카페를 선정하였다. 각 카페의 게시판을 확인하여 올레길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게시글을 확인하였다. 게시판의 성격이 트레킹 코스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우, ‘올레’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된 게시글(트레킹 후기 및 댓글) 총 6,085개(네이버: 3,330개,



다음: 2,755개)를 선입견 없이 모두 읽고, 그중 웨이파인딩 및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시글 총 209개(네이버: 191개, 다음: 18개)²⁰⁾를 수집하였다. 또한 (사)제주올레 측이 제공하는 올레길 공식사이트의 이용자 후기란에 올라온 게시글 4,291개를 모두 읽고, 카페 후기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게시글 533개를 수집하였다.

사이트명	카페명	게시판명	회원수	관련 총 게시물 수	스크랩한 게시물 수	스크랩 총 페이지
네이버	느영나영	올레, 숲길, 트래킹	366,000	506	159	324
	INUS 제주	여 행 후기	89,000	132	8	19
	제주도 여행카페	올레길숲길트래킹	73,000	2,692	24	50
다음	씨에스 카페	나의 종합 여행기	124,000	2,711	9	17
	제주 여행 동호회	올레길 후기나눔	44,900	40	8	11
	제주 하이킹	다녀오고나서 (후기)	14,218	4	1	1
사이트	제주올레	올레길 걸어보니	확인 불가	4,291	533	609
합계	-	-	711,118	10,376	742	1,031

[표 4-1] 자료수집 관련 사이트 및 표본 추출 현황

그리고 보조 자료로서 지리산 둘레길 관련 카페와 둘레길 공식 사이트, 동해 해파랑길 관련 카페 및 기타 해외 트레킹 관련 카페의 후기를 참고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로서 국내에 발행된 올레길 및 기타 국내외 트레킹 코스 관련 도서를 참고하였으나, 이용자들이 직접 걸으면서 에세이 식으로 쓴 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광가이드북 형식의 책은 필요한 경우 참고는 하였으나 정보만이 나열된 가이드북은 최대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타 신문이나 잡지 등의 간행물, 그리고 최근 트레킹이 주목을 받으면서 트레킹 코스 관련 TV 방영 프로그램이 상당

20) 댓글의 경우, 본 게시글과 함께 추출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개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 사례로서 선택한 트레킹 코스에 관련된 동영상도 자료 수집의 일부로서 사용하였다.

좀 더 깊은 통찰과 전문적 의견을 위하여 제주 올레길의 설립주체인 (사)제주 올레 사무국의 관계자 및 기타 트레킹 코스에 관한 책을 내거나 국내외 여러 곳의 트레킹 코스를 다녀본 경험을 가진 이용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의견과 경험담을 청취하였다. 또한 직접 올레길과 둘레길을 걸으면서 현장의 환경과 연구자의 경험을 스스로 관찰하였으며, 주변에서 걷고 있는 타 이용자들도 관찰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트레킹 코스 방문 중에 만난 타 이용자들과 일대일 면담을 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웨이파인딩 경험도 청취하였다. 자료 분석과정과 인터뷰, 및 실제 현장 답사 등의 모든 연구 과정에 있어 메모를 병행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약 6개월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이에 제주 올레길에 2번 방문하여 직접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사진을 찍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비디오 촬영하였다. 자료 수집을 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메모를 병행하여, 대학노트 약 1권 분량의 메모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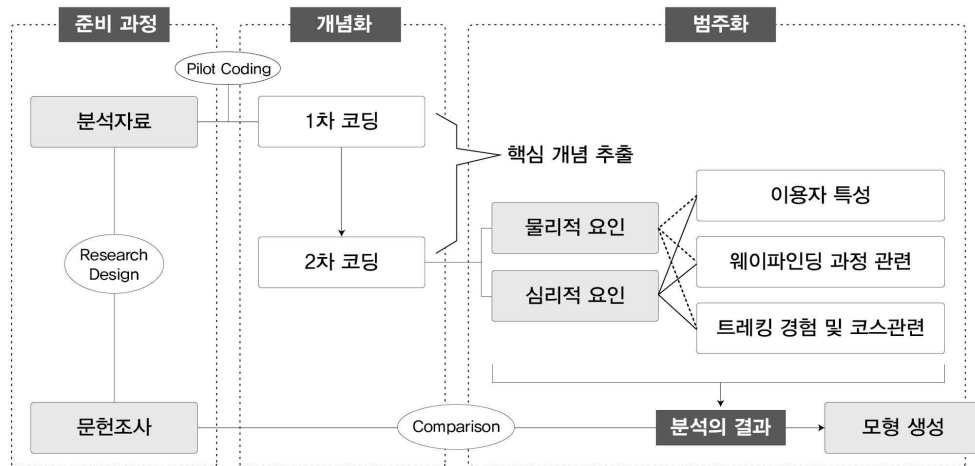
최종 자료로서 추출된 게시글의 개수(댓글 불포함)는 742개로서 한명이 복수의 글을 쓴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500명 이상의 경험담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추출된 표본의 양을 고려할 때, 양적 연구 방법론과 비교하여 결과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2 연구 설계

4.2.1 분석의 틀

본 연구에 있어 [그림 4-1]의 분석의 틀과 같은 분석적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트레킹 코스 관련 경험자 후기 및 도서를 바탕으로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Pandit(1996)가 정리한 개념(Concept), 범주(Categories), 명제(Proposition)의 3단계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4-1] 연구에 있어 분석의 틀

4.2.2 분석의 방법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후기 및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정독하는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읽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잠정적 개념들을 따로 계속 노트에 메모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를 읽거나 조사 대상지에서 직접 걸어 다니면서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였다.

1)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통한 자료의 분석

(1) 개념화 준비(Pilot coding)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전체 대상 후기의 반쯤 수집되었을 때 핵심 범주를 찾아내기 위한 시험적 코딩을 시도하였다.

범주를 웨이파인딩의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그리고 물리적이거나 정서적의 범주로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타’ 범주로 크게 나누어, 각 범주에서 세부 개념 10개 정도씩을 추출해 내었다.

(2) 1차 개념화

전체 대상 게시글이 모두 수집되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선입견 없이 코딩을 하였고, 준비 작업에서 추출된 범주와 비교하였다. 이때 다시 각각의 세부 개념이 15~20개로 늘어났다.

(3) 2차 개념화

1차 범주화 이후 약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코딩을 하였고, 각각의 세부 개념이 20~25개 정도가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2차 범주화의 결과, 69개(물리적 25개, 정서적 21개, 기타 23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다.

2) 범주화(Categorization)를 통해 나타난 요인의 분석

개념화 작업을 통하여 추출된 개념을 다시 유사한 개념으로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개념의 재분류 및 제거를 통하여,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두 범주로 최종 정리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요인 18개, 정서적 요인 17개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다시 ‘이용자 특성’,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트레킹 경험 및 트레킹 코스 관련’의 3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3) 명제화(Proposition)을 통한 모형 및 이론의 생성

범주화 작업을 통하여 추출된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분석하여 다시 세분화하고, 각 범주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범주 및 세부 개념의 비교 분석 및 개념적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타 요인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에 관한 모형을 생성함으로써, 트레킹 코스 이용자의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정서적 요인에 관한 이론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4.3 물리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의 추출

개방 코딩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 자료에서 추출된 개념은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은 다시 ‘이용자 특성’,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분류된 트레킹 코스 이용자 후기에서 추출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4.3.1 물리적 요인의 추출

1) 이용자의 특성

(1) 트레킹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

트레킹을 처음 시작한 초행자들의 경우, 시작점을 포함한 트레킹 초기에 환경과 사인에 대한 감각의 부족으로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올레를 자주 다니신 분들은 화살표 하나, 리본 하나만 봐도 본능적으로 길을 감지하시겠지만, 아직 서툰 저희에게는 혼동이 많이 와서 8코스의 시작이 약간 난감했었습니다.”

“갑자기 화살표식이 해안가쪽으로 났다가, 다시 길위로 났다가..무슨 의미인지.. 정말 광치기 해변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전 오늘 올레 정식코스 처음 경험했는데.. 너무 험난했답니다..”

“올레길 초짜 들어서 이정표 제대로 안 보고 다니다가 11코스 시작점 시내에서 뱅뱅이 돌았습니다.”

(2) 코스를 경험함에 따라 점차 사인과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함

트레킹 코스에서의 이용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길에 대한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환경 및 사인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학습이 되어 점차 웨이파인딩이 수월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도로가 불쑥 나와도 여기쯤 화살표가 있을 거야, 아님 리본이 있겠지, 하면 여지없이 있곤 해서 별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 올레를 찾으니 이젠 잘 보인다.”



“소풍갈 때 보물 찾는 기분으로 올레길 표시를 찾아다녔는데... 어제는 눈에 잘 안들어
오던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눈에 잘 들어왔어요.”

(3) 거리 개념을 시간 개념과 길이 개념으로 이원화된 인지를 함

이용자들은 거리 개념을 시간과 길이의 이원화된 형태로 받아들이는데, 물리적
길이를 인지하기 보다는 시간 개념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남원 포구까지 대충 20분, 그리고 거기서 큰영산책로까지 다시 30분 정도라고 가볍게
말씀하신다.”

“시흥초등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신다.”

“8코스는 4시간에 걸었는데 차로는 20분 거리였다는...”

“그곳에서 역으로 오시는 아저씨를 만났다. 얼마나 남았냐고 여쭙봤더니 그아저씨가
묻고싶다 하셨다. 우린 3시간 걸었고 그 아저씨 4시간.”

2)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1) 이용자가 사인을 못보는 경우

웨이파인딩 과정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사인을 못보고 지나치는 공통적 상황이
추출되었는데, 그 상황으로서 우선, 대화를 하다가 사인을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나타났다.

“알고 보니 친구랑 얘기를 하다 한참이나 지나쳐버렸더군요.”

“얘기를 하면서 걷다보니..... 올레표시를 그냥 지나치거나 그런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일행 4명 모두 정면만 바라보고 이바구를 풀다가 그냥 지나친 것이었어요.”

그리고 풍경을 감상하다가 사인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나타났다.

“화살표가 부실해서는 아니고 풍경을 감상하다가, 사진을 찍다가 진입로를 놓치곤
했습니다.”

“경치를 보느라고 아주 알아보기 쉬운 진입로를 놓치고 바닷가 바윗길을 꿈꿨대
걸었습니다.”



“주변풍경에 뉘 놓고 있다가 4일 간 길 잃고 헤맨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사진 찍고, 경관을 보면서 걷다보면 가끔씩은 엉뚱한 곳으로 가곤 합니다.”

걸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사인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잠깐 만 생각하는 사이 동부 리조트를 지나쳐 고산 시내까지 신나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삼거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화살표를 놓쳐버렸네요.”

“혼자서 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에서 걷다가 리본과 같은 표식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겼요.”

(2) 이용자의 행태적 습성으로 인한 상황

이용자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태적 습성으로 인한 웨이파인딩 문제 상황도 추출되었는데, 이용자들은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거나 사인을 못 보는 경우에는 직진을 하는 행태적 습성을 보였다.

“화살표나 리본 표식이 없을 때는 강~~무조건 직진이다.”

“나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쭉 직진 했다가 다시 터벅터벅 매표소 앞까지 되돌아와 90도로 꺾인 파란색 울레 화살표 표시에게 화를 냈었다.”

“저 뒤로 보이는 표지판에서 꺾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직진해서 걷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길이 넓거나 잘되어 있는 쪽, 밝은 쪽, 또는 풍광이 좋은 곳을 지향하는 습성을 나타냈다.

“초보자나 김치(?)분들은 리본 잘 확인하면서 가세요. 리본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잘 된 길이 간혹 있어 거기서 들어서기 쉬울 것 같아요.”

“잘못보고 오른쪽으로 갈 뻔했음.. 심리상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다보니.”

“등대가 있는 넓은 선착장 쪽으로 가는데 어제 이상하다. 울레 화살표시가 나타나질 않는다. 다시 되돌아오는데 화살표가 갑문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상하다. 저쪽으로 갔을까?(나중에 찜질방에서 만난 자매여사님들도 나와 똑 같은 경험하셨다고)”



그리고 웨이파인딩에 있어 다른 사람이 유인 요소가 된다는 것은 트레킹 코스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용자들이 사람의 흐름을 추종하는 습성을 나타낸다.

“그들 뒷모습만 보고 걸어가다 난 길을 놓쳤다. 화살표를 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을 한참을 걸었는데 제자리이다.”

“아까 여행객들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숲에서 아스팔트쪽으로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3) 이용자가 사인을 놓치기 쉬운 환경

트레킹 코스 환경에 있어 이용자가 사인을 놓치기 쉬운 환경이 추출되었는데, 경로가 셋길로 빠지는 경우에 이용자들이 길을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가 나타났다.

“10분도 넘게 걸어도 리본표시가 안 보인다. <중략> 왼쪽으로 난 좁은 자갈길을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을 알았다.”

“대평포구에서 바다옆길 따라 걷다보면 왼쪽 생태공원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걷다가 올레길 표시 리본 놓쳐서 해매다가 결국 다시 바다길 쪽으로 나와서 걸었어요.”

트레킹 코스가 오솔길이나 숲길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히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시가지 또는 변화한 곳이나 인파가 많은 혼잡한 곳으로 진입하는 경우이다.

“시내올레로 접어들니 전봇대나 담벼락 끝에 있는 사인들이 주차된 자동차나 지나가는 차량에 가려 찾기가 어려웠으나 시내쪽으로 진입하면서 올레길 막바지에 이르자 힘도 들고 표시도 헛갈려 고생스러웠다.”

“어느 곳에서든 사람만 많아지면 왜 잘 보이는 화살표가 보이지 않을까? 참으로 회안하다.”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와 합류되는 곳에선 사람들과 섞이다보니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또한 갑자기 넓은 곳이나 사방으로 트인 곳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웨이파인딩



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알으뜸에서 중산간도로로 이어지는 길에는 화살표가 리본 표식이 더 촘촘했으면 좋았을 듯.. 사방이 트인 곳이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막막..”

“이곳에 딱 들어가면 넓은 공터가 있는데 넓디넓은 곳에 표시가 없어 한참을 멍하니 두리번거리다 나왔거든요~ 겨우 리본을 찾았어요~.”

그 외 이용자들은 공사 중인 곳에서도 웨이파인딩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어찌어찌 화살표를 찾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사를 하고 있어서 화살표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또 한번 길을 헤매었다. 공사 중인 곳이 많아 표시를 찾기가 꽤 힘들었다.”

(4) 사인이 잘 안보여서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음

트레킹 코스에서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먼저 야외 자연 환경의 특성에 따른 날씨나 계절의 변화로 인하여 사인이 가려지거나 변형이 온 경우이다.

“어둡고 계속되는 눈과 강풍으로 길바닥의 진행방향표식은 보이지 않고 스테인레스 봉 같은 곳에 매달린 파란색, 노란색 리본은 젖어서 봉에 붙어 눈에 띄지 않음.”

“자귀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한 간세 안내 표지는 잡풀이 자라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올레길 표식이 3월달에는 나무에 매달은 리본이 잘 보였는데 4월에는 찾기가 나뭇잎이 나와 힘든 경우도 있었구요.”

“여름이라 그런지 풀이 사람 키보다 크게 자라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인 자체의 시인성이 부족하거나 사인 위치로 인하여 눈에 잘 안 띄는 경우,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조금만 가면 오른쪽 편으로 리본이 맺어 있습니다. 눈에 안 뵈니 주의하세요. 저희 앞 팀(남녀 2명)은 두바퀴를 돌았다는데 못 찾아서 결국 이상한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되네요.”

“지금 올레길에는 이정표가 바닥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로 그것도 아주 작게 되어있어서 갈래길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 방해물로 인하여 사인의 시인성이 저하되어 웨이파인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난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무언가를 먹고 마시면서 시끌시끌 소란을 떨고 있더니, 되돌아 걸어와 보니 딱 그 지점이 오르는 길이었다. 이런, 왜 하필 화살표를 차로 가리고 있었을까. 가끔 화살표 위에 주차를 한다든가 하면 한참을 헤매거든요.”

“삼도동 코스는 마을을 끼고 도는 코스라 주차된 차들로 표식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승용차가 서있으면 그나마 표식들이 보이는데 트럭이나 탑차 아님 조금 더 큰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특히 마을이라 전봇대에 리본 표식 묶어 놓거나 아님 그런 표식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5) 사인 자체가 혼란을 주어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음

사인이 존재하고, 이용자가 사인을 인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인 정보의 해석이 애매하여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리본이 애매하게 매어져 있다. 저 리본의 오른편? 왼편? 어디로 가는지... 하면서 넓은 오른편으로 내려가기 시작.”

“글쎄 마치 옆에 있는 셋길로 가야하는 것처럼 화살표가 나 있었어요. 덕분에 20분쯤 다시 왼쪽 길로 헤메다가 겨우 철조망 개구멍으로 빠져나왔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 개구멍이 넓게...”

“들어가는 입구, 같은 방향에 설치해 주세요. 진입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 리본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갈림길에서 우측에 리본이 보이면 의당 우측으로 가지요.”

“오른쪽으로 돌기 전에 나오는 여러 표시중 전봇대에 표시된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야외 자연 환경의 특성상 사인이 퇴색 및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웨이파인딩의 어려움도 많이 나타난다.

“4코스에서도 한 두 군데 잠시 길을 잃고 헤매었다. 아마도 공사하는 관계로 이전에 길에 표시된 올레 화살표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길 찾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표시가 희미해지고 리본이 분실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길표시인 리본과 길바닥 또는 벽이나 돌에 있는 표시 지워지거나 작고 흐려서 찾기가 어려웠고 리본은 나무잎에 가려지거나 색이 바래고 사람들의 손이 타서 인지 없어진 것도 있어서 걷는 사람들이 길을 잃을 요지가 많았습니다.”

“봉수대 인근에는 애매한 삼거리가 나온다. 신규 변경된 코스로 가려면 직진을 하여야 하는데 이곳에 설치된 간세 올레표시가 망가져 있어 혼선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트레킹 코스의 사인이 아닌 다른 사인으로 인한 웨이파인딩의 혼란 상황이나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사인이 제거되지 않거나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생기는 혼란 상황도 나타난다.

“길을 걷다보면 올레화살표와 비슷한 모양을 한 것을 만날 수 있다. 공사중에 그런 표시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이 지시하는 데로 가면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

“언제나 올레꾼의 나침판에 되어주는 파란화살표... 그러나 가끔 가짜화살표... 물론 흰페인트 화살표인데요. 짝퉁에 주의해야합니다.”

“올레12코스 당상봉에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올레리본은 없어지고 뮌 산악회리본만 있더군요. 올레꾼이 훼손하시지는 않았을테고 타 리본은 걸지마시구요. 올레리본을 잘 보존합시다.”

“하천 공사중인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도 올레 표식이 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 코스의 올레 표식이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평포구 가니까 표식에서 아예 순서가 바뀌어있더군요. 이게 수정이 안되어서 다른 분들은 길을 헷갈리셨을거 같네요.”

“15분정도 올라가다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새리본)을 따라가면 맞는 길이고, 저희처럼 직진을 하면 낡은 올레리본(옛 길)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올레리본이 있길래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니...”

(6) 이용자가 사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

트레킹 코스에서 대표적 결정 지점(decision point)인 갈림길에서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나타난다.

“따라가다보니 더이상 파란 화살표는 보이지 않았고...두갈래의 길! 왼쪽? 오른쪽? 이리저리 헤맨 끝에 왼쪽길이 맞다는걸 찾았다.”

“화살표는 삼거리쪽으로 되어 있었지만 막상 삼거리에서는 표식을 찾지못했고



칼립길 중 어느 한 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야(약 20-50m) 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2-30여 미터가 짧지만 얼마나 마음 조리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결정 지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맞는 경로를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웨이파인딩의 혼란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식이 너무 띄엄띄엄 있는 구간이 있어 가고있는 길이 맞는지.. 어려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직진코스라도 표식을 자주 해주세여~”

“그리고 차도를 걸을 경우에 표시가 자주 없어서 잘 가고 있는 건지..자꾸 불안감이 조성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7)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및 평가

트레킹 코스에서 사인 콘텐츠에 관련된 이용자들의 의견에서는, 이용자들이 걷고 있는 현 위치와 앞으로 남은 거리 및 부대시설의 위치 확인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사인 콘텐츠의 개선이 이루어진 후 만족감을 표시하는 이용자도 보였다.

“시작은 있으나 그곳을 출발하는 순간 난 몇 km를 걸어왔는지 내가 지나는 이 이름없는 포구가 어디인지, 앞으로 또 내가 가야할 길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수 없기에...”

“올레길 숙소, 민박 열결 코스 표시 (예 다음 숙박 가능 코스까지 시간, 거리 표시) 그래야 올레꾼이 더 같겠인지 머물것 인지 판단 할수 있을것 같음.”

“남은 코스가 얼마 남았는지 화장실은 얼마 후에 있는지 정도로 작은 풋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4코스는 중간중간 몇킬로지점 어디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내가 어디쯤 걷고 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런 세심함 이 좀 필요할듯 싶네요~”

“간세의 몸통 위에는 현재 진행하는 코스, 위치번호, 앞으로 남은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때 정말 유용할것 같습니다.”

사인 설치에 관련된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위에 나타난 사인의 시인성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많으며, 특히 사인의 내구성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산일출봉에서 광치기 해안으로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표시를 찾아 헤메어서...
<중략> 이런곳은 바닥보다 시야가 보이는 곳에...방향표시 깃발을 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머칠전 10코스시작점 화순모래사장 끝 초소옆의 올레 표시판 화살표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중략>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앞뒤를 관통시켜 꽉 조이면
확실하게 붙어 있을듯한데 환경 상 일부러 금속을 사용하지 않을 뜻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던 기둥과 단단히 붙어 있을 부속이라면 좀 더 튼튼히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정표 설치 간격을 통일해 주세요. 올레꾼들에게 100M(또는 200M)마다에 반드시
이정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세요. 그럴 경우 이정표 찾지 못해도 그 일정
간격(거리)을 지나도 이정표가 없다면 당연히 잘못 걷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잖아요.”

“갈림 길에서는 가급적 나무 화살표를 설치해 주세요. 리본은 비오는 날이나 바람 없는
날엔 휘날지도 않고 꼭꼭 숨겨져 있어요. 찾아야 찾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찾지
않아도 시선 속으로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용자들은 확실한 트레킹 코스 사인의 아이덴티티를 원하는 모습이 나
타나고 있으며,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코스 외의 다른 사인으로 인한 웨이파인딩
혼란 상황과도 연관된다.

“이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걸로 압니다만 올레의 화살표는 코스마다 다르게
아무나가 그릴 수 있는 화살표가 아니라 고유의 '올레체 화살표'를 사용하기를
요청합니다.”

“1코스가 많이 유명해 졌다고 관광객이 참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르면서 보니 원래
파란 화살표와 올레 표시만 있던길에 **산악회와 **투어의 홍보표식까지 덩달아
있었지요.”

“앗! 올레리본보다도 더 눈에 띄는 굵고 노란 리본 거기에는 '자비 씨커피동호회'
라는 글씨도 함께...올레표시도 길을 잃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표시만 하고 있는데
커피동호회가 굳이 올레길에 그런 식으로 꼭 흔적을 남겨야만 했나요?”

(8) 웨이파인딩 관련 2차 자료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트레킹 코스에서의 사인 외에, 이용자들이 의존하는 가이드북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 등의 2차 자료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정보끼리 상충되는 경우에 이용자들은 혼란을 느낀다.

“11코스 홈페이지 지도를 보면 지도는 과거 코스내용, 코스 설명 텍스트는 바뀐 현재 코스 설명...공항에서 구한 올레 책자는 또 과거내용.. 결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1코스 변경내용만 공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11코스 플래시 지도의 내용에 현재 플래시 지도 정보는 과거 코스임을 명확히 밝히고 텍스트 부분은 바뀐 현재의 코스라는 설명도 눈에 띄게 수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또한 코스 개발에 따른 변경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 시켜서 화면에서 쉬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올레꾼들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모두 읽는 것도 아니고 패스포트와 가이드북의 표시내용과 다르니 하루 빨리 플래시 화면을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

(1) 코스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혼란을 겪음

이용자들이 트레킹을 경험함에 있어 코스 자체의 원인으로 인하여 웨이파인딩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중, 별다른 웨이파인딩 정보 없이 코스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즉 갈림길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양쪽으로 다 가도 된다는 사인을 접할 경우 혼란을 느낀다.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올레 표시 화살표가 또 두 갈래로 나뉜다. 나는 자료를 보고서는 당연히 돌아가지 않는 왼편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급급급 경사 길 인줄은 몰랐다.”

“여기서 나의 이상인 파란색 올레 표시가 또 이상하다. 한 쪽은 동그라미 속에 영어로 A로 표시 하고 다른 쪽은 B로 표시하였다. (즉 A코스과 B코스로 나뉘고 있다).”

“화력발전소 직전의 다리에 우측 개울을 따라 안덕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과 다리를 건너서 곧바로 직진하는 지름길에 대한 설명을 현장에 간판으로 만들어서 해 주면 선택은 올레꾼이 하겠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잠시 고민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계단을 오르자 표식이 양쪽으로 다 되어있다. 어찌라는거지?? @_@ 양쪽으로 다 되어있다는 건 뭐 어느쪽을 택해도 된다는거겠거니..하고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2) 코스를 우회해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트레킹 코스에서 자연재해나 방역,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회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들이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일단 산길로 들어섰는데 거의 다 올라가서는 구제역때문에 또 우회하란다....ㅠ.ㅠ... 바닷옆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정류장서 지도를 잃어버려서 여기가 어딘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구....애궁...”

“해병대길 폐쇄’라는 말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중문관광단지 입구까지 나와야 하는데, 초행이라 많이 해맸고, 올레지기님에게 전화도 하는 등 다소 고생스러웠어요. 예레동을 지나 논짓물로 다시 들어가라는데, 무슨 소린지... 그만둘까 생각할 정도로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해병대 길이 낙석으로 인해 우회부탁’이란 안내보고 표지 따라 중문단지 앞 신우성타운으로 우회 시도했으나 그이후 공사장 길로 접어드려 아예 표지가 없어 저뿐 아니라 모든이들이 헤매더군요.”

(3) 역방향 트레킹시 어려움을 겪음

트레킹 코스를 역방향으로 걷는 경우에, 역방향에서 볼 때의 사인의 시인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웨이파인딩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매우 많이 나타난다.

“거꾸로 8코스를 걸어 보려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걷는 건 좀 어렵더군요. 돌고래썰장 부근에서 헤매다가 포기, 그래서 생각인데요. 꼭 한 방향으로만 걸으란 법을 없을 듯해서 ‘제주올레 사무실’에 건의 드리고 싶어요. 반대 방향으로 걷는 안내 화살표 표시는 어떻게 좀 안될까요? 라고....”

“화살표의 중요함이 절실히 느껴진다. 화살표를 거꾸로 찾아간다는 것이 이리 힘들 줄은..”

“이날 6코스를 역방향으로 걸어본 사람으로서, ‘역방향 걷기’는 절대로 비추한다. 화살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향표시나 이정표들이 정방향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걷다보면 무지 헷갈린다. 결과적으로 나는 난이도 ‘하’코스에서 정말 죽도록 해맸다.”

“이정표 설치시 순방향이란 역방향 동선의 경우도 감안하여 설치해 주세요. 19코스 중 일부 올레 길을 역방향으로 걸어보니 이정표가 너무 엉뚱합니다.”



(4) 타 구간과 겹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코스를 진행할 때 타 구간과 겹치는 경우에 웨이파인딩의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나타낸다.

“와돌개에 갔는데, 6코스, 7코스, 7-1코스가 전부 겹치는 지점이어서 그런지.. 7코스 화살표가 어디인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11코스 종점이 12.14-1코스가 연결이 되서 어느쪽으로 가면 정류소가 나오는지...”

(5) 코스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야외 자연 환경의 특성상, 바다나 계곡 등에서 물의 높이가 변하는 등 트레킹 코스의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화는 경우,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막상 내려오니 계곡 물이 불어서인지 벽면 저 쪽에 파란 화살표는 보이는데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비가 와서 계곡물이 더 불어날텐데..”

“앞에 다리가 우리의 길을 막는다. 만조 때가 되어서 다리가 반 이상이나 잠겨 있다. 용감한 A는 제일 먼저 물에 잠긴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는데 내 다리가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파랑 표시만 믿고 갔는데.. 글썽 화살표와 리본이 바다 바로앞 육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끝이 났어요. <중략> 아침에 나가보니 물이빠지면 모래사장이 되더군요.”

(6) 쉽터 및 화장실을 중요하게 여김

이용자들의 글에서 쉽터 및 화장실에 관련된 언급이 많이 나타나, 이 두 장소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또한 그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또한 나타낸다.

“아무튼 1코스 말미오름 시작하는데...와우~~새로운게 생겼습니다~~ 쉽터...정자가 생겼더라고요.”

“올레를 하다보면 드물지만 무료로 차와 물을 마실 수 있는 쉽터가 있다. 작은 배려가 올레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제주도를 사랑하게 만든다.”

“3코스는 너무 힘들었다. 김영갑갤러리 쯤에서는 다 지쳐서 걷기고 뛰고 짜증이 있는대로 났다. 하긴 더운데 땀벌이라 쉴 곳도 마땅찮아서 그저 걷기만 했으니...”



“사실 우리는 올레를 완주에 의미를 두기보다 놀멍 쉬멍... 가자 주의인데 쉴곳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서 정말... 앉을 곳이 없어서 세시간 내내 걷고 서있고 했더랬지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란 것은 잘 알지만 언젠가는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라서 쫓고 가려고 한다. 코스 도중에 생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임시 화장실이나 화장실 개방에 대한 문제이다.”

“도대체 화장실들은 어찌 해결하신거죠? 가끔 자연이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느라 무지 힘들었걸랑요.”

“올레를 걸으면서 늘 고민하는 소변문제도 근처 해안 경비대에서 작은 아이의 영역표시도 하고 왔답니다. 처음엔 민간이 출입금지라고 했지만 아이의 급한 마음을 배려해 주셔서 가능했지요.”

“길에서 하루를 다 보내는 올레꾼에게 화장실은 각별하다.”

“제일 중요한게 화장실 문제데...너무 잘해줬더라고요...”

(7) 시작점이나 종점의 식별성이 약한 경우 어려움을 겪음

시작점이나 종점의 식별성이 약한 경우 트레킹 코스의 이용자들이 그대로 지나 치거나 시·종점을 찾느라 헤매는 모습을 나타낸다.

“3코스 종점을 보지 못하고 어느새 4코스 길로 접어들어 계속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칠대로 지친 몸을 끌고 다시 3코스 종점으로 거슬러 왔는데요, 저같은 길치 말고도 두 분이 그날 또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우왕좌왕 표시도 좀 친절하지 않은것같더군요 시작부근에서 아무리봐도 표시가 없는겁니다. 헤매다 진이 빠져서 목적지방향으로 그냥 걸었답니다.”

“3월에도 못 찾은 시작표시판을 보고 싶었는데 못찾겠다 피꼬리만 혼자 외치고 있다.
<중략> 그냥 가자,로 결론 내리고 모래사장을 걷는다. 그저 공연히 30분만 허비한 셈이 되었다.”

(8) 코스와 대중교통의 원활한 연결을 원함

이용자들은 코스의 시·종점과 대중교통 연결점간의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나타난다.

“올레의 종점까지 가는 길은 화살표가 알려주지만 그 다음에 버스를 타거나 혹은 이 포구를 빠져나가 큰 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지? 어디에서 버스를 타지? 등등의



물음은 가득한채 올레는 끝나고 나는 버려진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제주올레의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코스의 시작과 끝이 대중교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면 시작도, 끝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일부 코스는 대중교통 연계가 아주 불편한 곳이 있다. 외지 사람이 걷고나서 지친
몸으로 물어물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역시 올레길에 가장 큰 어려움은 교통편이었습니다.”

“숙소로 오는 길이 올레길 걷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오고 갈때 버스 기다리고 탄 시간이 4시간 후~~~ 10분을 버스타고 가기위해
2시간동안 버스를 기다리다 숙소에서 나선지 3시간만에 길위에 서다.”

물 리 적 요 인	
이용자 특성	① 트레킹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② 점차 사인과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함 ③ 거리 개념 인지의 이원화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① 이용자가 사인을 못보는 경우 ② 이용자의 행태적 습성으로 인한 상황 ③ 이용자가 사인을 놓치기 쉬운 환경 ④ 사인이 잘 안보여서 웨이파인딩이 어려움 ⑤ 사인 자체가 혼란을 주는 경우 ⑥ 이용자가 사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 ⑦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및 평가 ⑧ 웨이파인딩 관련 2차자료 정보의 불일치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	① 코스의 선택이 주어질때 혼란을 겪음 ② 코스를 우회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③ 역방향 트레킹시 어려움을 겪음 ④ 타 구간과 겹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⑤ 코스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경우 ⑥ 쉼터 및 화장실의 정보에 대한 필요성 ⑦ 시·종점의 식별성이 약하여 어려움을 겪음 ⑧ 코스와 대중교통의 원활한 연결의 필요성

[표 4-2]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에 있어 물리적 요인의 추출



4.3.2 정서적 요인의 추출

1) 이용자의 특성

(1) 고통이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을 보임

트레킹 코스 이용자의 정서적 특성으로서는 우선 트레킹의 진행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를 하거나, 고통을 오히려 추억거리로 승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힘든 송악산 올레가, 어쩌면 우리 모녀에게 주는, ‘특별한 제주 올레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믿어봅니다.”

“오늘은 우연히 맞게 되는 불편함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기억에 더 남는 아이러니”

“더 편안한 올레를 하고자 하는건 분명하나.. 가끔 고생한 올레길을 걸은후 그 기억이 오래오래.. 그런후 다른 올레꾼들에게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추억거리가 되는것도 나쁘진 않은것 같네요.”

(2)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음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은 여정에 앞서 코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익히거나 정보를 준비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현지에서 부딪히는 낯선 경험을 즐기는 경향을 나타낸다.

“가기전 제주올레의 두터운 책에 홈페이지 올라운글을 프린트해왔지만 정작 나서선 글씨 큰 도움은 못되었습니다. 여행은 그냥 여행처럼 떠나서 헤메이더라도 그 안에 또 다른 의미와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나 할까.”

“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정보 검색도 하고, 자료도 나름대로 챙겨 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후로 하나도 꺼내 보지 않았다. <중략> 따라서 제주올레에 오고 싶으면 별 준비없이 시도하면 될 일이다. 여행이란 어차피 의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부딪치는 낯설음과 당혹스러움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갑자기 가게된 여행이라 준비를 많이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준비안하고 가니까 더 많이 설레고 더 즐거웠던거 같아요. 여행 전 너무 많은 계획하면 떠나기전 지칩니다...”



“여행은 이론보다 현지에서 접하는 정보가 훨씬 좋은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도 무계획, 무대포, 무렌트, 무예약, 무작정 떠나보세요 다됩니다. 다 해결되요.
비행기, 배편만 예약하시면 부딪히면 다 해결되는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3) 즉흥적 결정이나 변경을 하는 경향을 보임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용자들은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여정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상황의 변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확실히 가고싶은 코스가 없거나 코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친구들이 가는 코스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구요 계획은 제주도에 가서 다른 올레꾼들의 말에 후~ 할 때가 많으니까 가서 정하셔도 되요.”

“계획대로 10코스가 아니고 그간 만난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하신 8코스를 역으로 걷기로 결정하고”

“사려니 숲길은 계획없이 둘째날은 우도에 올인할 예정인데 (게스트하우스 밑에 침대 분이) 사려니 숲길이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후해서 급 일정을 바꿨습니다.”

(4) 여행과 관광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관광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정의하며 관광에 비하여 여행을 긍정적 뉘앙스로 표현하는 한편, 자신들을 관광객들과 차별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동안 제주도 인심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이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친절하고 정이 많았음. 아마 관광과 여행의 차이.”

“패키지 여행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제주의 구석구석 잔재미를 발견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음번 여행을 다시 기약하며~~”

“힘든 길이었지만, 정말 좋기도 했어요. 제주도를 관광지가 아닌 일상생활로 좀더 가깝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제주도 패키지 등으로 몇 번 가봤는데 왜 좋다는건지 이젠 못했는데 요번 올레길 투어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해외여행 갈 필요 없을듯 해요.”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도 걸어봐야지..하던 바람은 올레홈피를 드나들며 올레체험을



위해 꼭 제주도를 가리라!로 주객이 전도하기에 이르렀다.”

(5) 재방문 의도의 표현 및 타인에게 방문을 추천함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은 재방문에 대한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잠재 이용자에게 방문을 추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저도 다시 옵니다. 계획했던 코스의 반 (2,3,4)만 하고 왔지만,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시 올 거니까요”

“지금 열심히 침맞고 다 나오면 5월에 가서 전 코스를 다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요.”

“미친듯 올레를 걸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서 또 가려구요.. 다음엔 8코스부터...”

“세상에... 내가 그 올레 폐인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크후~ 다시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나는 요즘 올레 홍보활동을 하고 다닌다. 회사에서의 회의시간에도 올레이야기를 하다 시간을 보낸다. 당장 떠나라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올레를 걷지 않고서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닌다.”

“혹시 제 글을 보시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일단 떠나면 길이 안내해 줄 겁니다.”

2)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1)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은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하여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선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에 대하여 호평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사인을 찾는 것을 재미와 즐거움으로 느끼거나 사인을 의인화할 정도로 친근함을 느끼는 모습도 나타난다.

“구멍 숭숭 뚫린 검은 돌, 현무암의 올레 화살표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아이디어가 좋다.”

“문을 파란색 간색로 만들어 봐서 기분도 좋고 보기도 좋고 사용하는데 재미도 있었습니니다.”



“우리아들은 파란 화살표 찾는 재미에 완전...올레에 푹 빠졌어요.. 자기주도형 여행이라고 할까... 스스로 파란화살표 찾아가는 길이라 님 좋아하거라고요.”

“가끔씩 어떤 지점은 저거 은밀한 곳에 그려놓았더군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꼭꼭 가려진 곳에 그려놓았죠. 저 표시 찾는 것도 나름 재미가 쏠쏠.”

“파란 화살표가 보일 때마다.. 조금만 더 가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속삭이듯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노랑파랑 리본이 영차영차 줄달리기 깃발을 흔들 듯 내 몸을 앞으로 앞으로 끌어주는 듯 하였다.”

“이곳 제주에서 잊지 못할 벚을 만들다. 바로 올레 표시다. 수줍은듯, 장난치듯 살그머니 숨어있는 화살표, 혹은 리본, 나타날 때가 됐는데 싶어 두리번거리면 어김없이 바위위, 혹은 전봇대위, 혹은 나뭇가지 사이에 모습을 나타내는 나의 벚.”

“가는 곳마다 반기는 올레 뿐만 아니라 웃음짓는 간새가, 나풀거리는 리본이, 길바닥에. 돌담에. 바위에 양중맞은 화살표가, 갈림길의 나무화살표가 기다리고 반기고 인사하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인에 대한 신뢰나 반가움, 감사함 등의 긍정적인 정서 반응이 매우 다양하고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감사함은 최종적으로 코스의 관리주체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걱정반,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레길을 걸으니 파도하다 싶을 만큼 친절환 올레 표시로 이런 곳에도 길이 있을까 싶었지만 올레길에 대한 믿음으로 전혀 어려움없이 조곤 다리 위로 올랐다.”

“처음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친절하게도 나타나주는 올레화살표와 리본들... 마음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오로지 걷기에 빠져버린다.”

“원편의 작은 길로 접어드는 아스팔트 길 바닥에 선명한 고딕체 안내 글씨와 올레 화살표가!!! (눈물나게 감동)”

“헛갈리는 분이 많았던 곳이었는지...화살표가 이렇게....길을 가면 갈수록 어찌나 반가운 녀석인지...”

“올레표지를 보자 와락 반가운 마음이 든다. 이틀동안 무척 그리워했나 보다.”

“다시 만난 올레리본.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만난듯 반갑다.”

“올레걷는 동안.. 켈반가운 녀석... 한참가다보면 이따끔씩 나와서 길을 알려주죠.”



“길에서 리본이나 화살표를 발견했을때의 고마움이란... 진짜 내 앞에서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주고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리본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람들 모습처럼 저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그려진 화살표를 보면서, 그 화살표를 그런 분들께 몹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레 길을 뒹고 가꿔 가시는 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올레꾼들에게 올레리본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올레도우미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다.”

“어떤 분이 이 길을 다 일일이 걸으시면서, 파란색 화살표를 손수 다 하셨는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밥이라도 언제 한번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화살표를 그린 분들께 몹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레 길을 뒹고 가꿔 가시는 분들에게도 말합니다.”

(2)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긍정적 정서에 비하여 비중이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사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사인을 그리는데 있어 무성의하게 느껴지는 경우나 사인이 환경을 해친다고 느끼는 경우에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위기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하늘색 표식!! 안타깝게도 스프레이로...--;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힘든가봅니다. 국제적인 트레킹 코스로 거듭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라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요.”

“방향 표식에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현지인 중심으로 그려 놓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표시하는 사람 마음인 듯합니다.”

“도로나 벽면, 돌등에 표시한 화살표를 아주 멋들어지게 그려 놓은 구간을 지날때에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구간은 무성의하게 그려놓은 구간도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너무 많은 파란화살표... 길안내를 해주는 건 좋은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편리한건 좋지만 아름다운 돌담길 풍경을 해치는 건 아닌지...”

한편 부정적인 정서와 조금 다른 의미에서 훼손된 사인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향과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정서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목숲길을 지나고 나오는입구 쪽에 올레 간세가 산산이 부서져 있어 안타깝다.”

“안내리본에 왜 낙서들이 그렇게 되어있던지요..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 왔다감’ 등등... 조용~한 코스에 리본이 반가워서 가보니.. 그런문구의 낙서들.. 참 보기 싫던데요..”

“곳곳에 위의 사진처럼 훼손된 간세모형이 있길래 마음이 아프더군요...”

“올레꾼중 한명이 말씀 하시길... 증세 왔네 왔어...파란색 화살표가 안보이면..불안해 지는..”

“올레가 처음이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겐 컸답니다. 올레표시가 없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3) 웨이파인딩 실패를 너그럽게 감수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들의 특성중 하나는 웨이파인딩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정서를 보이는 것이며, 이것은 이용자들이 고통이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선백사장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중략> 그러다 뒤에 오신 다른 올레꾼도 만나게 되고, 나도 길을 잃었소...하시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 아...원래 이 길은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쯤 길을 잃게 만든 코스인가 보다... 살면서...이날 같았음 싶습니다. 유머스럽게 넘길수 있는 ‘과한 여유’를 지닐수 있기를요!”

“처음 접하는 올레길을 역으로(남원포구→표선)으로 가다보니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4km 정도를 헤매기도 했지만 덕분에 더 많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잘 못 들었습니다..... 20여분 왔던 길을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즐겁습니다. 잘 못 들어선 그 길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길이 그냥 늘 놓아져있는 오솔길만이 아니고 등산이나 바다해변 길처럼 오밀조밀 긴장을 하고 걸어야 하는 길들이 꽤 있고 또 양갈래길이나 조금 떨어진 화살표를 놓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략> 상당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길들이 섞여있는 점이 잘 몰랐던 점이었습니다...그것이 큰 장점이기도하지요.”

(4) 웨이파인딩 실패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경우

한편으로 이용자들은 안전의 위협을 느끼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웨이파인딩의 실패에 대한 강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인적도 없는 야산을 몰도 없이 해매는 게 두렵더군요. 그때까지도 제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갈림길에서 방향표시가 잘 되어있지 않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을 길을 해매기도 하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다보면 가끔은 짜증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땀벌에 걷거나, 비 맞고 걷다보니 더욱 아쉬웠습니다.”

“2km 남짓에서 7~8km 정도로 길어진다는 공지나 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3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를 돌아서 가면 2시간이 걸리고 가는 곳도 차도와 벽사이에 덧없이 걸어야 하며 공사중인 공원을 가야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중략>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2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이걸 저만 아니고 8코스를 걸었던 분들 모두의 목소리일 겁니다. 정말 걸으면서 욕나왔습니다.”

“더운 날 길을 잘못 들어 빙글거리고 갔다가 되돌아오면 기분 좋게 왔다가 짜증내며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합니다.”

“혼자 걷는 여유와 사색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많았습니다. 그 아쉬움은 때론 짜증도 나게 했고, 잘못된 길을 들어가 되돌아오면서 화(禍)까지 나기도 했지요. 이정표 문제입니다.”

(5) 웨이파인딩 실패로 인하여 트레킹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웨이파인딩의 실패는 이용자들이 트레킹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레7코스 제일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갔는데 외돌개부터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도 잘 안나오고 갑자기 찾길로 가야되고 그래서 2~30분 걷다 포기..”

“올레표시가 너무 부족해 길을 못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라 모르겠다 하고 가파도의 마을로 들어가버립니다.”

“성산일출봉을 지나고 종점, 2코스 시작점으로 갈 때 올레길 표시가 없더라고요!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리본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디. 같이 1코스 걸던 분들은 거기서 완보를 포기 하셨는데 안타까웠어요 정말”

(6) 전화 안내에 대한 정서 반응

트레킹 코스에서 사람에 의한 직접적 웨이파인딩 요소인 전화안내의 경우, 안내자의 대응 상황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의 상반된 정서 반응을 나타내며, 정서 반응의 강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간에 파란 화살표를 몇 군데서 놓쳤는데, 전화걸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신 ‘사단법인 제주올레’ 전화 받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어 계속 길을 헤매던 차에 가방에 넣어온 올레 안내책자의 11코스 안내지기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절하게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리본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셨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 내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길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올레센터에 전화해서 16코스 올레지기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다시 길을 걸으면서 생각된 것이 혼자올레를 걷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나는 보호속에서 올레길을 만끽하는구나하는 생각에 무섭지도 않았고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반갑게 전화 받아주셨던 센터직원분과 16코스 올레지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락을 하면 저럴까 싶다가도 맨몸으로 올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제가 다섯코스 돌아보니 친절하 표시도 있지만 도무지 길이 어딘지 모를때도 있었답니다. 그럴때 전화하라고 올레지기연락처 알려주신거 아닌가요 화를 내시는분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짜증섞인 말투 여기가 어딘지 몰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이 돌아올땐 다음엔 길몰라도 전화 절대 안하리라 그냥 다짐해봤습니다.”

“올레지기 9번 아줌마 좀더 친절하게 부탁 합니다 여러번 전화했다고 나무라시면 섭하죠....난 길치인데...다른 올레지기분들도 대체로 자기일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느라 그런것 같더군요 .바쁘시면 하질 마시든가 전화번호를 없애는게 덜 피곤 할것 같네여. 100번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부탁 합니다. 제주분 들은 대체적으로 웃음이 없는것 같더군요.”

“제가 전화를 잘못드려 다른코스 올레지기님께 전화드렸나본데 전화에다가 대고 “난 000코스인데 왜 나에게 전화했냐”며 핀잔아닌 핀잔을 주시길래 제가 사과드렸지만 많이 불쾌하더군요...”

3)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

(1) 코스 이용자들이 강한 인상을 받은 장소를 언급함

트레킹의 경험에 있어 이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장소의 추출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강한 인상을 받거나 이용자들의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다시 트레킹 코스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한다.

“한참 혼자 놀다 해변대길 걷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것이 길일까?? 의심하면 길



맞습다. 세상에!! 그 해안가에”

“하이얏트호텔 지나서 부터 해변대 길이다. 해변대의 도움으로 없던 길을 만들었다. 바닷가의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돌사이로 동글동글 잘 생긴 돌을 쌓아 참으로 ‘이승기’처럼 예쁜 짧은이 같은 길을 만들었다. 우리의 아들이 만든 길을 걸으며 고마움에 가슴이 아리다.”

“점심을 먹고 시간이 늦어 김영갑갤러리부터 3코스를 즐겼지요. 김영갑갤러리 정말 멋진곳이더라고요~~”

“중간기점인 김영갑 갤러리에서는 예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픈 사연(루게릭병)을 간직한 사람이기에 왠지 그의 메시지는 가슴깊이 다가옵니다.”

“1코스 출발점인 성산읍 시흥리 시흥초교로 향합니다.”

“이중섭 갤러리에서는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유려한 필체로 적은 그의 아내가 보낸 편지들이 마음을 울린다. ‘보배롭고 애닦은 그들의 사랑은 천국에서 이어졌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투웍스(Two weeks)_<중략> 알고보니 개그맨 고 이주일의 별장이었다는 유명한 커피숍입니다. 커피맛도 좋다길래 일부러 갔습니다.”

“이번 올레길 13코스 여정에서 가장 기대했던곳은 특전사숲길 입니다. 얼마전 제주또올레 게스트하우스를 다녀가신 특전사님(13코스를 만드셨던)의 올레길이 만들어지게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올레길 완주에대한 갈증이 심했던것 같습니다.”

“김수봉씨가 개척한 ‘수봉로’가 이곳에 있다.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제주올레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봉씨! 감사합니다.”

“수봉로, 정말 정겹고 예쁜 길이다. 김수봉이라는 올레지기가 염소가 다니던 길에 직접 삽과 곡괭이만으로 계단과 길을 만들었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11코스를 선택한 것은...오직..TV에서 본....알뜨르 비행장 때문이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다큐를 보고서...코스에 잡았죠...”

(2) 환경과 심상의 불일치로 인해 웨이파인딩의 어려움을 겪음

이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일반적 기대 심상과 웨이파인딩 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웨이파인딩의 혼란 및 어려움을 느낀다.

“시작하면서 길도 없는 바닷가 바위 위에 올레표식이 있어 정말 가도 되는 길인가 순간 의심했다. 가다보니 표식은 계속 이어지고... <중략> 올레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범상치 않은 곳... 예측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표식을 찾을 수 있었다.”

“올레 길 표시 화살표가 또 묘한 곳을 가리고 있다. 마늘 밭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한 쪽 밭만 들어갈 폭의 콘크리트 수로를 따라 가라는 것이 아닌가? 이후 마늘 밭 사이의 좁은 수로에는 화살표가 계속 이어져 있었다.”

“방향을 잃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채, 모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략> 결국 우리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길은 가장 어렵고 힘들어 보이던, 길이 아닐 것만 같았던 분화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보목 하수 처리장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인을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확실한 사인과 표식을 부탁드립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진 않을거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놓친듯 합니다만)”

“화살표가 왜 학교 안으로 나 있을까? <중략> 막 알고 났는데 가족 올레꾼이 교문 앞에서 나와 똑 같은 자세로 길 잃고 쓰악한 표정으로 서 계셨다. 학교 담 끼고 쪽 걸어가도 되는데 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게 화살표를 해 놓아 혼돈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구경도 좋은 올레길이지요. 아버지 올레가 대답한다. 허긴 그렇군요. 나는 아주 밝게 웃으며 말했다.”

“6코스는 첫올레길이라 그런지 유독 험갈리는 일이 많았다. 그중 하수처리장!! 입구에 리본이 묶여있었지만 촌스럽게 공공시설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계속 길을 따라 걸었다.”

“스탬프를 찍으려 두번째 방문한 11코스였는데~~ 중간스탬프 지점아... 정난주 마리아 묘 화장실!!! 두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올레길을 헤매지 않는데 14코스에서는 3번이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일 당황한것은 양배추밭 사이로 가는 길이었습시다. 개인 밭인거 같아 길이 아닌줄 알았는데 그것이 길이었던군요.”

(3) 트레킹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 발생

트레킹 코스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첫째, 동물과 마주쳤을 때와 둘째, 날이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질 때 두려움을 느낀다.

“저는 우습게도 개똥시 혼자 올레 절대 못가요.”

“큰 백마가 보여서.. 완전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말, 소에 긴장하면 안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10코스에 목장을 경유한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가다가 보아서 그런지 진짜 무서웠습니다.”



“숲 출입구에 “뱀조심!!”이란 문구를 꼭 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그 무서워라 더위가 썩 달아나기는 했는데...뱀은 역시 무서워요.”

“해안가 길을 따라 강정포구를 지나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목적지인 7코스 종착지 월평포구가 코앞인데 마음이 급해진다.”

“처음 혼자 올레길을 걸을 때 노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걷다 금세 날이 어두워져 당황했던 적이 있다. 시골의 밤은 쉽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때 절감했다. 해안가에 있다 큰길로 부지런히 걸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어둠이 찾아왔다.”

“사실 둘이 걸긴 했지만, 으스스해지고 사람도 없는 평일이고 저녁때가 다 되다보니 무서움이 밀려오드라고요...”

(4) 코스의 시작점과 종점에 의미를 부여함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들은 코스의 시·종점에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종점의 의미성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실망감을 나타낸다.

“1코스를 돌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 구간권이 끝나는 광치기 해변은 정말 황량한 백사장 한켠에 간이 천막으로 만들어진 횃집 한 곳이 전부입니다. 이런 곳을 끝지점으로 정하기보다 조금 앞에 있는 성산이나 조금 뒤에 있는 동남에서 코스가 마감이 된다면 당황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텔 간식을 먹으면서 골인지점이 얼마냐고 물으니 여기가 종점이라한다. 헐.. 이런허무함... 눈을 돌려보니 여기가 7코스 종점이자 8코스 시작점이라는 뜻말이 자그맣게 보인다, 허전함을 감출수가 없다.”

“10코스 시작 합니다. 음..... 솔직히 처음 인상은.... 별루... 사람도 없고, 뭘 짓다 말았는지... 여튼 별루 었어요.”

(5) 기념 스탬프를 중요하게 여김

이용자들은 트레킹 코스의 특징적인 요소인 기념 패스포트와 스탬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스탬프를 찍었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한편, 찍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망과 아쉬움 등을 나타낸다.

“종착점에서 역시 스탬프는 찍을 수 없었어요. 저의 올레 패스포트엔 달랑 도장 하나밖에 찍을 수 없었습니다. 스탬프를 받기 위해선 또 한번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걸까요;;;”



“작년 12코스까지 총 14코스를 돌고 나머지를 완주하려 하는데 아니 이게 웬말
패스포트가 생겨서 스탬프를 찍는 즐거움이 추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걷기로하고
어제는 기분 좋게 1코스에서 패스포트도 사고 지정 장소에서 스탬프도 찍고...”

“2코스도 완보했으니, 패스포트에 완보 도장을 꾸욱 누질르는 이 기분. 짱이닷^^”

“중간스탬프를 찍는 이교동 상모리 마을입구도 빼먹었기에 11코스를 완주하는 게 의미
없어졌다고 11코스 반포기 상태의 마음으로 남은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스탬프를 찍으려고 걷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할때 찍고 힘차게 출발했는데...
중간지점인 주상절리에서도 놓쳐서 좀 아쉬었는데.....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래요!
기분 좋게 완주했다는 보이는 증표니까요...”

정 서 적 요 인	
이용자 특성	① 고통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향 ②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음 ③ 즉흥적 결정이나 변경을 하는 경향 ④ 여행과 관광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⑤ 재방문의도 및 방문 추천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① 사인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② 사인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③ 웨이파인딩 실패를 감수를 하는 경우 ④ 웨이파인딩 실패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⑤ 웨이파인딩 실패로 인한 트레킹 중도포기 ⑥ 전화안내에 대한 정서 반응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	① 이용자들이 강한 인상을 받는 장소의 특성 ② 환경과 심상의 불일치로 인해 어려움 겪음 ③ 트레킹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발생 ④ 코스의 시·종점에 의미를 부여함 ⑤ 기념 스탬프를 중요하게 여김

[표 4-3]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에 있어 정서적 요인의 추출





[그림 4-2] 트레킹 코스의 웨이파인딩과 물리적·정서적 상관요인 정리

4.4 분석의 결과

4.4.1 물리적 요인의 분석 결과

1) 이용자의 특성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들은 트레킹 초기에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트레킹을 해나감에 따라 점차 사인과 환경에 대한 감각을 학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시작점에서 사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과 시작점 부근의 사인이 좀 더 초행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beginner-friendly) 강조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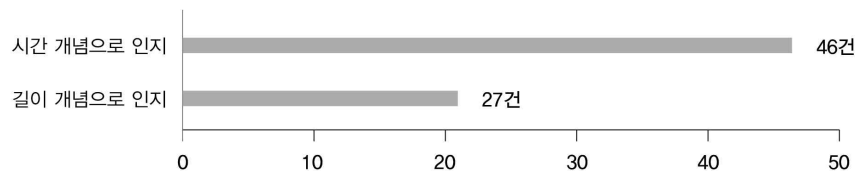
트레킹 시작 초반에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5건
트레킹 초기에 사인을 찾느라 풍광을 즐기지 못함	4건
점차 사인과 환경에 대한 감각을 학습한 사례	10건

[표 4-4] 물리적 요인에서의 이용자의 특성 관련 데이터

또한 일본 건축학회(1998/2002: 137)의 예시를 보면, 사람이 길에서 역까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물었을 때, '1km 정도'라는 답변도 '걸어서 10분 정도'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다고 밝히고, 시간의 인지가 거리 추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트레킹 코스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리를 인지함에 있어, 시간 개념과 길이 개념이 혼용되어지고 있다. 자료에서는 이용자들이 거리를 시간 개념으로 인지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길로 인지하는 경우의 두 배에 달했다는 점은 사인 정보 제공에 있어 참고할 사항이라고 보여 진다.

거리를 분, 시간 등 시간 개념으로 인지	46건
거리를 미터, 킬로미터 등 길이 개념으로 인지	22건

[표 4-5] 이용자의 시간 인지 관련 데이터



[그림 4-3] 이용자의 시간 인지 관련 그래프

2)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표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가 사인을 놓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크게, 이용자가 사인을 못 보는 경우와 환경에서 적절한 웨이파인딩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통하여 향후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자가 코스를 걸으면서 흔하게 겪는 ‘상황’은 대화를 하거나 풍경을 감상하다가, 또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사인을 놓치고 길을 잃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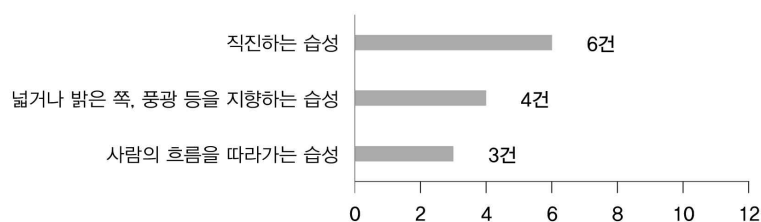
이용자가 동반자와 대화를 하다가 사인을 못 봄	7건
풍경을 감상하다가 사인을 못 봄	8건
생각에 잠겨 사인을 못봄	6건

[표 4-6] 이용자 원인으로 인해 사인을 못보는 상황 관련 데이터

또한 2장에서 살펴본 인간행태의 습성 중, 직진의 습성 및 넓거나 밝은 쪽 및 풍광이 좋은 곳을 지향하는 습성, 그리고 사람의 흐름을 추종하는 습성이 트레킹 코스에서 웨이파인딩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사인의 위치 설정 및 사인의 강조에 있어 이러한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직진의 습성	6건
넓거나 밝은 쪽, 풍광이 좋은 곳을 지향하는 습성	4건
사람의 흐름을 추종하는 습성	3건

[표 4-7] 웨이파인딩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행태적 습성 관련 데이터



[그림 4-4] 웨이파인딩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행태적 습성 관련 그래프

이용자가 사인을 놓친 것으로 가장 흔한 ‘환경’은 큰길에서 샛길로 들어서야 하는 경우이다. 특히 샛길은 위에서 언급한 행태적 습성과 결합되는 경우, 이용자가 코스를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숲길이나 오솔길 등 자연 환경 안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선형의 길을 걷다가 변화한 곳, 넓거나 트인 곳으로 들어설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이용자들이 사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곳이 사람이나 자동차, 공사작업물 등으로 복잡해질수록 웨이파인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사인의 식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면적이 넓거나 복잡한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방향 사인이 눈에 띄기 어렵고 사인 설치의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러한 공간이야말로 이용자들의 머릿속에 대략적인 진행방향에 대한 국지적 인지지도의 형성이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샛길에서 사인 못보고 직진하여 문제 상황 발생	8건
시가지나 변화한 곳에서 사인 찾기 어려움	7건
갑자기 넓어지거나 사방이 트인 곳에서 사인 찾기 어려움	5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인 찾기 어려움	5건
공사 중인 곳에서 사인 찾기 어려움	4건

[표 4-8] 이용자가 사인을 놓치기 쉬운 환경 관련 데이터

또한 사인이 잘 안보여서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는 먼저 날씨나 계절의 변화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의 경우, 바람(태풍)과 비 때문에 리본이 나무나 전봇대에 달라붙거나 감겨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트레킹 코스의 지역에 따른 날씨의 특수성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길이나 아래쪽에 위치한 사인은 풀이 자라는 것에 시인성의 영향을 받고, 위쪽에 위치한 사인은 나무의 잎이 자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사인의 크기가 작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경우나, 사인이 방해물로 인하여 가려진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웨이파인딩 환경에서는 커다란 사인



을 권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인을 놓치는 것은 크기의 문제만이 아닌, 환경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기에 크기나 개수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더욱이 사인의 시인성의 문제는 이용자의 특성에서 확인되었던 이용자의 환경 및 사인에 대한 학습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트레킹 환경에 익숙치 않아 사인이 눈에 잘 안 들어오나, 점차로 사인을 찾는데 익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즉 사인의 사이즈는 트레킹 코스 시작 부근에서는 웨이파인딩 수행과 상관관계를 떨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인의 시인성에 있어 사인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코쿠 순례길의 이용자 사례에서 매우 작은 스티커 사인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애를 먹지만 점차로 익숙해지는 경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경민선, 2009: 56)²¹⁾.

한편, 사인이 방해물로 가려진 경우는 자동차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왕래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연구자의 관찰에서 셋길 진입을 위한 방향 사인 앞에 지역민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지리산 둘레길의 사례에서 지역민이 농작물을 사인 앞에 쌓아놓아 길을 잃은 이용자의 경우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트레킹 코스를 걷는 사람들을 위해 사인 앞에 주차를 하거나 사인을 장애물로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에서의 홍보 활동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날씨나 계절의 변화로 인하여 사인의 시인성이 저하됨	9건
사인 자체의 시인성이 부족한 경우	6건
방해물로 인한 사인의 시인성이 저하된 경우	4건

[표 4-9] 사인이 잘 안보여서 웨이파인딩이 어려운 상황 관련 데이터

21) “그럼, 그렇지. 저기 화살표가 보인다. 스페인 순례길,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을 때처럼 커다란 화살표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내 눈을 피해 간 작고 빨간 화살표. 전봇대, 가로등, 벤치의 한 귀퉁이에 붙은 이 소심한 길잡이는 딱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스티커다. 처음 며칠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 화살표 때문에 애를 먹겠지만 익숙해지면 수백 미터 앞의 표지판도 감지하는 광 레이저 인조인간 시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근심하지 말기를.”



사인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나 잘못된 사인으로 인해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방향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사인의 정보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사인은 어떤 것이든 정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는 대개 웨이파인딩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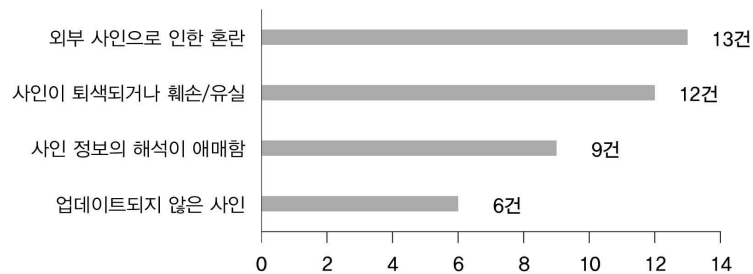
이에 더하여, 화살표 등을 설치 또는 그리는데 있어 주의할 점 중 하나로 보여지는 것은,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트레킹 코스의 특성상 화살표를 그리는 것이 항상 평평한 표면이나 길과 평행한 표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돌 위에 그리거나 전봇대 위에 그리는 등, 곡면의 위 또는 길과 어긋난 각도의 표면에 그릴 때에는 사인의 방향성이 그리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트레킹 코스가 야외 환경이라는 점으로 인해 사인이 퇴색되거나 훼손되거나 쉬운 환경이라는 점도 디자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다. 화살표가 흐려지거나, 리본의 색이 퇴색되거나, 리본이 떨어지거나, 설치 사인물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반면, 트레킹 코스 고유의 사인이 아닌 다른 사인들로 인하여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본 자료의 경우 트레킹 코스 사인 외의 다른 화살표를 보고 길을 잘못 들었던 예가 가장 많았는데, 이것도 지역민이나 주변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 외에 코스가 변경된 후, 옛 코스의 사인이 남아있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관리 측에서 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일 것이다.

트레킹 코스의 사인이 아닌 다른 사인으로 인한 웨이파인딩 혼란 상황	13건
사인이 퇴색되거나 훼손/유실된 경우	12건
사인 정보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9건
업데이트되지 않은 사인으로 인한 혼란	6건

[표 4-10] 사인 자체가 혼란을 주는 상황 관련 데이터





[그림 4-5] 사인 자체가 혼란을 주는 상황 관련 그래프

한편, 이용자가 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갈림길이 나타난 경우와 자신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갈림길에서 정보가 주어 져야 하는 것은 웨이파인딩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갈림길 에서 사인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스 상에서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확인(confirm)이 되지 않는 경우 의심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용자가 경로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코스 선상에 있으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와 이용자가 코스를 이탈했는데도 자신이 이탈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으며, 후자는 길을 잃어버린 경우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확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실제로 코스를 벗어난 경우에도, 자신이 코스를 이탈한 것을 신속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웨이파인딩의 오류를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맞게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틀리게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적절하게 주어지는 확인 사인은 중요하다. 게다가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안전감이므로, 자신들이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맞게 가고 있다는 확인을 주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코스가 험하거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구간의 경우, 이용자의 물리적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Tuan(1977/1995)은 미로에서 친숙한 이정표를 만나는 것은 거의 감정적인 경험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한 때 이용자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만족감을 표현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러한 컨펌의 기능은 이용자들의 웨이파인딩 수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코스 경험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림길에서 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6건
자신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 사인을 필요로 함	7건

[표 4-11] 이용자가 사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 관련 데이터

그리고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보면, 어떤 정보를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용자들이 코스 상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자신들이 있는 대략적 위치와 종점까지 앞으로 남은 거리이다. Mikunda가 이러한 거리의 표식은 사람들이 시간적 간격에서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표시해주며, 이러한 표식은 이용자들이 어떤 식이든 중단의 심리에 사로잡힐 때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만큼 더 가야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은 장소경험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장소경험의 구성에 대하여서는 Mikunda (2002/2005: 99)가 디즈니의 예를 들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스타 투어즈까지는 단지 50분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10분 후에 우리는 다시 다음 뜻말에 이르게 된다. “40분만 더 있으면 당신은 그곳의 모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한을 정해주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아직 더 참아야 하는 시간 간격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준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여기서 끝없이 길고 불쾌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망 가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트레킹 코스의 경우 참고 견디는 기다림의 시간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목적지까지 얼마만큼 (시간으로) 남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경우에 따른 사람들의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스스로 남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화장실 등의 기타 부대시설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올레길의 사인 디자인이 개선됨에 따라 2010년 말 이



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사인의 내구성과 관련한 개선 요구가 많았고, 사인의 규칙성 및 가시성의 개선을 원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기타 산악회 리본으로 대표되는, 외부 사인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올레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줄 것을 원하는 내용도 나타나, 트레킹 코스에서의 사인 디자인에 있어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코스 외 다른 사인으로 인한 웨이파인딩의 혼란 상황과도 연관된다고 보여지나, 그 보다는 환경의 미적 조화 측면에서 다른 사인을 보기 원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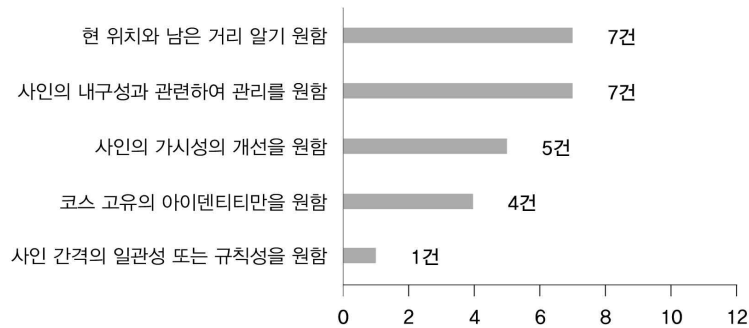
올레길의 경우 구간에 사인작업을 한사람이나 구간관리를 하는 올레지기가 달라서 구간마다 조금씩 화살표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람의 차이에 의한 다양성은 오히려 재미가 되기도 하고 장소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엄정한 규칙의 일관성 위에서만 허용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레킹 코스에서의 사인은 환경의 규모와 특성상 모두 인위적인 설치물일 필요는 없으나, 색과 형태 등의 아이덴티티는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하고, 정보 콘텐츠는 통일성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인의 위치에 있어서도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코스 선상의 사인은 그 위치와 간격에 있어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지나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측에 상응하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이용자든 사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다.

사인에 현 위치와 앞으로 남은 거리를 표시해 주기를 원함	7건
사인의 내구성의 개선을 원함	7건
사인의 식별성의 개선을 원함	5건
코스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원하거나 무단으로 부착한 타 사인을 보고 거부감을 표함	4건
사인 간격의 일관성 또는 규칙성을 원함	1건

[표 4-12]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개선 요구 사항 관련 데이터





[그림 4-6]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개선 요구 사항 관련 그래프

덧붙여 트레킹 코스 선상의 사인 외에 지도나 안내 브로셔, 가이드 북, 홈페이지 등 2차 자료의 정보의 부정확함이나 각 자료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지적한 글들이 있었다.

2차 자료의 정보의 부정확함이나 불일치로 인한 혼란	10건
------------------------------	-----

[표 4-13] 2차 정보로 인한 혼란 상황 관련 데이터

3)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

트레킹 코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웨이파인딩 측면에서 주목을 할 상황은 첫째, 코스의 선택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코스가 갈라져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루트인지를 알고 싶어 하였다. 둘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루트를 벗어나 우회해야 하는 경우이다. 셋째, 트레킹 코스의 정방향으로 정해진 경로가 아닌 역방향으로 트레킹을 하는 경우이다.

코스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졌다 다시 합쳐지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갈림길에서 주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트레킹 코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코스의 가변성이다. 자연 재해로 인하여 길이 유실되거나 길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방역 등의 이유로 코스 진입이 금지되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한데,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경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정확한 고지 및

우회로 안내가 필요하다. 이것은 신속함과 경우에 따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많은 이용자가 역트레킹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역트레킹을 하다가 고생한 사람들의 경험이 지속되다보니 역트레킹은 원래 어려운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보였다. 그러나 역트레킹을 할때 풍광이 더 좋다거나, 정방향 트레킹을 한 후 경험의 다채로움을 위하여 역방향 트레킹을 택하거나, 또는 여행 일정이나 숙박, 교통편 문제 등 기타 상황에 따라 이용자들이 여전히 역방향 트레킹을 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트레킹 이용자들이 존재하는 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특히 3장에서 Golledge(1999)를 인용하여 언급한 대로 인지지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면에서도 역방향 코스 또한 정방향과 마찬가지로 웨이파인딩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하고 어느 한쪽이 더 어려워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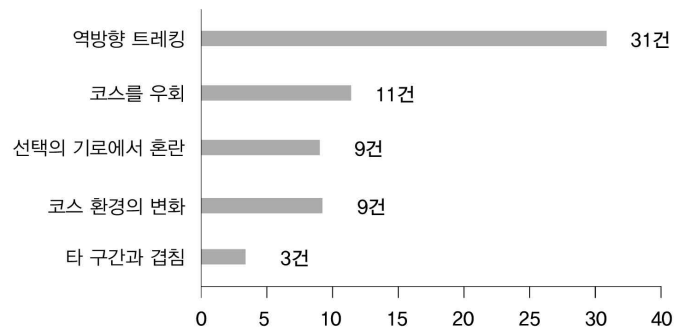
그 외 트레킹 코스가 타 구간과 겹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올레길 외에도 둘레길이나 해파랑길의 경우 아예 명칭이 다른 타 트레킹 코스나 타 산책길과 겹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올레길과 같이 바다나 계곡을 끼고 있는 코스의 경우, 시간에 따른 밀물과 썰물의 이동이나 우천시 물이 불어나는 등 코스의 일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보였는데, 2010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런 사례의 글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환경을 피해서 코스를 조정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역방향 트레킹의 어려움을 토로한 사례	31건
코스를 우회해야 했던 경험에 관하여 언급한 사례	11건
코스가 갈라져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때의 혼란에 관하여 언급한 사례	9건
코스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9건
타 구간과 겹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3건

[표 4-14] 트레킹 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관련 데이터





[그림 4-7] 트레킹 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관련 그래프

쉽터 및 화장실은 웨이파인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많은 이용자의 언급으로 그 중요성이 판명되었고, 또 쉽터와 화장실은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며 트레킹 코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의 경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다루었다. 또한 그만큼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쉽터의 경우, 쉽터로 인해 많은 이용자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그 구간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쉴 곳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상당히 육체적·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나이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쉽터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Underhill이 공공 공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공원과 광장을 관찰한 모습에서 증명되고 있는데, 그와 연구팀은 나이 든 보행자가 벤치의 도움을 받을 경우 평소보다 두 배를 걸을 수 있음을 관찰하고, 만일 누군가 오랫동안 걸은 후에 피곤함을 느껴 그만 걷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들에 놓인 멋진 벤치를 발견한다면 그곳에 앉아 기운을 회복한 다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Underhill, 1999/2000: 110). 올레길의 경우, 현재 40대 이상의 이용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²²⁾ 높은 나이대의 이용자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볼 때, 코스의 구성에서 적절한 쉽터의 배치는 필수불가

22) 2012년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비하여 65세 이상의 중산층 인구가 2025년에 약 8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실의 경우, 야외에서 보행을 계속하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트레킹 코스 중 산길이나 인가가 없는 곳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고, 관리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화장실의 제공만큼이나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 마케팅의 관점에서 화장실은 그 장소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깨끗한 화장실의 제공 및 유지,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쉼터가 있어 편리했던 경험을 표현함	7건
쉼터가 없어 힘들었던 경험을 표현함	7건
화장실이 있어 편리했던 경험을 표현함	6건
화장실이 없어 힘들었던 경험을 표현함	12건

[표 4-15] 트레킹 코스 내 쉼터 및 화장실의 언급에 대한 데이터

그 외 트레킹의 시작과 마지막에서의 시각적 식별성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용자들 중 시작점을 못 찾아 트레킹을 시작도 하기 전에 헤매거나, 트레킹을 다 끝내놓고서도 종점을 찾지 못하여 자신들의 여정이 끝났는지 어떤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헤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용자의 정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판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정서적 요인에서 다루기로 한다.

시작점이나 종점의 식별성이 약하여 어려움을 겪음	8건
----------------------------	----

[표 4-16] 트레킹 코스 시·종점의 식별성 관련 데이터

마지막으로, 트레킹 코스 여행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코스자체가 선형으로 되어 있어 구간의 시작점과 종점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설령 자가용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트레킹을 마친 후 차를 주차한 곳까지 도로 가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대중교통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낮은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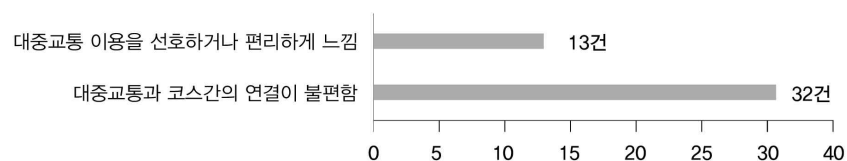


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트레킹 코스의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명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코스의 시·종점과 지역의 교통 연결 지점(버스 정류소 등)이 웨이파인딩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 일단 대중교통의 이용 자체는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정작 대중교통과 코스의 연결성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노선이나 시간까지 관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용자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내렸을 때, 자신의 목적지인 코스 출발점으로 가는 방법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야하며, 또한 트레킹을 마치고 종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부터 대중교통 연결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웨이파인딩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편리하게 느낌	4건
타지역 교통카드를 쓸 수 있어 편리하게 느낌	3건
버스 안내 방송이나 기사에 의한 안내를 편리하게 느낌	6건
대중교통을 이용한 코스 진입, 진출을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느낌	32건

[표 4-17]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데이터



[그림 4-8]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그래프

4.4.2 정서적 요인의 분석 결과

1) 이용자의 특성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들은 타환경과 다른 특징으로,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힘들,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을 여정의 일부로 여기거나 오히려 트레킹이 가진 특징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즉 ‘제4의 공간’의 경험으로서 이용자들이 자신들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며, 어떠한 힘든 일에 대한 결과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나 성취감 등으로서 보상되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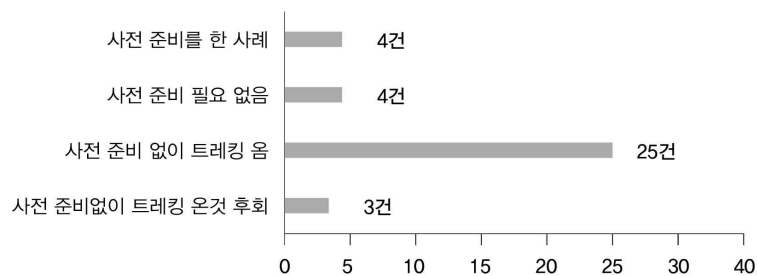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을 즐거운 추억으로 승화한 사례	9건
-------------------------------	----

[표 4-18] 정서적 요인에서의 이용자의 특성 관련 데이터

또한 트레킹을 하는데 있어, 많은 이용자가 코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준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웨이파인딩에 대한 사전 지식보다는 코스 자체를 더 잘 느끼고 즐기기 위하여 코스 경험에 관한 에세이나 안내서 등을 읽고 코스 전반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느낌을 익히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전 준비를 한 사례	4건
사전 준비를 했으나 실제 환경에서 필요가 없었다고 한 사례	4건
사전 준비 없이 트레킹 코스에 온 사례	25건
사전 준비 없이 트레킹 코스에 온 것을 후회하는 사례	3건

[표 4-19] 트레킹에 앞선 이용자의 사전 준비 관련 데이터



[그림 4-9] 트레킹에 앞선 이용자의 사전 준비 관련 그래프

이러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데에는 트레킹 코스 여정에 있어 즉흥성이란 변수를 이용자들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여행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여정이 실제로 수행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여정 중에 여러 가지 동기나 이유로 인하여 일정이나 구간 선택 등을 코스 이용자가 본인이 원해서, 또는 상황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오히려 트레킹을 하는 이용자들은 코스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코스에 대해 모른다는 이유가 코스를 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낯설음과 당혹스러움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이용자도 있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웨이파인딩 환경에 있어 빠른 인지지도의 형성이 웨이파인딩 수행에 중요하며 인지지도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웨이파인딩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가, 트레킹 코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장소에 대하여 미리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즉흥성이 주는 즐거움과 놀라움이라는 경험적 측면을 더 중시하며, 이용자들은 단지 그 순간순간을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레저를 목적으로 한 피관찰자들이 즉흥적으로 그 다음 여정을 정하면서 인지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한 Brown & Laurier(2005)의 관찰 결과와 상통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는 일단 코스의 시작점에 도착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사인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장소성의 맥락 안에서 Tuan(1977/1995)이 실제로 이동할 때는 정확성이 필요 없고, 이동의 각 단계에서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만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코스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오기를 기대하는 코스 관리 측의 희망(안은주, 2012; 윤문기, 2013)과 상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별다른 준비 없이 트레킹에 임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은, 이용자가 게으르거나 성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트레킹 코스에 임하는 이용



자 정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자발적으로 일정이나 코스를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한 사례	21건
어쩔수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나 코스를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한 사례	3건
코스에 대하여 미리 알고싶지 않음	3건

[표 4-20] 트레킹 여정에 있어 이용자의 즉흥적 상황 관련 데이터

이러한 여행 패턴은 패키지여행으로 대표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여행과는 다른 모습이며, 이것은 올레길 등의 트레킹 코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패키지여행을 탈피한 새로운 여행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 코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관광이 아닌 여행으로, 즉 관광과는 차별화 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의 관광매력물을 위한 여행이 아닌, 대상 트레킹 코스에서의 걷기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관광 형태에 대하여 부정적 인상이었다가, 트레킹 코스를 경험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또한 관광객과 자신들을 차별화시키는 모습도 드러냈다.

여행과 관광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거나 트레킹 코스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됨.	23건
--	-----

[표 4-21] 이용자들의 여행 vs 관광 인지 개념의 차이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트레킹 코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높은 재방문 의도와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상 코스에서의 트레킹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또한 대상 코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타 여행 형태에 비하여 트레킹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레킹 코스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타 코스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 둘레길을 걸고나서 올레길도 가보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사례가 있었고, 제주 올레길의 경우에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고자 준비하다가 올레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대신 올레길로 여행을 왔다고 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하나의 트레킹 코스가 활성화가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전체



트레킹 관련 여행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이다.

재방문 의도를 표현함	18건+ ²³⁾
타인에게 트레킹을 추천함	6건+
코스에서의 충성도 형성	2건
타 코스에 의한 방문 동기부여의 사례	3건

[표 4-22] 이용자의 트레킹 코스 방문 의도 관련 데이터

2)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트레킹 코스에서처럼 사인이 이용자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이야깃거리가 되는 웨이파인딩 환경은 드물 것이다. 트레킹 코스에서는 사인을 중심으로 한 웨이파인딩 요소가 그 어떠한 환경보다도 다양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고 장소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소성의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한다.

트레킹 코스에서 사인 자체에 대한 정서반응에 관한 글을 보면 다른 웨이파인딩 환경에 비할 때 그 양에서 우선 많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트레킹 코스에서 특화되어 나타나는 특성이며, 트레킹 코스에 있어 웨이파인딩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경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인을 찾는 것을 ‘보물찾기’ 같은 재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라고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식별성과 가시성을 중시하는 사인의 기본 성격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리적 요인에서 나타난 자료 중, 이용자의 요구 사항 중에서 사인의 가시성의 개선을 원 하였던 이용자가 다른 요구사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트레킹 코스에서의 사인에 있어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 시하는 것이 반드시 가시성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려울 듯하다.

감사의 정서 또한 타 웨이파인딩 환경에서 보기 드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웨이파인딩의 실패는 매우 강한 부정적 정서 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효율을 위하여 중도에서 추출을

23) 재방문 의도나 추천의 경우, 그 사례가 매우 많았으나 본 논문의 주제인 웨이파인딩과



중지하였다. 응을 일으키는 것에 비해 웨이파인딩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약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떤 환경에서 길을 잘 찾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관심한 것이다. 그러나 트레킹 코스에서는 이용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장소에 대한 충성도, 즉 장소 브랜드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사인에 대한 감사가 그것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레길의 경우, SNS를 통한 이용자 간의 소통은 물론 이용자와 관리 측의 소통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이용자의 의견을 관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관리 측의 상황을 전하는 게시글이나 관리자들이 개인적으로 올리는 글들도 종종 눈에 띄어, 관리 측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사)올레 서명숙 이사장의 책을 읽고, 올레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경우도 눈에 띄었고, 또한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들이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정서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코스의 관리주체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용자의 후기에서도 잘 관리되는 사인에 대하여 언급하며 코스의 관리주체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도 보여 졌다. 한편, 자료 수집 중에 나타난 부정적 정서의 예는 타 코스의 사례였는데, 지리산 둘레길의 후기에서 사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게시글에 관리주체의 대응이 소홀하다고 느낀 이용자가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사인이 잘 안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용자가 장소의 관리주체라고 추측되는 시장과 공무원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⁴⁾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사인 및 사인의 관리는 단지 웨이파인딩의 문제만이 아닌, 트레킹 코스 전체와 그 코스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평가로 이

24) “이곳 시장과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순례길 표시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은 그들이 원망스러웠다.” (최정수, 2012: 76)



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트레킹 코스에서는 웨이파인딩의 실패가 코스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닌, 장소의 관리 주체에 대한 거부나 원망으로 나타나는 점은 유념해야 할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기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트레킹 코스의 이용자들이 인간미 있는 접근에 대하여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역 주민이 내건 환영이나 격려의 메시지에 감동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는 코스의 색채 아이덴티티에 대한 각인이다. 특히 코스 사인에 파란색만이 사용되었던 초기에 나타난 게시글에서 주로 나타난 내용인데, 코스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색채에 대한 연상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에 대하여 호평함	4건
코스가 상징하는 색채에 대한 각인이 됨	3건
사인에 대한 친근함, 반가움, 기쁨을 표현함	28건
사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함	26건
사인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18건
사인으로 인해 재미와 즐거움을 느낌	13건
사인에 대해 감사함을 느낌	6건
사인에 대한 감사함이 관리주체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 이어짐	8건
격려나 환영의 메시지에 감동을 느낌	4건

[표 4-23] 사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 관련 데이터

사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는 긍정적 정서에 비하여 많지는 않았으나, 손으로 그려진 사인이 무성의하게 그려졌다고 느껴지는 경우와 사인이 환경을 해치거나 조화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사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사인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은 훼손된 사인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 특히 간세와 같이 이용자들이 애착을 가지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사인의 경우, 훼손된 것을 마음아파하고 다시 나름대로 복구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간세의 경우, 초기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과



맞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즉, 야외환경에서 쉽게 색이 퇴색이 되어 식별성이 점점 떨어졌고,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에 약했으며 무엇보다 간세의 높이가 사람이 앉기 쉬운 어포던스를 지니고 있어, 이용자가 사진을 찍거나 하면서 앉았다가 파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관계자 인터뷰에서 나타났다.

참고로 트레킹 코스의 사인 디자인에 있어 자연친화적 성격은 중요한 점이긴 하나, 필요할 때에는 환경 내에서 디자인적 강조를 통한 식별성의 강화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에 가까운 색으로 한다고 자연친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인의 기본적 성격인 식별성이 무시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사인은 그 목적성이 중요하므로, 자연 안에서 자연스레 눈에 띄면서도 환경과 조화가 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사인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인의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더욱이 그것이 손으로 그린 사인이라면 타 환경의 경우 대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코스 이용자가 언급을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의 사인 시스템이 갖춰야 할 요건을 트레킹 코스에서는 이용자들이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이것은 해외 트레킹 코스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일정한 아이덴티티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사인의 모습에 오히려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것은 물리적 요건의 ‘이용자 요구 사항’과 함께 보았을 때, 사인의 통일정보다는 사인의 내구성이나 규칙성,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더하여 트레킹 코스에서는 자연친화적 인간미가 중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올레길에서 손으로 그린 화살표가 정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 안에서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람들은 비록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성껏 그린 페인트 화살표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나, 반대로 그것이 성의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용자들이 스프레이로 그린 화살표를 싫어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트레킹 코스 이용자의 환경 친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과 조화된 심



미성의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다채로운 자연 환경 내에서 그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성과 배려가 느껴지는 인간적 접근이다.

사인을 무성의하게 그렸다고 느껴지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함	3건
사인이 환경을 해친다고 느끼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함	3건
훼손된 사인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낌	9건
사인이 보이지 않을때 불안해 함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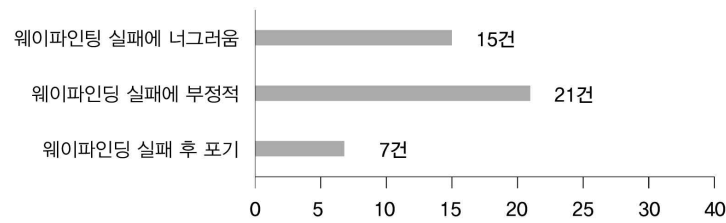
[표 4-24] 사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 관련 데이터

한편, 일반적 웨이파인딩 환경에서는 웨이파인딩 실패시의 상황이 가장 강한 정서반응을 일으키는데 반해, 트레킹 코스에서는 급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트레킹의 성격상 웨이파인딩이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풍경을 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에 여유가 있고 몸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의 이야기로, 웨이파인딩 실패 당시 시간의 여유가 없거나, 피곤에 지치거나, 해때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는 실패시에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웨이파인딩의 실패는 결국 트레킹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

즉, 트레킹 코스에서는 웨이파인딩의 실패에 대하여 타 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나, 장소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한 부정적 반응 역시 나오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듯하다.

길을 잃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거나 괜찮다는 반응을 보임	15건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분노나 짜증을 표현	8건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	5건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당황스러움이나 불안을 표현	5건
길을 잃어버려 힘들거나 고통스러움을 표현	3건
웨이파인딩의 실패로 인하여 중도에 포기함	7건

[표 4-25]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실패상황에 대한 정서반응 관련 데이터



[그림 4-10]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실패상황에 대한 정서반응 관련 그래프

앞서 언급한대로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요소는 이용자에게 강한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러한 웨이파인딩 요소는 시각적 사인물만이 아닌 전화안내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화 안내는 대상 트레킹 코스의 독특한 웨이파인딩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내자가 직접 이용자들의 웨이파인딩 문제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안내자가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경우, 감동과 감사 등 강한 긍정적 정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안내자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그만큼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람의 존재가 워낙 정서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용자가 느끼는 감정의 강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전화 안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개 문제 상황에서 연락을 한 것이니만큼, 이용자의 심리상태도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화안내자의 대응이 친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실망스럽고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 후기에서 2010년 이후에는 이러한 불만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부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전화 안내 시스템은 길을 찾게 해준다는 기능적 역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누군가 지켜주는 듯한 정서적 안심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가능성을 지닌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친절과 배려가 담긴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화로 안내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신뢰, 안도감을 표현	6건
전화 안내자의 불친절한 응대에 실망과 분노 등 부정적 정서 느낌	6건

[표 4-26] 전화 안내에 대한 정서반응 관련 데이터

3)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

본 조사에 앞서 트레킹 코스에서 웨이파인딩을 위한 랜드마크는 환경의 특성상 대부분 멀리서도 보이는 큰 자연물일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이러한 자연물을 웨이파인딩 요소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자연물에 대한 언급은 그 풍경의 인상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들은 인상 깊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의 관광명소 자체에 대한 내용은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자료의 범주화에 있어 웨이파인딩의 측면에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특정 장소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 포함할 수 없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연물이나 인공물 등의 랜드마크가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의 웨이파인딩 수행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Xia et al(2008)의 환경과 랜드마크의 웨이파인딩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연 환경에 가까운 호주 빅토리아의 필립섬에 있는 코알라 보호센터(Koala Conservation Centre)를 관찰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그들이 환경에 익숙하던 익숙하지 않던 상관없이, 길의 특징이나 경관 특징, 또는 사람들의 군집 등과 비교하여 사인보드와 사인포스트를 가장 주요한 랜드마크로 사용했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 대신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트레킹 코스 선상에 위치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에 대하여 가지는 이용자들의 기억이나 이미지였다. (이용자들의 후기에 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맛집 등의 식당은 제외하였다.) 트레킹 코스의 이용자들이 장소에 관해 쓴 내용을 추출하자 오히려 장소성의 측면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소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장소들은 해당 구간을 보다 더 잘 기억하고 이미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용자들이 코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장소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 결과, ‘해병대길’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험하여 해녀들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에 해병대 군인들이 나서서 예쁜 자갈길을 내주었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 외 비슷한 곳으로 ‘특전사길’과 한 개인이 곡괭이 하나로 길을 냈다고 하는 ‘수봉로’도 이용자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주는 장소이다.



해병대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곳은 힘겨운 인생을 살다간 예술가의 삶이 담긴 ‘김영갑 갤러리’이고 그 다음은 ‘시흥초등학교’이다. 시흥초등학교는 장소의 특이성 때문이 아닌, 제1코스, 즉 첫 번째 코스의 시작점이라는 상징성으로 기억에 각인이 되고 있다. 그 외에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고)이주일씨 별장이었다가 카페로 변신한 ‘투웍스’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는 ‘알뜨르 비행장’이 있다. 이러한 장소들의 공통점은 일부러 여행자에게 관광매력물로서 계획된 곳이 아니라는 점과 그 나름의 소박하지만 자연스러운 이야깃거리, 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명확하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각 구간에 있어 이러한 명확한 명칭을 가진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는 구간이 그렇지 못한 구간에 비하여 이용자에게 강한 장소감과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Lynch(2003: 188)가 이미지어빌리티를 언급하며, ‘환경을 구분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환경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최근 불고 있는 ‘테마’나 ‘스토리텔링’의 열풍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여행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기에 장소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기저기 그럴듯한 테마를 붙이거나, 명칭과 스토리텔링을 덧붙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본 대상 코스에서 이러한 곳을 조성한 곳은 없으나, 이용자들이 코스를 이용할 때 들를 수 있는 주변 명소라 하여 명칭이나 스토리에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으나 막상 가봤더니 장소가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에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트레킹 코스는 이미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성격 자체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이미 있는 명소나 테마(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일본 시코쿠 순례길과 같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명소가 생긴다면 그것대로 좋은 일이지만, 코스 상에서 자연과 이미 가지고 있는 매력물 이외의 테마를 위하여 무언가 억지로 계획하고 조성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시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병대길 등의 예와 같이 부분 부분의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한 트레킹 코스의 장소성을 창출한다고 보여 진다.



해병대길	21건
김영갑 갤러리	14건
시흥초등학교	14건
이중섭 미술관	9건
이주일 별장 (투윅스 카페)	6건
특전사길	4건
수봉로	4건
알뜨르 비행장	4건

[표 4-27] 이용자가 자주 언급한 장소 관련 데이터

한편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웨이파인딩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환경과 인간이 환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기대심상’의 일치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상 코스에서도 환경과 기대심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웨이파인딩의 혼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레킹 코스가 인위적이지 않은 것은 그대로의 환경 자체를 추구하고, 또한 그 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곳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그러한 경우 이용자들은 그들이 평소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길의 모습과 달라 진행에 있어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 사례는 크게 ‘길 같아 보이지 않는 길’로 코스가 이어지는 경우와 ‘남의 집’ 안을 관통하여 들어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길 같지 않은 길의 경우, 논이나 밭 사이길, 수로, 바위 위 등이 있었고, 남의 집을 관통하는 듯하여 주저하게 하는 경우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거나 목장이나 비닐하우스 사이, 하수처리장이나 학교, 공원 정문을 통과하는 경우였다. 산티아고 순례길 경험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개인 주택같은 3층 건물 아래를 통과하거나 학교 운동장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정수, 2002) 이 경험을 재미있는 추억으로 기술한바 있다. 그 외 스탬프를 찍는 곳이 화장실 안이라 놀랐다고 하는 경험담도 있었다. 이러한 케이스는 호기심과 재미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심상을 거스른 웨이파인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웨이파인딩 정보의 시각적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정보가 적절하게 주어지고, 이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용자의 내적 심상의 스펙트럼이 점차 확대되어 오히려 당혹감이나 혼란이 아닌, 트레킹의 경험에 있어서의 즐거움과 재미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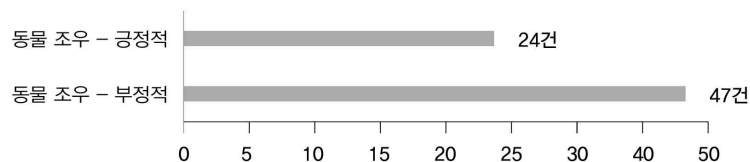
길 같아 보이지 않는 길로 인한 기대심상 불일치	7건
남의 집에 들어가는 듯한 위화감에 의한 기대심상 불일치	8건
스탬프 찍는 장소가 의외임	3건

[표 4-28] 이용자의 기대심상과 환경의 불일치 상황 관련 데이터

연구 초기에는 트레킹 코스에서 동물과 마주친 상황에 대한 경험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게시글의 수가 많아 언급을 할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동물에 대한 정서 반응이 아닌 그저 언급을 한 케이스는 제외하고, 정서적 반응을 표현한 글만 추출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보다 무서워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약 두 배 정도 되었다. 동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지역민이 기르는 개, 소, 말, 벌(양봉) 등과 야생의 사슴, 뱀, 꿩 등이 있었다. 트레킹 코스의 특성상 동물을 모두 제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물이 무서워서 트레킹을 꺼려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한 이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지역민이 기르는 종류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그에 대한 경고나 사전 알림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진다.

코스에서 동물과 만난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	24건
코스에서 동물과 만난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	4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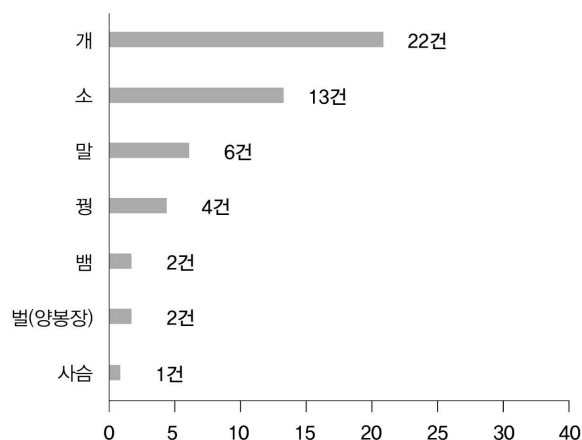
[표 4-29] 이용자들이 동물과 마주친 상황 관련 데이터



[그림 4-11] 이용자들이 동물과 마주친 상황 관련 그래프

개	22건
소	13건
말	6건
평	4건
뱀	2건
벌(양봉장)	2건
사슴	1건

[표 4-30] 동물과 마주쳤을 때 공포감을 표현한 빈도 관련 데이터



[그림 4-12] 동물과 마주쳤을 때 공포감을 표현한 빈도 관련 그래프

또한 이용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는 ‘꽃자왈’이었으나 이곳은 자연자체의 모습으로 인한 것이며, 이미 혼자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 안내 및 SNS 상의 입소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 외에는 시간대에 의한 상황인데, 트레킹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경우 두려움을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트레킹 경험이 적은 이용자의 경우 시간의 분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초기에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간내 적절한 위치에 일정 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 진입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또한 물리적 요인

에서 나타난 대로 종점까지 남은 거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용자들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시간이 늦어 어두워질 때 두려움을 느낌

15건

[표 4-31] 주변이 어두워져 두려움을 느낀 상황 관련 데이터

Mikunda(2002/2005: 233)는 장소 브랜딩에 관한 언급으로, 여행지는 ‘시작하는 문장과 끝나는 문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트레킹 코스에서의 시작과 끝맺음은 이용자들에게 있어 시각적·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점의 정서적 느낌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종점이라는 장소가 가진 은유, 즉 성취와 휴식에 대한 칭찬과 배려의 느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Kahneman(2010)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정에 있어 마지막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사례 연구에서도 많은 이용자가 마지막에서의 정서적 느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앞서 사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추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용자들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웨이파인딩 요소가 마지막을 알려줄 때의 시각적 전달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한다면, 그 장소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점이나 종점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명칭을 가진 경우는 이용자들이 그 명칭을 자주 언급하였으나 (시흥초등학교, 송이 슈퍼, 명물 식당 등) 너무 허름하거나 아무런 특징이 없는 공터 등은 의미성에 있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특히 종점은 마무리, 씬 등의 정서적 의미와 성취, 완결의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이용자를 위한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며, 거기에 요란할 필요는 없지만 작게라도 완주를 축하하거나 칭찬하는 의미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둘레길에 나타난 이용자의 게시글에 이러한 축하/칭찬을 원하는 이용자의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 글이 있었는데, 그는 구간 종점에 이용자의 완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자는 제안²⁵⁾을 내놓았다.

25) 이 제안은 현수막을 반대하는 타 이용자들의 댓글이 쏟아진 관계로, 게시한지 얼마 안 되어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는데, 이는 사인에 대한 정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자연환경과 조화되지 못한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감이 원인이 된 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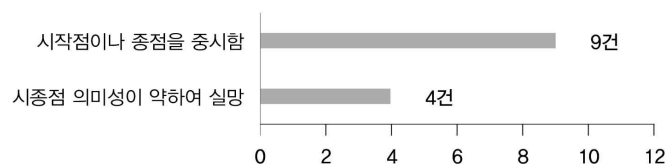


앞서 확인한바 올레길에서도 중간에 마을 주민들이 걸어놓은 격려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 이용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현수막은 미적·환경적 측면에서 권장할 수 없으나, 이용자의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디자인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²⁶⁾ 중 최상위 4, 5단계를 충족시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 코스를 완주한다는 것은 매우 강한 정서를 동반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시코쿠 순례길처럼 전 구간을 마칠 때 어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강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정수, 2012; 김지영, 2009).

정서적 이유뿐만 아니라 종점에 선 사람들은 대체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쉬면서 성취감을 음미하고 나서 신속히 숙소나 식당 등의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될 것이다. 시·종점이나 스탬프를 찍는 장소는 랜드마크로서의 용도를 겸하며 이용자에게 특별한 이미지를 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시작점이나 종점을 중요하게 생각함	9건
시작점이나 종점의 의미성이 약하여 실망함	4건

[표 4-32] 시·종점에 관한 이용자의 정서 관련 데이터



[표 4-13] 시·종점에 관한 이용자의 정서 관련 그래프

그리고 코스에서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역할을 기념 스탬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탬프는 완주에의 동기 부여는 물론, 재방문에

26)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단계별로 상승하는 인간의 욕구를 이해해야함을 주장하며,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에의 욕구, 3단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4단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제시하였는데,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차츰 상위단계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의 동기까지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일본 시코쿠 순례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다.

Mikunda(2002/2005: 203)는 어떤 장소에 대하여 직접 경험을 했다면, 마치 특정한 향기처럼 우리를 자극하는 ‘신호’들이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이와 연관된 감정들을 다시 회상하게 한다고 밝혔는데,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 외에 이러한 신호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패스포트와 기념 스탬프인 것으로 판단된다. Mikunda는 또한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그 장소와 연관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떠올려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매개체인 스탬프 찍힌 패스포트, 가이드북, 기념품 등이 그 장소의 경험의 구체적 이미지로서 이용자들에게 남을 것이다.

스탬프를 찍어 기분이 좋거나 중요하게 생각함	16건
스탬프 찍는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못찾아 실망함	10건
스탬프의 파손 또는 잉크 부족으로 찍지 못하여 실망함	11건
스탬프를 못 찍어 실망함	5건
스탬프를 찍는 장소의 의미성이 약하여 실망하거나 혼란스러움	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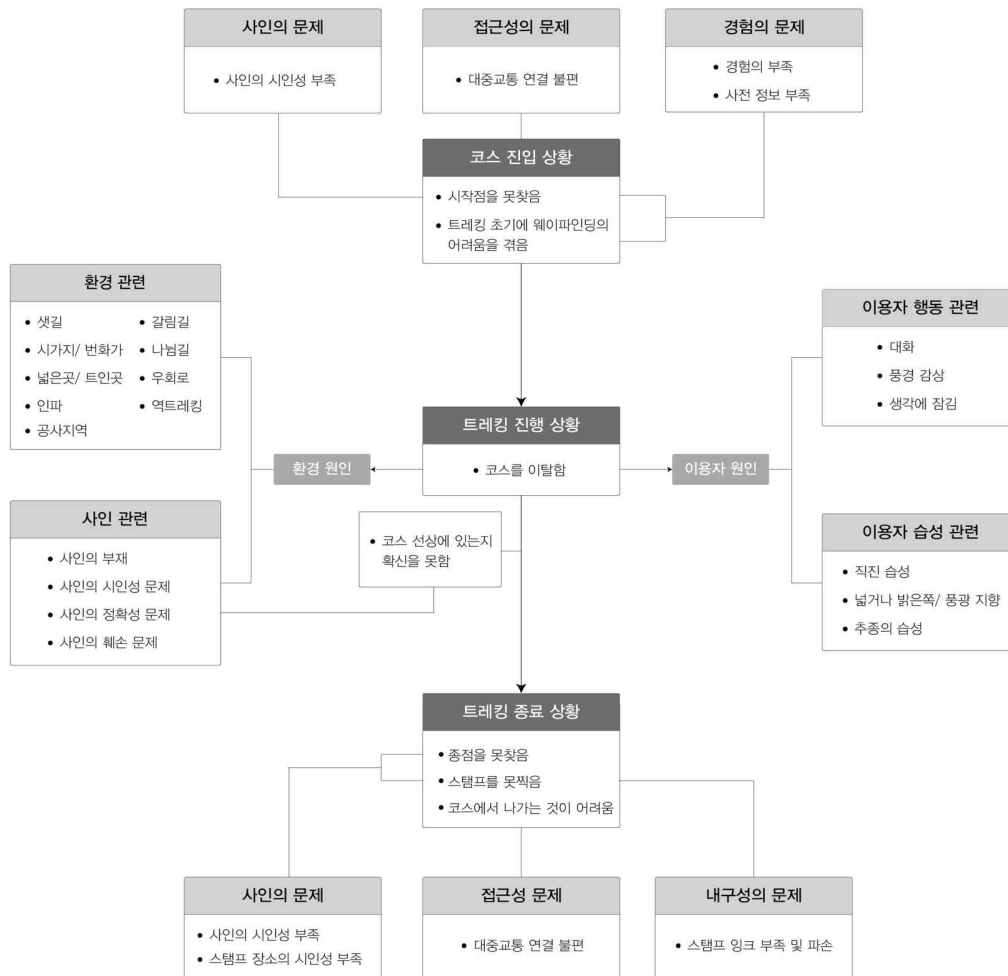
[표 4-33] 스탬프 관련 이용자 정서에 대한 데이터

4.4.3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정서적 요인 모형

1) ‘실패-원인’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요인 모형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의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중심현상은 이용자가 겪는 ‘웨이파인딩의 실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웨이파인딩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것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 즉 웨이파인딩의 실패 상황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핵심 상황이다. 그 현상과 원인을 트레킹 시작 상황과 트레킹 진행 상황, 트레킹 종료 상황의 3단계로 분류하여 물리적 요인 모형을 생성하였다. 각 상황에서의 문제와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4] 물리적 요인의 실패-원인 모형

(1) 코스 진입시의 상황

트레킹 시작에 있어 문제 상황은 먼저 대중교통 연결지점부터 시작점까지의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교통 하차지점으로부터 코스 시작점까지의 물리적 거리와도 관련이 있으나, 그것보다는 웨이파인딩 정보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작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인의 시인성이 문

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행자들이 트레킹 코스에 익숙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상황인 경우도 있다. 이용자들이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트레킹 코스에 대한 감각을 학습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익힌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원인으로 인하여 트레킹 초기에 웨이파인딩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나타난다.

(2) 트레킹 진행시의 상황

트레킹 코스의 전체 웨이파인딩 과정 중 가장 다양하고도 많은 상황이 혼재하는 진행시의 상황에 있어, 핵심적 웨이파인딩 문제 상황은 코스를 이탈하여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다시 외부적 환경이 원인인 경우와, 이용자 자신이 원인이 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외부적 원인으로는 이용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환경이 드러났는데, 샛길이나 갈림길, 나뉘길²⁷⁾ 등의 결정 지점과 시가지나 변화가, 넓은 곳이나 탁 트인 곳, 인파가 많은 곳, 공사 지역 등 환경의 변화가 크거나 복잡한 곳, 우회로나 역트레킹 등 일반적인 루트가 아닌 경우 등이다. 그리고 사인의 부재나 시인성/정확성/훼손 등과 관련된 사인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용자 자신의 원인으로는, 대화나 풍경 감상, 생각하기 등 코스를 걸으면서 이용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원인과 이용자들이 무의식중에 나타내는 이동 행태 습성, 즉 직진 성향이나 넓거나 밝은 쪽, 풍광이 좋은 쪽을 지향하거나 사람들을 추종하는 습성의 원인 등이 나타났다.

길을 잃는 외에 또 하나의 핵심적 문제 상황으로 나타난 것은 이용자 자신이 코스 선상에 있는지 아닌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개 사인 부재나 시인성 문제가 원인이 된다.

(3) 트레킹 종료시의 상황

이용자가 트레킹 구간을 완주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문제 상황으로는, 먼저 이용자가 종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냥 지나쳐서 트레킹이 호지부지 끝나거나 종점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사인의 시인성 부족이 원인이다. 스탬프의 경

27) 코스의 진행에 있어 갈림길이 다시 만나게 되어 어느 쪽으로 가던 무방한 경우를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나뉘길'이라고 명명하였다.



우, 타 웨이파인딩 환경이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할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스탬프가 이용자의 트레킹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탬프를 찍는 것을 목표 또는 트레킹 완주의 동기로 삼는 이용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기에, 웨이파인딩 과정의 목적지에서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료 상황에서 스탬프 관련 문제 상황은 스탬프를 찍는 곳을 인지를 못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경우와 잉크 부족 및 파손으로 인하여 스탬프를 찍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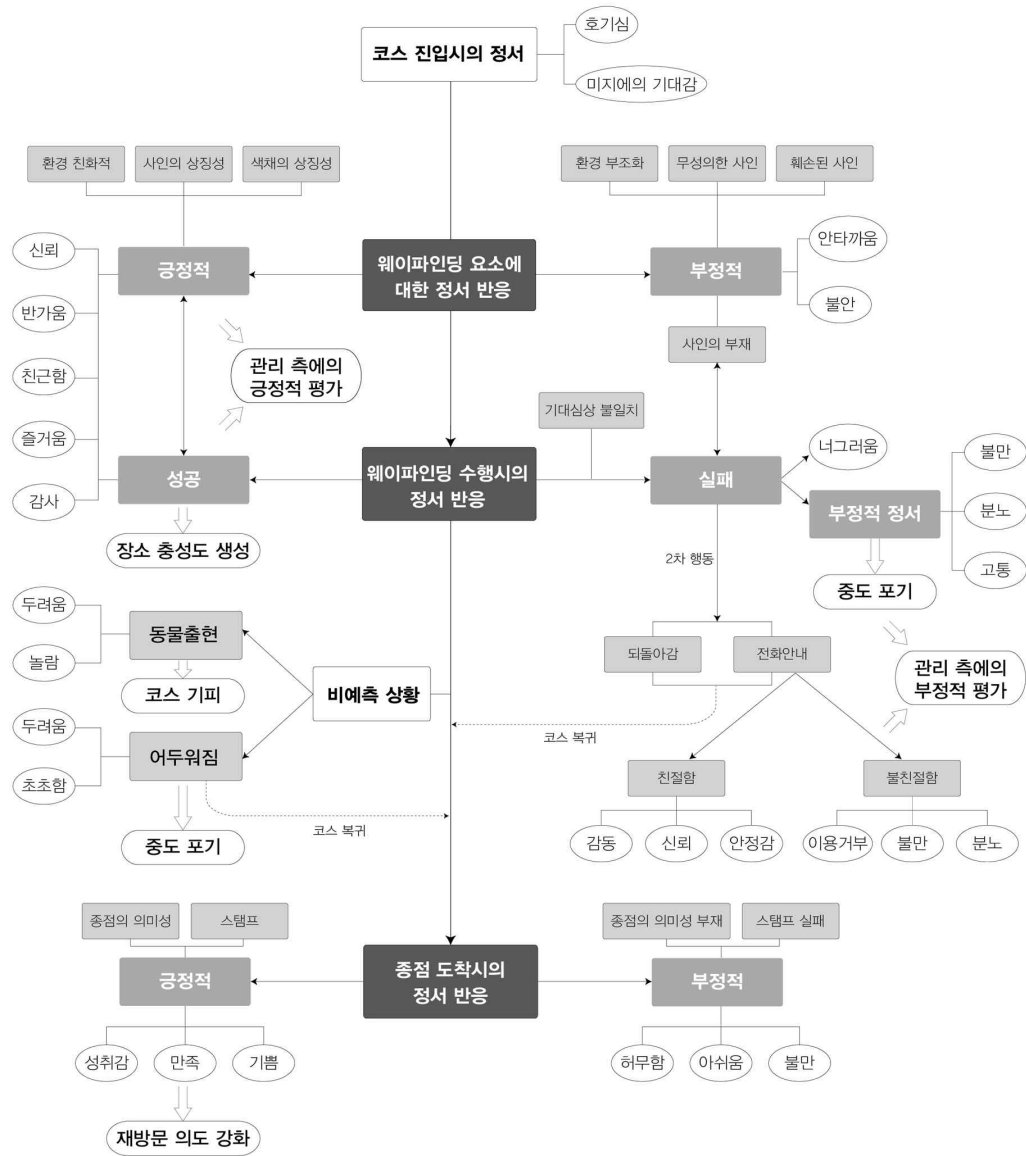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코스에서의 모든 여정을 종료한 후, 종점에서 다시 숙소나 그 다음 목적지로 가지 위한 대중교통의 연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난다.

2) ‘반응-행동’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요인 모형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의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상황은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과 관련된 이용자의 정서 반응이다. 이는 다시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과 ‘웨이파인딩 수행시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 및 ‘트레킹 종료 시의 정서반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도 유의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핵심 현상으로 본 것은 ‘이용자의 정서 반응과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이다. 트레킹 코스에서의 이용자의 정서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화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코스에서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한 정서 반응과 그에 따른 행동’, ‘코스 진행에 있어 웨이파인딩 수행에 따른 정서 반응과 그에 따른 행동’, 그리고 ‘종점 도착시의 정서 반응과 그에 따른 행동’의 3개 차원으로 분류하여 그 모형을 생성하였다. 각 차원에서의 정서 반응과 그에 따른 행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5] 정서적 요인의 반응-행동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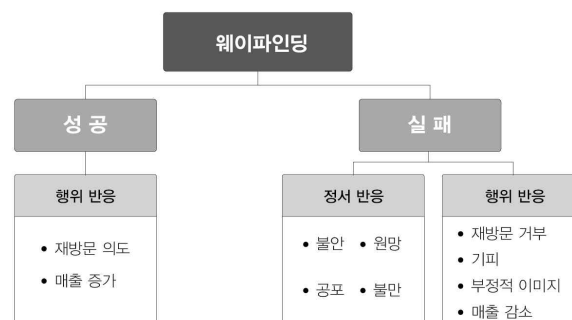
(1)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정서 반응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정서 반응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나뉘는데, 이용자는 웨이파인딩 요소가 환경 친화적일 때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며,

사인의 로고 및 색채 등의 아이덴티티가 갖는 트레킹 코스의 상징성에 긍정적 정서를 타나낸다. 이러한 사인의 긍정적 요소는 웨이파인딩의 성공 경험과 함께 신뢰, 반가움, 친근함, 즐거움 등의 폭넓은 긍정적 정서를 일으킨다. 이는 이용자의 장소에의 충성도를 이끌어내며 또한 거시적으로는 트레킹 코스 관리 측에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반면 이용자들은 사인이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거나 환경을 해친다고 느낄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며, 또한 사인의 설치에 있어 무성의하게 느껴지거나 훼손된 사인을 보았을 때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사인의 부재에 대하여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는 웨이파인딩 수행시의 실패에 대한 정서와 연관된 반응으로 이어진다.

(2) 웨이파인딩 수행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이용자의 정서 반응

웨이파인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이용자들은 웨이파인딩 요소에 대한 강한 긍정적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 반면 웨이파인딩 실패시의 정서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너그러운이다. 이용자들은 자연 안에서 기본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며 호기심과 미지에의 기대로 인해 어느 정도의 불편이나 고통은 감수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웨이파인딩에 실패하더라도 너그러운 정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김신혜·김호월(2011)의 논문에서 나타난 일반적 웨이파인딩 환경에서의 정서 반응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웨이파인딩 성공 시에는 큰 정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실패 시에 매우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 및 행위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다.



[그림 4-16] 일반적 웨이파인딩 환경에서의 정서 모형

그러나 웨이파인딩의 실패로 인하여 피로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역시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이 나타나며, 이것은 트레킹 중도 포기라는 행위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트레킹 코스의 특징 중 하나는 웨이파인딩의 실패가 장소 자체에의 거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웨이파인딩 실패 시 이용자는 코스에의 복귀를 위하여 왔던 길을 되짚어 최종적으로 사인을 본 곳까지 다시 돌아가거나 전화안내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²⁸⁾. 이때 전화안내자의 대응이 친절할 경우, 강한 긍정적 정서 반응이 나타나고 불친절하거나 무성의하다고 느끼는 경우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전화안내의 경우, 타 상황에 비해 비교적 강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웨이파인딩 요소에의 부정적 정서 반응이 다시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인의 부재로 인하여 웨이파인딩에 실패를 하거나 전화안내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에는 그것이 관리 측에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3)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

이용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다른 웨이파인딩 상황과는 조금 다른 변수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웨이파인딩 전략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유의한 내용이라면 또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두 가지로, 첫째, 동물의 출현에 대한 것과 둘째, 트레킹을 완료하지 못한 시점에 해가 저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자는 코스 재방문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피 행동을 일으키고, 후자는 중도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8) 지역민 등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실패의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어 사람이 웨이파인딩의 도움의 요소가 된다고 확정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코스의 특성상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웨이파인딩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문안내가 아닌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적절한 웨이파인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인적 낭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웨이파인딩의 도움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트레킹 종료 시의 정서 반응

트레킹을 마치고 종점에 도착했을 때 이용자는 강한 정서적 상태에 놓이게 되기에 종점이 갖는 의미성을 중시하며, 특히 이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스탬프이다. 이렇게 트레킹이 원활하게 끝나고 스탬프를 찍은 경우 성취감과 만족감, 기쁨을 느끼며, 해당 코스에 대한 재방문 의도를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종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지나치거나 장소감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 허무함이나 아쉬움, 더 나아가 불만을 나타낸다. 더욱이 스탬프를 못 찍는 경우는 상당히 강한 부정적 정서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로 인한 재방문 거부 등 부정적 행위 반응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연구 대상 이용자들의 SNS 후기 분석을 통하여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은 일반적인 인공적 환경에서의 웨이파인딩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웨이파인딩 환경이 결정 지점에서의 결정과 실행을 기본으로 했다면, 트레킹 코스에서는 결정 지점 자체의 인지 및 방향성의 제시, 이용자의 행태와 내적심상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레킹 코스에서는 일반적인 웨이파인딩 환경에 비해 사인의 가시성이나 규격화된 설치물이 크게 중시되지 않고, 실령 사인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사인을 찾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사인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에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인이 자연이나 풍광을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의 크기나 가시성은 중요시하지 않지만, 대신 정보제공의 정확성 및 규칙성과 내구성, 그리고 사인의 아이덴티티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은 코스에 대한 인지도도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Xia et al(2008)과 Tuan(1977/1995)이 언급한 바대로 그때그때 주어지는 방향 사인에 가장 의존을 많이 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 사인의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서적 작용면에 있어, 트레킹 코스에서는 타 웨이파인딩 환경에 비해 사



인 등의 웨이파인딩 요소가 이용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트레킹 코스에서의 사인은 랜드마크, 아이덴티티, 장소 이미지의 역할을 전부 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이 장소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 5년에 걸쳐 쌓여진 이용자들의 SNS 내용 분석을 통하여, 제주 올레길의 웨이파인딩 시스템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인이나 가이드북을 보면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SNS를 통하여 언급해왔던 부분들이 반영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트레킹 코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웨이파인딩 시스템 구축에 있어 이용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소통은 환경의 관리주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추후 조성 계획 중인 트레킹 코스의 관리에 있어서도 참고할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웨이파인딩 시의 문제점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환경과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제 5 장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논의

본 논문은 트레킹 코스에서의 이용자 웨이파인딩 행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웨이파인딩과 관련된 환경 및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에 관한 최종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의 행태가 일반적 건축물 및 거리의 웨이파인딩 행태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트레킹코스의 웨이파인딩 환경에서의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들이 트레킹 코스 이용자의 웨이파인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트레킹 코스와 같이 장거리이며 개방적인 경로에서의 웨이파인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웨이파인딩 및 사인시스템에서의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언술 데이터의 추출 등 경험 자료를 분석하여, 이용자 기반 조사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의 질적 연구 결과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망 연결이 일상화되어 있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인 ‘빅 데이터’에 대하여 오픈된 정보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배성환 외(2012: 30)가 주장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사용자 경험의 적절한 추출 및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추출의 방법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점에 주목하고 특히 언술데이터 추출을 위한 어휘그룹핑 방법을 시도하여 정성적인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본 연구는 트레킹 코스에서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행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물리적 요인	· 이용자들의 코스에 대한 경험 형성 여부 · 거리 개념의 인지와 정보
	· 이용자에 의한 사인의 인지 · 환경에서의 웨이파인딩 정보 제공 여부 · 이용자와 웨이파인딩 정보의 상호작용
정서적 요인	· 코스 환경에 의한 웨이파인딩 변수 · 코스 이용시 이용자들의 필요조건
	· 이용자의 마음가짐 · 이용자의 여정에 대한 인식 · 이용자의 사인에 대한 정서반응 · 이용자의 환경 및 환경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서반응 ·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성공 여부에 대한 정서반응 · 이용자의 트레킹 경험에 대한 정서반응

[표 5-1] 트레킹 코스에서 웨이파인딩과 연관된 물리적·정서적 요인 요약

웨이파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으로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요인은 이용자들이 웨이파인딩에 실패를 할 때 이에 대처하는 상황이며, 이는 경로 환경 자체의 문제와 사인정보 및 위치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등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관리 및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과 이용자의 행동이나 습성의 문제 및 경험의 문제 등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트레킹 코스에 있어서의 웨이파인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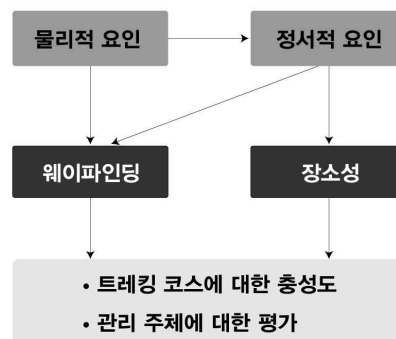
또한 정서적 요인으로서, 전체적으로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은 개방된 경로가 주는 길찾기의 즐거움으로 인해 긍정적인 정서를 띄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부분적으로는 여행 경험의 정서적 질을 떨어뜨리는 웨이파인딩의 실패 경험이나 비예측 상황, 불친절한 안내에 대한 불만이나 트레킹 종료에 있어서의 실망감 등 부정적 행동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추출된 자료를 통해 파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웨이파인딩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인시스템의 위치 및 정보구성이 이용자들의 웨이파인딩 수행의 성공 여부는 물론, 이용자



의 정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긍정적 정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웨이파인딩 환경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과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는 트레킹 코스에서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경험으로 인한 만족도 및 마음가짐의 여유로 인해, 웨이파인딩의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장소 자체에의 거부나 기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 또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장소 자체에의 거부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 관리주체에의 부정적 정서가 나타난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트레킹 코스의 관리에 있어 유념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다.

웨이파인딩의 요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트레킹 코스에서 물리적 요인은 이용자의 웨이파인딩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 또한 정서적 요인 역시 이용자의 웨이파인딩 수행에 영향을 주는 한편, 트레킹 코스의 장소 아이덴티티 및 장소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트레킹 코스라는 장소에의 충성도와 코스 관리 주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영향관계

지금까지의 웨이파인딩 연구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공간 문제로서의 접근과, 둘째, 시각적 정보를 다루는 인지적 문제로서의 접근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 두 가지의 접근법이 모두 각자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추측하였다. 웨이파인딩 설계

자가 환경 정보 및 시각적 정보를 정확히 디자인하여도, 환경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환경에 대한 심상화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웨이파인딩 정보로서 한계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인 자연환경코스의 웨이파인딩에 있어 인지와 행태를 포함한 물리적 요인과 무의식적 심상을 포함한 정서적 요인을 포괄하는 다각적 측면이 융합된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웨이파인딩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은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 역시 강한 영향관계에 있으며, 성공적인 웨이파인딩을 위해서는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고려한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기획과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의 웨이파인딩 연구는 주로 사인 시스템 등의 시설물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향후 웨이파인딩이 환경에서의 지리적·인지적·행태적·경험적·심리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Stake holders)의 관점이 다차원적으로 관찰,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관청 측이나 관리자 측의 일방적인 방향제시나, 여행자나 주민 등 이용자의 자기중심적인 요구, 디자이너의 이상론 등으로 치우치면 웨이파인딩의 성공적 계획은 힘들다. 총체적 기획 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웨이파인딩을 제공할 때 비로소 트레킹 코스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길을 찾는다는 의미만이 아닌 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인 평가,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미야자와(1987/2003: 87)는 ‘서로 각 입장에서 느끼는 그 장소에 대한 애정이나 긍지, 꿈, 희망, 연대감 등이 장소를 숙성시키며 더 나아가서 그 장소의 문화를 키운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소감이 깊이 관여하는 트레킹 코스의 장소적 가치 제고에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Lynch(1960/2003: 177) 또한 그의 저서에서 ‘혼돈의 풍경’이라는 표현을 하며, 환경을 읽거나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두려움과 혼란은 장면의 풍부함과 힘의 즐거움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듯이 트레킹 코스에서의 명료한 웨이파인딩은 그 장소에 대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올레길이나 둘레길의 성공은 단지 한 지역의 트레킹 코스의 성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른 트레킹 코스에도 가보고 싶어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트레킹 코스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전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트레킹 코스가 퀄리티 경쟁을 벌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되며, 트레킹 코스를 관리하거나 코스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주체는,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웨이파인딩 과정에 있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웨이파인딩의 제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한 트레킹 코스 환경 및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준비 없이 무작정으로 코스부터 만든다면 재정적·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장차 트레킹 코스의 개발에 관여할 모든 관계자와 디자이너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특히 트레킹 코스의 구성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정부에서는 트레킹 코스에 있어 웨이파인딩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트레킹 코스에 있어 웨이파인딩 요인은 장소의 경험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분석에서 확인된 것처럼, 웨이파인딩 요소가 이용자들에게 이토록 관심을 받는 환경은 매우 드문 만큼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웨이파인딩은 단순한 길찾기가 아니라, 이동환경에 대한 ‘총체적 경험’에 관한 것이다. 트레킹 코스에서 주목하여야 할 물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중심(user-centered)으로 잘 계획되고 실행된 웨이파인딩 시스템은 길 자체를 꾸미는 것 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5.2 연구의 활용 방안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트레킹 코스에서의 물리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과 관련된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괄적 가이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아이덴티티 요소의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두 번째로는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사인을 구분하여 각 사인의 정보 요건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트레킹 코스 사인의 설치를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아이덴티티 요소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시스템에 있어서의 주요한 아이덴티티 요소는 로고²⁹⁾, 색채, 상징물, 픽토그램이다. 각 요소에 있어, 고려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류	내 용
로고	-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에게는 코스의 아이덴티티 요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편임 - 로고는 코스의 이미지, 대표성 및 상징성을 잘 전달해야 하며, 직관적 인지가 가능한 형태를 권장함
색채	- 트레킹 코스의 핵심 아이덴티티인 색채는 코스 상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 하며, 코스의 이미지나 역사성, 테마 등의 연관성을 고려함. - 가급적 단순하고 이용자가 색의 이름을 명료하게 떠올릴 수 있는 색채의 선택을 권장함.
상징물	- 트레킹 코스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징물은, 해당 트레킹 코스를 이미지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 요소임. (예: 올레길의 간세, 산티아고 순례길의 조개껍데기, 시코쿠 순례길의 코보 대사 등) - 트레킹 코스의 상징물은 로고의 형태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디자인을 권장함 - 사인이나 조형물, 기타 2차 자료 및 기념품 등의 다양한 형태에서 응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의 융통성이 요구됨
픽토그램	- 야외환경에서의 웨이파인딩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식별력 있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픽토그램 활용이 권장됨 - 픽토그램은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요소이므로, 트레킹 코스의 아이덴티티가 나타날 수 있는 형태와 색채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표 5-2]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시스템의 아이덴티티 요소

29) 로고(logo)는 심벌마크(symbol mark)와 로고타입(logotype)을 포함한다. 디자인 적용에 있어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두 개를 합쳐 로고(logo)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 논문에서는 로고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2.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사인의 분류

트레킹 코스에서 필요한 사인은 크게 방향 사인, 식별 사인, 공간 사인, 관리사인, 설명 사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사인의 종류에 있어 세부적 삽입정보 및 용도 구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구분	내 용
방향 사인	방향유도 사인	· 방향 지시 사인은 길이 갈라지는 결정 지점에 설치하는 사인으로, 화살표를 기본으로 하나, 누가 보더라도 진행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방향지시성이 내재된 디자인을 권장함 · 화살표의 각도가 잘못되거나 화살표가 그려진 표면에 굴곡이 있는 경우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리본 등의 블레이즈로 방향지시 사인을 대체할 경우, 두 개 이상의 블레이즈가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주어야 함
	블레이즈	· 리본이나 나무표식, 기타 트레킹 코스 색채 및 아이덴티티 표식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이 코스 선상에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레이즈는 트레킹 코스에서 특화된 역할을 하는 중요 요소임 · 블레이즈는 가급적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사인의 간격을 개괄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코스를 벗어났을 때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함
	식별 사인	· 위치확인 사인은 이용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인으로, 기본적으로 코스 명, 현 위치 및 남은 거리가 제공되어야 함 · 거리 정보에 시간 정보를 병기하여 이용자들이 나머지 여정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함 · 가끔씩 나타나는 사인이므로 이용자들의 정서를 고려하고 코스의 개성을 살린 독창적 디자인이 권장됨
공간 사인	시·종점 사인	· 가급적 멀리에서도 눈에 띄 수 있는 형태와 색감의 이용을 권장함 · 사인의 크기보다는 높이가 더 중요하므로 환경이 허락하는 한 멀리서 볼 수 있는 높이 설정 및 설치 방법이 요구됨 · 시작점에서는 코스 도중의 위치 확인 사인의 내용을 보는 법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연락처 등 초행자들이 트레킹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식별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종합안내 지도	· 안내지도는 코스 시작점에서 전체 구간을 나타내면 되나, 정보의 양은 최소화하고 간략하게 중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선형적 구간을 구성하여 표시하고, 그 외 트레킹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의 제공이 권장됨
	구간 약도	· 약도는 구간 도중에 넓은 곳, 변화하거나 복잡한 곳에 진입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경우에 전체적 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약도는 이용자가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 진입하기 직전에 주어져야 이용자가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고 조금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함



구분	세부구분	내 용
관리 사인	동물출현 알림사인	· 목장 등 가축을 기르는 곳이나 야생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의 경우, 알림사인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 · 픽토그램을 이용한 간단명료한 사인정보의 제공이 권장됨
	진입주의 사인	·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간대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것은 안전한 트레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진입주의 사인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이용자들이 산길에서는 해가 지는 것이 도시환경과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 시간대를 제공함
설명 사인	임시안내 게시판	· 트레킹 코스는 일시적 변동이 잦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시 안내를 위한 기본 디자인 체계가 있어야 함 · 구간의 시작점에 임시 현황 공지를 게시할 수 있어야 함 · 획일적인 보드 형태에서 벗어나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의 고려가 필요함 · 향후 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원격 게시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인이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음

[표 5-3] 트레킹 코스 웨이파인딩 사인의 제공

3. 트레킹 코스 사인의 설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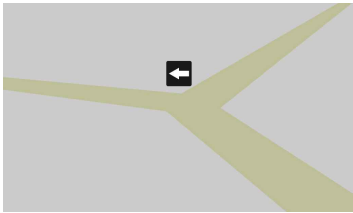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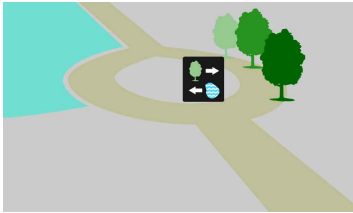
트레킹 코스에서 사인의 설치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정점 등 웨이파인딩 결정 지점의 사인 설치, 사인의 인지가 어려운 곳에서의 사인 설치, 그리고 기타 사인을 설치하는 방식 등을 근거로 하여 구분하였다. 각 사인 설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세부 구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구 분
결정 지점에서의 설치	갈림길
	샛길
	나뭇길
사인의 인지가 어려운 곳의 설치	전방이 개방적인 곳
	경로의 한쪽 편에 경관매력물이 있는 곳
	경로가 불명확한 곳
	주거지 통과 경로
기타 고려 사항	적절한 시야각의 고려
	기후 환경의 고려
	사인 밀도의 고려

[표 5-4] 트레킹 코스 사인의 설치 요건

1) 결정 지점에서의 사인 설치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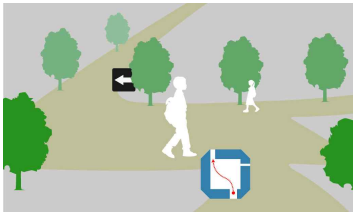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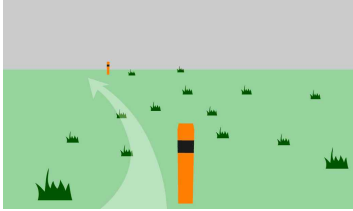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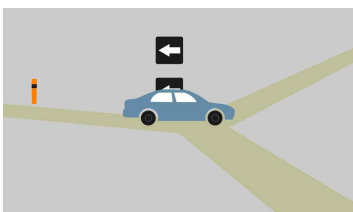
■ 방향사인 ■ 식별사인 ● 공간사인

세 부 구 분	내 용
갈림길에서의 사인 설치 	· 갈림길에서는 반드시 사인이 주어져야하며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인을 찾는 지점이므로 사인 크기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음 · 적절한 위치에 어느 정도의 식별성만 갖추 수 있도록 함 · 갈림길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사인 설치를 요함
셋길에서의 사인 설치 	· 셋길은 갈림길보다 웨이파인딩 측면에서 이용자의 주목도가 떨어지므로 갈림길 사인보다 큰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셋길은 큰길에서 작은 길로 갈라지는 길로, 이용자들이 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인의 시인성 뿐만 아니라 길 자체의 식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 변화의 시각적 단서 및 사인의 식별성을 강화해야 함 · 셋길로 회전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예고 사인을 제공함 · 관리 주체의 판단에 따라, 어느 지점을 지나치면 이후의 웨이파인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난 지점에서 코스를 이탈했다는 경고 사인을 제공함
나뉘름길에서의 사인 설치 	· 나뉘름길에서는 도착지점이 동일하다해도 반드시 웨이파인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작은 규모의 나뉘름길인 경우, 코스 조성자가 임의로 한쪽을 정하여 방향 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음 · 규모가 크고 각각의 길이와 성격이 다르거나, 나뉘름 경로가 다른 경관 매력물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나뉘름 초입에서 각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표 5-5] 결정 지점에서의 사인 설치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2) 사인의 인지가 어려운 곳의 사인 설치

■ 방향사인 ■ 식별사인 ● 공간사인

세 부 구 분	내 용
전방이 개방적인 곳 	· 오솔길에서 넓은 공간으로 바뀌는 곳은 이용자가 웨이파인딩 혼란을 겪기 쉬운 곳이므로, 길의 환경이 바뀌기 직전 지점에서 사인에 약도를 제공하여 부분적 인지지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개방된 경로 환경에서 방향 지시 사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라도 방향을 유추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길의 한쪽에 경관매력물이 있는 곳 	· 해안이나 강가, 계곡, 목장, 꽃밭 등이 코스 of 한쪽 방향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길의 한쪽을 바라보며 이동하게 되므로, 사인은 경관 매력요소가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권장함 · 이용자들의 시선의 반대쪽에 사인이 위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이용자들은 사인도 풍광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풍광과 최대한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로가 불명확한 곳 	· 해안가, 들판, 목장 등 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방향유도 사인의 설치가 애매한 곳에서는 두 개 이상의 식별사인(블레이즈 등)이 동시에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방향성을 예측하게 함
주거지 통과 장소 	· 주차된 차량이나 기타 방해물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복수의 사인을 설치하여 방해물이 가리더라도 사인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사인이 트레킹 코스 이용자에게 이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일깨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가 필요함

[표 5-6] 사인의 인지가 어려운 곳의 사인 설치

3) 기타 고려할 사항

구 분	내 용
적절한 시야각의 고려	· 사인의 위치에 있어 인간의 습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시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시선의 시야각 내에 위치하도록 함 · 진행 방향에 따라 시야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시의 시선의 방향을 고려하여 사인의 위치가 선정되어야 함 · 이용자가 역방향으로 진행시, 정방향과 전혀 다른 시야각을 가지므로, 양쪽 방향 사인을 같은 위치에 설치하게 되면 시야각의 사각지대에 위치될 우려가 있음. · 사인 설치 시 정방향과 역방향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경우, 정보 제공에 있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경에 따라 병행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
기후 환경의 고려	· 자연환경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뭇잎이 사인과 길을 가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후와 계절에 따른 사인 주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 · 바람이나 태풍이 많은 지역은 리본형 사인이 엉키거나 말려서 안보이거나, 설치 사인이 강한 바람에 파손되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함 · 내구성의 문제로 사인이 오염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자연 환경에 의한 사인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사인 밀도의 고려	· 트레킹 코스 초행자들은 트레킹 초반, 사인을 학습하기 전에 웨이파인딩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구간 출발지의 사인 밀도 및 시인성을 높여 이용자가 사인과 환경에 신속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함 · 사인의 위치에 관한 규칙이 일관되게 주어질 때 사인의 신뢰도가 높아짐 · 사인의 간격의 규칙은 산술적 수치에 의한 간격이 아닌, 코스의 난이도에 따른 보행 속도를 함께 고려한 간격이 요구됨

[표 5-7] 트레킹 코스에서 사인 설치에 있어 기타 고려할 사항

5.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논문은 제주 올레길을 중심으로 한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의 행태 및 요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트레킹 코스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작성한 후기는 그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장점이 있으나, 이용자들의 후기에 웨이파인딩 관련 데이터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나 이를 발췌할 수 있는 분량이 적어, 웨이파인딩 니즈에 관해 일반화를 하기위한 자료로서는 신뢰성이 미흡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SNS 경

로의 다각화를 통한 어휘데이터의 양적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트레킹코스의 웨이파인딩을 연구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코스인 제주 올레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나, 국내외 여타 트레킹 코스의 사례는 보조적으로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포괄성을 제시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언술적 데이터의 추출에 있어 SNS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코스인 올레길에 비교하여, 다른 트레킹 코스는 SNS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므로 각 코스별 이용자 성향 및 차이점에 따른 웨이파인딩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닌다.

넷째, 제주 올레길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트레킹 코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코스의 불편함에 대하여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트레킹 코스의 관리가 공공기관이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용자들의 정서적 반응에 차이에 대한 파악은 한계가 있다.

다섯째, SNS를 통해 의견을 업데이트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웨이파인딩 사인정보의 적극적 이용자일 가능성이 높아, 사인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이용자들의 웨이파인딩 행태나 사인에 대한 반응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웨이파인딩에 있어 장소성 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자연환경인 트레킹 코스의 특징으로 추측되는 시각적 정보 외의 청각적 요소, 후각적 요소, 촉각적 요소 등 다감각적 경험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조사방법 측면에 있어 트레킹코스의 이용자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이론의 보다 심층적인 적용을 필요로 한다. 근거이론 적용의 장점 중 하나가 이론의 전이성(transferability)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근거이론의 결과는 향후 가설적 형태(hypothesis)로 변환시켜 통계적-양적 기법을 통해 다른 맥락에서 검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질적 방법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삼각측량법



(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을 시도해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대상 트레킹 코스의 경로형태의 한정된 범위를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트레킹 코스에서의 웨이파인딩 행태에 따른 인지적이며 정서적인 요건을 비교 분석한다면, 웨이파인딩 분야에서 보다 가치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의 확장된 결과의 증명을 위해 부족한 연구영역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자들의 질적·양적 연구를 통한 다양한 웨이파인딩 연구의 전개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 경민선. (2009). **일생에 한 번은 순례여행을 떠나라**. 서울: 21세기북스.
- 고영탁·박도성·임상희·김민국. (2010). **그래서 그들은 올레로 갔다**. 서울: 낭만북스.
- 김지영. (2009). **남자한테 차여서 시코쿠라니**. 서울: 책세상.
- 김효선. (2010). **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거침없이 걷다**. 서울: 바람구두.
- 김휴림. (2010). **올레의 선물**. 서울: 생각의 나무.
- 박상훈·장동련. (2009). **장소의 재탄생**. 서울: 디자인하우스.
- 배성환·김동환·곽인호·송용근. (2012). **빅데이터와 SNS 시대의 소셜 경험 전략**. 의왕: 에이콘 출판사.
- 백선훈. (2005).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한국과 미국 소도시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서명숙. (2008).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걷기여행**. 파주: 북하우스.
- 서명숙. (2010). **꼬락꼬락 걸어가는 이 길처럼**. 파주: 북하우스.
- 신영철. (2009). **걷는자의 꿈, 존 뮤어 트레일**. 서울: 은행나무.
- 이강혁. (2010). **까미노 데 산띠아고**.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 이송이. (2011). **지리산 둘레길, 사람과 풍경이 만나는 곳**. 서울: 스타일북스.
- 이정훈·최서희. (2006). **장소브랜딩 모형 구축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이종규. (200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진희. (2003). **장소 마케팅**. 서울: 대왕사.
- 이해선. (2009). **느리게 행복하게 걷고 싶은 길 제주 올레**. 파주: (주)터치아트.
- 이혜경. (2009). **지리산 둘레길 걷기여행**. 서울: 한국방송출판.
- 임승빈. (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친인간적 환경설계연구**. 서울: 보문당.
- 임혜원. (2004).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서울: 한국문화사.
- 임후남. (2010). **아들과 길을 걷다: 제주 올레**. 서울: 생각을 담는 집.
- 정무웅·안경환·민병호·최윤경·이경훈·이제선·윤혜경·Weisman, G., Funahashi, K., & Nishide, K. (2009). **건축디자인과 인간행태**. 서울: 문은당.
- 최건수. (2010). **올레감수광**. 서울: 컬처플러스.
- 최건수. (2010). **제주 올레 행복한 비움 여행**. 파주: 21세기 북스.
- 최미선. (2009). **산티아고 가는길**. 서울: 넥서스BOOKS.
- 최정수. (2012). **산티아고 그 유혹의 길, 그 끝에서 다시 포르투갈, 모로코를 가다**. 서울: 한솜미디어.



번역 단행본

- Bachelard, G. (2003). **공간의 시학**[La Poetique de l'espace]. (곽광수 역). 서울:동문선. (원서출판 1957).
- Lakoff, G. & Johnson, M. (2006).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s We Live By]. (노양진 · 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원서출판 1980).
- Lamoure, C. (2007). 걷기의 철학[Petite philosophie du marcheur in the collection Pause Philo]. (고아침 역). 고양: 개마고원.
- Lang, J. (1996). **건축이론의 창조**[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조철희 · 김경준 역). 서울: 국제. (원서출판 1987).
- Lynch, K. (2003). **도시환경디자인**[The Image of the City]. (한영호 · 정진우 역). 광주: 광문각. (원서출판 1960).
- Mikunda, C. (2005). **금지된 장소, 연출된 유혹**[Der verbotene Ort oder Die inszenierte Verfuehrung]. (신혜원 역). 서울: 참솔. (원서출판 2002).
- Mikunda, C. (2005). **제3의 공간**[Brand Lands, Hot Spots & Cool Spaces]. (최기철, 박성신 역). 서울: 미래의 창. (원서출판 2004).
- Morbille, P. (2006). **검색 2.0 발견의 진화**[Ambient Findability]. (신현승 역). 서울: (주)한빛미디어. (원서출판 1999).
- Morgan, N., Pritchard, A., & Pride, R. (2007). **관광목적지 브랜딩: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매력적 이미지 창출**[Destination Branding-Creating the unique destination proposition] (이정훈, 김사라, 조아라 역) 서울: 백산출판사. (원서출판 2004).
- Tuan, Y. F. (1995). **공간과 장소**[Space and Place -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구동회, 심승희 역). 서울: 대운. (원서출판 1977).
- Underhill, P. (2000). **쇼핑의 과학**[Why We Buy: The Science of Shopping]. (신현승 역). 서울: 세종서적. (원서출판 1999).
- Solnit, R. (2003). **걷기의 역사**[A History of Walking]. (김정아 역). 서울: (주)민음사. (원서출판 2001).
- 미야자와 이사오. (2003). **사인만들기 도시표정 만들기**[Planning and Designing the Streetscape Signs] (곽명희 역) 서울: (주)에스엠미디어그룹. (원서출판 1987).
- 우치다 요시치카. (1984). **건축의 환경심리**. (윤엽노 역). 서울: 국제출판공사. (원서출판 n.d.).
- 일본건축학회(eds.). (2000). **인간심리행태와 환경디자인**[人間環境學] (배현미, 김종하 역). 서울: 보문당. (원서출판 1998).

국외 단행본

- Arthur, P., & Passini, R. (1992). *Wayfinding-People, Signs, and Architecture*, New York: McGraw-Hill, Inc.
- Golledge, R. G., (ed.). (1999). *Wayfinding Behavior: Cognitive Mapping and Other*



- Spatial Process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Lynch, D.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 Passini, R. (1984). *Wayfinding in Architectur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Sims, M. (1991). *Sign Design*. London: Tames and Hudson Ltd.
- 西川潔. (2002). *サイン計画デザインマニュアル*. 京都: 學芸出版社.

국내 학위 논문

- 권니아. (2011). **경관에 내재된 어포던스 지각의 영향인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권혜진. (1995). **청소녀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영호. (2004).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잠유성의 재해석과 그 적용**.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김정희. (2013). **금융정보의 시각정보구조가 정보이해도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김종환. (1992). **건축공간 지각특성과 경로탐색(Wayfinding) 측면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문상용. (2009).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구조분석을 통한 아이덴티티 확장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안상락. (2008). **유니버설 디자인관점에서의 공공사인 커뮤니케이션 지각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안은희. (2004). **대규모 상업시설물의 환경특성과 길찾기 성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유승동. (2003).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인지도 추출 모델 개발**. 박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수원.
- 이연희. (2012). **치유의 숲 산림관리 기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임경애. (2002). **웹사이트에 나타난 국가 간 감성색채 비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조현주. (2010). **정보생태를 기반으로 한 간판경관의 해석방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한기증. (2006).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진로인지계획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홍정인. (2012). **색채 인지 체계에 관한 연구: 언어적 표상 특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황용섭. (2010). **사건과 이미지에 의한 전일적 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국외 학위 논문

- Passini, R. (1977). *Wayfinding: A Study of Spatial Problem Solving with Implication for Physical Design*.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 Smith, D. C. (2008). *finding the way(a non-fiction narrative concerning the case study of visual cues in communication desig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Design with Emphasis on Wayfinding Utilizing Visual Cu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College Union Institute & University, Cincinnati.
- 金信惠. (2000). 博物館における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の研究, -アメリカ自然史博物館, 韓國國立科學博物館, 日本國立科學博物館を中心に. 修士論文, 國立筑波大學校, つくば.

국내 학술지

- 강재정. (2003). 관광동기·이미지·재방문의도간 구조적 관련성. **관광학 연구**, 제26권 제4호(통권41), 221-238.
- 권향원·최도림. (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보**, 45(1), 275-302.
- 권효석·이장한. (2005). 길찾기 능력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4(2), 1-10.
- 김광중. (2010). 올레길 걷기 열풍의 도시설계적 함의. **환경논총** 제49권, 27-42.
- 김남효·남궁진·이상호·송성진. (2002). 리모델링된 종합병원단지의 경로선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2(1), 391-394.
- 김신혜. (2008). Wayfinding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사인 시스템. **기초조형학연구**, 9(2), 139-147.
- 김신혜. (2012). 플레이스 브랜딩(Place Branding)을 위한 웨이파인딩(Wayfinding) 적용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vol. 34, 55-64.
- 김신혜·김호월. (2011). 공공시설에서의 이용자 Wayfinding 행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vol. 31, 193-202.
- 김형신·도경석·안소미·이상호·박영기. (1998). 길찾기에서 나타난 보행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8(1), 43-50.
- 김진용·김희춘·신용순. (1996). 도시 보행자를 위한 안내 사인시스템 디자인 연구: 대전 둔산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산업대학교 논문집**, 13(2), 29-43.
- 박영아·현용호. (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7), 75-93.
- 박혜경. (2006). 장소지시단서로서의 지하철역 환경디자인 기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 67호, 351-362.
- 백승호·최재필. (2001). 공간구조가 길찾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



- 학술발표논문집, 21(2), 1-4.
- 백승호·최재필. (2002). 공간구조와 길찾기 효율성의 상관관계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7), 3-10.
- 성동규·염선규. (2013). 온라인 마녀사냥에 관한 근거이론적 방법론 분석: 악성 댓글 피해 경험과 극복 전략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3), 145-189.
- 양지혜·김한일. (2012). 국내 도보여행코스의 형태별 분류. **한국컨텐츠학회 2012 춘계종합학술대회**, 219-220.
- 우경훈·김면. (2010). 색채의 상징성과 롤랑 바르트(R. Barthes)의 신화론에 기초한 지자체 심벌마크의 색채와 의미 간의 정합성에 관한 고찰: 광역시 심벌마크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vol. 29, 55-66.
- 윤정준. (2008). 새로운 개념의 국내 첫 장거리 도보길 “지리산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 관광정책 32호**, 104-107
- 이강주. (2003). 길찾기 행태를 고려한 상업용 지하공간의 Sign System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0(1), 1-7.
- 이도희·김현미. (2013). 근거이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운영 인식에 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35(2), 141-168.
- 이정교·왕중은. (2001). 사인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미술디자인 논문집**, 7호, 175-194.
- 이종원·함경림·윤새라·백영선. (2010). 어디에 표지판을 세울 것인가? 길 안내 과제를 통한 개인의 공간인식 및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5(1), 144-164.
- 정여주·서문진희. (2011). 장기요양 필요노인 부양자의 시설입소결정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5(1), 87-117.
- 정지석·박혜경. (2006). 코엑스몰에서의 시각적인 길찾기 단서에 따른 보행자의 길찾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11), 97-104.
- 정철·박태영·노경국. (2010). 제주올레 관광객의 방문동기와 사전이미지의 관계. **관광학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81), 13-33.
- 최막중·김미옥. (2001).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대학로 로테오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6(2), 153-161.
- 최승희. (1996). 병원실내의 Wayfinding 효과를 위한 색채계획 접근방법. **우석대학교 논문집**, vol. 18, 313-336.
- 최윤경·민병호. (1998). 공간구조와 학습이 길찾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4(7), 53-60.

국외 학술지

- Brown. B., & Laurier. E. (2005). Maps and Journeys: An Ethno-methodological Investigation. *Cartographica*, Volume 40, issue 3, 17-33.
- Coluccia. E., Iosue. G., & Brandimonte. M. 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ap



- Drawing and Spatial Orientation Abilities: A Study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 135-144.
- Chen, C., You, M., & Chiou, S. (2003). Psycho-pleasurability of Maps for Wayfinding. *6th Asian Design International Conference*, vol. 10, 14-17.
- Hugo J. S., & Eleanor A. M. (2008). The dynamic nature of cognition during wayfind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 232-249.
- Malkin, J. (1989). Wayfinding-An Orientation System for Hospitals. *Progressive Architecture*, 11:89, 107-108.
- Nothegger, C., Winter, S., & Raubal, M. (2004). Selection of Salient Features for Route Directions. *Spatial Cognition and Computation*, 4(2), 113-136.
- Pandit, N. R. (1996). The Creation of Theory: A Recent Application of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Qualitative Report*, 2(4), 1-15.
- Passini, R. (1996). Wayfinding Design: Logic, Application. Some Thoughts on Universality, *Design Studies*, 17, 319-331.
- Tolman, E. C. (1948). Cognitive Maps in Rats and Men. *The Psychological Review*, 55(4), 189-208.
- Werner, R. (1984). Orientation in the built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13(4), 291-301.
- Xia, J., Arrowsmith, C., Jackson, M., & Cartwright, W. (2008). The Wayfinding Process Relationships between Decision-making and Landmark Utility. *Tourism Management*, 29, 445-457.

정기간행물

- Weisman, G. (1989). Designing to Orient the User, *Architecture*, 10, 113-114.
- 권민. (2010). 브랜딩. 유니타스 브랜드 통권 Vol.13.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이성용. (2010). **걷는 길의 가치를 높인 제주올레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 채동렬·안점관. (2012). **경남의 해안도보길 조성방안**. 함안: 경남발전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2011). **강원도 동해안권역 해파랑길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자료

- 100Km 이상 완주하면 Compostela를 받는다. (2013). Petrus Guest House. 2013.04.03 검색, http://www.petrusproject.com/xe/camino_board/634.



INUS 제주. (n.d.). <http://cafe.naver.com/terror4u>.

JMT 친구들. (n.d.). <http://cafe.daum.net/jmtfriends>.

길 위에서 안녕! (2008). 카미노데산티아고 순례자 표식, 조개껍데기. 2013.02.13 검색,
<http://blog.naver.com/sogreen78/70032086273>.

네이버 지리산 숲길. (2010). <http://cafe.naver.com/trail300>.

느영나영. (2004). <http://cafe.naver.com/jejutip>.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10). 보도자료. 2013.02.17 검색,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0830>.

산림청. (n.d.). 숲사랑. 2013.02.03 검색, <http://www.forestlove.or.kr>.

산티아고 순례길 사무국 홈페이지. (2013). <http://peregrinosantiago.es/eng>.

산티아고에서 만난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같은 사람. (2010). 2013.02.13 검색,
<http://blog.naver.com/marilynext/30099093153>.

세계여행-산티아고 가는 길. (2012). 2013.02.13 검색,
<http://blog.naver.com/glamnco/10137626474>.

시코쿠 순례 길. (2010).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2013.04.03 검색,
<http://cafe.naver.com/trekking/15578>.

시코쿠 순례길. (2010).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2013.04.03 검색,
<http://cafe.naver.com/trekking/16727>.

시코쿠 순례의 노교와 기념우표집. (2010). 2013.04.03 검색,
<http://cafe.naver.com/trekking/16581>.

시코쿠의 순례용품. (2010).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2013.04.03 검색,
<http://cafe.naver.com/trekking/16727>.

씨에스 카페. (2004). <http://cafe.daum.net/cstour>.

일본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길. (2012).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2013.04.03 검색,
<http://cafe.naver.com/trekking/19478>.

제주 여행 동호회. (2006). <http://cafe.daum.net/aquajj>.

제주도 여행 카페. (2009). <http://cafe.naver.com/charthigh>.

제주올레 홈페이지. (n.d). <http://www.jejuolle.org>.

제주 하이킹. (2003). <http://cafe.daum.net/jejuhikingland>.

잔무어 트레일_지도. (2009).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2013.04.03 검색,
<http://cafe.naver.com/trekking/14898>.

존 뮤어 트레일 홈페이지. (2012). <http://johnmuirtrail.org>.

지리산 둘레길 홈페이지. (2009). <http://www.trail.or.kr>.

지리산 숲길. (2010) <http://cafe.naver.com/trail300>

한국의 길과 문화 홈페이지. (2013). 자료실. 2013.05.07 검색,
http://www.tnc.or.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147&page=2.

헨로미치 보존협회 홈페이지. (2001) <https://www.iyohenro.jp>.

自転車へんろ 2. (n.d.). 高知市旅行 クチコミガイド. 2013.05.20 검색,
<http://4travel.jp/domestic/area/shikoku/kochi/kochi/kochi/travelogue/10678820>.

遍路のみちしるべ. (2010). 2012.10.01 검색, <http://sacchyan.iza.ne.jp/blog/entry/1912779>.



시청각 자료

Kahneman, D. (2010). *The Riddle of Experience vs. Memory*. Long Beach: TED Conference. Available from <http://www.ted.com>.

김태민(프로듀서)·김석원(연출)·강영순(글). (2010.11.03). **빛의 길, 시에라네바다를 건다! 존 뮤어 트레일 358km**[텔레비전 방송]. 서울: KBS.

이유자(기획)·조성희(녹음연출). (2008.02.11) **파울로 코엘료의 산티아고 가는길**[텔레비전 방송]. 서울: EBS.

서울방송(제작). (2008.01.06). **길에서 길을 묻다, 산티아고 가는 길**[텔레비전 방송]. 서울: SBS.

인터뷰 자료

권봉우. (2013.05.14). 서면인터뷰[존 뮤어 트레일 여행경험자].

안은주. (2012.09.25). 대면인터뷰[(사) 제주 올레 사무국장].

윤문기. (2013.05.08) 대면인터뷰[(사) 한국의 길과 문화 상임이사/사무처장].

이상윤. (2013.05.16). 서면인터뷰[(사) 숲길 상임이사].

이석민. (2012.09.23). 대면인터뷰[제주 올레길 여행경험자].

정영희. (2012.09.23). 대면인터뷰[제주 올레길 4코스 올레지기].

허지효. (2013.06.11). 서면인터뷰[(사) 제주 올레 기획팀장].



ABSTRACT

A Study of Physical and Emotional Factors Affecting Trekkers' Wayfinding on Trails, Focusing on the Jeju Olle Trail

Kim, Shinhye
Doctoral Dissertation
Major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Design & Craft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In recent years, people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well-being, healing, and naturalism, along with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human life. Following this movement, trekking in the natural environment has become a popular tre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wayfinding in the walking environment,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invigoration of trails by presenting research findings for an appropriate wayfinding system in the natural trekking environment. This issue has rarely been treated in wayfinding research in the past.

In the first and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I carried out a literature review on wayfinding and suggested the importance of wayfinding throughout human history. Also, by examining previous research, I tried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analysis in this paper. First, I discussed the concept of wayfinding and users' types and characteristics, which display different wayfinding strategies and formations of cognitive maps. Notable is that the more unfamiliar users are with a route,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y depend on a linear cognitive map.

This study has two main approaches to factors affecting people's wayfinding performance: physical and emotional. The physical factors are perception and cognition, environmental elements,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As the main



elements affiliated with wayfinding, sign systems, landmarks, and identity were examined, as well as the affordance and behavioral tendency of people in travel. Among the emotional factors, the image of the environment was found to be reinforced by the salient features of a place. In addition, memory and experience develop the placeness of the environment. Also, through research on people's unconscious image of the environment, the way humans interrelate with the environment during wayfinding was examined. Regarding the emotional influence of the wayfinding performance, in general, while wayfinding success does not cause much emotional response, wayfinding failure can cause emotional disaster, which possibly leads to refusal to revisit a place.

In the third chapter, I researched the concept of trekking and trails. To make a contrast with the human-centered built environment, the subject of most previous research, I suggested an eco-centered natural environment called the "fourth space" in order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wayfinding studies in such a natural environment. The main differences in wayfinding on trails in nature compared to other built environments are as follows: first, trekking is the process of following a path. In other words, it is the process of success or failure on a given route rather than one of continuous route selection. Second, a trail provides users with multisensory perceptions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ird, developing a cognitive map is likely unimportant in trekking. Also in that chapter, I investigated the Camino de Santiago in Spain, the John Muir Trail in the U.S., the Shikoku 88 Route in Japan (as the overseas case study), and the Jeju Olle Trail, Jirisan Trail, and Donghae Haeparanggil in Korea.

The analytical research was performed in the fourth chapter. I used ground theory a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o research the trekkers' wayfinding experience on the Jeju Olle Trail, the representative Korean trail. I gathered personal stories of trekkers as my research data from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 (SNS) such as Jeju travel clubs and bulletin boards. I extracted wayfinding-related contents from the stories and sorted them into physical factors and emotional factors. Then the sorted data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characteristics of trekkers, the wayfinding process, and the trekking experience. In analyzing each category, I carried out a literature comparison as well as providing my insights into the phenomena.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central phenomena appeared in each factor: wayfinding failure and its cause in the physical factor and trekkers' emotional responses to the wayfinding situation and their consequential reaction in the emotional factor. In the physical factors, trekkers experience difficulty in accessing the starting point, in finding the starting point, and in following the given path due to their lack of trekking experience in the early stage of trekking. In the middle of trekking, there appear to be two wayfinding problems: one caused by external circumstance, including problems derived from the sign system and path condition, and another caused by users themselves because of their behavioral tendencies. In addition, uncertainty about whether they are on the right track appears to be another major concern. At the end of a trek, trekkers have problems finding the endpoint or the stamp place for their souvenir passport because of the low legibility of the sign or the place itself. Also, the track back to public transportation appeared to be difficult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In the emotional factors, first of all, if trekkers feel positive emotion towards the wayfinding elements, especially accompanied by wayfinding success, they are likely to make a favorable comment to the trail's service provider. Secondly, when wayfinding was successfully performed, trekkers display loyalty towards the trail. However, a wayfinding failure situation causes a negative emotional response, and it can lead to giving up on proceeding on the



track and making unfavorable comments to the service provider. Thirdly, there appear to be two major situations in which trekkers feel fear during trekking: one is unexpected encounters with animals on trail, and another is when sun goes down and it gets dark before a course is completed. The former can lead to avoidance of the trail, and the latter can lead to stopping trekking. Lastly, if trekkers feel the endpoint appropriately conveys completion when they finish their travel, it reinforces their intention to revisit the trail. Otherwise, they might feel a negative emotion such as disappointment or emptiness.

A notable characteristic of wayfinding on a trail is that, unlike in the usual wayfinding environment, a high degree of visibility or standardization of signs is not regarded as highly important. Instead, nature-friendliness or the clear identity of a sign appears to be considered important. Trekkers mostly depend on directional signs on a trail as their main wayfinding cue,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ally designed directional signs at the right spots, such as forks. Another notable phenomenon is that signs on trails have a highly emotional effect on trekkers. Ultimately, signs work as landmarks, identities, and image makers of a trail and are accepted as a part of the trail experience.

In my research, it was proven that there are certain physical and emotional factors affecting trekkers' wayfinding on trails and that they are in inter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refore, I recommend that both factors be considered in planning and designing wayfinding systems in order to ensure an appropriate high-quality trekking environment. Lastly, as an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 propose a guide for the identity, signage, and installation of wayfinding systems on trails, in the hope that it w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wayfinding environment when developing new trails as well as existing trails.



부 록

제주 올레길 이용자의 인터넷 SNS 후기 추출 자료³⁰⁾

-
- 30) 표본의 날짜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본문에 정확한 트래킹 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날짜에 따랐다. 도서 발췌인 경우, 출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월까지만 표기하였다. 성별과 나이대는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글의 맥락이나 어투를 바탕으로 추측하였으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는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결된 문장안에 복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개념에 중복하여 넣었다. 내용에 있는 문장은 문법의 오류나 오타자, 비속어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을 가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하여 내용이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로 수정하였다.



1. 물리적 요인

1) 이용자의 특성

(1) 트레킹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올레를 자주 다니신 분들은 화살표 하나, 리본 하나만 봐도 본능적으로 길을 감지하시겠지만, 아직 서툰 저희에게는 혼동이 많이 와서 8코스의 시작이 약간 난감했었습니다.	2009.08.31	여
저와 같은 무지한 올레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파란 리본과 화살표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길을 잘 못찾은 탓도 있었지만요... πππ	2009.12.02	
갑자기 화살표식이 해안가쪽으로 났다가, 다시 길위로 났다가.. <중략> 무슨 의미인지.. <중략> 정말 광치기 해변에서 마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전 오늘 올레 정식코스 처음 경험했는데.. 너무 험난했습니다..	2010.01.10	남 2-30대
여행객들이 대부분 초행인 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각 코스마다 이정표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땅바닥에 있는것 말고요..	2010.03.26	남
올레길 초차 들어서 이정표 제대로 안 보고 다니다가 11코스 시작점 시내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2011.06.07	여 2-30대
트레킹 초기에는 사인찾는데 급급하여 풍경을 즐기지 못함		
출발점에서부터 올레꾼들이 처음에는 다 그랬듯이 다음 사인을 찾는 데 열중하여 주위 풍경을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2008.10.16	남50대
30여분을 오직 리본 찾기에 매달려 걸어왔을까 이제 평평한 땅이다. 꽃들의 잔치가 이제야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게 다가온다.	2009.04.25	
걷는 길에선 화살표에 급급해 주변의 풍경을 놓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어느 부분은 과음한 자 테프 끊기듯 부분 부분이 전혀 내가 통과하지 않은 것처럼 툭 끊어진 기억 같은 곳이 있다.	2009.05.23	
초행길인 사람들은 불안하고, 길이 낯설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다보면 길을 따라 가는데만 급급하게 되고, 진정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요..혹자는 길을 잃으면 되돌아가서 표식을 확인하라 하지만 여자분들이라든가 초행길인 경우는 우왕좌왕하지요..	2012.09.28	남

(2) 점차 사인과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함

시아확보가 쉬워 사인찾기도 쉬울거라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그리 만만한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중략> 하룻동안 축적된 올레경험과 타고난 방향감각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8.10.16	남 4-50대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 다음 올레 표시가 안보인다.<중략>그럼 그렇지 오늘이 벌써 몇 일 째 인데 올레 표시를 잃어 버릴라고...	2008.12.28	남
그저 저 앞에 모래사장이나 갯바위가 끝나는 그 곳에 가 보면 올레 표시가 반드시 있다. 하다 보면 척 알게 된다.	2008.12.28	남
10코스에 들어오니 이젠 내가 올레 화살표에 그리 밀리지 않는 경지에 다다른 것 같았다. 척하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2008.12.28	남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도로가 볼썽 나와도 여기쯤 화살표가 있을 거야, 아님 리본이 있겠지, 하면 여지없이 있곤 해서 별 어려움이 없다.	2009.05.16	
어디서 그런 여유가 왔는가, 이젠 화살표가 보이지 않아도 놀라지 않는다.	2009.06.08	여
두 번째 올레를 찾으니 이젠 잘 보인다.	2009.08.26	
처음 며칠을 길을 잃는 것에 대해 강박증까지도 느낄 정도로 예민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2010. 04	남 40대
이젠 올레길 만드네들의 마음에 내 마음이 겹쳐진다. 걷다가 어, 이상하다 이 길은 올레스럽지 않은데, 하고 둘러보면 진짜 올레스러운길이 저만큼 있어 가보면 영락없이 올레리본이나, 화살표가 그곳에 있다. 그들의 심중을 알기에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들이 이길을 걷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 지 이제 알것 같다.	2010.04.12	여 50대
소풍갈 때 보물 찾는 기분으로 올레길 표시를 찾아다녔는데 <중략> 어제는 눈에 잘 안들어 오던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눈에 잘 들어왔어요	2012.12.20	여 20대

(3) 거리 개념 인지의 이원화

거리를 시간 개념으로 인지		
남원 포구까지 대충 20분, 그리고 거기서 큰양산책로까지 다시 30분 정도라고 가볍게 말씀하신다.	2008.12.28	남
시흥초등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신다.	2009.03.04	여
고성에서 쇠소깍까지는 약 한시간 20분이 걸렸고, 버스는 1인 3천원이었다.	2009.03.31	여
4시간 30분만에 1코스 완주!!!	2009.04.05	



거리를 시간 개념으로 인지 (계속)		
1코스 약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희는 8시간 걸었습니다!	2009.06.09	남
시멘트 포장길을 약 20분 정도 가면 말미오름 입구가 나오구요,	2009.06.14	남 2-30대
이 얘기 저 얘기 때론 말을 아껴가며 네 시간정도를 걸었을까... 6코스 완주를 뜻하는 삼매봉이 보입니다. 아 어찌나 기쁘던지...	2009.08.10	
그렇게 20분정도 걸다보니 말미오름진입로가 나타났다.	2009.12.30	남 30대
워낙 걸음이 빨라서 그런지 성산일출봉도 다녀왔는데 4시간 걸렸네요	2010.01.02	여
말미오름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한 10분 쯤 오르막길을 걸으면 된다.	2010.01.08	남 20대
8코스는 4시간에 걸었는데 차로는 20분 거리였다는^^	2010.04.06	여 40대
갈매리를 나와 20-30분 걸다 보면 드디어 바다가 보인다.	2010.05.12	여 20대
몰아보니 하예포구까지 40분 정도면 된대요.	2010.07.31	여 20대
외돌개를 시작으로 돛배낭골까지는 약 40분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걸음이 빠른 편이니까 다른 분들은 1시간정도 걸릴 수 있어요	2010.09.06	남
자료를 보면 2~3시간 소요라고 했는데, 저는 외돌개~법환포구까지 2시간 소요 !!	2010.09.06	남
[댓글] 경치 참 이쁘네요, 7코스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답글] 5시간 30분정도 걸린것 같아요~	2010.10.22	여 2-30대
안덕농협에 하차하여 약 10분가량 걸으시면 시작점입니다. 10코스 시작지점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귀여운 간세 >_<	2010.11.12	여 20대
[댓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글] 저는 4시간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2010.11.26	여 3-40대
그곳에서 역으로 오시는 아저씨를 만났습니다.참으로...서로 감격...얼마나 남았냐고 여쭙봤더니 그아저씨가 묻고싶다 하셨다. 우린 3시간 걸었고 그 아저씨 4시간	2010.11.29	여 2-30대
4~5시간 걸리는 코스인데...우린 아마도 6시간정도 걸린거 같네요.	2010.12.20	여 20대
[답글] 주상절리, 용두암, 쇠소깍은 한 10분?? 길어야 30분 정도면 됩니다. ㅋㅋ	2011.01.05	여 40대
[답글] 산굼부리는... 입장료 끊어서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해요. 어른은 한 10분?? 애기가 있으면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2011.01.05	
[답글] 꼭대기가 분화구처럼 생겨서 정자에서 경치감상 좀 하고, 넉넉하게 왕복 1시간이면 되구요. 저처럼 후딱 보면 40분 정도면 되어요.	2011.01.05	
펜션 주인 아저씨가 출발지에서 펜션까지 1시간 반이면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3시간이 걸렸다 휴~~~~	2011.02.13	남 3-40대
원래 10코스는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7시간넘게 걸렸.	2011.02.13	남 3-40대
저는 혼자 올레 4코스를 남원에서 표선쪽으로 해안을 끼고 역으로 2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2011.02.13	남 3-40대
아까 분명 강정포구에서 월평포구까지 30분이면 다 완주한다고 했는데	2011.02.20	여 20대
숙소에서 성산일출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35분으로 본 것이다...	2011.02.20	여 20대
전 걸어서 5분거리인지라 아침 저녁 할일 없는 여자인지라	2011.03.07	여
세연교까지는 20여분 남짓..	2011.03.07	여
도보로 약 5분정도 되구요 걸으면 해요.	2011.03.21	여 20대
시크릿가든 촬영지에 가기 위해서요 ㅎㅎ 걸어서 10분정도 걸려요 편하게	2011.03.21	여 20대
몰아봤더니 걸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걸어서 3분이라고 하는데요 3분은 아니구요.<중략> 에코랜드 앞까지 걸어서 약 5분 소유되구요. 또 걸어서 8분정도 걸려요.	2011.03.21	여 20대
가파도올레 10-1코스는 사진찍으면서 부지런히 걸어 1시간 30분정도 소요된거 같습니다.	2011.03.28	남 2-30대
매표소에서 성산일출봉 전망대까지는 걸어서 25분 정도 걸리는데...	2011.03.31	여 30대
올레길 책에는 4시간 30분 ~ 5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친구랑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하느라 총 7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2011.05.09	여 30대
올레 사무국에서 약 25분 후 이중섭 미술관 도착..	2011.05.09	여 30대
쉽더 아저머니께 7코스 끝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더니...아직도 2-3시간...ㅋㅋ	2011.05.27	여 2-30대
친절한 주인아저씨께 여쭙보니 쇠소깍까지 한 시간 남짓 더 가면 된단다. 배도 차고,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에 불끈 힘이 난다.	2011.08.28	여 2-30대
7코스 순방향으로 다 가보니 12시간? 에 출발해서 4시 35분 차를 탔으니 약 4시간 걸렸네요. 남자 두명이서 그정도 걸렸습니다.	2011.08.30	남 2-30대
식당아주머니께서 섬지코지를 추천해서 열멸곶에 일출봉에서 섬지코지까지 1시간30분가량 걸어서 같습니다.	2011.10.16	여 40대
도보로 10분정도걸어서 쇠소깍에서 천지연 외돌배기 까지 가는 올레 6코스를 걸었습니다.	2011.10.16	여 40대



거리를 시간 개념으로 인지 (계속)		
도로로 20분 왕복 40분	2012.02.14	여 20대
10분은 넘게 걸어 들어가야합니다.	2012.03.15	여 20대
우도까지 10~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12.06.22	여 2-30대
제 목적지인 산굼부리로 가는데 30분~40분 걸렸나? 그래요	2012.06.22	여 2-30대
거리를 길이 개념으로 인지		
욕심내면 안돼... 하루 25km를 넘기면, (개인적인 현상?)체력도 바닥나고	2008.12.28	남
시작은 시흥초교 정류장에 내려서 초교쪽으로 10여미터 가면 일출사라는 절표시가 있는데	2009.04.11	
거기서 내리면 올레 시작점까지 약 600m 걸어갑니다.	2009.04.15	여
유채꽃밭 벚꽃길을 1킬로 좀 걸었을까 왼쪽에 ㅋ ㅋ 올레사이트에서 유명해진 화순파출소가 있다.	2009.04.25	
마을 방향으로 약 100미터 정도 내려가면 출발점 안내판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2009.06.14	남 2-30대
지루할 틈 없이 장장 19.3km의 여정이 이어진다.	2009.12.22	여 20대
여짜피 2코스는 2Km 정도 남은 상태이고 2코스를 향해서 가는 길이니 내일 다시 거기서 부터 2코스를 마치면 될 일 아니까요.	2009.12.29	남 30대
시작점에서 14키로정도에 있는데 쉬는겸 사진감상겸 둘러보면 좋을것 같아요.	2010.04.23	여 20대
등지게스트하우스는 온평초등학교 정류장에서 2km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입니다.	2010.04.24	남 30대
버스정류장을 물어보니 2km 정도 가야 된단다	2010.05.07	남 30대
우라잘~~물집이로군. 아직 4킬로나 더 남았는디..... ——;;	2010.06.18	여
약 7~8KM 정도 계속되었는데...	2010.06.19	여 20대
구경을 마치고 꼭먹어봐야하는 한가지 붉은뿔 허브팜애월점을 향했다.. 거리는 1.1키로인가.. 진행방향이라 코스도 딱맞았고.	2010.06.26	여
그리고 난 내가 1/3은 온 줄 알고 착각했지? 여기서 말아야;; 여긴.. 고작... 2.9km지점이었는데;; 10코스는. 15.5km라구 ㅋ ㅋ	2010.11.26	여 20대
남은거리 이제 12.5km입니다!	2010.11.26	여 3-40대
가파도 올레길은 오르막이 없고 길이도 5km로 짧아 누구나 쉽게 걸을수 있습니다.	2010.12.01	여 2-30대
출발지에서 8km나 떨어진 낙천리 아홉굿마을 이전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2010.10.16	
마지막 날인, 바로 오늘은 올레 5코스를 완주했다. 무려 15킬로미터...	2011.01.25	남 30대
시작해서 1km정도는 나무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길이었는데,	2011.06.21	
모래사장해변이 약 1키로조금 넘어 이어졌습니다.	2011.10.16	여 40대
천진항에서 배를 타는 계획이었는데요 대충 7~8km로 시간이 없어 반만 보기로 했습니다.	2012.06.22	여 2-30대
저분들께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여쭙보니... 8km 정도 남았다 합니다...	2012.07.10	여 3-40대

2)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1) 이용자가 사인을 못보는 경우

대화하다가 사인을 못 봄		
알고 보니 친구랑 얘기를 하다 한참이나 지나쳐버렸더군요.	2008.10.27	여
통오름에 접어들 때쯤 아이와 한참 이야기 중이었다. <중략> 결국 통오름의 정상으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길을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 올레에서는 화살표에 늘 집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2009.02.16	남 50대
얘기를 하면서 건다보니..... 올레표시를 그냥 지나치거나 그런일이 발생했어요..	2010.09.24	여 2-30대
청화마을 =수다 떨다가 길을 잃다 ㅋ ㅋ	2011.02.28	여
제주올레 표식은 잘 되어져 있어도 간혹 일행이 있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리본이나 표식을 놓치기 십상이다.	2012.02.14	여 20대
이날 우리 일행 4명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신바람나게 올레길을 건다가 리본이나 화살표 표식을 놓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2012.11.30	
다시 되돌아오니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곳에 리본이 매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일행 4명 모두 정면만 바라보고 이바구를 풀다가 그냥 지나친 것이었어요.	2012.11.30	



풍경을 감상하다가 사인을 못 봄		
화살표가 부실해서는 아니고 풍경을 감상하다가, 사진을 찍다가 진입로를 놓치곤 했습니다. 6코스에서는 제지기로 올라가는 길을 사진찍고 놓다가 놓쳤습니다.	2009.10.06	
8코스에서는 <중략> 경치를 보느라고 아주 알아보기 쉬운 진입로를 놓치고 바닷가 바윗길을 공공대 걸었습니다.	2009.10.06	
높은 오름 하나 없는 코스에 펼쳐진 강아지풀과 억새들의 향연. 이걸 보다가 잠시 또 길을 잃었다는..	2009.12.19	여 20대
리본은 따라 걷다 경치에 취해 잠시만 한눈을 팔면 길을 잃고	2010.05.07	남 30대
주변풍경에 넋 놓고 있다가 4일 간 길 잃고 헤맨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π.~;;	2010.09.17	남 30대
법환포구 =때 아닌 눈 하늘은 맑은 내리는 눈이 꽃가루인줄 알았다 하늘 보며 구경하다 올레길을 잃다 ㅋㅋ	2011.03.04	
어제와서 보고 고사리가 많아 오늘 또 왔다고 합니다. 그럴만하게 고사리가 많았습니다. 고사리를 보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2011.06.09	여 4~50대
사진찍고, 경관을 보면서 걷다보면 가끔씩은 엉뚱한 곳으로 가곤 합니다.	2012.09.28	
생각에 잠겨 사인을 못 봄		
올레 길에선 딴 짓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너무 감상에 빠져서 헬헬레~ 하다 보니, 도대체 올레길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2009.05.23	
진주에서 온 올레꾼과 헤어지고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 등부리조트를 지나쳐 고산사내까지 신나게 걸어버렸습니다..	2009.10.04	여
양식장을 거쳐서 잠시 탄생각을 하다 보니 큰길이 나왔고, 알고보니 1코스의 일부분인 성산 갑문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니 길을 잘 못 들었습니다.	2009.12.29	남 30대
감굴 무인판매대 삼거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화살표를 놓쳐버렸네요	2009.12.29	남 30대
혼자 손서를 공시랑거리며 가다 표지판을 놓치고 방향 1km. 뭔 일일까? 늘 짧은 방향을 즐기는 것도 습관인가? ^^;;	2010.06.18	여
혼자서 걸을 때는 아무 생각없이 '멍~한 상태에서 걷다가 리본과 같은 표식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2012.11.30	

(2) 이용자의 행태적 습성으로 인한 상황

직진의 습성		
이길에 200미터가량 아무런 이정표없음 화살표나 리본 표식이 없을때는 강~~무조건 직진이다.	2008.12.08	남 2~30대
역시 별다른 올레 표시 화살표는 없다.<중략> 그렇다면 그대로 쭉욱 앞을 향해 직진이다.	2008.12.28	남
왼쪽 화장실로 가는 방향이다. 나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쭉욱 직진 했다가 다시 터벅터벅 매표소 앞까지 되돌아와 90도로 꺾인 파란색 올레 화살표 표시에게 화를 냈었다	2008.12.28	남
위미의 동백나무 군락지 근처 한창 공사중입니다. 동백나무 군락지에서 좌회전(왼편)으로 돌아 가야 하는데 직진하여 헤메입니다.	2009.02.24	남
파란 화살표가 안 보이는데...그렇다 저 뒤로 보이는 표지판에서 꺾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직진해서 걷고 있었던 것이다.	2009.02.26	여 20대
또 사고를 쳤다. 화장실 앞까지 잘 내려와 화살표를 찾지 못해 직선으로 난 좁은 숲속 길로 30여분을 걸어갔는데 길이 끊겨 버린 것이다.	2009.05.17	
넓거나 밝은 쪽, 풍광이 좋은 곳을 지향하는 습성		
등대가 있는 넓은 선착장 쪽으로 가는데 어째 이상하다. 올레 화살표시가 나타나질 않는다. 다시 되돌아 오는데 화살표가 갑문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상하다. 왜 저쪽으로 갔을까? (나중에 찜질방에서 만난 자매여사님들도 나와 똑 같은 경험하셨다고)	2008.12.28	남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전 그냥 큰길로 가버렸답니다.	2010.09.23	
이쪽... 잘못보고 오른쪽으로 갈뻔했음.. 심리상 좋은길로만 가려고 하다보니.	2010.10.02	
주의할점 : 초보자나 길치(?)분들은 리본 잘 확인하면서 가세요. 리본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잘 된 길이 간혹 있어 거기로 들어서기 쉬울것 같아요.	2011.08.17	여 3~40대
사람의 흐름을 추종하는 습성		
그들 뒷모습만 보고 걸어가다 난 길을 놓쳤다. 화살표를 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을 한참을 걸었는데 제자리이다. 뱅뱅 돌고 있었던 거다. 올레 길에서 믿을 것은 화살표와 내 자신 뿐임을 깨닫는다. 직선 코스 아닌 곳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걸으면 안 되겠다. 길도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다.	2009.05.23	
아까 여행객들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숲에서 아스팔트쪽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ππ	2009.12.02	
송악산은 올레꾼들과 등산객이 뒤섞여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큰 무리를 따라서 걷다가는 올레길과 멀어진다. 많은 올레꾼들이 그렇게 엉뚱한 길로 잘못 빠져들었다.	2010.06	남 40대



(3) 이용자가 사인을 놓치기 쉬운 환경

셋길		
길은 쪽 뻗어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으로부터 90도 방향인 길 왼편 경사진 산 속으로 화살표가 향해 있고, 그 쪽 나무 위에 리본이 달려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진행 방향이었다.	2008.12.28	남
왼쪽 화장실로 가는 방향이다. 나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쭉욱 직진 했다가 다시 터벅터벅 매표소 앞까지 되돌아와 90도로 꺾인 파란색 올레 화살표 표시에게 화를 냈었다	2008.12.28	남
동백나무 군락지에서 좌회전(왼편)으로 돌아 가야 하는데 직진하여 헤매입니다.	2009.02.24	남
10분도 넘게 걸어도 리본표시가 안 보인다. <중략> 왼쪽으로 난 좁은 자갈길을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을 알았다.	2009.06.08	
저 뒤로 보이는 표지판에서 꺾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직진해서 걷고 있었던 것이다.	2009.02.26	여 20대
약근천에서..길을 잃었다.올레리본이 주의표지판 뒤로 넘어가 있어 셋길을 발견 못하고 계속 해안으로 가다가...막혀버렸는데, <중략>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기어내려와 되돌아가보니 셋길이 숨어있다....흑...	2009.06.27	여 4~50대
대평포구에서 바다옆길 따라 걷다보면 왼쪽 생태공원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걷다가 올레길 표시 리본 놓쳐서 헤매다가 결국 다시 바다길 쪽으로 나와서 걸었어요	2011.05.06	
다시 되돌아오니까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곳에 리본이 매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2012.11.30	
시가지 또는 변화한 곳		
시내올레로 접어들니 전봇대나 담벼락 끝에 있는 사인들이 주차된 자동차나 지나가는 차량에 가려 찾기가 어려웠으나	2008.10.16	남 4~50대
도심을 걷는 6코스에서는 많이 헤맸습니다.	2009.03.19	남
시내쪽으로 진입하면서 올레길 막바지에 이르자 힘도 들고 표시도 헛갈려 고생스러웠다.	2009.05.01	
길을 잃었다. <중략> 그렇다. 우도의 제일 변화가인 중앙동까지 올라와 버린 것이다. 바보라고 흥보지 말라. 나쁜 아니라 올레꾼으로 보이는 여러명이 농협앞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우도 지도와 올레안내책자를 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2010.05.04	여 2~30대
성산을 시내에서는 화살표가 잘 안보인다는 점	2009.06.14	남 2~30대
안내길 표지헛갈리는 곳이 많습니다. 주로 도심지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출구. 정방폭포입구. 이중섬 미술관 입구. 애일 올레시장 내. 주상절리 안내소부근. 중문색달 해변입구.	2011.12.16	남
도심지역 안내표시 보완 필요. : 표식 따라 가다가 갑자기 표식이 없어짐	2012.04.08	남
갑자기 넓은 곳/ 사방 트인 곳		
그런데 앞으로에서 중산간도로로 이어지는 길에는 화살표가 리본 표식이 더 촘촘했으면 좋았을 듯.. 사방이 트인 곳이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막막..	2008.09.02	여
성산일출봉 주차장으로 이어진 화살표를 따라 갔는데... 아 진짜 또 헤맸어요. 그곳 매점(?) 사장님이 저희 헤매시는 거 보고, 주차장 가로질러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알려주셔서..광치기해변 겨우 찾아갔다는..ㅠㅠ <중략>	2010.01.10	남 2~30대
6월만해도 표선바다 부근에서 올레 표식을 좀 찾기 어려웠거든요.	2010.09.03	여
그리고 이호해수욕장과 같이 넓은 곳에서는 화살표 찾기가 어렵더군요. 지역이 넓은 곳이나 복잡한 곳에서는 간세 그림의 작은 깃발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10.15	
이곳에 딱 들어가면 넓은 공터가 있는데 넓디넓은 곳에 표시가 없어 한참을 멍하니 두리번 거리다 나왔거든요~ 겨우 리본을 찾아서요 ~ ^^	2011.06.17	
사람이 많은 곳		
이곳저곳에 무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더 헤매었던 것 같다.	2009.05.23	
사람이 많아지면 길을 잃는 것이 나의 고질병이 되었다. <중략> 여기서부터 나의 헤매의 연속이 시작된다. 어느 곳에서도 사람만 많아지면 왜 잘 보이는 화살표가 보이지 않을까? 참으로 화난하다.	2009.05.23	
[덧글] <중략>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와 합류되는 곳에선 사람들과 섞이다보니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중략> 관광지 합류길은 더 많은 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10.03.27	여
[덧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다년코스중 성산포앞길이 좀 헛갈리더군요 봄비는곳이라 그런지 화살표가 중간중간 사라져 저도 그부분에서 애먹었습니다..	2010.10.10	남
그리고 1코스 성산일출봉 주차장을 횡단해서 지나가게 되어있는데 아시다 시피 성산일출봉 주차장은 관광객들로 엄청 붐빕니다. 가게 주인에게 묻고서야 찾아갈 수 있었는데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2.06.09	남



공사중인 곳		
얼마를 갔나? 마을 사이의 길을 지나자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길 맞은 편에 올레 화살표가 도로 공사 중인 길과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 공사장이 나오면 심난하다. 올레 표시가 파묻히거나, 가려지거나, 공차 차량 아래에 있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2008.12.28	남
어찌어찌 화살표를 찾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사를 하고 있어서 화살표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2009.04.26	여
서북전사리를 지나면서 또한번 길을 헤매었다. 공사중인 곳이 많아 표시를 찾기가 꽤 힘들었다.	2009.05.01	
오설록을 통과후 도로공사로 인하여 리본이 일부 없어 잠시 우왕좌왕 하였습니다..	2011.11.27	남

(4) 사인이 잘 안보여서 웨이파인딩에 어려움을 겪음

날씨나 계절의 변화로 인한 경우		
그렇게 올라온 곳이 웬 깨밭이라, 분명 눈앞의 콘크리트 담에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략> 아마 우회하는 화살표를 제가 못 봤거나 풀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굽당쪽 길이 여름동안 풀이 자라고 나무가 쓰러져서 험하게 된 것 같은데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8.08.31	여
어둡고 계속되는 눈과 강풍으로 길바닥의 진행방향표식은 보이지 않고 스테인레스봉 같은 곳에 매달린 파란색, 노란색 리본은 젖어서 봉에 붙어 눈에 띄지 않음.	2008.12.10	남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리본 다음에 리본은 역올레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이지 않게 바람때문인지 비때문인지 나무에 감겨있었고	2009.07.04	
여름이라 그런지 풀이 사람 키보다 크게 자라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09.07.19	
웬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올레 리본들이 훼손되거나 없어서 길찾는데 여러번 헤메기도 하고..	2010.11.03	여
자귀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한 간세 안내 표지는 잡풀이 자라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다.	2011.05.15	
그런데 올레길 표식이 3월달에는 나무에 매달은 리본이 잘 보였는데 4월에는 찾기가 나뭇잎이 나와 힘든 경우도 있었구요	2012.05.02	
이번 4월 올레길 여행중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니 리본이 나무나 전봇대에 달라붙어서 찾기가 어렵더군요	2012.05.02	
이런 곳에는 바닥표식과 간세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과 언덕 사잇길로 들어가는 곳에는 올레꾼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은 듯 수풀이 무성하여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더군요.	2012.06.11	
사인의 시인성이 부족하여 눈에 잘 안띄		
조금만 가면 오른쪽 편으로 리본이 맺어 있습니다. 눈에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희 앞 팀(남녀 2명)은 두바퀴를 돌았는데 못 찾아서 결국 이상한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되네요.	2009.03.17	남
밑에 보이는 것처럼 표식이 매우 작은것들도 있으니 길 잘 찾으시구요~	2009.06.09	남 20대
지금 올레길에는 이정표가 바닥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로 그것도 아주 작게 되어있어서 갈래길에서는 엉뚱한곳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0.03.26	남
14코스 바위해안에서 정말 표식이 안보여 또 전화를 했더니 어디 있다고는 하는데 누가 봐도 거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다가 보니까 보이긴 했습니다. 막대기 같은데 표식을 달아서 높이를 올려 쉽게 식별이 되었으면 하네요.	2012.06.09	남
포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표식이 잘 안보였습니다. 주위의 여러 사잇길로 몇번 헛걸음 하면서 거의 포기할뻔 했습니다. 다행히도 겨우 수풀로 가려진 조그만 바위에 있는 푸른색 화살표를 발견하였습니다.(그것도 정면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표시되어 있으니까 더욱 찾기 어려웠습니다 - 이 경우에도 당초 있던 표식이 소실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012.06.11	
일출봉에서 다시 올레길 합류 표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출봉에서 올레길에 합류하는 표시가 잘 보였으면 합니다.	2012.07.28	남
방해물로 인하여 시인성이 저하된 경우		
길을 가다 갈래길 위에 차가 주차 되어 있으면 나는 그 차가 가리고 있는 바닥 부분도 유심히 보곤 했다. 파란색 올레 화살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2008.12.28	남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무언가를 먹고 마시면서 시골시골 소란을 떨고 있더니, 되돌아 걸어와 보니 딱 그 지점이 오르는 길이었다. 이런, 왜 하필 화살표를 차로 가리고 있었을까 사람들은 모른다. 아니, 필요하지 않는 표식이니,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화살표는 올레꾼에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뉘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2009.06.08	여
가끔 화살표 위에 주차를 한다든가 하면 한참을 헤매거든요. 7-1 고근산에서 역으로 내려오면 그곳이 고근산에 오르는 분들이 주차장이어서 리본 간세다리 가 있었지만 볼수가 없어요.	2011.11.01	
삼도동 코스는 마을을 끼고 도는 코스라 주차된 차들로 표식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승용차가 서있으면 그나마 표식들이 보이는데 트럭이나 탐차 아닌 조금더 큰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특히 마을이라 전봇대에 리본표식묶어 놓거나 아님 그린표식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012.07.16	



(5) 사인 자체가 혼란을 주는 경우

사인 정보의 해석이 애매함		
순선사유적지 지나 진모르동산입구에서 표시를 잘 못 보아서인지 아니면 고의로 표시를 돌려놓아서인지 언덕꼭꼭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바로 화순마을 올레 후 화순선주협회 도착.	2008.12.10	남
그런데 리본이 애매하게 매어져 있다. 저 리본의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가는지...하면서 넓은 오른쪽으로 내려가기 시작. 그런데 올레 표시의 리본이 안 보인다. 길은 없다. <중략> (나중에 만난 한 올레 여사님도 이 부근에서 잠시 당황했었다고 하셨다.)	2008.12.28	남
그런데 화살표가 오름 내림 표시가 되어있다. 여기서도 6코스의 제지기 오름처럼 이곳으로 올라 갔다가 이곳으로 내려오는 곳 인가 보다. 한 2분간 갈등.	2009.05.16	
클레 마치 옆에 있는 셋길로 가야하는 것처럼 화살표가 나 있었어요. 덕분에 20분쯤 다시 왼쪽 길로 헤매다가 겨우 철조망 개구멍으로 빠져나왔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 개구멍이 넓게...	2009.08.20	여 40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는데.. 정상 400M라니.. 한참을 고민하다.자 올라가자. 헉..조금 올라갔는데 50M표지판이 보인다. 웬..뭐지 이젠..해발이 해수면기준이니 그럴수 있겠지...그런데 또 조금 올라가니 100M 표지판.. 어 이거 이상하다.. 조금 더 올라가니 150M.. 예잇..해발이 아니잖아.. 거리잖아.	2010.03.12	남 2~30대
초보자들 혹시 못찾을수도 있으니까..열심히 눈을 굴리셔야할듯하네요.. 꼬불 꼬불한것은 길을 표현한거구요...좌회전, 우회전, 직진도 그림 그대로 표현되어 있더군요... 한참만에야 이그림을 이해한 나의 머리..... 좀 그런가~~~	2010.03.26	남
삼거리로 지나는데 삼거리가 나오기전 우회전을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우회전하기 전에 표식은 화살표가 아닌 리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직진을 했고 가도가도 표시가 없어서 한참을 지나서야 올레꾼지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삼거리전에 팔각정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2012.06.09	남
염전끝나고, 오른쪽으로 돌기전에 나오는 여러 표시중 전봇대에 표시된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2.07.28	남
들어가는 입구, 같은 방향에 설치해 주세요. 진입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 리본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갈림길에서 우측에 리본이 보이면 의당 우측으로 가지요.	2012.07.29	여
사인이 퇴색되거나 훼손/유실됨		
파란 리본을 걸어놓은 나무줄기가 손질할 때 잘린 채로 덩불에 버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2008.08.31	여
모슬봉에 오르기 전에 상모리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올레 화살표가 없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화살표를 지워버렸다.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상모리 마을 전체가 그랬다.	2009.02.16	남 50대
4코스에서도 한 두군데 잠시 길을 잃고 헤매었다. 아마도 공사하는 관계로 이전에 길에 표시된 올레 화살표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2009.02.16	남 50대
씨에스 호텔 지나갈때 헤매입니다. 처음에는 표식이 있었는데요. 지워져 있습니다.	2009.02.24	남
두번을 갔던 8코스의 경우 씨에스 호텔을 경유해야 하는데 도로에 표시는 지워져 있습니다.	2009.02.24	남
리본은 안때가셨으면합니다. (제친구에게 제가 리본때지말라고 미리 말을 안해뒀더니 어디서때왔는지 리본을 가지고 놀더군요;; 일단 친구대신 죄송하다 말씀드리구요. 다른분들도 제 친구처럼 철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ㅠ)	2010.01.12	남 10대
개중엔 색이 바래서 곧 사라질 듯한 표시가 많아 다시 표시하고 싶었는데, 초보 올레꾼이라... 준비할 생각을 못했네요.	2010.06.19	여 20대
리본도 색이 많이 바래 있고 인적도 드문데..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올레지기의 도움과 트럭아저씨의 도움을 길을 찾았습니다. 간세리본과 이정표에 다시 신경을 쓰셔서 보강을 해 주셨음합니다...	2010.08.17	
[덧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길 찾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표시가 희미해지고 리본이 분실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전에 표시 정비하시는 올레지기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굉장히 수고하시더라구요. 힘드시겠지만 정비해주시면 좋겠네요 ^^;;	2010.10.13	남
8,9,10코스를 다녀왔는데 길을 헤매다가 힘이 들어서 몇자 적습니다. 우선 길표시인 리본과 길바닥 또는 벽이나 돌에 있는 표시 지워지거나 작고 흐려서 찾기가 어려웠고 리본은 나무잎에 가려지거나 색이 바래고 사람들의 손이 타서 인지 없어진것고 있어서 걷는 사람들이 길을 잃을 요지가 많았습니다.	2010.11.08	여
봉수대 인근에는 애매한 삼거리가 나온다. 신규 변경된 코스로 가려면 직진을 하여야 하는데 이곳에 설치된 간세 올레표시가 망가져 있어 혼선이 제기되고 있다. 새것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2011.05.15	
갈림길인 경우는 더욱 신경을 써서 표식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닥표시가 많이 희미해진 경우도 있고, 리본이 떨어져 없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2012.09.28	



트레킹 코스의 사인이 아닌 다른 사인으로 인한 웨이파인딩 혼란 상황		
길을 걷다보면 올레화살표와 비슷한 모양을 한 것을 만날 수 있다. 공사중에 그런 표시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	2009.02.16	남 50대
참고로 파란색 페인트로 도로에 칠해져 있는 부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도로공사 내지 표시용으로 칠해져 있으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009.02.24	남
길이 오른쪽으로 갈라지는데, 직진방향에 마을 사람들이 꽃아 놓은 삼각깃발이 있어 이 것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헤매이기 십상입니다.	2009.03.30	
언제나 올레꾼의 나침판에 되어주신 파란화살표...그러나 가끔 가짜화살표...물론 흰페인트 화살표인데요. 짝퉁에 주의해야합니다. ㅎㅎ	2009.05.07	
아무 생각없이 화살표만 보고 걷다가 올레의 화살표는 좀 색다른 화살표라는 걸 그 때 알았다는...^^;	2009.08.21	남
가끔 우리 꺼 아닌 화살표가 있습니다만...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2009.10.06	
송악산 빨간 리본 은 나무가지에서 봤는데, 파란 리본은 못보았는데, 그래서 그 길이 아니었나봅니다. 나와보니 이런 표시가..	2009.12.02	
저 아래 무인 판매대에 가니 화살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위에 있던 화살표의 정체는 도대체 뭐지? 아마도 공사장에서 만든 표식인 것 같았습니다.	2009.12.29	남 30대
표시가 이상했어요~ <중략> 그 길 중간에 있던 표시인데.. 전 그 표시도 길이 있을줄 알고 갔더니 절벽 밑으로 연결된 계단이더라고요...	2010.01.15	
[덧글] 저도 7코스에 약간 해맸습니다. 그리고 가끔 장난치는 분들 계세요~~~우도에서 파란 락카로 화살표 해놔서 따라갔다가 엉뚱한데 나왔어요.....	2010.03.26	남
우리는 미처 식산봉은 가지 못했다.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만 표시를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식산봉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마을로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마을 표시만 보고 길을 걷은 탓이다. 그런들 어찌러. 그냥 길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쉽다.	2010. 07	여 40대
올레12코스 당상봉에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올레리본은 없어지고 흰 산악회리본만 있더군요 올레꾼이 혼손하시지는 안았을테고 타 리본은 걸지마시구요 올레리본을 잘 보존합니다.	2010.12.26	
오허려 누구의 장난인지.. 하안리분들이 몇개 걸려있던데.. 저랑 동생은 산도 으스스스 하고 귀신에 홀리는줄 알았습니다.... πππ <중략> 가끔씩 올레 답사를 하시며 올레를 점검해 주시는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1.06.02	
업데이트되지 않은 사인으로 인한 혼란		
화살표가 헛갈림.. 겨우 찾아 바다 밑으로 내려 갔는데 완전 바위.. 직진 화살표가 계속 있길래 힘들게 갔는데 올라 가는 길이 없음.. 경사로가 심해서 올라가지 못할 듯.. '제주 올레'에 전화했더니.. '오악~ 이럴 수가~~' 발주인과 협의가 잘 안 되었을 때 만들어 놓은 잘못된 표식이란.. 다시 올라가서 비닐 하우스 사이로 지나가면 화살표 보임.. 쉬운 길이었는데.. 괜한 고생.. 엄청 고생..	2008.09.02	여
산길을 올라갔는데요 철창문이 두개나 있어 이길로 가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과감히 철창문을 열고 올라가서 본 것은 발 발 발... 그리고 정말 당연한 듯이 거기에 있는 소 한마리... 발 가생이 나무 가지에 파란 리본이 매여져있는 것을 보니 올레길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파랑+노랑 리본이 아니어서 혹시 이길 올레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09.08.11	
하전 공사중인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도 올레 표식이 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 코스의 올레 표식이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0.07.09	남
이상하다. 분명히 올레 표시를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 맨 처음에는 올레길이었던 것을 이제는 코스를 바꿨단다. 다만 일이 지을 길이 없어 그대로 뒀을 뿐. 만일 목적지를 두고 찾는 길이었다면 이쯤에서 올레지기에게 화를 낼 만하다. 그런데 올레가 무엇인가. 걸으면서 용서하고 치유하고 평화를 얻기 위한 것 아닌가. 게다가 올레지기는 돈 한푼 받지 않고 일하는 자원 봉사자다.	2010.07	여 40대
대평포구 가니까 표식에서 아예순서가 바뀌어있더군요. 아까 다른 분글에 덧글로 확인했습니다 변경되었다고.... 이런 건 회수하고 표식 수정하고 하셔야 할 거 같네요 변경은 좀 된거 같은데.... 이게 수정이 안되어서 다른 분들은 길을 헛갈리셨을거 같네요	2011.10.20	
15분정도 올라가다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새리본)을 따라가면 맞는 길이고, 저희처럼 직진을 하면 남은 올레리본(옛 길)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올레리본이 있길래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니 <중략> 이 목장을 가로질러 가려다가 엽기적인 장면에 깜짝 놀라 기절초풍 했습니다.	2011.02.12	



(6) 이용자가 사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갈림길		
따라가다보니 더이상 파란 화살표는 보이지 않았고...두갈래의 길! 왼쪽? 오른쪽? 이리저리 헤맨 끝에 왼쪽길이 맞다는걸 찾았다.	2009.01.18	여 30대
서귀포초교에서 이충섬미술관으로 가는 화살표는 삼거리쪽으로 되어 있었지만 막상 삼거리에서는 표식을 찾지못했고	2009.03.19	남
모슬봉에서 정난주 마리아요 까지 가는 길에선 한참을 이리 갖다 저리 갖다를 반복 하며 겨우 도착 하였네요. <중략> 특히 갈림길에서의 표식은 확실히 하여 두어야 했습니다.	2011.04.13	
이길에서 길을 잘못들지도 모릅니다. 안으로 들어가야하는건지 큰길로 걸어야하는건지 한참을 고민고민합니다.	2012.03.15	여 20대
왼쪽으로 꺾어져야 하는 곳에 리본이나 다른 표시가 없어서 좀 헤맸습니다.	2012.07.11	여
갈림길 들어가는 입구(동선방향)와 끝나는 출구에도 이정표를 붙여 주세요. 갈림길 중 어느 한 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약 20-50m) 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2-30여미터가 짧지만 얼마나 마음 조리게 하는지 아세요?	2012.07.29	여
자신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광치기해변을걷는 중 올레길 표시가 띄엄띄엄 있어서;; 길을 잘못든줄 알고 동네 주민에게 길을 물었더니 제가 걷고있는길이 옳다고 하시더라고요	2010.01.02	여
처음 가는 사람이라면 좀 헷갈릴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표식이 너무 띄엄띄엄 있는 구간이 있어 가고있는길이 맞는지.. 어려워 할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직진코스라도 표식을 자주 해주세여~	2010.10.07	여
이게 맞는 방향인지 계속 의심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올레길을 위해 올레꾼들이 찾아갔다면 좀더 길찾기 쉽게 표시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2010.10.10	
그리고 차도를 걸을 경우에 표시가 자주 없어서 잘 가고 있는건지 자주 불안감이 조성했습니다	2010.11.08	여
도리깨질하는 할망분 덕분에 제대로 걸었죠..홍마트 중간스텝까지 사람들에게 꼭 물어봐야하구요..ㅎ..혼인지에서 온평까지 마을에서의 표시가 부족한듯..	2010.11.20	
근데 계속 걷다보니 이상하네요. 아무리걸어도 올레표시가 안나와요. 이렇게 걷는게 맞는걸까? 생각하며 한참 걷다보니 동네들어가는 길쯤에 올레표시가 보입니다.	2010.12.01	여 2-30대
길을 걸으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2012.09.28	

(7) 사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및 평가

사인 콘텐츠에 관련된 의견		
쇠소깍이라는 시작은 있어나 그곳을 출발하는 순간 난 몇 km를 걸어왔는지내가 지나는 이 이름없는 포구가 어디인지, 앞으로 또 내가 가야할 길이 얼마나 되는지전혀 알수 없기에...	2008.09.21	여
상세도의 제공 - 현재는 코스별 개념도 만이 제공되고 있음. 게시판 자료에 코스별 개념도 이외에 구간선도로(버스 등이 다니는)가 표시된 상세도가 파일 형태로 제공되었으면 함. 이는 비상시 탈출(코스상에서)시 탈출계획을 잡기도 수월하고, 긴급사태시 119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요긴할 것임.(일정간격의 이정표와 이정표 자체의 기호화-넘버링을 통하면)	2008.12.10	남
올레길 숙소, 민박 열결 코스 표시 (예 다음 숙박 가능 코스까지 시간, 거리 표시) 그래야 올레꾼이 더 갈것인지 머물것 인지 판단 할수 있을것 같음	2009.12.17	남
이런뎌 처음가는 길이라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는지 알수가 없어서 막막하던 참에 휴게소가 나왔다.	2009.12.30	남 30대
[덧글] 남은 코스가 얼마남았는지 화장실은 얼마후에있는지 정도로 작은 풋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10.04.01	남
코스별 이정표(뱃말)에 현위치를 같이 적어 주셨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2010.04.06	남 30대
14코스는 중간중간 몇킬로지점 어디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내가 어디쯤 걷고 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기 좋는데 그런 세심함 이 좀 필요할듯 싶네요~	2010.10.07	여
디자인의 개선이 이루어짐		
간세의 몸통 위에는 현재 진행하는 코스, 위치번호, 앞으로 남은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때 정말 유용할것 같습니다.	2011.10.19	여 2-30대



사인 설치에 관련된 의견		
올레길을 위해 사단법인 올레에서 참조해주셨으면 하는 일들!! 1. 표식기를 개선하였으면 함 현재 리본으로된 노란색과 파란색의 표식기는 폭이 가늘고 길이가 긴 형태로 되어 바람에 날리어 잔가지나 가시에 휘감기기 쉽고 재질이 오히려 쉽게 풀어지는 것이어서 손상이 심하거나 식별도가 떨어진. ☞ 산행로에 많이 달려 있는 형태의 표식기를 참조하시면 너비가 약 5cm, 길이가 약 20cm의 약간 두꺼운 비닐형태의 방수포이며 형광색이나 역반사재형태의 것이어서 식별력이 뛰어나.	2008.12.10	남
즉 방향이 애매한 곳은 주변 높은 건물이나...높은 지형에... 이정 표시인 파란색 깃발을 좀 크게해서 매달아 놓으면.... 방향설정에 좀 편할것 같더군요....	2009.06.22	
성산일출봉에서 광치기해안으로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표시를 찾아 헤메여서... 제가 파란표시를 미리 찾아서 진행한터라..적당한 위치에서 우산을 들어 방향표시를 해주었지만...이런곳은 바닷보다 시야가 보이는 곳에...방향표시 깃발을 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2009.06.22	
대개 나무에 리본을 묶어두는데 어떤 곳에서는 나무가 잘려 나가기도 하고, 덩굴손이 감아서 잘 안보이기도 하고, 팻말이 뽕혀 얹어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리본을 고쳐 매두고, 팻말도 세워 두긴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리본을 준비해와서 새리본으로 교체도 하고 헛갈리는 곳에 새로 리본을 묶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09.02	
기존 표시는 (특히 리본) 생각없이신 분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는지 많은 양이 없어져 있는것 같더군요.	2010.01.14	
이정표...다시 다 정비할 수는 없지만....파손되거나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없어 다시 보수를 한다면 여행자의 입장에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0.09.11	
이올러 어둠속에서 걸어서 형광화살표가 필요한듯 합니다.	2010. 11	
봄에 만났던 간세들 색채가 참 파랑고 예뻐는데 이번에 만난 간세들은 가을을 타는 지 많이 외롭고 추워 보이네요 (햇빛을 받아서 색이 바래서겠지만..)	2010.11.03	여
며칠전 10코스시작점 화순모래사장 끝 초소옆의 올레 표시판 화살표가 땅에 떨어져 있는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작업 집을 지어 보기도 했어서 무엇이든 튼튼하게 만들어진것이 아니면 유심히 들여다 보는 습관이 생겼지요. 화살표를 집어든 나는 사실 놀랐어요. 나무로 만든 화살표는 짧은 박음나무못 두개로 기둥에 꽂혀 있다가 비가 오며 젖었고 또 마르기를 반복하다 저절로 수축 팽창에 의해 떨어진것이 분명 했어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앞뒤를 관통시켜 꽂 조이면 확실하게 붙어 있을듯한데 환경상 일부러 금속을 사용하지 않을 뜻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기둥과 단단히 붙어 있을 부속이라면 좀더 튼튼히 만들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2012.03.15	
페인트칠이어서 그런지, 희미한 표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개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구적이면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표시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07.28	남
이정표 설치 간격을 통일해 주세요. 올레꾼들에게 100M(또는 200M)마다에 반드시 이정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세요. 그럴 경우 이정표 찾기 못해도 그 일정 간격(거리)을 지나도 이정표가 없다면 당연히 잘못 걷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잖아요.아리뎡, 두리뎡, 갈림길에서 서성거리거라지 않게 좀 해주세요. 모든 올레길에 2-3곳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2012.07.29	여
페인트 화살표시는 좀 크게 해주세요. 좀 크게 그러다고 자연친화적인 점에 부합되지 않겠어요?. 표시 위치도 바닷보다 시선 높이에 맞게 그려 주세요. 물론 자연적인 공간을 활용하다보니 돌담에, 바위에 그려진 줄로 압니다만, 이정표를 찾는 일에 사색의 여유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2012.07.29	여
갈림 길에서는 가끔씩 나무 화살표를 설치해 주세요. 리본은 비오는 날이나 바람 없는 날엔 휘날지도 않고 꼭꼭 숨겨져 있어요. 찾아야 찾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찾지 않아도 시선 속으로 들어오게 해 주세요	2012.07.29	여
확실한 사인의 아이덴티티를 원함		
화살표에 관한 작은 소견입니다. 이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걸로 압니다만 올레의 화살표는 코스마다 다르게 아무나가 그릴 수 있는 화살표가 아니라 고유한 올레체 화살표'를 사용하기를 요청합니다. 제주 걷기 여행 책에 소개되었던 어느 화백님의 화살표라도 좋겠구요. (사) 제주올레의 로고를 사용해도 좋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문로고처럼 또 다른 상징 올레체 화살표라면 도심 필요한곳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6코스에선 특히 사이비 리본이 많았습니다^^	2009.03.19	남
TV에 나오고 해서 1코스가 많이 유명해 졌다고 관광객이 참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르면서 보니 원래 파란 화살표와 올레 표시만 있던길에 **산악회와 **투어의 홍보표식까지 덩달아 있었지요. 그것도 딱 알오름 내려와서 중달리 가는 사거리 까지만...	2009.05.19	여 40대
그런데 옛 올레리본보다도 더 눈에 띄는 굵고 노란 리본 거기에는 '자비 쏜터커피동호회' 라는 글씨도 함께... 올레표시도 길을 잃지않을만큼 최소한의 표시만 하고있는데 커피동호회가 굳이 올레길에 그런식으로 꼭 흔적을 남겨야만 했나요? 서귀포쪽 코스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산악회의 빨간 리본도 눈에 거슬렸었는데 그런식으로 너도나도 흔적을 남긴다면 머지않아 서낭당과 같은 모습이 될까 걱정입니다.	2009.11.26	
1코스를 시작하자마자 올레 길 표시의 간세 인형 및 리본의 기쁨과 같이 마주한 것은... 바로 모 산악회의 기쁨 리본이었습니다. 코스 시작부터..오설록 까지 그 리본이 전부 달려있더군요.. (중략) 올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 돌면서..그 산악회 기념 리본...다 제거하였습니다.. 너무 높게 매달아 도저히 제거할 수 없었던 리본 하나빼구요..-----;; 넓은 마음으로 아~~~~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을까봐...달아놔구나..라고 이해하려고 해도...간세 리본이 달려있는...곳에...같이 달려있는 산악회 리본들..-----;; 우리 올레꾼들...산악회 기념 리본...자제합시다..-----;;	2011.08.28	여



(8) 웨이파인딩 관련 2차자료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지도등의 기본 가이드북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레 책자 부록으로 나온 길라잡이가 있는가하면 공항에서 주는 올레 지도, 각 기관에서 배포하는 올레지도 를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차라리 지도를 제작하는 각 업체끼리 공조를 해서 하나의 통일된 가이드북이 나왔 으면 합니다.간단한 예를들어 공항 또는 관광안내소에서 받는 10절짜리 지도를 보면 중간 중간 표시만 되어 있지만 예상 소요시간이 얼마인데.... 중간에 어떤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등의 필수 정보가 다 빠져 있습 니다. 소요 시간등의 필수 정보 넣는게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2009.09.11	
인터넷 사이트 "안내자료받기" 클릭하면 왼쪽에 지도, 오른쪽에 코스경로(총 15km,5~6시간) 되어있는데 지도 에는 조배머들코지→위미인데, 코스경로에는 위미항→조배머들코지로 되어있음, 확인해서 정정 바랍니다.	2009.10.19	
11코스 홈페이지 지도를 보면 지도는 과거 코스내용, 코스 설명 텍스트는 바뀐 현재 코스 설명...공항에서 구한 올 레 책자는 또 과거내용.. 결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1코스 변경내용만 공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 르겠지만 홈페이지 11코스 플래시 지도의 내용에 현재 플래시 지도 정보는 과거 코스임을 명확히 밝히고 텍스트 부분은 바뀐 현재의 코스라는 설명도 눈에 띄게 수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내책자도 대량으로 찍었으니 스 터커 작업을 하거나 공항의 올레 안내부스등에서 좀 미리 주지를 시켜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군요.	2010.07.09	남
아직도 홈페이지 코스 소개는 옛날 길 그대로라 그것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실망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부족한 정보에 인터넷 자료만 믿고 멀리서 오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10.18	
애 중점에서 스탬프는 책자에는 오펜 혼인지 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정보센터가 아니라 종합센터입니다.	2010.11.11	
또한 코스 개발에 따른 변경 사항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화면에서 쉬이 볼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지 금은 16코스에서 멈춰있는 지도 발 빠르게 수정 또한 부탁 드립니다.	2011.04.13	
모든 올레꾼들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모두 읽는 것도 아니고 패스포트와 가이드북의 표시내용과 다르니 하루 빨 리 플래시 화면을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08.28	남
저는 지난 19일 7-1 코스의 중간 스탬프 자점에 와서 패스포트와 가이드북에 표시되어 있는 '호서마트'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정말 짜증이 납니다. 한 시간 이상 헤메다 사무국 직원과 통화한 결 과 현재의 중간 스탬프 자점은 '제남 보육원'이고 코스 밀의 설명문에는 '제남 보육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08.28	남
또한 가이드북에 중간 스탬프 찍는 위치가 gs마트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실제로는 위 쪽에 제남보육원이던데...	2012.05.25	
7-1 중간스탬프자점 등 위치 오류수정표 삽입하여 가이드북 판매 요망	2012.04.08	남

3)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

(1) 코스의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 혼란을 겪음

에! 올레 표시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처음이다). 하나는 바닷가를 향해, 다른 하나는 찻길 쪽인 듯... 저 앞엔 (아마도?)콘도 같은 건물이...(풍림리조트). 상황을 판단해 보니 어느 쪽으로 가도 무방할 것 같다. 나는 안전하게 찻길 쪽으로(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를 따라)...	2008.12.28	남
그런데 바로 그 산길로 접어 들자 마자 올레 표시 화살표가 또 두 갈래로 나뉜다. 나는 자료를 보고서는 당연히 돌아가지 않는 왼편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급급급 경사 길 인줄은 몰랐다.	2008.12.28	남
여기서 나의 우상인 파란색 올레 표시가 또 이상하다. 한 쪽은 동그라미 속에 영어로 A로 표시 하고 다른 쪽은 B로 표시하였다. (즉 A코스와 B코스로 나뉘고 있다). 고민 할 것 없다. 다시 올레 사무실로 전화 한다. (A코스: 정상적인 코스 B코스:시간이 없는 경우 곧장 하순해수욕장으로 가는 단축 길)	2008.12.28	남
대부분 코스에 파란 화살표가 잘 설치되어 있어 길을 헤매지 않고 다닐 수 있었는데 화력발전소 직전의 다리에 우측 개울을 따라 언덕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과 다리를 건너서 곧바로 직진하는 지름길에 대한 설명을 현장에 간판으로 만들어서 해 주면 선택은 올레꾼이 하겠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잠시 고민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박수 기정의 길도 우측으로 돌아서 가는 길과 좌측으로 가는 쏘스다리 길에 대한 설명도 같은 맥락으로 그런 설명이 있는 간판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2009.02.03	남
화력발전소 입구 다리 앞에 서니 A코스 B코스표지판이 있다.	2009.04.25	
이중섬미술관앞에서는 A코스와 B코스로 나누어졌는데 저희는 이중섬미술관쪽으로 가는 B코스를 선택했습니다. (B코스는 언덕을 올라가야하구요. 결국에는 A코스와 만나죠 ㅎㅎ)	2010.01.11	남 10대
계단을 오르자 표식이 양쪽으로 다 되어있다. 어쩌라는거지?? @ @ 양쪽으로 다 되어있다는 건 뭐 어느쪽을 택해도 된다는거겠거니..하고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중략>저지옴은 아래둘레길과 윗둘레길이 있다. 그래서 표식이 양쪽에 다 있었나보다. 어느길로 돌아도 되니까	2010.05.19	
암튼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올레지도를 보니 9코스가 A,B로 나뉘져 있더라고요. A는 계곡 쪽으로 올라가는 험난한 코스... B는 여기서 계곡을 통과하지 않고 내려오는 길로 바로 질러 가는코스...우리는 이미 10코스 절반을 왔기에 나이도 있기에... ^^;;;B코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길 표시를 잘 못찾아 조금 헤매었습니다.	2011.06.05	여 2~30대
갈림길에 대한 설명 부족. 예 이중섬길과 서귀포항+천지연폭포길. 차이점 설명하고 어떤 사람이 이길에 출겠다. 등등...	2011.12.16	남



(2) 코스를 우회해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물 때가)보름 때이면 올레 길이 끊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와우~! 안심과 허망함이 함께 찾아 온다. 안심:내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허망:그럼 어디로? 끊어진 갯바위 뒤로 저편에 보이는 길이 이어지는 올레 코스로, 최대한 해안가로 붙어 있는 길을 통해 우회하라고 알려 주신다. 색다른 경험으로 오히려 재미가 난다.	2008.12.28	남
삼매봉을 오르려 하니 누군가 올레길을 밧줄로 단단히 막아 놓았다. 이미 어두움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막아 놓은 그 길을 가기가 망설여져서 큰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올레 전 코스에서 의도적으로 올레길을 방해한 것은 여기와 상모리 두 군데였다. 우회 도로길은 외돌개까지 삼사 킬로에 달하는 거리였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삼십분 이상 할 수 없이 걸어야 했다.	2009.02.16	남 50대
신도초교 지나 도원횃집 가다 보면 도로공사 하느라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공사중인 길 건너 왼쪽으로 약 50여m 지점에 시멘트 포장길이 보이는데 그 길로 가면 됩니다.	2009.03.30	
일단 산길로 들어섰는데 거의 다 올라가서는 구제역때문에 또 우회하란다....ㅠ.ㅠ... 바닷염 남퍼라지 같은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정류장서 지도를 열어버려서 여기가 어딘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구....에궁....	2010.06.06	여 3-40대
“해병대길 폐쇄”라는 말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중문관광단지 입구까지 나와야 하는데, 초행이라 많이 해맸고, 올레지기님에게 전화도 하는 등 다소 고생스러웠어요. 예래동을 지나 논짓물로 다시 들어가라는데, 무슨 소린지... 그만둘까 생각할 정도로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중략> 지금 휴가철이고 피서객이 많아 올레8길은 잘 안다니다신데요, 해병대길이 막혀서 저처럼 해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10.07.31	여 20대
또한 8코스에 관한 것인데요... 미리 변경코스를 확인하고 간 제 탓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인터넷을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아닐거라 봅니다. <중략> 중문해수욕장을 지나 하얏트호텔에 진입하니 정마로 인해 해병대길을 임시폐쇄한다면서 우회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알고보니 중문사거리에서 SK주유소방향으로 우회길이 난 것이었는데 바로 민박한 그곳이었습니다. 정확히 한 시간을 돌고 돈 끝에 아침에 나선 곳으로 되돌아 온 셈이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올레 리본이나 화살표가 좀더 식별하기 쉽게 표시돼 있었다면...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러한 안내문구라도 설치돼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았습니다.	2010.10.10	
8코스인 경우 해병대길을 막아놔는데 돌아가는 길의 표시가 불분명하고 걸어서 하얏트 호텔까지 가기엔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곳에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11.08	여
어제 10코스를 걸었는데... 송악산에서 출입자제를 요하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우회를 했는데... 제가 못찾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회하는 지점을 표시해놓은 어떠한 표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변경되기전에 한번 돌았던 코스라서 지리는 대충 알고있어서 송악산 오름 올라가는 콘크리트길을 100m조금 내려가니 간세표시가 보여서 다행히 다시 걸을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회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팻말을 무시하고 올라가야합니까? 그냥 올라가는 분들도 꽤 있던데 말입니다....	2010.12.06	남
아! 2코스 혼인지 나와서 온평포구로 가는길 공사중이더라고요~ 혼인지 정문앞에서 공사중이라 큰길로 내려가라는 표시적어주시면 두번 발걸음 할일은 없을듯 합니다 ~	2011.06.17	
6번 역방향으로 가보았는데, 가는 도중에 산사태로 인해서 돌아서 가야된다는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번의 다른 코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략> 역방향이라서 그런지, 임시 우회로라 그런지 생각보다 이정표? 나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서 좀 해맸었습니다.	2011.08.30	
8코스 하얏트 호텔앞 에서 해병대 길이 ' 낙석으로 인해 우회부탁'이란 안내보고 표지 따라 중문단지 앞 신우성 타운으로 우회시도했으나 그이후 공사장 길로 접어드려 아예 표지가 없어 저뿐 아니라 모든이들이 해매더군요. 길을 걸다가 약간은 길을 잃어도 좋다는 좋은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8코스 완주하고 나니 무려 5-6킬로미터는 더 걸었던 것 같습니다.	2011.11.28	

(3) 역방향 트레킹시 어려움을 겪음

역방향 트레킹에 대하여 긍정적인		
10코스는 역올레를 해야 한다는 말을 심감했습니다. 송악산 산방산 하라산을 라보며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레 대내 하라산, 산방산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행운을!	2010.03.01	
여기서 팀은 우도와 10코스는 역코스가 제대로 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우도에 갔을 땐 물랐는데 그 후 게스트 하우스에서 들은 정보다.	2010.05.10	여 40대
13코스 역주행을 선택한건 돌아올때의 교통편때문이었다. <중략> 거꾸로 건기에 혹시라도 표식을 놓치지 않을까 싶어 꽤나 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걸었던것 같다. 그래도 그 나름의 재미	2010.05.19	
든든하게 뒤를 지켜주는 산방산, 제주올레 10코스는 역으로 걸어도 좋으리란 생각을 해본다. 산방산을 앞세우고 걷는 기분도 좋지 않을까?	2011.02.20	남 40대
9코스 시작점까지는 계속 돌길을 내려가고 내려갔지요. 역방향인 아닌 정방향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결론짓기를 9코스는 역방향이 훨씬 쉽고 좋다... 입니다. ㅎㅎ	2011.06.05	여 2-30대
13코스는 역주행을 해서 내려오면 걷는 것이 편합니다. 표시가 잘 되어있어 길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2012.05.09	남
그렇지만 14-1코스를 역올레를 할 적에는 처음부터 완만한 경사를 계속해서 걸으면서 문도지 오름 정상에 오르지만, 거의 중반부터는 내리막길이 되며, 중점인 저지마을에서는 교통편도 조금은 여유가 있고, 특히 편의점이나 매점이 근접한 거리에 있어 편리합니다.	2012.05.16	남



역방향 트레킹의 어려움을 토로함		
근데 잠시 비가 뿌려서 숙소에서 거꾸로 8코스를 걸어 보려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걷는 건 좀 어렵더군요. 돌고래썰장 부근에서 해매다가 포기, 그래서 생각인데요. 꼭 한 방향으로만 걸으란 법을 없을 듯해서 '제주올레 사무실' 에 건의 드리고 싶어요. 반대 방향으로 걷는 안내 화살표 표시는 어떻게 좀 안될까요?	2008.11.25	여 50대
성산 시흥쪽에서 서귀포를 지나 모슬포쪽으로 일방통행 형태로 코스가 열려 있는데 역방향(모슬포쪽에서 성산쪽으로 반시계방향)으로도 표식기와 방향표시가 되어 양방향으로 진행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2008.12.10	남
젊은 남녀 4명이 정상에서 자축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거꾸로 올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행길에 거꾸로 올레를 하고 있어(숙소가 10코스 중점 부분에 있다보니), 오는 길에 매우 해매었다고 합니다. 절벽 같은 위험한 길도 있었다구요... 제가 '거꾸로' 올레는 '제대로' 올레를 몇 번씩 한 사람들이 지겨워지면 하는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초행길에 '거꾸로' 올레는 다소 위험하고 고생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9.03.17	남
오늘 11코스를 거꾸로 돌았습니다. ㅏㅏ(정방향으로 돌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더 군요. 10회 이상을 해맸습니다. 갈림길이 나올때마다 매번 길을 찾느라 한참을 확인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길을 잃어 버리더군요. 마지막 즈음 첫알오름에서는 완전히 길을 잃어 어찌 어찌 나와보니 10코스 표지가 보여 그것을 따라 갔습니다. 근데 허걱 그 거리가 만만치 않더 군요. 올레지기 님들 거꾸로 올레 표지도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초보올레꾼님들 정방향 올레를 하고 거꾸로 올레를 [ㅍ]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2009.03.28	여 2~30대
11코스 꽃지알에서 거꾸로 올레를 하다가 길을 잘못들어서는 바람에 숲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2009.05.11	
화살표의 중요함이 절실히 느껴진다. 화살표를 거꾸로 찾아간다는 것이 이리 힘들줄은...	2009.06.10	남
한 마디로 웬만하면 역올레를 안 하는 쪽으로 즉, 정방향으로 일정을 짜길 권하고 싶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올레길 사인만 잘 보고 가면 되지 바로 가나 거꾸로 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실 겁니다.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렇질 않았습니다. 두 번을 심하게 헤매고 너댓번을 살짝 살짝 헤매면서 든 생각인데,역시 '세상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올레 사인을 그런 분도 아마 정방향으로 가면서 정방향을 갈 사람을 위해서 표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헛갈릴 만한 분기점이나 갑자기 꺾어지는 지점이나, 위 아래로 상승과 하강이 있는 포인트에선 정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시선이 가릴까를 위한 모든 곳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 입장이나 관점에선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갑자기 사인이 사라지거나 분명히 이리 가라고 했는데 가다 보면 갑자기 길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환한 낮이고 시간이 충분할 땐 그리 당황스럽지 않을텐데, 만약 비가 와서 빨리 어두워지거나 시간에 쫓길 때는 아주 난감할 것 같습니다.	2009.07.29	
진행 방향의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약간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이 정도 거리면 사인이 보여야 할 텐데, 왜 없지 싶으면 무조건 마지막 본 사인을 본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정방향으로 왔다고 상정하고 조금 더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인의 모양을 다시 잘 보십시오. 분명히 구부러져 있거나 뭔가 특이할 겁니다. 갑자기 빠진 거죠. 특히 3거리 부근에 많습디다.	2009.07.29	
다만 7코스를 역방향으로 걸어서인지 무지 애먹었습니다. 올레표시가 굉장히 헛갈려서 비닐하우스에서도 우왕좌왕.	2009.08.31	여
코스 중점부터 거꾸로 걸으며 주상절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가는길 중간중간 나뭇잎에 걸린 파랑 노랑 끈을 보고 따라갔는데 막다른 곳이었습니다.<중략> 중점부터 시작하는 올레꾼들을 위해 컨벤션센터 도로쪽으로 올라가는길에 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9.09.10	
거꾸로 올레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역올레표시가 없는..	2009.09.19	남 30대
12코스까지는 거꾸로 표시가 있었는데... 당연히 거꾸로 표시가 있는줄 알고 시작했는데 엄청 헤맸습니다. 전봇대에 묶인 리본은 완벽하게 가려져있었고 나무에 묶인 리본들도 다른 가지에 가려져 반이나 보였을까요? 뒤돌아보면 너무도 잘보이더군요	2009.11.26	
수고하시는길에 나머지 코스도 거꾸로 표시 좀 부탁드릴게요. 저지에서 제주시로 나오는 버스 배차 간격이 2시간 정도라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 거꾸로 걸었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2009.11.26	
가끔가다 한명씩 지나가더라도 나처럼 역주행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어. 난 역지로 내가 올레길을 가는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올레길이라는 생각으로 걸었다.	2009.12.26	여 20대
[덧글] 거꾸로 올레는 길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힘이 듭니다.	2010.01.08	
저희가 가장 바라는것은 갈림길에 대해 올레길 표시라고 해야할까요. 역방향이라 고정도는 감수해야했지만 갈림길마다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2010.01.12	남 10대
거꾸로 걷는게 이렇게 어려울줄 몰랐습니다 <중략> 아쉽다면 거꾸로 걷는사람들을 위해 갈림길에 리본하나 더 달아주세요 넘 헛갈렸어요....	2010.01.14	
리본또한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겐 잘 보이지도 않은... 가령 전봇대의 맞은편(역방향에서 봤을때), 간혹 서 있는 작은 표지판은 오로지 순방향에서 오는 사람만을 향해있다. <중략> 15코스도 어서빨리 역방향 표시 좀 정비해주시길....	2010.02.15	
저같은 경우는 구제역때문에 처음부터 못돌고, 1~1코스, 7, 8, 10코스돌았어요 사실 10코스는 계획에 없었는데 10코스 역방향이 좋다고 그래서 시도했다가 엄청 해매는 바람에 8시간을 걸었네요~	2010.03.25	



역방향 트레킹의 어려움을 토로함 (계속)		
저한테 7코스는...너무 많은 분들이 강추하셔서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7코스 끝나는 지점부터 거꾸로 걸어서 갈하기도 힘들었구요.	2010.04.23	여 20대
정방향은 안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역방향은 중간중간 길이 많이 헛갈려요 저런 돌이서 머리 맞대고도 짬짬이 길 잃어서 엉뚱한데로 빠졌다가 한참 돌고 제자리 또는 빙돌러서 다시 찾아가기도 했어요;	2010.09.17	남 30대
하지만 이날 6코스를 역방향으로 걸어본 사람으로서, '역방향 걷기'는 절대로 비추한다. 화살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향표시나 이정표들이 정방향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걷다보면 무지 헛갈린다. 결과적으로 나는 난이도 '하'코스에서 정말 죽도록 해맸다.	2010.11.21	여 2-30대
그리고 역방향이라서 그런지, 임시 우회로라 그런지 생각보다 이정표? 나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서 좀 해맸습니다.	2011.08.30	남 2-30대
6번코스의 역방향 이정표로는 도저히 나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더군요. 할수 없이 지나가시는 할아버지께 여쭙어 보고 갈 수 있었습니다.	2011.08.30	남 2-30대
사실 저희도 6번 역방향을 경우 여기까지 오는데만도 너무 힘들고 하여서 바로 거기서 포기하고 7번 순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외돌개로 버스 타고 갔습니다.	2011.08.30	남 2-30대
6번 역방향을 경우 현재 끊긴 길상황,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길 찾기 힘들. 볼거리 없음으로 인해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제주도 분들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2011.08.30	남 2-30대
14-1코스를 걷고 싶었는데 무릉2리에서 숙박하기 여의치 않았고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돌기가 싫어서 12코스로 발길을 돌렸어요	2011.10.11	남 30대
정방향 표식보다 역방향 표식이 너무 헛갈리게 되어있어서 길을 많이 잘못들었다며 투덜대는 모습이 너무 웃었습니다. <중략> 결론적으로 역방향으로 걷던 친구는 수다들까지 와서 완주를 못하고 또 길을 잘못 들었네요	2011.12.02	남 30대
16코스 역 방향시 현재 길 공사로 일부구간이 막혀 제주교회(침례교회)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뒤쪽 교회 간판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정방향이려면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만 역방향...	2012.03.20	
[댓글] 개장 초기보단 올레 표식을 잘 해놓긴 했으나..정올레보단 역올레시 방향 표식을 찾아 시간 허비가 많은 점도 있더군요.. <중략> 무엇보다 올레표식을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는 점이 정올레의 장점 인것 같습니다.	2012.05.18	여
이정표 설치시 순방향이난 역방향 동선의 경우도 감안하여 설치해 주세요. 19코스 중 일부 올레 길을 역방향으로 걸어보니 이정표가 너무 엉뚱합니다.	2012.07.29	여

(4) 타 구간과 겹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리무진 버스를 타고 외돌개에 갔는데, 6코스, 7코스, 7-1코스가 전부 겹치는 지점이라서 그런지..7코스 화살표가 어디인지 너무 헛갈리더라고요.	2010.02.07	남
이상합니다. 2시간을 넘게 걸었습니다. 모슬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황당합니다. 리본을 잘 보면서 걸었는데 리본에 코스가 씌여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상황을 얘기하니 11코스 옛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10코스 끝나는 지점과 뒤섞여있는 길을 2시간 넘게 걸었던 것입니다.	2011.06.09	여 4-50대
11코스 종점이 12.14-1코스가 연결이 되서 어느쪽으로 가면 정류소가 나오는지...	2011.11.01	

(5) 코스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

화살표의 방향이 바다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 바다 쪽이다.<중략> 잠시 고민...후, 올레 사무실로 전화. (사무실)맞습니다. 그 갯바위 쪽으로 꼭 가세요. (나)그럼 바다 속인데요...혹시 물 때가 밀물이라서 갯바위가 잠긴 것은 아닌지요.? (사무실)아! 지금이 보름을 막 지난 때구네! (물 때가)보름 때이면 올레 길이 끊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와우~! 안심과 허망함이 함께 찾아 온다. 안심:내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허망:그럼 어디로?	2008.12.28	남
오늘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물바다 중 가장 상태가 심각한 무려 10여미터 길에 다르는 물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레 오늘 후주의보였지...	2009.02.26	여 20대
막상 내려오니 계곡 물이 불어서인지 벽면 저 쪽에 파란 화살표는 보이는데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비가 와서 계곡물이 더 불어날텐데..안덕 계곡 끝부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03.16	
들어갈때는 건너갈만 하였던 곳이, 잠시의 사이...돌아 나옴때 바다물이 차고 넘쳐서, 한바터면...정말 바다안에 갇히는 '위험하고 행복한 경험'을 할뻔했대지요.	2009.04.15	여 3-40대
앞에 다리가 우리의 길을 막는다. 만조 때가 되어서 다리가 반 이상이나 잠겨 있다. 웅감한 A는 제일 먼저 물에 잠긴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는데 내 다리가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2009.05.16	여
그리고 오늘에서야 공지에 댔네요.말미오를 내려와서 알오름 가는길 소들이 막 누워 있어서 길막한줄 알았거든요...<중략> 임튼 이젠 소가 없는 우회길로 가야 하니...또 마지막으로 다녀왔네요...그길을	2009.05.19	여 40대
파랑 표지만 믿고 갔는데.. 글썽 화살표와 리본이 바다 바로앞 육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끝이 났어요. <중략> 뒤도 앞도 다 캄캄 돌아갈수도 바다를 헤엄칠수도 없는 아찔한 상황...<중략> 아침에 나가보니 물이빠지면 모레사장이 되더군요...	2009.08.24	여
지금 휴가철이고 피서객이 많아 올레길은 잘 안다녀오는데요, 해변대길이 막혀서 저처럼 해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10.07.31	여 20대
전날까지 제주엔 비가 많이 왔어서 길도 미끄럽고 중간에 유실된 길	2010.09.17	남 30대



(6) 쉼터 및 화장실의 중요성 및 정보의 필요성

쉼터에 대하여 기쁨을 표현함		
이름도 천연히 빛나는 제주 올레 쉼터 '목화 휴게소'가 나옵니다.	2009.04.22	
아무튼 1코스 말미오름 시작하는데...와우~~새롭게 생겼습니다~~쉼터...정자가 생겼더라고요...정자에서 잠깐...쉬고	2009.05.19	여 40대
올레를 하다보면 드물지만 무료로 차와 물을 마실 수 있는 쉼터가 있다. 작은 배려가 올레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제주도를 사랑하게 만든다.	2009.06.28	여 20대
제주도의 또 하나 좋은 점. 가다보면 쉴 수 있는 넓은 정자가 많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5~7코스가 정자가 많은 편이다. 가다가 피곤하면 쉬고, 30분~1시간정도 꼭 자주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2009.06.28	여 20대
5코스에는 특별한 쉼터가 있는데, 커피도 마시고 시원한 물도 얻고 널찍한 소파에서 한잔을 잘 수도 있는, 특히 발마사지기 두 대가 있어 지친 발의 피로를 풀어주어 더 기억에 남는 곳 입니다. 그곳을 지날 때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둘러 보세요. 위치는 공천포 식당을 지나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2009.10.07	남
우도 정상 등대공원을 오르기 전 조일리라는 저그마한 길목 우측 한 켠에..... 차 한잔 하고 가라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현무암으로 된 돌맹이 의자에 앉아 마신 향긋하고 들꽃 내음 가득한 따뜻한 차 한 잔은 무인모금함에 지폐하나 넣는 직원의 다정한 마음과 함께 나그네의 지친 다리를 달래준다.	2010.06.18	여 40대
8코스 역으로 돌아서 좋았던건 정말 목마르고 힘들고 지칠때 쯤에 제주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블라스트 한잔 마시면서 쉬었던거.	2010.09.17	남 30대
쉼터가 없어 힘들		
이 코스는 유난히 앉을 곳이 마땅치 않다. 투덜투덜 대다 고근산에 오른 후 의자 하나를 만난다.	2009.05.17	
3코스는 너무 힘들었다. 김영갑갤러리 쯤에서는 다 지쳐서 걷고 뛰고 짜증이 있는대로 났다. 하긴 더운데 땀방울이라 쉴 곳도 마땅찮아서 그저 걷기만 했으니.....	2009.08.08	여 4~50대
아...힘들었나봅니다.이 사진 전까지..언덕을 내려가 왜 동네로 접어들어서 동네길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물을 사마실 수 있는 올레쉼터가 하나 나오고여기전까지 슈퍼가 없어호...물들 준비하셔야...전 타는 목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갔어요] 그 쉼터를 지나 길을 건너면 벌써 펄펄하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2009.08.12	여 20대
올레길을 걸으며 아쉬운점 몇가지를 적는다. 첫째, 수심리의 길을 걷는 데 마땅한 쉼터가 없는 곳이 많다. 날씨 좋은 날에야 그저 아무데나 걸터 앉으면 되겠지만 제주도 날씨도 날씨가 어디 그렇게 visitor friendly하기만 한가. 간단한 요기라도 하며 쉬어 갈 곳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올레길 안내에 아주 걷기전에 도시락 지참이 필수라고 다짐을 하던지.	2010.01.09	남
반이 해안가이고 반이 오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늘이라곤 손톱만큼도 찾기 힘들어서 그게 가장 고생스러웠어요.	2010.08.25	남 30대
그리고 3코스 중간쯤 물먹는데 좀 만들어주세요. 배고픈건 참했는데 목마른건 너무 힘들어요.	2010.10.16	
사실 우리는 올레를 완주에 의미를 두기 보다 놀멍 쉬멍... 가자 주의인데 설곳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서 정말... 앉을 곳이 없어서 세시간 내내 걷고 서있고 했더랬지요..	2011.08.17	여 2~30대
화장실에 대하여 기쁨을 표현함		
이번 구간의 특징은 가는 곳 마다 일정 거리에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이 신기하다.	2009.03.03	남
반가운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24시간 개방 8코스에서는 그래도 저의 마음 놓것물 화장실이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까지 안내글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09.03.19	여
길에서 하루를 다 보내는 올레꾼에게 화장실은 각별하다. 하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 슬그머니 밖을 나온다.	2009.05.23	
아..그리고 1코스에는 간이화장실이 시작점에랑 오름 올라가기 전에랑 오름 내려와서 1개씩 있더라고요...제일 중요한게 화장실 문제네...너무 잘해놨더라고요...그리고 길을 찾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2009.07.12	
화장실 걱정. 이 부분은 불편했던 점이 아닙니다. 제가 갔던 6, 7, 8, 10코스는 화장실 걱정을 잊으셔도 됩니다. 귀찮을 정도로 화장실에 많이 가는 친구랑 갔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법 화려하거나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들도 꽤 있었습니다.	2009.10.06	
올레꾼을 위한 화장실... 참 고맙고 예쁘다. 그리고 반갑다. 길을 걷다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화장실 가는 일 아닌가.	2010.07	여 40대



화장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란 것은 잘 알지만 언제가는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라서 집고 가려고 한다. 코스 도중에 생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임시 화장실이나 화장실 개방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제주도 사람들이 인심이 후해서 화장실을 좀 사용하자고 하면 대부분 허락을 해 준다. 일부 코스는 개방을 한 곳도 있고, 하지만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아무도 없는 남의 집이나 사무실의 화장실을 사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다들 일하러 가셨는지 마을을 지나면서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서 화장실 이용을 부탁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가 없더라는 점이다.	2009.02.03	남
가이드북에 화장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대략으로 표시를 해 주면 어떠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여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 개방된 곳이 없더라고요. 별 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문화의 상징입니다. 태국이 관광대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화장실 개방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02.03	남
올레꾼이 많아지면 화장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혜가 모아져야 하지 싶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편리도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 웅색하지 않고 품위를 지킬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2009.02.16	남 50대
두 번째는 화장실이 너무 없다는 거다. 너무 많이 걷다보니 장 운동이 심해져서 그런지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었던 우리만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고백하면 걷는 도중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실례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한 일이다. 표선 해수욕장에 다다라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문짝이 없는 간이 화장실이라도 찾아서 너무 다행이었다.	2009.03.08	여 3~40대
화장실이 급해 목화 휴게실만 바라고 왔건만... 길 옆에 달랑 컨테이너 하나 -.-; 아줌마는 태연하게 길 옆의 바다를 가르키다 황당해 하는 내게 대로변의 다른 발을 가르킨다. 어쩌라우요...??? 잉잉잉...ㅠ.ㅠ 아침마, 미오~	2009.04.04	
글쎄요. 도대체 화장실들은 어찌 해결하신거요? 가끔 자연이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는라 무지 힘들었걸랑요. ㅋㅋ	2009.05.03	여
걷는 걸음.. 그런데 걷기 시작할때쯤..방광에서 오는 배변의 욕구.. ㅠㅠ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돌아간 시흥초등학교...줄레 줄레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찰라..한 아이의 이야기..화장실 잠겨는데요 ㅠㅠ 우왕..난 어떻게 해..	2009.05.10	남
시흥초등학교에 도착한 시간 10시와~~공항에서 딱 1시간 30분 걸립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라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더라고요~~전 화장실이 급해서 교무실로 가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와우^^ 평일에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화장실을 열어 놓으면 수업시간에 시끄러워서 학생들 수업에 적지않은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학교 바깥쪽에 화장실이 생길 예정이라고 하십니다^^빨리..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009.05.19	여 40대
갑자기 또 다른 자연의 부름이여. 갑자기 다급해짐. 통오름을 오르는데 이젠 완전 날았다. 아무리 보아도 내가 찾는 명상의 장소는 없다. 다시 날아서 내려옴. 마을이다. 기대를 하며 완전 경보자세로 걸음. 뒤에서 보면 경보선수인줄 알거다. 아무리 찾아도 명상의 장소는 없다. 낯익한 마을의 어여쁨도 나에게 안중에 없다. 무소유? 나는 뱃속에 있는 것까지 버릴준비가 되어있다.	2010.04.12	여 50대
출발지에서 8km나 떨어진 낙천리 아홉마을을 이전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물론 상점도 없구요.	2010.10.16	
[덧글] 저도 서명숙 이사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레길 전체코스중에 가장 많이가는 7코스도 일강정바당올레를 지나면 화장실이 없어 거의 2시간을 가이지만 화장실이 있더군요. 그리고 계절별(특히 겨울철)로 코스별(11코스 부터 16코스) 쉼터와 숙소가 없는 곳과 운영을 안하는 곳이 많더군요. 올레꾼들이 가장 많이 가는곳 보다는 진정으로 올레길이 좋아서 올레길을 걷는 올레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2011.05.21	남
올레를 걸으면서 늘 고민하는 소변문제도 근처 해안 경비대에서 작은 아이의 영역표시도 하고 왔답니다. 처음엔 민간이 출입금지라고 했지만 아이의 급한 마음을 배려해 주셔서 가능했지요^^	2011.08.22	여 3~40대

(7) 시작점/종점의 식별성이 약하여 어려움을 겪음

모 아무튼 그렇게 화살표를 쫓아가는데 10코스 시작점 화순해수욕장근처에서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왕좌왕 표시도 좀 친절하지 않은것같더군요 시작부근에서 아무리봐도 표시가 없는겁니다. 해마다 진이 빠져서 목적지방향으로 그냥 걸었답니다. 한참을 걸으니 표시가 있더군요.	2009.05.31	여 20대
아침 7시 정각 민박집을 나와 10코스 시작점을 찾아 가는데 왔던 길인데도 어리둥절하다. 무슨 대단한 건물을 지으려는지 공터가 넓고, 벌써 인부들 여럿이서 나와 뚝딱거리고 있다. 3월에 왔을 땐 조용했는데 화순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질러 삼방산 가는 쪽으로 쪽 걸어가는데 것은 알고 있지만 3월에도 못 찾은 시작표지판을 보고 싶었는데 못찾겠다 피꼬리만 혼자 외치고 있다. 아무래도 화순사무실 앞에 있지 않나 싶다. 그냥 가자.로 결론 내리고 모래사장을 걷는다. 그저 공연히 30분만 허비한 셈이 되었다.	2009.06.08	여
그래서일까 입구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대충 성산하수처리장이 보이길래 옆길로 무작정 걸어갔다. 근데, 어떤 여자 올레꾼이 2코스 입구를 아냐고 하면서 내게 물길래 나도 모른다 했더니 대충 서로 난감해했다.	2009.09.19	



차는 시흥해녀의 집 주차장에 놔둔채 걸어서 시흥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해맨지 40분만에 올레1길 입구를 만납니다.	2009.10.14	여 2-30대
표선 백사장을 가로 지른 후에는 다시 화살표를 놓치고 찾기를 반복하다 3코스 중점을 보지 못하고 어느새 4코스 길로 접어들어 계속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ㅋㅋ 이미 지칠대로 지친 몸을 끌고 다시 3코스 중점으로 거슬러 갔는데요, 저 같은 길치 말고도 두 분이 그날 또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코스 중점 부근에서는 화살표에 작게라도 코스 번호가 적히면 어떨지요?	2009.01.27	여 30대
13코스 말미에 저지옴을 내려오면 바로 마을회관입니다. 중점 안내판이 진행방향에서 볼 때 가려져(?) 있어서 화살표만 보구 가다가는 그냥 14코스로 건너뛰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저도 2길로나 오바했다가 빠꾸했는데요 알고 보니 많이들 그러시나 봅니다. 손좀 봐야할 듯.	2009.12.24	남
다시 동화선 일주버스를 타고(10시 50분) 온평리에서 내렸다.(11시 10분) 그런데... 온평포구 표시가 없다. 바닷가도 안보인다. 물어볼 사람도 없다. 어찌지.	2010.05.12	여 20대
어, 그런데 어디에 봐도 종착점이 안보여서 계속 두리번두리번 결국 14코스 올레지기남한테 전화로 여쭙보고 그제서야 찾았습니다. 비양도 도항선 선착장 바로 맞은편에 작은 휴게소가 있는데건물 바로 앞에 15코스 시작점이 종착점이었습니다. 14코스 끝이라고 서있는 이곳이 15코스의 시작. 완주했다는 기쁨속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	2010.06.19	여 20대

(8) 코스와 대중교통의 원활한 연결의 필요성

대중교통 이용을 긍정적으로 여김		
이제는 길을 아니까 시내버스가 정말 편하다. 게다가 값도 싸다. 1시간 이상을 타고 1000원이다.	2009.02.24	여
나는 얼마전까지 자동차 여행의 예찬론자였다. 마음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여행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효율적인 여행 방법으로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2009.05.05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제주도 여행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정류장을 잘 몰라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많이 해매기도 하였지만, 나중에는 숙소로 가는 정류장의 이름을 다 외울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깐요. 버스안에서 듣는 제주도 사투리가 너무 귀에 익고 좋아서 여행마치고 와서도 신랑과 제주도 사투리라면 ~~마썸 이러면서 말장난을 합니다. 여행후 집에 돌아오니 저는 원래 제주도 사는 사람인데 잠시 여기 육지의 친척집에 놀러온거 같은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ㅋㅋㅋㅋ	2010.10.07	여
올레가 목적이라면 가끔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렌트해서 목적지 코앞 까지 차타고 다니는걸 보니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0.10.10	
T-money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		
제주에는 T머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환승할인이 됩니다. 그 덕에 교통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2009.04.30	여
제주버스엔 T머니용 교통카드도 다 된다. 단, 서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카드는 안되니 참고 하시길. 그래서 터미널에서 T머니 교통카드를 4000원에 구입 10000원을 충전했다.	2010.06.09	
제주도내 모든 버스에 티머니 인식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결제는 T-money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10.09.25	여 2-30대
버스 안내의 편리함을 느낌		
시흥리에 도착할때즈음에.. 기사님이 올레 1코스 가실분들..내릴 준비를 하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2009.06.22	
버스안내방송에 10코스 시작점이라고 안내가 나와요!	2010.11.26	여 3-40대
버스타고 올레1코스 시흥리에서 내립니다.^^ 친절하게 안내방송해줍니다. 올레 1코스 시작점이라면서....	2010.12.20	여 20대
안내방송으로 올레5코스 시작점이라고 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2011.03.20	여 20대
버스방송에 올레16코스 시작점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2011.04.01	여 2-30대
시흥초등학교 도착 (종락) 방송이 나오고, 기사아저씨께서 친절히 안내도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내릴수 있었습니다.	2011.10.19	여 2-30대
트레킹 코스와 대중교통과의 연결이 불편함		
올레의 중점까지 가는 길은 화살표가 알려주지만 그 다음에 버스를 타거나 혹은 이 포구를 빠져나가 큰 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지? 어디에서 버스를 타지? 등등의 물음은 가득한 채 올레는 끝나고 나는 버려진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제주올레의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코스의 시작과 끝이 대중교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면 시작도, 끝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2008.09.21	
월평포구까지 걷고나시면 3코스가 끝나지만, 올레 걸으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가져오실리는 만무하고 어쩔 수 없이 4코스의 초반까지는 걸어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4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레의 중점까지 가는 길은 화살표가 알려주지만 그 다음에 버스를 타거나 혹은 이 포구를 빠져나가 큰 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지? 어디에서 버스를 타지? 등등의 물음은 가득한채 올레는 끝나고 나는 버려진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제주올레의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코스의 시작과 끝이 대중교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면 시작도, 끝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2008.09.21	여



트래킹 코스와 대중교통과의 연결이 불편함 (계속)		
5코스 시작은 대평포구에서 시작하므로, 들어오실 때에도 버스에서 내려 물어물어서 찾아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대중교통수단과 연결되어 있으면 좀 더 수월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다시 들었습니다. 올레길을 한 코스를 다 걷고 날 때마다 성취감도 있지만, 그만큼 긴장도 풀리고 피로감도 몰려오는데 다시 올레길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이 다니는 일반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믿고 왔던 파란화살표가 없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면요.	2008.09.21	여
이건 올레 사무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버스 안내 방송에 관한 것이다. 내가 사는 동네가 포항인데 관광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도시이지만 버스 안내방송은 제대로 한다. 즉 “이번에 내리실 곳은 00초등학교 이고, 다음은 00시장입니다.” 그런데 서귀포 시내에 다니는 버스들은 이런 안내 방송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서일주, 동일주 버스 등도 이번 내리실 곳에 대한 안내만 하고 다음에 대한 멘트가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주시에내 버스들은 잘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올레길에서 만나게 되는 버스들은 아직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관광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뭐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이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티머니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참 편리하였다.	2009.02.03	남
11코스를 마치면 대중교통으로 서일주 버스가 다니는 곳(대정읍 소재지)으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생태체험교실의 운영자분이 올려주신 마을버스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운행하는지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올레꾼들을 위하여 마을버스 시간표를 올려 주신 생태체험교실의 운영자분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02.03	남
각 올레 코스의 시작과 종점을 동일주 버스나 서일주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접근(10분 ~ 20분 정도)이 가능한 곳으로 정하였으면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 11코스는 난감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간의 한 코스를 끊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코스는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이 안 됨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2009.02.03	남
많은 올레꾼들이 출발지에 차를 세우고 걷기를 끝낸후 원래의 출발지로 돌아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걷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처음 출발지로 돌아가는 방법을 정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버스를 타야하는지, 택시는 어떻게 타야하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등..	2009.02.23	남
제주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12코스 출발지 찾아가기입니다. 아마 전 올레코스 중 12코스가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만..) 안내자요에는 모슬포까지 가서 버스를 타던가 신평에서 택시를 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슬포에서 무릉2리(좌기동) 가는 읍면 순환버스는 매우 드물니다. 잘못하면 1시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신평에서는 택시가 없어 전화로 모슬포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콜을 한 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하고 요금도 8000-9000원을 받습니다. 실제 신평에서 무릉2리까지는 얼마 안되는 거리지만 모슬포에서 오는 요금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2009.03.30	
여기가 끝!!! 입니다 :) ㅋㅋㅋㅋ 10코스 끝끝!!!여기서 문제 입니다!!!10코스는 다 돌았고, 난 이제 한라대 쪽으로 가야할 뿐이고 (저녁 약속 있어서 ㅋㅋ)버스를 타려면 근처 마을 버스정류장에 가야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모슬포로 가셔서 모슬포 우체국 앞에서 버슬 타시면 됩니다.길을 알려주신 우체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	2009.06.09	남
올레길을 걷는 것은 좋으나 이 코스는 종점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우선 교통편이 없다는 점이다. 차라리 중간 코스를 단축하여 중간 쯤에 저지 오름을 오르고 다시 해안쪽으로 이동하면 교통편 연결하기에도 좋을 듯하다. 다시 한번 설계해 주시길 서명숙 이사장님께 부탁드려 본다.	2009.07.15	
7코스 끝점에서 버스정류장 까지는 약 1km정도를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걸어나오시는 코스가 8코스 이기도 하니,8코스 시작하시는분은 버스정류장에서 굳이 시작점으로 안가셔도 될 듯합니다.	2009.07.19	남 2-30대
그런데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매번 중문까지 나와서 갈아 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나가는 택시도 별로 없었습니다. 참으로 곤란하였지요. 좀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시내버스 노선이 올레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08.21	
비가 와서 인지 인적이 너무 드물어 스산하기 까지 했지만 10분이 지나도 버스 안옵니다 전화를 해보니 거기서 서는게 아니라 마을버스정류장이라고 하네요. 쇠소깍에서도 그렇고 당연 코스가 끝나는 곳에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타는 택시였습니다.. 절대 택시 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20분을 기다려 택시를 타니 만원. 신발까지 젖어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슬리퍼도 사고 사우나로 갔습니다.. 오늘은 힘든 하루.. 색다른 경험이 즐겁기도 하지만 눈물 날 뻔 하기도 했지요..	2012.09.13	
올레 사이트의 8코스 가는 길 설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가는 저로서는 실례대로 컨벤션센터에서 택시를 탔으나 기사님이 월평포구를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어째든 찾아가 월평포구에서 8코스를 시작했는데 조금건다 도로쪽으로 나오니 제주에서 탔던 리무진 버스가 월평근처까지 오더군요...비싸게 돌아서 택시비를 7천원이나 사용했는데 버스를 보니 허탈합니다.조금 더 건다보니 8월 1일부터 버스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플랜카드가 보이더군요.....다시 한번 8코스 가는 교통편을 확인 하시어 다른 올레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9.09.15	



트레킹 코스와 대중교통과의 연결이 불편함 (계속)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우울한 날씨와 비로서 불어오는 제주의 바닷바람 4거리이고 주변에 사진으로 많이 봐왔던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던 파란색과 노란색이 보이질 않는다. 사람 한명 지나가지 않아 물어볼 수도 없는찰나 건너편에 조그만 파출소가 보여 그쪽으로 가보았다. 얽힌데얽힌격으로 순찰중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2009.12.19	여 20대
버스에서 내리면 14코스 시작점을 찾기가 힘들다. 마을회관을 오른쪽에 끼고 왼편에 저지오름이 보이도록 걸으면 맞게 가는 거다. 좀 걷다보면 나눔허브제약입구 뒷말이 보이니 그 곳에서부터는 올레표시가 있어 찾기 쉽다.	2009.12.19	여 20대
버스 노선을 보려고 노선표를 봅니다. 그 표를 들여다보는데 뭘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번호도 나와있지 않고 동네 이름과 시간만 나와있습니다. 종점에서 버스가 기다리는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건가요??' - 이런 멍청한 질문은 참 처음해봅니다. 학생도 뭘 모르겠다는 건지...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곳의 버스는 중문방향과 화순방향으로 딱 두 종류인데, 정류장마다 도착하는 시간이 첫차부터 막차까지 모두 한 도표에 나와있는겁니다. 그 곳이 대평이니까 대평라인에서 지금 시간에 탈수있는 버스가 몇 시 차이로, 목적지에 몇시에 도착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2009.10.06	
서귀포 시내 버스 연결 되는 코스를 올레길 코스에 표시 반대로 버스 정류장에 간단한 올레길 표시 그려야 외지 올레군들이 쉽게 이용 할것 같음(택시로만 이동 했을 택시 기사도 잘모르는 코스가 있음)	2009.12.17	남
일부 코스는 대중교통 연계가 아주 불편한 곳이 있다. 외지 사람이 걷고나서 지친 몸으로 물어물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나 자신도 13번 올레길을 걷고 나서 마을회관에 물어서 버스를 반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길 건너편에 차가 지나가 알고 보니 엉뚱한 방향에서 기다린 것이었다. 다음 버스는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판이니, 이걸 걷는 시간보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많게되지 않을까 싶다. 시작과 종점은 아예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식당이 있는 곳으로 조정하면 안될런지요.	2010.01.09	남
역시 올레길에 가장 큰 어려움은 교통편이었습니다. 요번에도 주로 택시로 시작점까지, 그리고 숙박지까지 콜 택시를 부르면서 다녔더니 비용이 만만치가 안더군요.. 일행이 여럿이면 그래도 나온데, 1~2명이면 많이 부담스럽고, 한적한 길에서는 약간 불안도 합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하루에 완주하면 그나마 낫지만, 체력이 약해서 또는 일몰로 코스 중간에 마쳐야 한다던가 하면 택시 아니면 이동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 제주올레가 주선을 하여서 서귀포시나 제주시 차원, 또는 주변 마을이 협력해서, 3~4개 구간을 묶어서 운행하는 셔틀을 시도해 봄이 어떨까요? 거창하게 멋진 버스보다는 실속있는 봉고차 정도면 운영 비용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한시간 단위로 미리 지정된 곳을 도는 것이죠. 비용을 꼭 공짜로 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 택시비가 거리에 따라 최소 1만원 ~ 2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3~5천원 정도여도 편찬을 것 같습니다. 콜 택시회사들에서는 이런 제안이 반갑지는 않겠지만요.. 이번에 가보니 처음 올레했던 2008년 8월말에 비해 친절하고 편리하게 해 놔줬네요..또 한번의 올레길 편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2010.02.07	남
어떤 버스기사 아저씨는 안덕 농협에서 내리라 하고, 어떤 분은 화순리에서 내리라 하십니다. 화순리에서 내려도 되긴 되지만, 화순리에서 내리면 올레10코스 시작 표시지점을 찾을수 없는것 같습니다. 아아 안덕농협쪽에서 내려오는길에 있나봐요.	2010.04.28	여 20대
참, 책에는 온평리에서 내리라고 되어있는데 '온평리' 전에 있는 '온평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야한단다.	2010.05.12	여 20대
친절하신 제주도민들 덕분(?)에 버스 엄청 기다렸다가 다 놓치고 결국 힘든 딸을 위해 택시타구 은하리관에 가서 짐찾아서 두번째 숙소인 중문의 스머프하우스로 왔습니다. 버스노선을 잘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정류장도 헛갈리게 되어 있고, 노선이며 시간이며 맞게 알려주신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2010.06.06	여 3~40대
부산에서 장장 11시간을 떠난 배는 새벽 6시 제주여객터미널에 도착. <중략> 단정 :제주여객터미널에는 올레 정보가 정확치 않음, 패스포토도 판매 안함, 버스터미널까지 이동도 불편함(버스가 많지 않음)	2010.06.09	
제주도 버스의 특징 <중략>교통카드 정보는 아래 첫번째 댓글에 정확히 기재 되어 있음.** - 동일주, 서일주 버스는 현 정거장 명칭만 방송됨. / 간혹 방송을 아예 안해 줄 때도 있음. - 필히 내려야 할 곳 명칭을 정확히 확인 후 기사님 뒷좌석에 바짝 붙어 앉아 수시로 물어봐야 함.(알아서 내려주시는 기사님들이 대다수지만 그냥 지나치는 기사님들도 있음...ㅠㅠ)	2010.06.09	
속으로 오는 길이 올레길 걷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2011.02.24	여
오고 갈때 버스 기다리고 탄 시간이 4시간 후~~~~ 10분을 버스타고 가기위해 2시간동안 버스를 기다리다 1.저지리 마을 회관 =숙소에서 나선지 3시간만에 길위에 서다	2011.02.28	여
자본에 딸아와 왔을때 버스를 타는데 많이 어려워서 이번에 장한 숙소는 사점 끝-논점牌坊해주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2011.06.09	여 4~50대
1코스부터 8코스까지 지나면서 느낀 것들 간단히 몇자 적어 봅니다. <중략> 코스보다도 이동수단인 버스노선과 가까운 곳에 숙소 정하기 (코스 걷기전에 버스타려다가 기운 다 빠지더라구요.택시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대중 코스 근처까지 버스로 이동하시고 코스 시작점까지 택시를 타시는 것이 비용이 절감 됩니다.)	2011.08.04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주 올레 Passport와 올레 가이드북을 샀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오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무사히 1코스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올레 가이드북은 너무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처음찾는 사람들도 무난하게 올레길을 여행할 수 있을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 단 한가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점까지의 버스소요시간이 없어 당황함	2012.03.15	
대중교통 이용 정보가 다소 모자란듯 하니 좀더 상세히 탑재하여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각 코스별 시작, 종점에 게시해 놓으면 더욱더 좋을 듯 합니다.	2012.06.09	남
비가 와서 인지 인적이 너무 드물어 스산하기 까지 했지만 10분이 지나도 버스 안옵니다. 전화를 해보니 거기서 서는게 아니라 마을버스정류장이라고 하네요.	2012.09.13	



2. 정서적 요인

1) 이용자의 특성

(1) 고통이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

올레길 표시도 놓치고 비암을 발견하고 오금이 저려 제대로 발걸음을 댄놓진 못하고 돌아오는 몸은 파김치같았지만 <중략> 마음이 돌아오면서 다시 오고프단 마음으로 여게 바뀌게 되었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2008.10.13	여
그 힘겨운 송악산 올레가, 어쩌면 우리 모녀에게 주는, "특별한 제주 올레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믿어봅니다.	2009.03.06	여 2~30대
육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내 의지는 칼로 같은 듯 번뜩이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분으로 충만하다. 혼자지만 기분도 우울하지 않다.	2009.05.04	남 40대
나는 그녀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 고생하세요. 라고 했던가. 좋은 시간 되세요. 라고 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올레길에선 고생도 행복이고, 좋은 시간도 행복이다. 행복을 찾아 이 길을 나선 건 아니었는데 돌아보니 모두가 행복이었다.	2009.05.23	
그래도 힘들었던 만큼 더 기억에 남는게 여행아닐까요	2009.09.19	남 30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편함 혹은 낯선이와 섞이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 선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오늘은 우연히 맞게 되는 불편함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9.12.29	남 30대
7코스 중간지점부터는 자갈밭이라 조금 걷기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기억에 더 남는 아이러니	2010.04.09	여 20대
이리저리 왔다갔다 길 위에 뿌린 시간과 돈이 좀 됩니다. 하지만 이나마두 즐기게 되는 것이 올레여행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2010.06.06	여 3~40대
더 편안한 올레를 하고자 하는건 분명하나..가끔 고생한 올레길을 걸은후 그 기억이 오래오래..그런후 다른 올레꾼들에게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그런 추억거리가 되는것도 나쁘진 않은것 같네요..	2012.05.16	남

(2)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음

사전 준비를 한 경우		
정말 이곳에 오기 전 곳자왈이란 단어는 처음 들어보았다. '비경의 숲' 이라는 데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인터넷을 뒤져 꽤 많다 싶은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고는 어서 가 봐야지, 생각했었다. 이제 나는 오늘의 하이라이프 곳자왈 입구에 와 있다.	2009.06.08	
올레길은 빨강+파랑 리본과(주로 나무에 매달려있음) 화살표와 간새(말처럼 생긴 조형물)로 안내됩니다. 올레길을 걷기전 미리 적어온 세부코스가 참으로 유용했습니다. 현재 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잔여코스를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2010.09.25	여 2~30대
그리고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미리 공부도 좀 해 가야겠죠. 저는 올레에 관련된 책만7권 읽고 떠났습니다.	2011.09.28	
올레길을 걷다보면 이녀석을 자주 만나게 된다...용도는 무엇일까???나는 행복하다... 사전에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욕만 했을터ㅋㅋ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 녀석은 소와 말 등의 출입을 막는 문이란 것을~~	2012.03.23	남 2~30대
사전준비를 했으나 필요 없다고 생각함		
가기전 제주올레의 두터운 책에 홈페이지에 올라온글을 프린트해갔지만 정작 나서선 글게 큰 도움은 못되었습니다. 여행은 그냥 여행처럼 떠나서 헤메이더라도 그 안에 또 다른 의미와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나 할까.	2008.10.13	여
제주올레를 할려고 했을 때 먹고 자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정보 검색도 하고, 자료도 나름대로 챙겨 왔다. 하지만 여기에 온 이후로 하나도 꺼내 보지 않았다. <중략> 따라서 제주올레에 오고 싶으면 별 준비없이 시도하면 될 일이다. 여행이란 어찌피 의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부딪치는 낯설음과 당혹스러움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2009.02.16	남 50대
사실 나 역시 제주도 가기 전에 느영나영에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체험에서 나온 사람들의 생생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버스편을 다 복사하고 간 짓은 부질없어서, 집에 와서 이면지로 쓰고 있다. 다만 조금은 눈에 익혀서 약간 빨리 이해한다는 것외엔 똑같다고 본다.	2010.05.10	여40대
아이들이 제주도가 처음이라 많이 보여주려고 동선 및 식당, 간식, 숙소까지 여기서 모두 공부하고 표를 만들었지만, 남편의 한 마디 <여유 있게 느끼자!> 모처럼 가는 거니까 좋은 것 보고 맛난 것 먹자구요. 울다구나~~~ 하고 즐겁게 다녔어요.	2011.01.05	여 40대



사전 준비없이 여행을 시작함		
최근 출간된 <놀먹 쉬멍 걸으멍, 제주걷기여행>이란 책을 시보고나서 바로 결행에 옮긴 것이다. (제주 올레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걸 모르고 나서서 길찾기에 고생을 좀 했다)	2008.10.07	남 40대
올레 표지판 앞 긴 의자에 앉아 올레 사무실에 전화해서, 11코스의 중간 정보를 얻는다. (공항에서 자료 구할 수 있다고 해서,인터넷에서 자료 준비 안했는데,	2008.12.28	남
어느날 문득 '제주 올레' 를 접하고 서점에서서 서명숙님 책한권 들고 2~3일씩 읽고 출발했더랬죠!!	2009.05.31	여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준비도 없이 무작정 나서서 출발부터 길을 읽고 우왕좌왕하던 우리를 생태문화체험학교 강영식 총장께서 잘 도와주셔서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 감사하였다.	2009.06.03	남
인터넷 예매 2분, 숙소예약 3분, 배낭 싸기 8분 씻고 옷 입고 현관까지 12분, 총 25분 기네스에 도전해도 될 실력이었다.	2009.06.08	여
올레지도도 없이 무작정 출발한 우린 화살표가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한동안 화살표를 찾느라 마음을 졸였다	2009.08.29	여 30대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간 것은 할망집 연락처가 적인 A4 프린트를 1장과 공항에서 얻은 10절의 올레지도가 전부였습니다.	2009.09.11	
지도 하나 없이 출발한 나였기에 어디로 가야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일단 가보자..길은 나온다는 생각으로 직감적으로 길을 향했다.	2009.12.19	여 20대
예약이라곤 누적 마일리지로 해결한 왕복 비행기 티켓만 달랑..집이라곤 개나리 봇짐으로 맨 배낭이 전부..숙식은 발길 머무는 곳에서 자고 먹기로.. 그야말로 샛갓 어른의 행차시다.	2010.01.16	남 30대
내일을 위하여 휴식을 하려면 잠자리를 찾아야지.. 식당주인에게 부탁한다.. 근처에 잘 아는 펜션 있으면 소개좀 해주이소! <중략>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어떻게 그렇게 느닷없이 갈수 있느냐....? 그것도 제주까지....?	2010.01.16	남 30대
어느 휴일날 아는 동생을 만나서 여행 얘기를 하던 중 "언니, 제주도 유채꽃이 그렇게 이쁘다대요" 그래? 그럼 가지 뭐 네. 우린 쿨한 여자들이니까요;;	2010.05.09	여 2~30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모든 코스를 다 가보리라 마음 먹은 바도 있어서 숙소에서 가까운 곳과 꼭 가보고 싶었던 올레길로 코스를 정했어요.	2010.08.25	남 30대
갑자기 가게된 여행이라 준비를 많이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준비안하고 가니까 더 많이 설레고 더 즐거웠던거 같아요.	2010.10.05	남 30대
그리고 여행전 너무 많은계획하면 떠나기전 지칩니다...여행은 이론보다 현지에서 접하는 정보가 훨씬 좋은 지식아됩니다..	2010.10.10	
갑자기 받은 일주일 휴가. <중략>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에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에 뱃지표 끊고 정말 아무 정보도 없이 다음날 새벽 떠났더랬지요 ㅎㅎ	2010.11.25	여 2~30대
결국 혼자 훌쩍 아무런 계획도 없이 떠나고 싶은 욕구가 불끈불끈 솟아 올랐다.<중략> 올해 연차가 3일뿐이 없으면서 당당하게 하루 휴가를 내고 3박 4일 일정으로 훌쩍 떠났다.	2011.01.25	남 30대
비수기라 숙소도 예약하지 않고 서쪽부터 제주일주를 하며 되는데로 들어가 묵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2011.02.13	남
제주로 정하고 나니깐 모든게 빨리 진행되더라구요, 장소를 땡하고 정하니깐 다음주로 바로 가재! <중략> 바로 항공예약하고, <중략> 숙박은 어차피.. 게스트하우스 이용할 생각이어서 예약을 하지 않았어요..	2011.03.24	여 2~30대
사전에 계획된 것도 지도도 없이 10코스 종점에 있는 한 게스트 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길은 통하게 되어있고 오다가다 올레꾼을 만날터인데 두려울게 뭐 있나 싶은 생각으로 무작정 제주도로 갔습니다.	2011.06.07	여 2~30대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 됐지만 동갑내기 남자사람 올레꾼은 숙소도 정한바 없고 저만큼 대책없이 왔지만 겁이 많은 친구인이라 제 숙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2011.06.07	여 2~30대
전 12일 장흥노력항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배편만 예약하고 가방하나 메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중략> (전 지도 제주도에 머가있는지 렌트카 숙박시설 아무것도 모르고왔음..ㅋㅋ)	2011.10.16	여 40대
여러분도 무계획,무대포,무렌트,무예약, 무작정 떠나보세요 다됩니다. 다해결되요 비행기,배편만 예약하시면 부딪히면 다 해결되는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2011.10.16	여 40대
미리 예정된 여행이 아닌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이라 아무 준비도 없이 제주도에 도착 했습니다.	2011.12.02	남 30대
저희 가족은 일찍이 갑자기 제주도 가게되서 숙소도 정하지 않은채 무작정 7코스를 돌아서요	2011.12.09	여 2~30대
이번 제주여행은 2011년 연말에 무작정 뱃지 티켓을 예약합니다. 나란 사람은 매사가 이렇게 무모합니다.	2012.03.15	여 20대



사건 준비 없었던 것을 후회함		
관심을 가지고 몇 구간을 지도를 보면서 검토해 보았더니, 얼핏보기에 바닷가로만 걷는 코스가 아니어서 그 코스들을 프린트할 생각을 접었는데 막상 걸으면서는 몹시 후회되는 점이였다. <중략> 산티아고 길의 조개 껍질처럼 길바닥과 담벽에 화살표를 그어 놓고 나무 가지 곳곳에 청황색의 리본을 매어 놓은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출발 전에 상세하게 정보를 출력하지 않았던 것이 내내 후회스러웠다.	2009.03.17	남
위에 숙소와 일정으로만 봐두 아시는 분들은 '저 아줌마가 일정과 숙소를 이상하게 잡았구나'하구 딱 감이 오실겁니다. 정말 준비없이 계획적이지 못한 일정은 고생을 안겨준답니다!	2010.06.06	여 3-40대
숙소가 올레14코스끝지점 근처라 14코스를 돌기로 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보니 비인기 코스인가보네요 ㅎㅎ. 얘기가 별로 없네요 <중략> 저처럼 아무준비없이 가셔서 고생하지시 마시구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2010.09.22	여 2-30대

(3) 즉흥적 결정이나 변경을 하는 경향

자발적 사례		
생각해 보면 혼자 하는 이 번 여행 도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미리 파악하지 못한 여러 이유로 인해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	2008.12.28	남
악국을 찾아 내려온다 파스 2통을 사고 발이 너무 아파 가까운 숙소를 정했다.	2009.01.18	여 30대
숙소는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자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였다. 걸어서 가면서 보이는 곳에서 먹고, 머무는 곳에서 잤다.	2009.02.16	남 50대
급히 2코스를 가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둘째날 3코스를 가고 내일 2코스를 가서 촉박한 비행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아예 버린셈 처럼 오늘 다시 비가 그쳐주시니 남은 시간동안 최선의 선택은 2코스라구!	2009.02.26	여 20대
천치연으로 이동중 외돌개가 가까이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하고 계획에 없던 외돌개에 들렀어요.	2009.04.08	
처음에는 올레의 시작점인 1코스만 가보고 와야지! 했지만, 책을 읽다 보다가 10코스로 가기로 맘을 바꿨습니다!!	2009.06.09	남
남은 시간을 우도에서 스쿠터나 타며 쉬고 싶었으나, 토요일이라 차들이 많이 대기한 것을 보고, 혹 복직대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그냥 2코스를 돌아보기로 하고 성산을 향해 출발 했습니다.	2009.12.29	남 30대
술기운에 의기투합하여 다음 일정을 4코스로 바꾸고 올레꾼과 동행을 하기로 했고	2009.12.29	남 30대
그리고 어제 친해진 00 누나와 함께 00형, 00 누나, 저 이렇게 3코스 여행을 시작합니다.	2009.06.09	남 20대
확실히 가고싶은 코스가 없거나 코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친구들이 가는 코스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구요 계획은 제주도에 가서 다른 올레꾼들의 말에 혹~ 할 때가 많으니까 가서 정하셔도 되요.	2010.03.25	
계획대로 10코스(가을에 좋네요..^)^가 아니고 그간 만난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하신 8코스를 역으로 걷기로 결정하고	2010.04.04	남 30대
8코스가려했는데 해병대길 통제 되었다해서 변경한 6코스입니다..	2010.08.30	남 2-30대
공항 안내데스크 올레 안내자께서 2코스를 강력 추천하는 바람에, 그냥 따르기로 했지요. 별 대안이나 카드가 있었던 게 아니었으므로.	2010.08.31	
우도가산다는 분들과 내일 같이 가기로 하고	2010.09.24	여 2-30대
점점 심해지는 눈발과 해안길이 이어지지 않아 다시 차를 타고...<중략> 날씨 때문에 일정을 바꿔	2011.02.13	남 3-40대
술마시면서 만난 언니들이랑 맘이 맞아서,, 다음날 일정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2011.04.24	여 20대
저는 원래 마라도를 갈 계획이었고, 어제 동행했던 언니들은 서울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마라도 가고싶다고 노래를 하는 언니들을 껴서 ㅋㅋ 비행기 시간을 늦추게 하고, 같이 마라도로 떠났습니다.	2011.04.24	여 20대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해서 해안도로 코스가 있는 올레 10코스로 급변경했어요...	2011.07.26	여 2-30대
14-1코스를 걷고 싶었는데 무릉2리에서 숙박하기 여의치 않았고,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돌기가 싫어서 12코스로 발길을 돌렸어요	2011.10.11	남 30대
식당아주머니께서 섬지코지를 추천해서 얼떨결에 일출봉에서 섬지코지까지 1시간30분가량 걸어서 갑니다.	2011.10.16	여 40대
원래는 산굼부리랑 사려니 숲길은 계획없이 둘째날은 우도에 올인할 예정인데 사려니 숲길이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게스트하우스 밑에 침대 분이 ㅋㅋ) 혹해서 급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2012.06.22	여 2-30대
비자발적 사례		
(생각해 보면 혼자 하는 이 번 여행 도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미리 파악하지 못한 여러 이유로 인해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	2008.12.28	남
8코스가려했는데 해병대길 통제 되었다해서 변경한 6코스입니다..	2010.08.30	남 2-30대
멀리 보이던 표선 사인빌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심해지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눈발과 해안길이 이어지지 않아 다시 차를 타고... <중략> 날씨 때문에 일정을 바꿔...	2011.02.13	남 3-40대



코스예에 대해 미리 알고 싶지 않음		
선택한 코스는 11코스였습니다. 이유는 정보가 제일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곳자알 코스 외에는 ...그냥 신비에 싸인 코스같았지요...	2009.06.22	
제주 올레를 잘 모르는 분이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분들과 그 아름다운 길의 경험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주올레를 곧 걸을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코스별 여행기가 상세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2009.09.15	
여행이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 즐거움....	2010.01.08	남20대

(4) 여행과 관광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제주도에 서너 번 왔지만 관광지 위주로 돌다가서 제주도를 잘 알지 못했다. 이번 올레길을 따라 제주도 남쪽의 마을과 바다, 산길을 걷고, 만나는 제주도 사람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눠 봄으로써 제주도를 깊이 안 것 같았다.	2009.02.16	남 50대
자랑질은 아니지만, 저는 제주도를 23살 대학졸업여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번도 넘게 왔더랍니다. 제주 올레를 하면서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온것은, 분명 두어번씩 왔던 곳인데, 처음 본 풍경들 일색이었다는 겁니다.<중략> 과거의 그 '어좁잡은 여행자'는, 이제 '제주 올레'를 통해, 세상의 모든것들을 온 마음으로 구경할수 있는 '지혜로운 여행자'가 되었음을 감사해합니다.	2009.03.06	여 2~30대
그동안 제주도 인심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이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친절하고 정이 많았음. 아마 관광과 여행의 차이.	2009.03.17	남
'그래, 올레는 관광길이 아니잖아.. 멋지고 좋은 것만 볼 순 없지. 있는 그대로 보자'	2009.04.04	
이번 올레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여행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9.04.28	여
꿈에도 그리던 나홀로 제주도 여행~올레가 아니었다면 사실 아직도 꿈만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즐겨보던 1박2일에서 올레를 접하게되고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도 걸어봐야지..하던 바람은 올레홀피를 드나들며 올레 체험을 위해 꼭 제주도를 가리라!로 주객이 전도하기에 이르렀다.	2009.05.01	
차라리 굶자 마음 먹고 다시 나와 길을 걷는데 S-님이 방금 들렀던 식당이 '100% 관광객 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한다.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제주도 음식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다는 말도 덧붙여, 관광지에 관광객용 식당이 따로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2009.05.05	남
사실 전 5월초에 다녀왔는데 올레길은 알지도 못했고 관광지만 있는줄 알았답니다...ㅠ.ㅠ	2009.05.13	
지금까지 걸었던 올레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외톨개에서 본다. 2~3번 나도 저들처럼 관광객이 되어 이곳을 들렀는데 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대체 나는 과거에 뭘 보았던 걸까? 아무 것도 모르겠다. <중략> 하지만 지금 걷는 이 길이 오래도록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임은 확실하다.	2009.05.16	
화장실을 다녀와서 학교를 나오려는데...아~~정말 유명한 관광지에서나 볼수 있는 풍경... 학교앞에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고 우루루~~관광객이 쏟아져 나와서 학교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거~~기념 사진 찍조~~	2009.05.19	여 40대
참고로 저 작년에 제주도 관광했던사람입니다. 아실거예요 그 수많은 바가지와 각종 랜들들ㅎㅎ 제주도에 대해 좋은 기억도 추억도 그리 없었습니다.	2009.05.31	여
언젠가 제가 패키지로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음식 투정하지 말고, 잠자리 투정하지 말고, 날씨 투정하지 말라고, 그게 제주도라고. 하긴 어느 관광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제가 알던 제주도는 관광지였습니다. 관광은 곧 상업성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상업성에 빠져있던 제주도를 건너면 게 올레입니다.	2009.08.06	
올레 덕분에 이루어진 제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제 몸으로 걷지 않으면 올레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앞으로도 올레가 관광 상품화되고, 상업성에 물들 가능성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방파제가 될 겁니다.	2009.08.06	
패키지 여행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제주의 구석구석 잔재미를 발견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음번 여행을 다시 기약하며~~	2010.04.06	여 40대
그동안 제주도로 여행오면 호텔이나 콘도에 머물면서 렌터카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구 좋았는데 올레여행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제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010.06.06	여 3~40대
힘든 길이었지만, 정말 좋기도 했어요. 제주도를 관광지가 아닌 일상생활로 좀더 가깝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2010.07.31	여 20대
오름이 2개나 있었는데 처음 오름 오를때 너무 힘들어'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관광이나 할걸~ㅜㅜ'...하지만 오름을 오르고 위에서 본 풍경이란 정말 가슴이 뻥 ~ 뚫렸습니다..	2010.09.23	여 20대
제주도 패키지 등으로 몇번 가봤는데 왜 좋다는건지 이해 못했는데 요번 올레길 투어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해외여행 갈 필요 없을듯 해요.	2010.09.26	여 2~30대



제주도를 가서 제가 많이 느낀거는 모든 관광지에 거품이 너무 심하게 붙어있는거 같습니다.... <중략> 다만 올레길만 좋았습니다....	2011.01.30	남 2-30대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제주올레길을 여행사 패키지로 가다니.. 어리석었습니다. <중략> 이번 여행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제주 올레는 굳이 여행을 통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략> 이번 실수를 경험삼아 다음에는 정말 자유로운 올레 체험을 해야 겠습니다.	2009.11.14	
제주도가 원래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치만 올레꾼들에게 좋은건 관광요금 안 든다는거 아닐까요?^^	2010.03.25	
내 머리속에는 제주라는 곳은 신혼여행지..아니면 그냥 관광지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나에게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줄지 몰랐다는...	2011.11.14	남
올레길도 전부터 아스팔트 와 너무길어서 지루함. 곳곳이 맛집 부족현상, 올레길안내 리본과 화살표 재배 없음, 기타등등 개선점이 너무많은 이번 올레길 체험이어서 이렇게 올레지기분께 글을 남깁니다. [덧글] 올레는 올레입니다. 관광이 아니지요. 미리 살펴보고 검색해 보시고 도시락을 준비할지 식당에서 먹을지 생각을 하고 준비하셨다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2.04.03	

(5) 재방문 의도 및 방문 추천

재방문 의도를 가짐		
저도 다시 옵니다. 계획했던 코스의 반 (2,3,4)만 하고 갔지만,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시 올 거니까요 ㅎㅎ	2008.09.21	여
내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한 두 가지를 빼면 대부분 올레길에 만족했다. 또 올레길을 찾을 것이다. 이번 여름 제주도에 올 일이 있는데 그 땐 내 마음에 들었던 몇 코스를 천천히 걸어볼 작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10코스 이상을 다시 개발한다고 하던데 그 길들이 다 완성되면, 그 길도 한 번에 모두 걸을 작정이다.	2009.02.16	남 50대
올레길 모든코스 정복을 위해서 체력도 많이 길러야겠더군요 ㅠ ㅋ (2월달부터인가부터 올레길 인증서인가 발급된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2010.01.02	
다음번에도 제주도 찾을예정인데 그때는 요셉에서 2 3 4 코스를 돌생각입니다	2010.01.02	
오늘도 우리는 다음엔 1코스 부터 차례대로 해보자고 의견일치를 보고....그때가 또 언젠지는 몰라도 무작정 떠날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고대해 본다.	2010.01.16	남 30대
패키지 여행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제주의 구석구석 잔재미를 발견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음번 여행을 다시 기약하며~~	2010.04.06	여 40대
지금 열심히 치맛고 다 나오면 5월에 가서 전 코스를 다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요.	2010.04.23	여 20대
올레여행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제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나머지 코스들도 조만간 다시 걸으려 갑니다.	2010.06.06	여 3-40대
올레길. 참 멋진것이구나. 다음엔 올레길을 걸을 준비를 하고 와야겠어요.	2010.07.31	여 20대
와우~버르고 버려던 제주여행 ..미친듯 올레를 걸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서 또 가려구요.. 다음엔 8코스 부터...	2010.09.23	여 20대
이제와 생각해보면 왜 갈까말까 고민을 했었는지..다음엔 비수기에 또 가야겠어요~~ㅎㅎㅎ	2010.09.24	여 2-30대
올레 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레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귀에 파도소리가 나는 듯하고 당장이라도 의자를 박차고 나가 올레길로 떠나고 싶은 충동을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내가 그 올레 페인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크흑~ 다시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2010.09.29	여 3-40대
어떤목적이든 적어도 화색빛 세상에 살고있는 도시인들에게 잠시나마 새로운 세상을 만날수있는 천국이였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억지로라도 올레안에 경제적 여유가 되는한 두세번 더 갈예정입니다. 깊은가을에 잠긴 제주와 눈내린겨울 제주올레는 어떤경험이 될지 또 설레입니다....좋은 추억 만드시길.....끝...	2010.10.10	
비교적 짧은 여행이라,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던 것들도 많았는데 기대할 수 있는 '다음' 이 있어서 더 설레고, 좋았다. 기대된다!	2011.02.20	여 20대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맛난 음식도 먹고 제주도 여행할때보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참 좋았던거 같네요^^ 10월의 제주도를 기약합니다.	2011.04.04	여 2-30대
벌써부터 다음 제주에 올 기회가 된다면 어떤 길을 또 걸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신기할 따름이다.	2011.08.28	여 2-30대
올레길 정말 꼭!!! 다 ~~ 가보고 싶어요~	2011.09.10	여 2-30대
제주올레13코스 총 거리 16.4Km 중 9.6Km를 왔네요.. 나머지 길은 다음 3월에 다시 걸어 볼랍니다.	2011.11.16	여 20대



방문을 추천함		
혼자서 고민하거나 슬프거나 외로우신분들 올레길을 무작정 걸어보세요. 여자 혼자라고 고민하신다면 걱정 마시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오히려 혼자라서 행복한 여행이 될테니까요.....	2009.05.07	여 30대
혼자 여행이 어색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출발하세요!! 제주공항으로!! 35000원이면 출발합니다!!^^	2009.06.09	남
제주도 올레 넘넘 가고 싶은데시간이 없다는 분들, 돈이 없다는 분들, 혼자라서 무섭다는 분들, 저질체질이라는 분들,모두 모두 걱정말고 떠나보세요 ^o^	2010.04.09	여 20대
생전처음하는 혼자여행이라 많이 망설이고, 걱정도 하고 했다. 하지만 올레는 혼자 할것을 강추한다. 길에서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와와 만남이 있다.	2010.04.12	여 50대
여행 시작전 걱정이 앞서면 금물 의외로 올레를 저처럼 혼자 오신분들이 엄청많더군요(놀랐음)	2010.10.10	
혹시 제 글을 보시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일단 떠나면 길이 안내해 줄 겁니다. 부디 길에서 머물러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인사하시며 놀멍 쉬멍 걸으멍 하시기 바랍니다.	2011.05.31	
코스예의 충성도 형성		
나는 요즘 올레 홍보활동을 하고다닌다.회사에서의 회의시간에도 올레이야기를하다 시간다보낸다. 당장 떠나라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있다. 올레를 걷지않고서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닌다. 이러다 올레패인이 되겠다싶다. 그래도 좋다. 내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제주에게 무한한 사랑을 줄것이다. 올레길을 열어준 모든이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고맙습니다. 올레를 더욱사랑할겁니다.	2009.08.16	남 40대
올레길이 생기기 전에 제주도에 왔다갈 때 손에 제주감귤과 초콜렛을 들고 갔는데 올레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올레 기념품인 버프와 손수건을 사게된다. 주위사람들이 제주도와 올레길 홍보대사로 임명장을 주어야한다고 농담을 하면 나는 너무기쁘고 행복하다.	2011.03.28	여
타 코스에 의한 방문 동기 부여		
camino de santiago는 먼 훗날의 약속으로 남겨두고 우선 우리땅 제주 부터 걷자 싶어 언니네 팀에 열렬에 끼어 다녀왔어요	2009.05.03	여
산티아고를 주문처럼 외워대는 딸아이를 보며 속으로 그래...너는 젊어 좋겠다..나에게야 가당키나 한 얘기나 하고 있는데 바람결에 들려오는 제주올레의 이런저런 얘기들..... 책도 구해서 읽고, 올레홈에도 들락거려다가 일을 저질러버렸다~~~~	2009.06.27	여 50대
이제 엄마보고 제주도 올레길 한 번 가자고 해야겠다. (둘레길)	2011.10.12	여 10대

2) 웨이파인딩 과정 관련

(1) 사인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호평		
저는 8코스에서 시작했는데, 노란색과 파란색 리본이 달린 표지를 보며 걷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후에 파란 리본만 있을 때보다 인식이 수월했습니다.	2008.08.31	여
견다보면 수도 없이 만나는 화살표와 리본은 단지 길 안내만 하는 것은 아니다. 투박스러운 이 표지들은 주변 경관과 어울려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것 자체가 볼거리이고 눈요기로, 걷는 길을 즐겁게 하는 길동무가 된다.	2010.02	남 50대
구멍 송송 뚫린 검은 돌, 현무암의 올레 화살표,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아이디어가 좋다.	2010.11.11	여 2-30대
말이 놀라지 않도록 큰소리 내지 말고 뛰지도 말아야 하구요....문을 파란색 간세로 만들어 놔서 기분도 좋고 보기도 좋고 사용하는데 재미도 있었습니다. ^^	2011.07.15	여 20대
사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함		
대평포구에서 걱정반,설레이는 마음으로 올레길을 걸으니 과도하다 싶을 만큼 친절한 올레 표시로 이런곳에도 길이 있을까 싶었지만 올레길에 대한 믿음으로 전혀 어려움없이 조곤 다리 위로 올랐다	2008.09.23	
늘 나를 이끄는 등대 나를 일으키는 힘 파란색 화살표 역쉬~ 마이 반갑구나	2008.12.08	남 2-30대
그러다 보니 올레는 나에게 표식을 찾는 quest가 되었다. 잠시라도 표식을 놓치게 되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고 안내하는 제주 렌터카의 네이게이션 같은 음성이 내 귓가를 스쳐가는 것 같았다.	2008.12.13	
내려가는 길은 숲속의 나무 사이 사이를 헤집고 나오는 길이다. (길은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이런데 일수록 올레 표시 리본이 충실하다)	2008.12.28	남
올레 초행자이니 꽤 긴장되더라구요. 파란 화살표를 잃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걸었지요. 파란 화살표만 신경 쓰다가 느리게 걷기 쉬며 걷기는 잘 하라? 싶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사를 올레 여정 내내 이 화살표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2009.01.28	여 3-40대



사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함 (계속)		
시흥 초등학교 주변의 출발점으로 이동해서 신발끈 조여매고 말미오름으로 길을 접어들었다. 파란 화살표와 파랑과 노란 올레표시들이 보이니 혼자라도 힘이 난다. Good start~	2009.04.04	
친절한 '파란색 화살표'가 손양을 이끄는 한, 손양은 어디에서도 두렵지 않은가봅니다.	2009.04.13	
직선으로 왔던 길을 여기서 부드럽게 한바퀴 돌려주신다. 여성이 만든 올레길이라 그런가? 시킨대로 부드럽게 돈다.	2009.04.14	
올레화살표를 믿고 가자.	2009.04.14	
길은 호젓하고, 나트막한 언덕길이고 화살표 또한 확실하다	2009.04.25	
이 푸른색 화살표가 앞으로 며칠간 내게 가야할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2009.05.04	남 40대
가는곳마다 화살표로 길 안내를 친절히 표시해주어서 저같은 방향치 길치인사람도 길 안 헛갈리고 다닐수 있습니다.	2009.06.04	
길 건너 기둥에 있는 화살표를 확인한 후 안심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2009.06.08	
우리가 가야하는 그 코스코스에는 그 석구석 파란 화살표가 있었고 약간 망설일만한 코스에는 어김없이 나무에 파란노란리본이 매달려있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표가 있었다면 아마도 실패는 없으려만...	2009.06.23	
처음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불안했지만 친절하게도 나타나주는 올레화살표와 리본들.. 마음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오로지 걷기에 빠져버린다.	2009.06.27	여 4~50대
친절한 화살표 따라 마을길 따라 경치에 취해서 쉬멍놀멍 걷다보니 힘든것도 모르고 어느새 도산횃집에 도착했어요~	2009.08.07	여
서울에 와서도 눈에 아른 거리는 파란 리본과 노란 리본,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 길을 잃을 뻔 할때마다 어찌나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주는지 새삼스레 서명숙 님을 비롯한 제주올레 종사자분들께 감사한 맘이 들었던 정말 보배롭고 축복 가득했던 휴가였습니다.	2009.08.10	
중요한 요소요소마다 표식이 있었고 꼼꼼하게 화살표가 있어서 이길이 맞아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어김없이 저 멀리 리본이나 화살표가 보입니다.	2009.10.06	
파란색 페인트나 파란리본? 으로 길의방향표시가 잘되어있기때문에 헤맬일은 없을거같았다.	2009.12.30	남 30대
오늘 하루 꼬박 6시간을 걸었다. 처음에는 코스를 어떻게 찾을까 염려아닌 염려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표식들이 요소요소로 화살표로, 두색 리본으로, 안내판으로 인도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앞선분들의 수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2010.02.10	남
사실 아예 화살표나 올레 끈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만 하면 제앞에 끈이 하나씩 보이더라구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다보니까 이제 조금 자신이 생기더라구요	2010.02.21	남
파란 화살표와 빨강&파랑 리본은, 올레꾼들이 바른 방향으로 걸을 수 있는 지표역할을 해주었다.	2011.02.07	여 20대
가는 곳곳 표지판이 잘되어 길일을 염려도 없더라구요.	2011.06.21	
안내문에 있듯이 곳자왈에서는 전화가 정말 안터집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도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리본을 잘 따라가세요.	2011.08.20	
이것 보세요~ 간세는 확실히 앞으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깨달았습니다. '화살표를 믿자' 말보다 그걸 믿어보자~ 하는 걸 말이죠	2011.10.19	여 2~30대
제가 길치라 두려움도 있었지만 표식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무리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1.12.02	남 30대
사인에 대하여 반가움을 느낌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번 길을 잃고 해마다 파란 화살표(사인)를 발견했을때의 기쁨이 더 크긴 했지만	2008.10.16	남 4~50대
가는길마다 만나는 파란 화랑화살표, 파란 노랑색리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화살표를 그린분이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2008.11.02	여 60대
찾길을 따라 얼마를 갔을까? 왼편의 작은 길로 접어드는 아스팔트 길 바닥에 선명한 고딕체 안내 글씨와 올레 화살표가!!!!(눈물나게 감동)	2008.12.28	남
독 위로 나오니 작은 소나무 가지들 위에 파란색/노란색 한 쌍의 올레 리본이 있다!!! 얼마 만에 보는 올레 안내 리본이던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2008.12.28	남
화살표를 놓쳤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독자봉부터 제대로 길을 잡았다. 독자봉을 내려오면서 떨어져 있는 나무 가지에 칠해진 파랑 색깔을 보았다. 어쨌든 파랑은 희망이고 안도의 색깔이었다.	2009.02.16	남 50대
갑자기 벽에 파랑화살표가 보이지 않는가.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마치 복잡한 시장터에서 엄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이의 심정이었다.	2009.02.16	남 50대
큰 길로 나오니 도로 옆 담벼락에 파란 색 제주올레 화살표가 친근하게 우리를 반겨준다.	2009.03.03	남



사인에 대하여 반가움을 느낌 (계속)		
홈피에서 읽었던 낯익은 파란색 화살표와 노란색 끈도 정겹게 들어온다. 오래전부터 이 길을 걸어왔음직한 느낌이 든다.	2009.03.04	여
급경사의 산경사변 돌맹이 하나에, 여지없이 그려진 "파란 네비게이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쭈욱 쭈욱 올라오시오라고 말하고 있네요.	2009.03.06	여 2-30대
해안도 걷고 그러다가 보니까 화살표랑 리본들이 반기더군요-ㅋ 알고보니 올레길이었던거죠	2009.03.26	여 2-30대
어제 본 외톨개 표지판만큼 반갑고 사랑스럽고 친근했다. 이히..	2009.03.28	여
한 5분 올라가니 파란색 화살표 내가 처음만나는 파란색 화살표다. 반가와 찰칵!	2009.04.25	
처음으로 만난 리본은 믿음직한 어릴적 동무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뻐다. 이후로는 올레표시를 만나는 기쁨에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다.	2009.05.01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두리번거리다보니 반가운 표지하나	2009.08.12	여 20대
위기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하늘색 표식!!	2009.08.12	여 20대
햇갈리는 분이 많았던 곳이었는지...화살표가 이렇게...길을 가면 갈 수록 어찌나 반가운 녀석인지...	2009.08.12	여 20대
중간 중간 헤매일것 같은 곳에서 파란 화살표를 발견할 즈음엔 어찌나 기쁜 맘이 들던지요... 파란화살표가 이젠 좋은 친구가 되버린 듯...정말 반가운 맘이 들지요...	2009.09.25	
올레표지를 보자 외락 반가운 마음이 든다. 이틀동안 무척 그리워 했나 보다.	2010.04.12	여 50대
내 맘대로 길을 만들어 가던 중 다시 만난 올레리본.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만난듯 반갑다. ㅎㅎ	2010.11.11	여
안덕농협에 하차하여 약 10분가량 걸으시면 시작점입니다. 10코스 시작지점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귀여운 간세 >_<	2010.11.12	여 20대
이렇게 말도안되는 바위길에 보이는 반가운 올레표시!	2010.11.26	여 3-40대
시골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돌담을 손으로 더듬거리며 다시 해안가로 나가니 예의 그 반가운 파란 화살표와 빨강&파랑 리본이 보였다. 올레!!	2011.02.07	여 20대
도대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과 좌절이 들 때에 이 리본이 너무나 반갑게 바람에 펄럭거리고 있던 것이다!	2011.02.20	여 20대
올레길 초보자이면 누구나 경험했을 올레표시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도 보고 돌아 돌아~ 올레표시를 만나면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처럼 반가움과 안도감을 느껴보기도 했어요.	2011.05.09	
간세문이 정말 반갑게 느껴지네요. 반갑다! 간세야!+_+	2011.08.20	남
간세는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행지 정보도 보여줍니다. 아.. 너무 귀엽지요?	2011.10.19	여 2-30대
올레걷는동안..젤반가운녀석...ㅋㅋㅋ 한참가다보면 이따금씩 나와서 길을 알려주죠	2011.12.09	여 2-30대
올레길 표시가 하늘색 작고 탐스런 화살표표시가 보입니다.	2012.03.15	여 20대
사인을 의인화할 만큼 친근감을 느낌		
"엄마..양쪽에 파란 네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멋지지 않아요?"하더니, 손양은 금새 작아진 모습으로 총총 앞서 갑니다. 그러고보니, 지금까지 좌청룡 우백호의 '양쪽 신호'는 이것이 처음이지 싶네요, 참으로 친절한 '길 안 내자'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2009.03.08	여 3-40대
어제 본 올레 표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날 보며 방긋 웃고 있었다. 정말로...	2009.03.31	여
돌아가란다. 다 보고 느꼈으면 돌아가란다. 화살표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될까? 제주올레 화살표에는 무언가 거부하지 못할 위엄이 있다. 걸어보면 안다. 절대 거부 못한다는 것을..	2009.04.14	
올레표시는 마치 돌아가신 나의 엄마의 목소리처럼 나를 지키며 부르고 있다. 걱정 말라고 어서 어서 천천히 내게로 오라고 짙은 눈물이 난다.	2009.04.25	
숲속에 오니 내 귀와 눈이 바쁘다. 그 어디에서 보다 곳자왓 숲속에는 리본은 많이 매달려 있다. 완전 리본 밭이다. 리본은 안심하라고 속삭여 준다.	2009.06.08	
파란 화살표가 보일 때마다. 조금만 더 가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속삭이듯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노랑파랑 리본이 영차영차 줄달리기 깃발을 흔들 듯 내 몸을 앞으로 앞으로 끌어주는 듯 하였다.	2009.07.14	여
오히려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은 길입니다. 혼자 걷지만 길을 안내해 주는 친절한 화살표와 살짝 반겨 손 흔들어 주는 리본이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기 때문입니다.	2009.08.05	
해안가 바위를 타고 넘는 길, 나침반은 파란색 화살표와 파란, 노랑색 리본이다. 갈림길마다 어김없이 나침반이 나타난다. 올레 길을 발굴한 그녀와 그 길을 처음 걷는 내가 나침반으로 대화를 나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하죠?' 라고 물으면 '잠시만 둘러봐요,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안내에 몸을 맡기고 한걸음씩 발을 옮긴다.	2009.09.15	



사인을 의인화할 만큼 친근감을 느낌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화살표와 파란/노란색 리본이 저만치서 지친 저를 어서오라고 손짓하며 반겨줄때 마다 세속에서 지친영혼들이 탄식하게 살피워 갈수 있도록 올레의길을 만든손길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그들 을 위한 기도의 손길을 늦출수가 없었습니다	2009.10.28	여 50대
이곳 제주에서 잊지 못할 벚을 만났다. 바로 올레 표시다. 수줍은듯, 장난치듯 살그머니 숨어있는 화살표, 혹은 리본, 나타날때가 됐는데 싫어 두리번거리면 어김없이 바위위, 혹은 전봇대위, 혹은 나뭇가지 사이에 모습을 나타내는 나의 벚. 당당한 모습이 아니어서 좋다. 그래서 끝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지혜. 다른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다가는 어김없이 놓치고 마는 수줍은 나의 벚. 나의 인생에 올레의 표지처럼 나에게 걸길을 조용히 일러주는 존재가 있었는가. 잘못 길을 들어도 그자리에서 큰소리 한번 안내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존재. 나는 가족에게, 벚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본적이 있었을까.	2010.04.12	여 50대
파란색화살표, 리본, 간세, 갈색바탕의 현무암 색깔의 옷을 입고 하얀 면사포를 쓴 표지판은 더더욱 나를 신명나게 한다.	2010.06.18	여 40대
10코스 시작점. 간세를 처음봤다. 흥흥. 너 귀여운 아이구나	2010.10.14	여 20대
올레를 걷다 보면 군데 군데 반갑게 나를 반겨주던 간세... 녀석...참 멋진 곳에 멋진 포즈로 자리잡았구나	2010.08.25	
제주올레길을 만들고 관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반기는 올레 뿐만 아니라 웃음짓는 간세가, 나뭇거리리는 리본이, 길바닥에,돌담에,바위에 앙증맞은 화살표가, 갈림길의 나무화살표가 기다리고 반기고 인사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제주올레를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제주올레를 즐겁게 보았습니다. 제주올레를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0.11.13	남
통오름 가는 길에 만난~ 예쁜 간세~ 간순아~ 리본을 참 예쁘게도 매어 놓셨어요~^^	2011.12.22	여 2~30대
또다른 길동무 발견...매서운 바람에 칭칭 감겨 있던 녀석을 풀어주었더니, 자유로이 춤을 추다, 저희끼리 찹떡 공합이 되어 나보고는 빨리 가라네^^	2012.03.23	남 2~30대
홀로 떠나는 기행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요녀석들^^ 블러그나 카페에서 배울 수 없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냥 지나치시들 마시라고요...	2012.03.23	남 2~30대
오름 지나면서부터 길이 좀 험갈렸는데요 멍때리다 길잃어버릴만 하면 요 '간세' 놈이 갈켜 주네용ㅋㅋ	2012.06.22	여 2~30대
사인을 찾는 것을 재미나 즐거움으로 느낌		
표식을 찾는 즐거움과 긴장감이 올레에 언제나 남아 있으면 좋으련만 올레꾼이 늘면 기대하기 힘들 지 않을까 염려된다.	2008.12.13	
우리아들은 파란 화살표 찾는 재미에 완전...올레에 폭 빠졌어요..자기주도형 여행이라고 할까... 스스로 파란화살표 찾아가는 길이라 넘 좋아하거라고요..	2008.12.10	여 30대
본격적으로 걷고 걷고 파~아~란 화살표를 찾으면서 ㅋㅋ 초등학교때 보물 찾기 하듯이 파란 화살표를 찾으면서 걸었다.	2009.01.18	여 30대
곳곳에 때론 크게 때론 자연에 누가 될까 자그마하게 표시된 이 이정표를 찾는데 올레길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았거든요. 그리고 보물 찾기 같았어요.	2009.05.03	여
이젠 보물찾기처럼 느껴지는 우리 보물의 사인입니다. 문득하니 만나면 반갑고 생기도는 표식...	2009.05.25	
출발부터 도착까지 나무에 맨 2색 리본, 파란색 화살표 →와 것발 을 따라 걷는 길은 미로 게임같기도 했다.	2009.06.03	남
그 파란 구원의 화살표를 보면서 걸어가는 재미만 해보지않으며 알수없으리라...	2009.06.23	
올레 코스의 묘미는.. 멋진 경치와... 풍경도 있지만... 화살표와.. 리본 찾는것도.. 나름 쟁었다는.. ㅎㅎ	2009.08.25	
길을 잃을 땀할 때마다 "용용 죽겠지, 나를 찾아봐" 라고 하는 듯 불쑥 출몰하는 파란 화살표! 피식 웃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면서 팍팍한 다리의 피로를 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이한 화살표들을 만나면 카메라에 쥘이는 수고는 필수다. 나도 많이 찍었다.	2010.02	남 50대
중반에 바다로 합쳐지는 폭이 작은 민물을 건너도록 인도해놓은 올레길 표시에 웃음을 머금으며 맨발로 건너고... 또 건너며 다리도 씻고 쉬엄쉬엄 진행하고...	2010.07.17	남 2~30대
양어장을 지나 숲으로 길이 이어졌다. 나뭇가지가 덮여 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 나뭇가지에 올레 표시 리본이 매달려 있다. "비밀의 숲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헤치며 아이는 '비밀의 숲'으로 흥분하며 들어갔다.	2010.07	여 40대
올레를 걸을 때 올레 표시를 찾는 즐거움은 참크다. 지금은 한 기업체에서 만들어준 간세 상징물이 서 있지만 그것보다 더 반갑고 좋은 것은 화살표 표시와 파란리본과 노란리본이 펼쳐지는 모습. 길은 어디와도 통하므로 올레 표시가 없는 길을 걷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올레 표시가 있는 길은 이미 선택받은 아름다운 길이다.	2010.07	여 40대
또 저 바닥에도 보이죠??? 가끔씩 어떤 지점은 저거 은밀한 곳에 그려놓았더군요...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꼭꼭 가려진 곳에 그려놓았쥬. 저 표시 찾는 것도 나름 재미가 쏠쏠^^	2011.03.23	여



사인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현함		
어떤 분이 이 길을 다 일일히 걸으시면서, 파란색 화살표를 손수 다 하셨는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밥이라도 언제 한번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ㅎㅎ 제가 찍은 어설픈 사진 속에 파란색 화살표가 꽤 나옵니다. 나무로 된 길에서도, 아무도 없는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올레꾼님들을 환영합니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도, 길위에서 만나는 파란색 화살표는 정말 반갑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2008.09.21	
길에서 리본이나 화살표를 발견했을때의 고마움이란... 진짜 내 앞에서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주고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리본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2008.09.22	여
사람들 모습처럼 저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그려진 화살표를 보면서, 그 화살표를 그린 분들께 몹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레 길을 닦고 가꿔 가시는 분들께도 말입니다.	2009.01.27	여 30대
이 간새와 올레길을 알리는 파랑고 누런 리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2010.09.17	남 30대
올레길을 많이 가본 저지만 꽃자왈은 정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리본하나에 감사하게 만들어주니까요~	2011.08.20	
골목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올레길을 알리는 올레리본이 반갑게 마중을 나온다.. 올레꾼들에게 올레리본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올레도우미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다.	2011.11.16	여 20대
사인 및 사인의 관리상태가 관리주체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 이어짐		
어떤 분이 이 길을 다 일일히 걸으시면서, 파란색 화살표를 손수 다 하셨는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밥이라도 언제 한번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2008.09.21	
가는길마다 만나는 파란 화랑화살표, 파란 노랑색리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화살표를 그린분이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2008.11.02	여 60대
사람들 모습처럼 저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그려진 화살표를 보면서, 그 화살표를 그린 분들께 몹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레 길을 닦고 가꿔 가시는 분들께도 말입니다.	2009.01.27	여 30대
그 수많은 감동의 시간들때문인지 절로 감사소리가 나오더군요 특히 서명숙님께는 존경의 마음이 담아졌어요 본인도 걷고 행복해진 길을 우리에게도 만들어주시느라 올레를 하면서 더욱 이걸로 만들기까지의 시행착오와 건다보니 행복도했지만 힘들때마다 어떻게 여기에다 이런 표시를 하고 다녔을까 정말 여러번 생각했습니다. 올레를 만들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힘쓰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2009.05.31	여
서울에 와서도 눈에 아른 거리는 파란 리본과 노란 리본,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 길을 잃을 뻔 할때마다 어찌나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주는지 새삼스레 서명숙 님을 비롯한 제주올레 종사자분들께 감사한 맘이 들었던 정말 보배롭고 축복 가득했던 휴가였습니다.	2009.08.10	
오늘 하루 꼬박 6시간을 걸었다. 처음에는 코스를 어떻게 찾을까 염려아닌 염려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표식들이 요소요소에 화살표로, 두색 리본으로, 안내판으로 인도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앞선분들의 수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2010.02.10	남
길을 잃은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 추자도 올레길 만큼, 표시, 리본, 안내판등이 잘 되어 있고, 풀이 잘 베어져 있는 곳이 없구나.' 하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저 한사람에게서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추자도에 계시는 올레지기님의 희생,봉사하는 마음, 추자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올레길을 걸으면서, 추자도를 잊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2011.10.22	여
그곳에 머문 둘째 날 올레길을 걷고 있는데 낮부터 비가 꽤나 많이 내리고 있었다. 도중에 리본도 보이지 않고 길도 여러 군데로 나 있어 어디로 가야하나 헤매고 있는데 멀리서 총장님이 작은 트럭을 몰고 오셨고, 이내 주변 올레길을 살피시고 떨어진 리본을 다시 매달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주 올레에는 각 코스마다 올레지기라고 하여 한 분씩 지정이 되어 있다. 그 분들은 제각기 맡은 코스를 수시로 살펴 올레꾼들이 걷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간혹 길을 잃거나 곤란한 지경에 빠진 올레꾼들의 전화를 받고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 살면서 인생의 길을 잃거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지기가 많아 서로 돕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 본다.	2012.11.27	여 50대
격려나 환영의 메시지에 감동을 느낌		
"올레꾼님들을 환영합니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도, 길위에서 만나는 파란색 화살표는 정말 반갑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2008.09.21	
제주 올레길, 두산봉 산책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마을청년회 명의의 작은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어찌 보면 그것도 공해이겠지만 이 인적없고 불친절한(?) 적막감 속에서는 그 볼썽 내건 환영의 인사가 반갑게 느껴질 따름이었다.	2008.10.07	남 40대
곧 더 가니 조금 넓은 곳에 플래카드가! [꽃자왈 올레길 숲길 올레꾼 파이팅!(무릉2리 마을회)] 감동이다!	2008.12.28	남
올레 여행의 묘미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우측에 "제주올레화이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주도 민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2009.07.19	남 30대



코스의 아이덴티티(색채)에 대한 각인이 됨		
리본만 생각하고 걷다 길을 헤매기도 여러번했다. 그 때마다 눈에 띄는건 파란색화살표!! (사진방향이..ㅠ) 컴백후한 지금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올레후유증중 하나이다. 길에 파란색 표시&낙서만 봐도 정신이 바짝 드는 것! 또 어느새 그 표시를 찾고 있다는 것!	2009.05.01	
출발서부터..파란색에 길들어집니다.... 그리고..땅을 자주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파란색만 찾게 됩니다...	2009.06.22	
올레길에 만나는 파란색 화살표에 익숙해져 출근길에 만나는 보도블럭에 찍힌 파란점만 바라봐도 순간 "어!! 어느 방향이지?" 하는 생각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게 만드는 올레..	2009.11.30	여

(2) 사인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사인을 그리는데 있어 무성의하게 느껴지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함		
위기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하늘색 표시!! 안타깝게도 스프레이로...—;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힘든가봅니다. 국제적인 트레킹 코스로 거듭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라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요.	2009.08.12	여 20대
방향 표시에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현지인 중심으로 그려 놓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가지가지 입니다. 일반적인 화살표도 있고 한쪽면만 있는 화살표도 있고 사람인자 처럼 생긴 화살표도 있고 뱀이 기어가 듯 구불구불한 화살표도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역방향은 거의 없을 뿐더러 표시하는 사람 마음인 듯합니다.	2009.09.11	
도로나 벽면 등등에 표시한 화살표를 아주 멋들어지게 그려 놓은 구간을 지날때에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구간은 무성의하게 그려놓은 구간도 있더라고요	2012.05.02	
사인이 환경을 해친다고 느끼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함		
아쉬운점은 곳곳이 시퍼런 화살표시로인해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2009.04.16	
그리고 기억에 남는 너무 많은 파란화살표...길안내를 해주는건 좋은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편리한건 좋지만 아름다운 돌담길 풍경을 해치는건 아닌지...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다른 대안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2009.10.07	
그러나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꼭 있어야 할 곳에 없는 화살표로 얼마나 자주 그 자리에서 맴돌았던가? 햇볕에 색이 다 바래버린 리본도 안쓰러웠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화살표도 만날 수 있었다.	2010.02	남50대
훼손된 사인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낌		
고목숲길을 지나고 나오는입구 쪽에 올레 간세가 산산이 부서져 있어 안타깝다	2010.05.09	남 30대
3번째 찾은 1코스!! 멋진 간세를 어떻게 그리 처참하게 하셨는지...무슨 잘 못을 했다고...이렇게....알로름의 간세입니다. 목이 잘려나가 그냥 보기에 처참했습니다 <중략> 이렇게 처참하게 T.T 맘이 아팠습니다... 몸따로 발따로...이렇게 버려진...간세를 보며... 분명 올레꾼이 아닐거라...믿고 싶었습니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지만...그래도...이렇게라도 함께 하길... 바라며... 6코스 걷는 내내 ...더이상 간세가 살아있길 바랬습니다..	2010.08.17	여
근데.. 다니면서 보니까.. 안내리본에 왜 낙서들이 그렇게. 되어있던지요..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 왔다감" 등등..... 조용~한 코스에 리본이 반가워서 가보니.. 그런문구의 낙서들.. 참 보기 싫던데요..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0.10.20	여 30대
그런데 곳곳에 위의 사진처럼 훼손된 간세모형이 있길래 마음이 아프더군요..... 머리가 없어진 간세는 1-1길인 우도의 초반 켄에서 마주 했구요, 허리가 부러진 간세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2길의 중후반 켄에서 본 듯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형물인데 누가 훼손 했는가 모르겠네요	2010.12.23	여
[덧글] 올레꾼들이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실수나 호기심으로 먼저 훼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친환경적인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태양에 의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을 하시지요.	2010.12.23	여
5코스를 걷다가 망가진 간세 다리를 봤는데 누군가가 응급조치를 했더라고요.그래서 우리도 거들어서 자~대루 만들어주고 왔습니다호호호호~ 걷다보면 이 간세다리가 고맙고 얼마나 반가운 존재인데..올레꾼들은 다 알거예요~~그런 간세다리가 다치면 맘이 아프답니다~	2011.04.05	
그리고 표식이 훼손이 심한 곳이 여럿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아 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조치 바랍니다.	2011.04.13	
화살표와 간세가 다 뿌러졌네요 .어느분이 이렇게 해두신 걸까요. 올레꾼을 위한 작은 정성에 감사합니다.	2011.08.20	남
간혹 간세가 부서진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구요	2012.05.02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 함		
길을 걸어가는데...따로 화살표가 한참동안 보이지 않아서..우리와 함께 걷던..두 그룹들과....약간 헤맸었다.....그럼서 그 올레꾼중 한명이 말씀 하시길... '중세 왔네 왔어...파란색 화살표가 안보이면..불안해 지는..ㅋㅋㅋㅋ'...	2009.08.25	
눈앞에 보아야 할 화살표가 사라졌다. 이런 일은 자주 겪는다. 이때 요령은 안 보이는 순간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걷는 것보다 화살표 찾는 일이 우선이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다 맞고 다 틀린다. 그들이 아는 길이나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등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초행길의 여행자에게 충실한 가이드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큰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2010.02	남50대
올레가 처음이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겐 컸습니다. 올레표시가 없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시간이 가면서는 차분히 '또 있을까야.'라며 스스로를 다독거렸어요.	2010.07.31	여 20대

(3) 웨이파인딩 실패를 감수를 하는 경우

표선백사장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중략> 그런데..참 이상하죠? 사람이란게..길을 가다 길을 잃으면 조금 당황도 해 주고, 이리다, 다 와서 길을 놓치면 낭패 아닌가 걱정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헤매다가는 곧바로 길을 찾게 되겠지..란 믿음. 그러다.뒤에 오신 다른 올레꾼도 만나게 되고, 나도 길을 잃었소..하시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 아..원래 이 길은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쯤 길을 잃게 만든 코스인가 보다... 살면서...아날 같았음 싶습니다. 유머스럽게 넘길수 있는 '과한' 여유를 지닐수 있기를요!	2009.04.15	여 3-40대
리본표시만 믿고 걷다 중간에 길을 잘못들기도 하였지만, 생전처음 걷는 길임에도 전혀 두렵거나 염려되지 않았다. 다시 되짚어가면 되니까...올레표시가 없어도 제주도의 구석구석은 모두 새롭고 아름다우니까!!	2009.05.01	
발걸음 걸음마다 아가자기한 아름다운 사랑과 후식이 있었다. 송악산 정상에서 길을 잘못들어 빙글 돌아서 정상을 두번 갔지만 조금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2009.08.07	남 4-50대
처음 접하는 올레길을 역으로(남원포구→표선)으로 가다보니 중간에 길을 잘못들어 4km 정도를 헤매기도 했지만 덕분에 더 많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9.08.21	남
매향사 7코스 역주행이었네요..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중략> 그래도 비오는 바닷길을 걸으니 기분은 나름 상쾌했지만 그예비해 한 고생이..ㅜㅜ	2009.11.11	
길을 잘 못 들었습니다..... 20여분 왔던 길을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지만, 즐겁습니다. 잘 못 들어선 그 길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2009.12.29	남 30대
사실 길을 잘못들어도 다시 찾으면 그뿐... 나는 오늘내 올레1코스를 전부 다돌아야한다라던가 그런 일상업무때처럼 목적을 가지고 온게아니기 때문에 그냥 걷는 지금 순간을 천천히 즐기기로 했다.	2009.12.30	남 30대
뭐 가다보면 나오지않겠나 싶어서 룰루랄라 일단 출발....이 알수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모르겠지만... 뭐 조금 늦으면 전화해서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헤매다보니 해가 지고있다..-_-하지만 그냥 헤매고 물어보고 하다보면 결국은 다 찾게된다.단지 조금 늦을뿐이다.	2009.12.30	남 30대
엄청 헤매는 바람에 8시간을 걸었네요~ 그래도 헤매는 동안에 다른사람들이 못가본 길을 걸어서 좋았습니다.	2010.03.25	
아침에 정류장서 지도를 잃어버려서 여기가 어딘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구....애궁....하지만 리본을 따라 내륙을 향해 가는 것 같은 우회로는 분명 또 다른 분위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2010.06.06	여 3-40대
11코스가 일부 변경된 것 모르고 갔다가 많이 헤맸는데 앞서가던 일행 역시 같았고 대정쪽은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올레 리본들이 훼손되거나 없어서 길찾는데 여러번 헤매기도 하고.. 그게 또 올레길 걷는 재미가 될수도 있지만..	2010.11.03	여
그리고 어디론가 헤매다가 올레에서 조금 벗어나서 마을로 들어와버렸다; 하멜전시관쪽으로 걷는다는 것이... 뭔가 어긋난 것 같다. ;; 그런데 이렇게 헤맨 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다.	2011.02.07	여 20대
[덧글] 저도 처음 8코스걸었을때 고생을 했습니다만, 000씨 말대로 올레는 어떤 이익이나 단체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한사람의 열정만으로 만든것이기때문에 길자체만으로 감사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길을 잃어서 황당할때도 있지만, 올레의 풍경이 다 커버해 주더군요. 님도 그랬을꺼라 생각합니다.	2011.04.19	여
협약한 산을 헤매다 오도기도 못하고 무서운 마음에 119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위의 사건(?)들은 정말 아름다운 올레길 속에 함께 녹아들어서 다시 올레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2011.05.09	
막연히 등단것과 걸어보고 안 점은... 길이 그냥 늘 놓아져있는 오솔길 만이 아니고 등산이나 바다해변 길처럼 오밀조밀 긴장을 하고 걸어야 하는 길들이 꽤 있고 또 양갈래길이나 조금 떨어진 화살표를 놓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디. 저는 올레길은 누구나 갈수 있게 뽕 뚫린 줄 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음악들으면서 탄생각하면서 놀면서 가는 길일줄 알았는데.. 상당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길들이 섞여있는 점이 잘 몰랐던 점이었습니디... 그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지요.	2012.02.02	여



(4) 웨이파인딩 실패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올라간 곳으로 다시 내려오니 갑자기 화살표가 없어졌다. 올레꾼들에게도 전하였지만, 화살표를 만날 수 없었다. 화살표를 놓치니 미아가 된 것 같았다.	2009.02.16	남 50대
멋진 풍경에 "야호." 하는 것도 잠시, 우리는 그만 길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길을 잃었다 당황하게 되니,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던, "화살표"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2009.03.06	여 30대
잃어버렸다는 상황보다 이런 내가 바보 같아서 슬퍼지려고 한다. 30분 이상 걸은 길을 되집어 가보았지만 텅 빈 거리다. 내 머리 속도 비어간다.	2009.05.17	
도대체 올레길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리조트 뒤 정원으로 나오긴 잘 나왔는데 방향을 내가 잃은 것이다. 당황한 나는 자꾸만 죄 없는 모자를 벗었다 썼다만 하고 있었다. 조짐이 안 좋다.	2009.05.23	
길을 잘못 들면 아득해지고,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인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차분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무작정 더 걸어가는 것은 무모하다. 자신이 안 서면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불필요한 고생을 면할 수가 있다.	2010.02	남50대
27일 비바람에 지쳐가며 12코스에서 11코스로 이동중 좀 황당한 일을 겪어 개선 부탁드립니다...<중략> 너무 화가 났지만 간신히 추스리며 갔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속으로 돌아갔습니다...새로나온지 1주일도 안되었다는 그림지도를 보여 다녔는데 좀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아름다운 올레길에 좋은 추억만 가져와야 하는데 아픈추억도 가져온것 같아 조금은 찝찝합니다....	2010.03.03	남
안내는 충분하다. 그런데 이 이정표가 좀 부실하다.<중략>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놓쳐 한참 큰 길을 가다가 되돌아오기도 하고, 간혹 갈림길에서 이정표를 찾지 못해 어림짐작으로 길을 잡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길을 놓치고 당황하기 일쑤다. 사실 나는 거의 매 코스마다 한두 번씩은 길을 놓쳐 보통 1~2km씩은 더 걸어야 했다. 처음 며칠은 그러려니 하고 걸었는데 계속 반복되자 슬슬 짜증이 나기시작하고 나중에는 살짝 노이로제 증세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아니, 이정표를 좀 눈에 잘 띄게 해놓으면 어디 댕나나.	2010.04	남 40대
인적도 없는 아산을 몰도 없이 해매는 게 두렵더군요. 그때까지도 제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그 정상에서 바라봄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헛웃음이 연신 터져 나오는데 내 스스로 감당이 안되더군요.	2010.05.05	
올레리본도 보이지 않고 파란 화살표도 보이지 않았다. <중략> 똑같은 상황은 여러 번 되풀이 되었고, 우리는 전진과 후퇴를 놓고 도박판에서 연거푸 패를 돌리는 느낌이었다. 고할까 스톱할까. 인생에서도 이정표를 놓치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의체험하는 듯했다.	2010.07	남 40대
아쉬운점은 갈림길에서 방향표시가 잘 되어있지 않는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번을 길을 헤매기도하고, 같은길을 반복해서 걷다보면 가끔은 짜증이 날때가 있더라구요.. 땀벌에 걸거나, 비 맞고 걷다보니 더욱 아쉬웠습니다.	2010.09.02	남
와... 도대체 몇 번을 길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멀쩡하던 길이 끊기고 되돌아가고 원래 길은 수풀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고 어떤 길은 물에 잠겨 갈 수도 없는데 안내도 없고 화살표도 어느 부분은 흔적도 안보이고 어떤 구간은 일부러인지 불가항력인지 따지도 사라지고 지도는 알아보기 힘들고..아무리 여유를 갖고 편하게 놀며 가는 길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올레길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되었습니까 길 안내를 보다 쉽고 누구라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 지금도 길을 잃어서 컴해서 자료 다운받고 있습니다	2010.10.09	남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코스 표시가 알기쉽게 안돼 있다는 것인데요...<중략> 분명 오면서 봤을 때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표시도 없었고 그 이후 올레길 리본이나 화살표도 없어 정말 여기저기 길을 헤매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2010.10.10	
마지막으로.. 제발 리본과 화살표 좀 제대로 표시 해 주세요. 바닥 또는 돌담의 화살표는 아예 실종된지 오래고 오로지 리본으로만 찾아다니는데 리본이 저 멀리 길가를 벗어나 눈에 띄까말까 한곳에 있다면 이게 어디로 가라는건지 알수있나요?	2010.10.10	
미리 변경코스를 확인하고 간 제 탓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인터넷을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아닐거라 봅니다. <중략> 정확히 한 시간을 돌고 돈 끝에 아침에 나선 곳으로 되돌아 온 셈이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올레 리본이나 화살표가 좀더 식별하기 쉽게 표시돼 있었더라면...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러한 안내문 구라도 설치돼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았습니다.	2010.10.10	
[덧글] 중간중간에 사라졌다 나타나고 없으면 다시걸어서 다시시작하고.. 정말 표시가 너무 미흡하더군요..	2010.10.11	여
갈림길인데도 표시가 없는 곳도 있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려야 보이는 곳도 있었어요.	2010.10.16	
제가 여러 올레길을 걸어봤지만 제주 올레길은 정~~~~말이지 길안내 표시며 리본 화살표 등이 잘 안되어 있어서 몇번이나 같은길을 반복해서 걸었는지 모릅니다. 갈림길이나 길을 들어서는 길목에선 보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어야지 초행길인 사람들이 어려움없이 다닐텐데 말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2010.12.10	
처음 중문에 호텔까지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길에서는 정말 고생했습니다. 2km 남짓에서 7~8km정도로 길어진다는 공지나 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3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를 돌아서 가면 2시간이 걸리고 가는 곳도 차도와 벽사이며 덧없이 걸어야 하며 공사중인 공원을 가야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해맨것까지 생각하면 2시간반이 허비되었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이 더 걸리는 거리를 공지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2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이젠 저만 아니고 8코스를 걸었던 분들 모두의 목소리일겁니다. 정말 걸으면서 욕나왔습니다.	2011.04.16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지쳐서, 혼인지고 뭐고 그냥 온평까지 물어 물어 버스타고 가버렸네요.. 동생이랑 걸으면서 그 갈림길에서 사진을 찍고 왔어야 했다고- 지금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2011.06.02	여
저는 지난 19일 7-1 코스의 중간 스탬프 지점에 와서 패스포트를 가이드북에 표시되어 있는 '호서마트'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인터넷으로 코스 지도를 검색한 결과 역시 중간 스탬프 지점은 '호서마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한 시간 이상 헤메다 사무국 직원과 통화한 결과 현재의 중간 스탬프 지점은 '제남 보육원'이고 코스 밑의 설명문에는 '제남 보육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08.28	남
더운날 길을 잘못들어 쾅쾅거리고 갔다가 되돌아 오면 기분 좋게 왔다가 짜증내며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합니다.	2012.06.09	남
혼자 걷는 여유와 사색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많았습니다. 그 아쉬움은 때론 짜증도 나게 했고, 잘못된 길을 들어가 되돌아오면서 화(禍)까지 나기도 했지요. 이정표 문제입니다.	2012.07.29	여

(5) 웨이파인딩 실패로 인한 트레킹 중도 포기

학교가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데 왼쪽에 있다. 다시 농협까지 가서 다른 길로 가야한다. 다시 도착한 첫 출발지인 천진항. 이미 시간은 오후 3시 30분. 하고 수동해수욕장에서의 계획대로라면 돌면서 놓친 서빈백사와 달다니탐을 보고 하우목동항에서 3시 배를 타고 성산항으로 가려고 했던건데. 눈물을 머금고 천진항에서 3시 3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성산항으로 나왔다.	2010.05.04	여 2~30대
올레7코스 제일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갔는데 외돌개부터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도 잘 안나오고 갑자기 첫 길로 가야되고 그래서 2~30분 걸다 포기.. π π π π	2010.08.16	여 20대
성산일출봉까지 열심히 걸었는데.... 그후부터 길표지가 잘안되어 있더군요. 중점까지 2km란 표지가 있었는데, 그후 1시간을 넘게 걸어도 끝이 안나더군요 ?? <중략> 처음부터 완주가 목표는 아니었기에, 아이까지 있어 중점까지 2km란 표지만 없었어도 무리해 가지는 않았을텐데... 좋은 경험이란 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첫 걸음이었답니다.	2010.09.07	
올레표지가 너무 부족해 길을 못찾겠더라고요 π π π 그래서 그냥 애라 모르겠다 하고 가파도의 마을로 들어가 버립니다;	2010.12.01	여 2~30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지쳐서, 혼인지고 뭐고 그냥 온평까지 물어 물어 버스타고 가버렸네요.. 동생이랑 걸으면서 그 갈림길에서 사진을 찍고 왔어야 했다고- 지금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2011.06.02	여
사실 저희도 6번 역방향의 경우 여기까지 오는데만도 너무 힘들고 하여서 바로 거기서 포기하고 7번 순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외돌개로 버스 타고 갔습니다.	2011.08.30	
성산일출봉을 지나고 중점. 2코스 시작점으로 갈 때 올레길 표시가 없더라고요!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리본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ㅠ 같이 1코스 걷던 분들은 거기서 완보를 포기 하셨는데 (안타까웠어요 정말)	2011.11.25	여

(6) 전화 안내에 대한 정서 반응

긍정적인 정서 반응		
중간에 파란 화살표를 몇 군데서 놓쳤는데, 전화걸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신 '사단법인 제주올레' 전화 받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11.11	여 3~40대
이어 10코스 끝인 하모 해수욕장 도착이다.(10:45) 올레 표지판 앞 긴 의자에 앉아 올레 사무실에 전화해서, 11코스의 중간 정보(주요 포스트,거리,소요 시간)를 얻는다.	2008.12.28	남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어 계속 길을 헤매던 차에 가방에 넣은 올레 안내책자의 11코스 안내지기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절하게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리본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셨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 내 존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길찾기를 시작했습니다.	2009.07.04	
10코스 송악산에서 객기를 부리다 길을 잃었습니다. <중략>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쌓여 숲길을 해맨 후 10코스 올레지기님 번호를 찾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지금 다른 지역에 계셔 도와주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1코스의 올레지기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저희를 계속 안심시키시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달려 기적처럼 저희가 있는 곳(일명 자살바위라는 곳)까지 찾아 오셨습니다. 성함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업을 하나 쌓았다고만 말씀하시며 저희를 숙소까지 데려다주신 분... 그 낯발 깊은 숲길을 걸으며 보았던 반딧불이, 야생의 소리들, 그리고... 11코스 올레지기님의 깊은 친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09.09.28	
길을 잃었는가? 걱정하지 말라. 올레지기가 친절하게 알려준다.	2009.09.15	
현재 17코스까지 오는 동안 처음으로 올레센타에 전화해서 16코스 올레지기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다시 길을 걸으면서 생각된 것이 혼자올레를 걷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나는 보호소에서 올레길을 만끽하는구나하는 생각에 무섭지도 않았고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반갑게 전화 받아주셨던 센터직원분과 16코스 올레지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2.03.20	



부정적 정서 반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락을 하면 저렇까 싶다가도 맨몸으로 올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제가 다섯코스 돌아보니 친절한 표시도 있지만 도무지 길이 어딘지 모를때도 있었답니다. 그럴때 전화하라고 올레지기연락처 알려주신거 아닌가요. 화를 내시는분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짜증섞인 말투 여기가 어딘지 몰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이 돌아올땐 다음엔 길몰라도 전화 절대 안하리라 그냥 다짐했었습니다.	2009.05.31	여
올레지기 한분께 실망한 나머지 협회에 전화를 했더랬죠. <중략> "이개가 원래 있는건가요 무서워 못건너고 있습니다" 저도 두서없는 통화내용이었을지 모릅니다. 워낙 무서웠던지라 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만으로 그분도 어쩔수 없었을진 모르겠으나 "모르죠, 알아서 하셔야죠" 아~ 진짜~ 저도 제가 해결해야할건 압니다. 근데 어떻게해서 알아서해야하는지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던건데 친절은 하시데요 친절하시게 그런거있죠 말은 친절한데 끊고나서도 더 부글부글해지더군요 그분 거기서 전화와받는겁니까 저희도 모르던 상황이라. 어떨하시죠 어떤 방법을 해보시죠 정도의 인사말이라도 있으시면 아~네 하고 감사인사했을겁니다.	2009.05.31	여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안내자료에 있던 10코스 올레지기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올레지기를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ㅎㅎ... (좀 귀찮아하시면서 불친절하게 끊으시더라구요) 변경되는 올레길 관련 자료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예전자료를 구분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2009.08.05	여 20대
우리는 제주건기여행 책에 나온 3코스 담장자 행폰에 겨우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가봐서 몰라여~~ 나참.. 뒤도 앞도 다 캄캄 돌아갈수도 바다를 헤엄칠수도 없는 아찔한 상황.. 기운이 다 바닥인데.....아니 3코스 담당자가 안가본길이라니... 암튼 불만은 불만 가진 가야하고 ..	2009.08.24	여
올레지기 9번 아줌마 좀더 친절하게 부탁 합니다 여러번 전화했다고 나무라시면 섭하죠....난 길치인데... 다른 올레지기분들도 대체로 자기일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느라 그런것 같더군요. 바쁘시면 하질 마시든가 전화번호를 없애는게 덜 피곤 할것 같네여. 100번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부탁 합니다. 제주분 들은 대체적으로 웃음이 없는것 같더군요.	2010.01.22	
한가더 부탁 말씀 드린다면 올레지기님들 모두 자원봉사로 하루에도 수많은 전화에 시달리고 있을줄 알고 저도 전화 안드렸지만 다른코스에서 부득이하게 올레지기님께 전화드렸는데 제가 전화를 잘못드려 다른코스 올레지기님께 전화드렸나본데 전화에다가 대고 '난 000코스인데 왜 나에게 전화했냐'며 핀잔아닌 핀잔을 주시길래 제가 사과드렸지만 많이 불쾌하더군요.. 말씀드렸드시피 올레지기님의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가 그렇게 핀잔받을만큼 예의없이 전화드리지도 않았고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전화를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될것 좀 심하게말씀주시더군요...	2010.03.03	남

3) 트레킹 경험 및 코스 관련

(1) 이용자들이 강한 인상을 받는 장소의 특성

해 병 대 길	해병대길은 조심해서 걸어야 함.. 해병대길은 이름 그대로 거칠고 힘겨움.. 큰 돌이 많고 절벽 아래라 신중하게 걸어야 함.	2008.09.02	여
	해병대길 걸을 때엔 정말 감동입니다. 어떻게 이런 험한 해안가에 이렇게 고운길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돈만 있다면, 그 부대 해병대에게 차킨과 맥주를 쓰고 싶은 마음이 절실히 날 정도입니다.	2008.09.21	여
	한참 혼자 놀다 해병대길 걷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것이 길일까?? 의심하면 길 맞습다. 세상에!!! 그 해안가에 그 절벽밑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길들입니다.	2008.10.07	여
	이런 세상에! 바닷가의 험하고 커다란 바위들 틈새로 발 디딜 정도로 바닥을 평평하게 일일이 다져 놓았다!!! 대단한 노력이다. 여기가 해병대 길인가봐~!	2008.12.28	남
	곧 해병대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군인들이 수고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을 책에서 봤다.	2009.02.16	남 50대
	울퉁불퉁한 바닷길을 해병대들이 수고하여 놓았다는 해병대 길의 매력에 빠져들어 길 위에 멈춘다.	2009.02.25	여 40대
	이번 코스의 또 다른 의미 있는 길로 '해병대 길'이라 지칭 받는 해안가 돌발 길을 걸어간다. 길이 험하여 해녀들만 다녔다는 돌길을 올레꾼들을 위해 해병대 군인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진 멋진 길을 걸으며 바위 돌 하나하나에 그들의 고마움을 생각해 본다.	2009.03.03	남
	8코스 해병대길 막 벗어나면 바로 마주치는 건물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2009.03.19	여
	장애물없이 이 길을 걷게 해준 해군해병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2009.04.14	
	사인빌 리조트까지 이어지는 해안길. 원래 길이 없었는데 해병대가 돌을 옮겨 길을 만들어주었다. 이 길이 아니었으면 차가 뽕뽕 달리는 멋없는 도로를 걸었어야 했을 터. 올레를 걷다보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2009.05.04	남



해 병 대 길 (계속)	이곳에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길을 만든이들이 해병대 대원들이라는 사실에 후배들이 자랑스러웠다. 제주에도 해병대부대가 있음을 아는이들이 별로없으리라~ 바닷가 바위길을 벗어날 즈음 만난 해병대 길이란 표시석이 무척반가웠다. 엄청난 고생이었을 것이다. 나는 안다. 악으로 강으로 임무완수를 했을 것이란 것을. 국민과 함께 해병대와 함께라는 해병대 슬로건은 이러한 훌륭한 길도 거뜬히 만들어낸다.	2009.08.16	남 40대
	해병대길 정말 좋습니다...중간 중간 흔들리는 돌이 있어서 맘 찡찡했지요... 해병대 아저씨 여러 명이 더 좋은 길을 위해서 애쓰고 계셨어요... 지나치면서 괜히 편하게 걸어간다는 미안한 맘과 고마운 맘이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넸죠...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었습니다...	2009.09.25	
	검은 돌을 말끔히 깎아 만들어진 해병대길은 추억에 길이 남을만한 길이다. 이 길을 걷는 올레꾼들은 항상 해병대 병사들에게 감사드려야 할 길이다.	2009.11.11	남
	해병대 길을 비롯하여 바닷길에 놓여진 수많은 길들이 그저 저절로 생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땀이 배어 만들어진 길이란 것 알기에 그 길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2009.11.30	여
	올레꾼들을 위해 해병대가 직접 돌을 골라 길을 놓아주었다는.. 해병대길.. 고맙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편히 걸을 수 있었다.	2010.04.06	여 40대
	하이아트호텔지나서 부터 해병대 길이다. 해병대의 도움으로 없던 길을 만들었다. 바닷가의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돌사이로 동굴동굴 잘 생긴 돌을 쌓아 참으로 "이승기"처럼 예쁜 젊은이 같은 길을 만들었다. 우리의 아들이 만든 길을 걸으며 고마움에 가슴이 아리다.	2010.04.12	여 50대
	해녀마을도 지나고, 해병대아저씨들이 길을 낸 해병대길도 지난다.	2010.06.18	여
	이제 해병대올빼야들이 만들었다는 해병대길로 향한다.	2010.11.08	여
	해병대길을 걷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서도 어찌하리 나만의 욕심을 부릴 수는 없지 않는가?	2011.02.21	여
	아쉬웠던건 태풍으로 소실된 해병대길을 걷지 못했다는 거죠.	2011.09.28	
김 영 갑 갤 러 리	해병대길은 폐쇄되어 먼 길을 둘러가야 함이 아쉽습니다.	2012.05.09	남
	조금 더 걸으니 김영갑 갤러리가 나온다.(15:20)	2008.12.28	남
	김영갑 갤러리에 잠시 들렀다.	2009.02.16	남 50대
	인적 없는 곳에서 마음껏 자연인이 된 자유를 느끼다 도착한 곳은 김영갑 갤러리.	2009.02.26	여 2~30대
	시간이 늦어 김영갑갤러리부터 3코스를 즐겼지요 김영갑갤러리 정말 멋진곳이더라고요~~	2009.03.26	여 2~30대
	오름과 바람, 그리고 김영갑선생. 백사장과 바다의 흔적을 느끼는 길이다.긴 코스이니만큼 이야기도 길고 느낌도 깊다.	2009.04.16	
	섬지코자는 오랜만에 가봤더니 리조트가 생기면서 많이 달라져 다른곳인줄 알았음..요기후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폐교를 개조해 만든 갤러리.. 정원과 사진들.. 개인의 열정을 느낄 수있는 공간.	2010.04.06	여 40대
	3코스는 김영갑 갤러리가 너무 좋았구요.	2010.04.23	여 20대
	김영갑 갤러리 주변에 맛있는 막걸리와 파전을 판다고 해서 딱 그 말 한마디 듣고 무작정 김영갑 갤러리로 갔지요.	2010.04.24	남 30대
	입장료 삼천원을 내고 갤러리로 들어갔다. 그렇다. 나는 사진을 사랑하고 김영갑 님을 존경하는 문화인인것이다. 음하하하	2010.05.12	여 20대
시 흥 초 교	두모악 갤러리. 아스팔트길을 끊임없이 걷다보면 3코스의 또다른 추천장소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이 나온다~	2010.09.03	여
	전날 12코스를 걸음으로써 이제 패스포트의 스탬프는 모두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갈지 전날 고민을 많이했네요~ 새로 생긴 19코스를 갈까? 아님 협재바다를 볼 수 있는 14코스를 갈까? 그러나 저의 최종 선택은 14코스도 19코스도 아닌 3코스~ 갑자기 김영갑 갤러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11.12.22	여 2~30대
	3코스의 하이라이트는 김영갑 갤러리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물론 별거 아니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2012.03.13	
	중간기점인 김영갑갤러리에서는 예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픈 사연(루게릭병)을 간직한 사람이기에 웬지 그의 메시지는 가슴깊이 다가옵니다.	2012.05.09	
	그런 측면에서 보면 3코스 중간에 위치한 김영갑갤러리의 주인공인 사진작가 김영갑씨는 길지 않은 삶을 살다 가셨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한다.	2012.11.27	여 50대
	결국은 2시 즈음에 시흥초등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2009.01.06	여 2~30대
	시흥초등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신다.	2009.03.04	여
	시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첫번째 오름입니다.. 오름이름은 기억이 안나요^^;;	2009.03.28	남
	시흥 초등학교 옆골목... 여기서부터 제주올레길 시작이라는 풋말...^^	2009.04.05	
	시작은 시흥초교 정류장에 내려서 초교쪽으로 10여미터 가면 일출사라는 절표시가 있는데	2009.04.11	
	기분 좋게 상쾌한 기분으로 시흥초등학교에서부터, '역사적'인 제주 올레를 시작합니다.	2009.04.22	



시 홍 초 교 (계속)	1코스 출발점인 성산읍 시흥리 시흥초교로 향합니다.	2009.06.14	남 2~30대
	1시간쯤 시외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흥초등학교다. 기사분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버스손님의 절반이상이 전부 올래꾼인듯 하다.	2009.09.19	
	1코스 시작점 시흥초등학교앞 올래 사무국에서 화장실을 해결하고 출발.	2009.12.29	남 30대
	시흥초등학교에서 하차하면 바로 올래 1코스가 시작됩니다	2010.01.02	여
	올래 1코스 시흥초등학교까지는 버스를 타고 2시간이 걸렸다.	2010.01.08	남 2~30대
이 중 섭 미 술 관	첫날 저녁때 제주에 도착해서 근처 제주시에 있는 팡라오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하고 다음날 아침에 1코스 시작점인 시흥초교로 가는데	2010.04.23	여 20대
	시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합니다.	2012.03.17	여 20대
	작지만 아름다운, 시흥초등학교를 잠시 둘러보았더니~~~ <중략> 시흥초등학교를 지나서, 좌측으로 30여보를 내려가면 결전의 장소, 올래 1코스 출발점이다...	2012.03.23	남 2~30대
	이중섭 생가를 돌아 본다(16:00).	2008.12.28	남
	서귀포 초등학교앞에서 화살표를 놓쳐서 잠시 방황하다가 올래지기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이중섭미술관을 찾게 되었다.	2009.02.16	남 50대
이 중 섭 미 술 관	6코스 이중섭미술관 근처에 있는 '안개바다'가 맛있는 추천을 받고 5코스를 지나 6코스를 향해 걸었습니다.	2009.03.26	여 2~30대
	이중섭 갤러리에서는 사랑과 열려의 마음을 유려한 필체로 적은 그의 아내가 보낸 편지들이 마음을 울린다. '보배롭고 애달픈 그들의 사랑은 천국에서 이어졌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2009.04.04	
	올래 걷기여행 첫 출발지인 이중섭 미술관으로 갔다.	2009.04.27	남 40대
	중간에 이중섭 생가, 미술관, 천지연 폭포도 있습니다.	2009.07.19	남 2~30대
	결국 가는 길에 보이는 이중섭미술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2009.12.26	여 20대
이 중 섭 미 술 관	날도 저무는데 이중섭 기념관은 꼭 들려야 하기때문이다.	2010.09.17	남 30대
	시장을 빠져 나오면 소와 아이들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화가의 이름을 딴 이중섭거리를 지난다. 실제로 이중섭화가의 삶은 질곡으로 가득한데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길거리 가로등에 달려있는 그림들을 보면 그저 막막스럽고 푸근한 마음만 든다.	2012.11.27	여 50대
	초반부터 지암으로 발을 풀어주고 소금막을 지나 이주일 별장으로 발을 옮기며...	2008.11.02	
	고 이주일씨 별장	2009.03.28	여
	고 이주일씨 별장옆으로 올라가는 표시가 있어요~~~	2009.03.28	여
이 중 섭 미 술 관	제지기 오름에 오르기 전 이주일씨 별장이 있다고 올래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다.	2009.04.26	여
	투웍스(Two weeks) <중략> 알고보니 개그맨 고 이주일의 별장이었다는 유명한 커피숍이랍니다. 커피맛도 좋다길래 일부러 갑니다.	2011.07.03	여 30대
	제지기오름 입구에는 Two weeks(이주일)라는 자그마한카페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이곳은 80년대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리던 고 이주일씨가 말년에 폐암으로 제주에 내려와 요양하던 곳이란단다.	2012.11.27	여 50대
	그 길을 만든 사람들이...특전사 아저씨들이라 한다. 해병대길, 특전사길.. 웬지 어감이 너무 위압적인가 같으며 이쁜 단어로 표현할수는 없을까~하며 잠깐 시간방을 떨던 맘이 이 길을 걸으면서 내내 특전사 아저씨들의 노고와 센썬와 이쁜 마음에 감탄하여 입방정을 떨던 것을 내내 미안하게 하였다. <중략> 제주올레 13코스는 특전사님들의 길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길이 가장 맘에 들었다. 그들의 따뜻함이 느껴졌기에...	2009.06.28	
	넝쿨과나무가우거진 숲에 길을 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을것 같은 특전사 숲길을 지나눈이 시원한 용수저수지 뚝방길을 지나고	2010.05.09	남 30대
이 중 섭 미 술 관	이번 올레길 13코스 여정에서 가장 기대했던곳은 특전사숲길 입니다. 얼마전 제주또올레 게스트하우스를 다녀가신 특전사님(13코스를 만드셨던)의 올레길이 만들어지게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올레길 완주에대한 갈증이 심했던것 같습니다. <중략> 특전사숲길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낙천리 아홉굿마을이었습니다.	2010.09.25	여 2~30대
	특전사 숲길~하동 숲길 =이 길때문에 편안히 나머지 숲길도 연결이 되어 갈수 있음을 지도 보고서야 감사	2011.02.24	
	김수봉씨가 개척한 '수봉로'가 이곳에 있다.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제주올레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봉씨! 감사합니다.	2009.11.11	남
	수봉로, 정말 정겹고 예쁜 길이다. 김수봉이라는 올래지기가 염소가 다니던 길에 직접 삽과 곡괭이만으로 계단과 길을 만들었던단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2010.04.12	여 50대
	7코스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 그중 수봉로는 특히나 유명합니다. 길을 만든 이의 이름을 붙인 제주올레에 감탄을 보냅니다.	2012.05.09	남
이 중 섭 미 술 관	올레길을 처음 만들때 사람이 다니기 힘든 길을 김수봉이라는 분이 삽과 곡괭이로 길을 내셨단다. 좀처럼 하기 쉬운일이 아니었을텐데 수봉로의 탄생은 김수봉이라는 분이 올레길에 미쳐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오늘의 올레길이 있는 것이다.	2012.11.27	여 50대



알프스비행장	여기에 알프스 비행장 안내판이 있다.(발 한 가운데의 이 평평한 곳이 강점기 때의 비행장?)	2008.12.28	남
	11코스를 선택한 것은...오직..TV에서 본...알프스 비행장 때문이었습니다....	2009.08.29	남
	알프스 비행장에 대한 다큐를 보고서...코스에 잡았죠...^^;;		
	일제시대 일본군이 만들었다는 알프스비행장의 역사발을 뒤로하고 가도가도 끝없는 마늘밭 들판을 걷다.	2010.04.12	여 50대
	알프스비행장에 도착 앞에오래꾼 여자 두분이 사진을 찍고 있다 . 넓은 주차장과 일제 전적시설이라는 설명 입간판만 있어헿헿그레하다	2010.05.07	남 30대

(2) 환경과 심상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을 겪음

그런데 시작하면서 길도 없는 바닷가 바위 위에 올레표식이 있어 정말 가도 되는 길인가 순간 의심했다. 가다 보니 표식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는 표식을 찾아 움직이다보니 올레의 규칙?을 어렵듯이 알게되었다. 올레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범상치 않은 곳... 예측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표식을 찾을 수 있었다.	2008.12.13	
길은 쪽 뻗어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으로부터 90도 방향인 길 왼편 경사진 산 속으로 화살표가 향해 있고, 그 쪽 나무 위에 리본이 달려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진행 방향이었다.	2008.12.28	남
올레 길 표시 화살표가 또 묘한 곳을 가리고 있다.마늘 밭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한 쪽 발만 들어갈 폭의 콘크리트 수로를 따라 가라는 것이 아닌가? 이후 마늘 밭 사이의 좁은 수로에는 화살표가 계속 이어져 있었다. 아까는 비닐하우스 사이사이를 헤집고 걸었는데 이 번에는 마늘 밭 한 가운데의 좁은 수로를 따라 가라니...정말 올레 길 만세다!!!	2008.12.28	남
방향을 잃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채, 모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략> 결국 우리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길은 가장 어렵고 힘들어 보이던, 길이 아닐것만 같았던 분화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2009.03.06	여 2-30대
보목 하수 처리장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인을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확실한 사인과 표식을 부탁드립니다(정문으로 들어가진 않을거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놓친듯 합니다만..7코스를 먼저 했더라면 그런 실수는 안했을 텐데..그쵸?)	2009.03.19	남
한 10분 걸어갔을까 결국 서귀포 초등학교 찾아가는 길에서 가족 올레꾼을 또 마주쳤다. 우린 인사도 없이 힘을 합쳐 어느덧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함께 걷고 있었다. 화살표가 왜 학교 안으로 나 있을까? <중략> 막 알고 났는데 가족 올레꾼이 교문 앞에서 나와 똑 같은 자세로 길 잃고 또약한 표정으로 서 계셨다. 어설픈 인사 대신 꼭 누구에게 라고도 할 수 없이 말을 던진다. 학교 담 끼고 쪽 걸어가도 되는데 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게 화살표를 해 놓아 혼돈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구경도 좋은 올레길이지요. 아버지 올레가 대답한다. 허긴 그렇군요. 나는 아주 밝게 웃으며 말했다.	2009.04.26	여
6코스는 첫올레길이라 그런지 유독 험갈리는 일이 많았다. 그중 하수처리장!! 입구에 리본이 묶여있었지만 촌스럽게 공공시설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계속 길을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걷다 표시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의심스러웠던 하수처리장으로 되돌아왔다.	2009.05.01	
시에스 호텔이다. (베리넷 호텔이라는 간판을 보았음- 나중에 나오면서 시에스 호텔이라는 것을 알다.)분명 화살표가 호텔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호텔이 호텔 같지도 않고, 추가 화살표 또한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두리번거렸으면 지나는 관계자가 내게 다가와 올레길 찾으세요 했을까.	2009.05.23	
산길을 올라갔는데요 철창문이 두개나 있어 이길로 가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과감히 철창문을 열고 올라가서 본 것은 발 발 발... 그리고 정말 당연한 듯이 거기에 있는 소 한마리... 발 가생이 나무 가지에 파란 리본이 매어져있는 것을 보니 올레길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파랑+노랑 리본이 아니어서 혹시 이건 올레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09.08.11	
올레길을 나타내는 표시도 안보이고 길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도로	2009.12.19	여 20대
저는 깨끗한 화장실과 시원한 물에 땀을 식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화장실로 먼저 달려갔는데 화장실에 스탬프 찍는 게 있어서 의아했지만 귀속 스탬프를 찍고 정난주 마리아 묘를 둘러봤습니다.	2010.07.09	남
중점에서 내려서 바닷가 쪽으로 5분 정도 내려가면 보입니다. 주택가를 지나서 간판가 삼키면 의심하지 마시고 가세요	2010.07.19	남 2-30대
제주도민이지만,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해 구입한 패스포트에, 스탬프를 찍으려 두번째 방문한 11코스였는데~~ 중간스탬프 지점인... 정난주 마리아 묘 화장실!!! 두번째 짹짹 놀랐습니다...ㅎㅎ	2010.11.18	여
대충 이쯤에 있을 거 같은데 없어서 헤매고 있지니까...지나가던 아저씨께서 길을 알려주신다. 알고 보니 '서북공원' 안으로 들어가야 정방폭포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공원 입구를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2011.01.17	여 20대
서귀포 초등학교 , 여기서 모르고 그냥 지나치려하다가 근처에 계시던 주민아저씨들께서 여기여기여기!!! 하고 알려주셔서 제대로 찾아갔음..	2011.05.09	여 30대
정난주 마리아 성지 =아무도 없다 스탬프는? 화장실 앞에 앉아서 햇살 받으며 간단한 점심요기 (땀을 많이 흘려 화장실 안감 - 스탬프가 여기 있단다 ^^;;)	2011.02.24	여
1코스에서는 목장(?)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글씨와 (염의 쪽문을 보지 못하고) 큰 대문에 굳게 잠겨있는 자물쇠만 바라보고 옆으로 우회하는 바람에 (혼자걸던 저와 둘 씩 짝지어 걸던 1팀과 함께) 험악한 산을 헤매다 오도가도 못하고 무서운 마음에 119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기도 했었던답니다.	2011.05.09	
제가 웬만하면 올레길을 헤매지 않는데 14코스에서는 3번이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일 당황한것은 양배추밭 사이로 가는 길이었습니니다. 개인 발인거 같아 길이 아닌줄 알았는데 그것이 길이었던군요.	2012.01.26	여
14코스 바위해안에서 정말 표식이 안보여 또 전화를 했더니 어디 있다고는 하는데 누가 봐도 거긴 길이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가다가 보니까 보이긴 했습니다.	2012.06.09	남



(3) 트레킹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 발생

동물과 마주쳤을 때 공포감을 느낌			
개	길가에 있는 펜션 앞에 있는 화장실로 보이는 곳에서갑자기 검은 개가 튀어나와 큰 소리로 짖어서 깜짝 놀라 무섭게 달렸었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묶여있는 것 같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구요.	2008.09.09	
	하수처리장 지나 이름이 기억 안나는 공원같은데 있던데.. 지나가던 순간 진돗개 같은 다 큰 개들이 세마리쯤 뛰쳐나와 으르릉대며 위협하더라고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구석으로 몰아넣으면서 위협하는 개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중략> 사무국에서 전화해서 개 좀 묶어놓으라고 하면 안될까요? 직접 전화해보고도 싶지만 도망치는데 바빠서 공원 이름이 기억이 잘 안나네요..-_- 사람들 많이 지나갈텐데, 그렇게 경계심 많은 개들을 풀어놓으면 어쩌나 심네요. 게다가 여자 혼자 걸거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 더 위험할텐데요.. 저 작은 덩치도 아닌데, 그냥 막 덤벼드는 개들이 겁이 났어요.	2009.02.03	남
	[댓글] 사실 저도 개를 무척 무서워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00씨 말처럼 두려움을 떨치고 마음으로 대화해 봐야겠네. 저는 우습게도 개똥이 혼자 울레 질대 못가요	2009.02.12	여
	혼자 코스 도사던 여성분이 개에게 쫓기다 저희와 합류를 ㅋㅋ	2009.04.02	남
	제가 이 10코스에 대해 할말이 좀 있습니다. 올레코스문제점이 아니라 소금막을 가는중인지 그 근처인지 이룬자동차가 다니는 곳 옆 해안가 바위들을 지나갈때였어요 개가 한 마리있는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운경험이 없어서 예뻐만했지 목줄도 없이 모르는개를 만나면 무섭습니다. 난 직진을 해야하는데 오직 개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저를 향해오지도 않고 응시만하는데 금방이라도 물거갈고 한참을 대치하는 상황이었죠 진짜 긴장했었어요	2009.05.31	여 10대
	가다보니 정말 정상이 아닌듯한 개 짖는 소리가 마구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개가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숲 한중간에서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2009.07.04	
	개 조심 (?) : 6코스에서 묶여져 있지 않은 덩치 큰 개 3마리와 만났어요. 매우 위협적으로 짖어대며 약간 주변을 따라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고, 개를 그렇게 풀어 둔 주인한테 화가 났습니다. 주인한테 개를 묶어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개들이 집가까이 가면 물어 뜯을 거 같아서 속으로 욕하면서 조심조심 지나갔어요. 이 글 보시면 사람한테 위협적으로 짖는 큰 개들은 제발 단단히 묶어 두시길.. 제주 올레하다보면 인적 드문 곳이 많습니다. 중간에 소를 만나기도 하고 개를 만나기도 하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2009.07.17	
	[댓글] 6코스에 개들 저도 만났네요. ^^ 그중 한 녀석은 막 짖으면서 뒤에서 쫓아오니까 무섭드라고요. 그럴 땐 도망가지 말고 같이 패려보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먼저 도망가던데요? 웬지 이긴것 같아 신났던 기억이 있네요.	2009.07.18	
	[댓글] 제가 갈 코스와 비슷하네요. 개조심 정보가매우 도움 되었어요.ㅋㅋ 걱정이네요. 저는 조그만 강아지도 무척 무서워 하는데요;;;;; 물건 않겠지요 ㅠㅠ	2009.07.18	여
	그렇게 물러갈라 건다가 배낭에 곁하는 캔이 떨어졌다.그소리가 저멀리까지들렸는지 저멀리 개가 짖는데 소리가 좀 무섭다.엇..뭐지..여기 개도 방목하는곳이었나... 저기보니 게다가 2마리..시커먼놈도있어서 무섭다.	2009.12.30	남 30대
	바로 거기에 큰 개 2마리가 있어요.. 저 올라가기위해서 건다가 갑자기 큰개2마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저에게 와서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하며 내려 왔어요. <중략> 고보니 노루가 내려와서 개를 풀어놓은다고 하시더라고요..근데 개가 좀 커요.. 그것도 2마리가 딱 버티고 있으니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전 여자고 개를 조금 무서워 하는 편이에요. 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였으면 좋겠네요	2010.09.12	여
	3코스의 우물안개구리라는 레스토랑에 중간크기(?)의 흰개가있는데요 저를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길래 저도 좋아서 같이 놀아주려고 하는데 가 너무 심심했는지 너무 흥분을 하더라고요 제 윗도리 소매부분과 바지 아래부분이 다 찢어졌어요 좋아하는건 좋은데 막 물어뜯어서 팔도 굵히고..ㅠㅠ 웃을 두껍게 입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중략> 아무튼 무서워 죽는줄 알았습니다.ㅠㅠ	2010.11.09	
	올레길 옥의 티! 개조심!! <중략> 그런데..... 웬 개가 그렇게 많은지요. 인적이 드문 길에서 거의 소만한 개를 맞닥뜨렸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란 ~~~~~ <중략> 동네마다 웬 개가 그렇게 많는지 때를 지어 다니며 쫓고 쫓기도 하고 여행자에게는 여간 불편한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ㅋ 제주 도민여러분 이거 어떻게 좀 안될까요.	2011.02.03	
	[댓글] 맞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1월 31일 올레3코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큰개가 달려들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평소에도 개가 무서웠는데 저만큼이나 큰 개가 다가와 간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개가 순하다고 하지만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옥의 티인것 같습니다. 묶어서 키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2011.02.03	
	[댓글] 맞아요. 곳곳에서 개를 마주치고 깜짝 놀란 적 여러 번 있네요. 제가 시골로 섰듯 이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개를 아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완전 무서워하는 사람을 위해 개를 너무 자유롭게 풀어두시는 건 좀 ^^; 부탁드려요. 안전을 위해서요~	2011.02.03	



개 (계속)	올레길을 걸을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개들입니다. 역시 마구 찾아대는 이놈의 개들 때문에 중간 중간 겁먹으며 걷다보니 날씨가 점점 안좋아집니다.	2011.02.13	남 3~40대
	큰소냥 숲길을 지나서 농노에서 =들개를 만나다 <중략> 들개 무섭다..	2011.02.28	여
	길을 잃고 해맨 경험들은 다시 올레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 다. 2차 올레길 여행을 준비하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게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 건 바 로 !! 저 에게 늑대나 사자와 같은 공포를 안겨주었던 개님들이었습니다. 어쩌나 당당하고 눈빛이 무섭던지... 개를 키우시는 제주도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개님들 제발 주인의 보호아래 산책을 시켜주세요~~^^	2011.05.09	
	초반 20분차에 길을 이탈해 해안 초소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개 두 마리가 광분하며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정신세계는 아스트랄..-_-어느 올레꾼님 말씀으로는 등을 보이지 말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대치하라는데, 저는 뒷걸음질로 대치하면서 후방 30m쯤 물러나다가 이놈 녀석들이 계속 찾아대며 위험하길 래 흑사나 하고 등을 돌리니 안 따라오더라고요. 제 생애 가장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_-	2011.06.07	여 2~30대
	식산봉을 지나 오소리 마을을 지나는데 왜 개 한마리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며 한참을 따라옵니다. 무 섭게... T.T 한참을 쫓아오다 주인 아저씨인지 왜 아저씨가 그 개를 안고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	2011.07.03	여 30대
	그런데 기대 하고 온 하느 분지를 지날때 정말 힘들었습니다.입구 부터 뭔가 음산하고 개짓는 소리가 너무 처참하게 드리더니 눈두렁을 지날때 오른쪽에 커다란 케이지가 서너개 있고 그곳에선 개들의 울부짖음이 어쩌나 무섭던지요. 아마도 개장사꾼들이 그곳에 개들을 모아 사육도 아닌 방치를 하는듯 합니다. 개들은 사람 소릴 듣고 달려들라 필사적으로 울부 짖는듯 그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돌네요. <중략> 제 개인 사건으로 저처럼 혼자 걷는 특히 여자들에게겐 절대로 추천 하고 싶지 않은 길이 었 답니다. 올레길 흑시 이곳을 한번더 답사 하시어 다른길로 우회 할수 있는길을 알려주심 어떠 싶지요?	2011.10.01	여
	개를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한번씩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가끔 좀 놀랬어요	2012.12.20	여 20대
	소나무 군락과 목장을 지날 때 소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애를 먹었었습니다.원래 소를 좋아하는데, 제 빨간색 크로스백이 맘에 들었는지 막 다가와서 좀 무서웠어요. 투우사처럼 오레이~ 외치며 가방 을 옆으로 들어야 하나 순간 갈등했습니다.	2008.09.09	
	다 내려갈 즈음에 소 몇 마리가 내 앞길을 딱하니 막고 있다. 아니 내가 그들의 길을 막은 것일까? 왜냐하 면 왼쪽 넓은 길은 오통 질퍽한 상태로 오른쪽 약간만이 좋은 길인데 소들도 나도 그 쪽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상대는 어른 소+송아지! 이 쪽은 힘 없는 인간 하나. 어쩌나!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지?	2008.12.28	남
	그때까진 좋았는데...말미오름의 끝 부분을 눈앞에 두고 송아지 두 마리와 문 건너에 소들이 보이더군 요. <중략> 이리저리 움직여 보고 있는데...소떼들이 몰려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물을 무서워 하거든요. <중략> 이렇게 길과 씨름 한 시간이 한 시간 넘게 걸렸더라고요.	2009.01.06	여 2~30대
소	저는 혼자 갔는데요. 가다보면 소떼가 나옵니다. 근데 소들이 좀 많아요. 반드시 소들을 지나 가야하는데. <중략> 하지만 저처럼 동물을 매우 무서워하고 여자혼자 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용기가 필요한 코스였습니다.	2009.03.28	여 2~30대
	[덧글]저도 그1코스 혼자서 걸었는데요 문암에서 어미소옆에 새끼소가 젖을 먹고 있느라 길을 비켜주 지 않아서 한참을 서있다가 새끼소 식사 다 맞친후에 겨우겨우 문열고 나온 기억이 나서 혼자 혼자 웃어보 네요 <중략>너무 무서워 마시고 살살 지나가시면 되요.하지만 저도 또다시 가면 될까 싶기도 하네요	2009.03.29	여
	[덧글]저도 침 올레 도전하는 겁 많은 여자였는데..ㅎㅎ 사람은 없고 소들은 완전 가로막고 있어서 이걸이 맞나 싶어 한참 당황한채 서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살살 걸어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던 기억.	2009.04.03	여
	[덧글] 소들이 맨날 가로막고 있는거군요!! 저두 친구랑 못나오고 장정거리다가 다른남자분 오실때 슬 쩍 같이 나왔어요..무서워요-0-;; 뽀이 ㅎㅎ	2009.04.04	여
	에그머니~ 어린 송아지 때문인지 큰 소들이 예민해지더니 기어이 나를 돌아볼을 태세네. 예미라서 그런가 보다. 내 빨간 잠바에 흥분했나 싶어 서둘러 도망가며 일변 걸음을 벗으려니 이게 모야~! 안에는 더 빨간 티셔츠다 π.π 아.. 나... 니네들 무서버~	2009.04.04	
	소와 대치를 하며 1코스지기님에게 소가 있다며 어떻게 해야하냐고 그랬을 때 '그냥 가십시오' 라는 간단한말을 들어 1시간을 난 소와 대치상태였다.너무 무서웠고, 소를 가까이서 본것은 이번이 처음. 비가와서 진흙에 빠지며 비를 맞아가며 정말 그야말로 힘들그자체였다.	2009.07.21	여
	소 방목 중. -; 되돌아 갈까.했지만.옹기내어 전진전진 허가거겨..내가 가야할 길에 한우가 이렇게 떡 하니.. 이 사진 찍고 쫓아서 뛰어내려가다가 전날 6,000원이나 주고 산 감물들인 손수건을 잃어버렸어요	2009.08.12	여 20대
	그런데 정면에서 다가오는 소 한마리...순간 당황하게 하더군요..^^길에서 비켜서니 조용히 지나갑니다..	2010.04.04	남 30대
	산전체에 방목을 하는 것인지 한 두마리도 아니고 대략4~50마리와 마주쳤네요. 번에 3~4마리 또는 줄지어서 3~4마리씩 있는데 매번 소랑 눈싸움하며 ~워~ 몰면서 간신히 걸어갔습니다.결정타는 전망대를 지나서 10분쯤가다가 커다란 8마리가 버티고 누워있던 것이었습니다. 검은소 2마리에 황소 6마리가 일제히 쳐다보는 공포감이란. 피해가느라 길도없는 곳에서 가시에 찔리고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질뻔하고 시간이면 갈수 있는거리를 3시간넘게 걸렸네요.	2010.10.04	남
	안덕계곡 흐르는 물에 잠시 다가가다가 비구니 스님 한 분을 만났다. 땀에 흠뻑 젖어 씻고 있었는데, 월라봉을 지날 때 커다란 소 몇 마리가 길을 막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무서워서 소가 사라지기를 나 무 뒤에 숨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 보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길이 아닌 가시나무 덤불을 헤치면서 빠져 나오는 바람에 전망대와 진지동굴은 구경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웃도 많은 군데가 가시나무에 뜰어져 있었다. 올레길을 걷다가 보면 말과 소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소와 말은 덩치만 크지 초식동물이라 사납지 않지만 여성 혼자 걷다가 이를 만나면 공포에 쌓이게 될 것이다.	2011.05.15	



말	바로 앞 바다에는 마라도가 손에 잡힐 듯 뻗어있고 눈아래에는 너무나 우아한 말들이 풀을 뜯으며 유 유자적이고 있는 그 풍경에 매료되지 않을 자 그 누구요! 한참을 그곳에서 발을 떼지 못하던 난 순간 적으로 겁이 났다. 아뵘싸, 저 말들 사이를 어떻게 걸어가지?	2008.09.21	여
	드디어 말과의 본격적 만남이 시작되었다. 은근 겁도 났으나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냥 지나갈 게. 난 하던 일 해. 다정히 속삭이며 조심조심 걷는다. 말은 날 보지도 않는데 나만 공연히 쫓았나 보다.	2009.06.08	여
	완전 좁은 숲길인데.. 가는 사람은 저뿐이고.. 여자 혼자인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근데.. 큰 백마가 보여서.. 완전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울레 걸으면서 목장을 지나친다는 것은 알 아서 말. 소에 긴장하면 안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10코스에 목장을 경유한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 에.. 그리고 혼자 가다가 보아서 그런지 진짜 무서웠습니다.	2009.12.02	
	새끼가 엄마 뒤에 찰싹 붙어 따라온다. 안장도 없지 않고, 목지도 않은 채 사람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말을 처음 보는 날, 옆 나무에 기어올라간 최영필이 맛있어 보였던지, 바로 코앞까지 와 어린 입을 따 우걱우걱~(소리가 들린다, 들려) 씹어대며 내 윗도리에 콧물 조금 묻혔을 때, 솔직히 좀 떨었다.^.^ 애가 날 공격하면 어쩌나, 저 큰 이빨로 물면 어쩌지.. 50m 앞에 어미 말과 망아지 그리고 아빠말이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아.. 비행기 시간은 속절없이 다가오고.. 1~2분 기다리면 비켜줄줄 알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 결국, 애, 애, 너 옆으로 좀 비켜봐 기죽은 목소리로 호소했다. 애원했다^^	2010.05.24	
	송악산은 정말 말들의 천국인듯합니다ㄱ 가까이서 보니깐 정말 무섭더라고요ㅠ 제 바로옆을 막 지나가는데 저혼자 쫓아서 죽은듯이 손끝하나 안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어요ㅋㅋ 얼마 나 긴장을 했는지ㅋㅋ	2010.11.26	여 3~40대
뱀	어려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셋알오름에 들어서는 순간 임신한 말이 길을 막아서서 어렵게 그 옆으로 지나서자 50m 앞에 어미 말과 망아지 그리고 아빠말이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막상 격어보니 생각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당분단 연예인의 말근육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2011.08.17	여 3~40대
	3초전 20미터 전방에 우측으로 나 있는 화살표를 확인하고 앞만 보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다 갑자 기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오야! 시속 100km로 뒷걸음질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난 얼음, 바로 내가 서 있는 위치 2미터 앞에 뱀이 몸을 반이나 세우고 날 향해 전투태세를 하고 있었다. <중략> 다리가 후들거려 앞으로 발 한 발자국 땔 수가 없다. 뱀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널 놀라게 해서	2009.05.16	
	또 숲 출입구에 "뱀조심!"이란 문구를 꼭 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그 무서워라 더위가 썩 달아나기는 했는데..뱀은 역시 무서워요	2009.07.30	남
벌	저지상수원을 지나면 양봉하는 곳을 지나게 되요. 아직 양봉을 시작안하셨는데 예전에 지나갈때는 앞 이 까매서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벌을 처음봤네요. 처음 이곳을 같이 지나갔던 일행이 벌 때문에 우비를 꺼내서 풍뎡이때고 지나갔던 일이 떠오르네요. 여성분들이 지나가기에는 참 무서운 곳인것 같아요. 오른쪽에 붙어서 벌을 피해 뺑 돌아서 갔었네요.	2011.08.20	남
	오설록 나오기전 저지상수장 바로 옆에서 수많은 벌집을 놓고 양봉장을 꾸려 놔더라고요. 저희 식구 들은 정말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며 지나왔습니다.어떻게 올레길에 바로 양봉장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 네요 저희 식구들은 몸을 최대한 낮춰서 무사히 지날 수 있지만 다음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뜰이나 외떨어져 식구들끼리 다녀도 무서운 길인데, 봉장까지 나타나 무척무서웠던 길이 있습니다.	2011.09.19	
평	조용한 올레길 .. 그런데... 순간..갑자기 퍼드득득~ "아이고 깜짝이야" 꼭 돌담 옆에 있다가 사람지나가면 요란한 날개짓과 괴성을 지르며 나타나는...평 처음에는 아이고 깜짝이야지만.. 몇번 반복되면..나도 모르게 " 아이 씨 저런 평xx " 고요한 나의 가슴속에 돌을 던지는..분위기 브레이크....ㅋㅋㅋㅋ 잇을만하면 한번씩 경계되는...깜작이벤트 같은 ㅠㅠ	2011.11.15	
	[댓글] 절대 공감.. 또 공감.. 그렇게 놀라 보기는 정말로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도 또 크게 놀라고.. 그러다 보니 욕이 나올 수 밖에요.. ㅋㅋ 그런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 평xx 잡기는 어렵겠더군요.. ㅋㅋ	2011.11.15	
	[댓글] 절대 공감합니다.ㅋㅋ 워낙 예측하지 못한곳에서 육중한 푸드덕 소리에 놀라서 또 당했다는 느낌..^^ 순간 짜릿하죠 ㅋㅋ	2011.11.17	
	[댓글] 저도 절~~~~대 공감이며 저는 주로 혼자 다녀요.. 귀에 이어폰 끼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걷다가 그 평!!!! 진짜 심장 떨어집니다 ㅋ	2011.11.18	
사 슴	여튼 사진도 찍었겠다 완전 신나서 난행운이야 이러면서 가는데.....아..아니었어요.... 전 불행이었어요...그 사슴같은 놈이.... 정말..10마리나 봤어요..너무 충격적이어서 숫자가 생생합니다..... 개네 무서워요... 발굽 소리도 진짜 무섭고... 나중가면 도망도 안가구 엄청 노려봐요..진짜 무섭...ㅠㅠㅠㅠ.....이런거 무서운 사람은 숲길 늦게 혼자가지 마요...ㅠㅠ 저 진짜로 혼자 걷고 있었거든요... 애네가 사람 말소리 발소리 없으니까 그냥 다 나온듯 해요 무서워요	2012.06.22	여 2~30대



시간이 늦어 어두워질 때 두려움을 느낌		
[덧글] 여름이 지나가고나면 가을,겨울,봄에는 해가 짧아집니다. 어두울 때 걸으면 풍광도 못 볼더러 표시도 찾기 힘들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9.08.26	여
통오름 입구에 이르니 4시 반정도 밖에 안되었지만 날씨가 흐려 어둑어둑 하고 산간으로 혼자 들어가려니 무섭증이 도진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동지민박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2009.09.06	여
개인적으로 이 곳을 걸을 땐 해가 뉘엿뉘엿 저 가서 무서웠음	2008.09.02	여
파란색 화살표도 리본도 결국 찾지 못하고 표선 2해수욕장 독길에서 완전히 어둠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 저 멀리 휘영 밝은 당케 포구가 바로 앞인데... (그날 숙소에서 만나질 일정이 앞섰던 자매 여사 팀도 여기서 끊겼다고 하신다. 그리고 오늘 새로 찜질방에 합류한 나 보다 일정이 하루 늦은 순천 젊은이도 다음날 여기에 어둑해 질 무렵 도착했는데 정말 돌아 버리는 줄 알았단다...!! 나 그리고 앞, 뒤의 세 팀 모두가 어느 겨울날 땅거미가 내릴 무렵 바로 이 지점에서 버림을 받았다 버림 받은 이유는 딱 하나 하루에 한 코스를 초과한 일정 바로 그것이다!!!)	2008.12.28	남
특히, 년 중 해가 제일 짧은 요즈음(11월~2월) 이라면, 이동은 오후 4시경 마치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둑하고 또 엄청 빨리 깜깜해 진다.)	2008.12.28	남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쇠소깍까지 가려고 했던 게 좋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면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5코스 종착점인 쇠소깍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계속 걸었는데 어느새 나는 숲 속의 길을 걷고 있었고 이미 주변은 캄캄해진 상태였다. 머리에 헤드랜턴을 끼고 걸었지만 올레의 화살표를 찾기는 무리였다. <중략>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2009.05.05	
무명천 산책길을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듯 월령숲길이 나온다. 어둑어둑할때 혼자 이 길을 걷는다면 무서울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낮에 갔으니 비밀의 화원이나, 타잔이 날아다닐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아마 오후 늦게쯤 갔다면 난 뒤도 안보고 달렸을지 모른다.	2009.12.22	여 20대
해안가 길을 따라 강정포구를 지나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목적지인 7코스 종착지 월평포구가 코앞인데 마음이 급해진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각..7시가 넘었을까?	2010.01.16	남 30대
처음 혼자 올레길을 걸을 때 노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걷다 금세 날이 어두워져 당황했던 적이 있다. 시골의 밤은 쉽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때 절감했다. 해안가에 있다 큰길로 부지런히 걸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어둠이 찾아왔다.	2010.07	여 40대
시간이 오후 5시쯤 되었기 때문에 더 가야돼나 말아야 돼나 다시 고민!!!	2010.07.31	여 20대
너무 여유를 부린 것인가? 오후 1시에 출발한 6코스 길이 어느덧 그림자가 길게 늘기 시작한다. 외톨개까지는 갈길은 먼데 조금 피치를 올려야 했다.	2010.09.17	남 30대
어두워지고 있는 칠십리 거리... 음식점이 준비한 음식특화거리란다. 그래도, 주린 배를 채우기보단 오늘의 목표인 외톨개까지 가야한다는 중압감에 술을 지쳐가기 시작한다.	2010.09.17	남 30대
사실 둘이 걷긴 했지만, 으스스해지고 사람도 없는 평일이고 저녁때가 다 되다보니 무서움이 밀려오드라구요....	2011.04.01	여 2~30대
15코스는 거의 마당올레라서 이런저런 생각하며 혼자서 걷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7시가 다되어가자 어두워지고 15코스 마지막 구간인 고내봉에 들어서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까맣고 올레 표식도 안보이고, 사람도 없고, 고내봉은 무덤가로 무덤도 많고, 중간중간 평이니 하는 새들이 푸다닥 할때마다 심장은 멈춰버리고 정말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어두우니 길도 안보여서 위험하고, 겨우겨우 나오자 이번에는 도로인데 가로등도 없고 인도도 없고 차는 뽕뽕 다니고 정말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머 말이 길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해떨어지고 나서 혼자서 올레길은 위험하니 하지 마세요.	2012.03.12	
그런데 해가 녀넌뉘엿지고 있습니다. 어쩍니다 초초해집니다. 최대한 빨리 걷도록 합니다.	2012.03.15	여 20대

(4) 코스의 시작점과 종점에 의미를 부여함

시작점/종점을 중요하게 생각함		
1코스 출발점인 시흥초등학교 정문에 1시가 다 되어서 도착하여 올레출발 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올레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흥분과 떨림은 올레 출발이라는 사인을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치기에 충분했습니다.	2008.10.16	남 4~50대
내리자마자 조카녀석이 "파란 화살표~ 여기 파란 화살표예요 여기요 저기 벽에도 있고~" 합니다. <중략> 재상이는 파란 화살표를 잘 찾아 계속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어쩔까 이대로 화살표를 쫓아 7코스로 걸어버리느냐 어쩌냐 잠시 고민했을 것도 싶지만 본래 계획은 무조건 출발점부터~!!! 옆기에 일단 외톨개로 갔다가 다시 걸어나오기로 했습니다.	2008.12.23	남 30대
그래도 '올레 공식 싸인'으로 '종착지'를 알려주는 곳까지 왔으니, 만세삼창은 기본으로 해 주는 센스는 필요하겠지요? ;:^^ 3코스 만세 제주 올레 만세! 손양 만만세!	2009.04.15	여 3~40대



시작점/종점을 중요하게 생각함 (계속)		
때론 말을 아끼가며 네 시간 정도를 걸었을까... 6코스 완주를 뜻하는 삼매봉이 보입니다. 아 어쩌나 기쁘던지...	2009.08.10	
사람들이 대부분 올레길 1코스를 첫 일정으로 많이들 계획한다. 아마도, 숫자 '1'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처음" "시작" 등등.. 첫 일정은 아니었지만, 올레 1코스가 궁금했었다. 제주 올레길중 가장 먼저 생겨나기도 했고, 처음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010.01.08	남 20대
올레길 13코스 시작점인 용수포구(절부암)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걷기 직전인데도 땀방울이 뭉뚱함입니다. '나, 드디어 올레길 걸어!'	2010.09.25	여 2~30대
완주에 목적을 두지 말고 정말 놀멍 쉬멍 그렇게 걸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길이 저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았고,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종락> 아마 혼자서 코스가 아닌 곳을 걸었다면 몇시간 걷다가 말았을테지요. 그런데 목적지를 두고 걸으니 꾸준히 걷게 된다는걸 알고 올레길을 코스대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2011.10.19	여 2~30대
14-1 코스를 다 못 마쳐서 아마도 두고두고 아쉬울것 같다.	2011.11.29	여 2~30대
어둑어둑해진 곳당 산책로를 지나 7코스 종착지인 송이슈퍼를 봤을때 그 반가움이란...	2010.12.06	여 2~30대
시작점/종점의 의미성이 약하여 실망스러움		
혹시 1 코스를 돌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 구간권이 끝나는 광치기 해변은 정말 황량한 백사장 한켠에 갠 천막으로 만들어진 횡집 한 곳이 전부입니다. 이런 곳을 끝지점으로 정하기보다 조금 앞에 있는 성산이나 조금 뒤에 있는 동남에서 코스가 마감이 된다면 당황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2009.09.11	
한참을 달려가는데 포장마차가 하나있다.오델 간식을 먹으면서 골인지점이 얼마나고 물으니 여기가 종점이란다.헐,이런허무한...눈을 돌려보니 여기가 7코스 종점이자 8코스 시작점이라는 뜻말이 자그맣게 보인다.. 허전함을 감출수가 없다	2010.01.16	남 30대
월평포구에 도착 코스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1.3km 더가서 월평마을까지 가라고 표지판이 있다 종점에 도착했다가 새로운 종점까지 가려니 지친다	2010.05.04	남
10코스 시작 합니다. 음.... 솔직히 처음 인상은.... 별로 사람도 없고, 뭘 짓다 말았는지.... 여튼 별로였어요	2011.09.10	여 2~30대

(5) 기념 스탬프를 중요하게 여김

스탬프를 찍어 기분이 좋거나 중요하게 생각함		
중간지점 김영갑 갤러리 무인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 후매포스에서 스탬프를 받으니 좀 기운이 나더라구요 (갤러리 입구에 스탬프를 비치해둔 힘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매포스에 문의하라는 안내장이 적혀있더라구요)	2010.02.01	
작년 12코스까지 총 14코스를 돌고 나머지를 완주하려 하는데 아니 이게 웬말 패스포트가 생겨서 스탬프를 찍는 즐거움이 추가 되었단다. 그래서 다시 걷기로하고 어제는 기분 좋게 1코스에서 패스포트도 사고 지정 장소에서 스탬프도 찍고 ...	2010.04.10	남
2 코스도 완보했으니, 패스포트에 완보 도장을 꾸욱 누질리는 이 기분. 짱이닷^^	2010.04.12	남
스탬프 광~ 장소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 윤정님을 기다린다. 저 멀리 푸른 비옷으로 날개짓하며 걸어오는 윤정님. 이어 오는 양총각^^ 모두 올레 패스포트에 완보 스탬프도 찍고 커피와 도넛도 나누며 환담.(4500원)	2010.06.18	여
제주 올레 패스포트 중간 스탬프 확인 장소가 나왔다. 토란 남쪽나라 횡집이다. 들어가서 초록색 중간 스탬프를 받았다. "어제 월평송이슈퍼라는 데를 못 찾아서 8코스 시작 도장을 못 받았어요. 다음에 7코스 다 걷고 받든지 해야지." "거보세요. 이게 중독성이 있단니까. 놓치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찍으려고 하고." "시작과 끝뿐 아니라 중간까지 있어서 빠도 박도 못해요." 이번 코스의 도착점 스탬프 모양은 뭘까? 기대하면서 걷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패스포트는 기발한 발상이다. 다음에 한 번 더 오게 되고.	2010.06	남40대
월평포구로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통 제주올레 패스포트 스탬프뿐이다. 어떤 모양의 스탬프를 찍어줄지 궁금했다.	2010.06	남40대
스탬프 찍는 게 학교 본관 건물 정가운데 쪽에 있는 줄 알고 들어갔지만 사람도 없고 스탬프찍는 곳이 안보여 건물앞 벤치에 쉬고 있는 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픽업이예요. 버스예요 몰으시더군요. 버스타고 숙소가 있는 저지리로 간다고 말씀드리니 7시3분 쯤에 버스가 있을거라고 후딱 큰 길로 나가서 버스타라고..(그때가 7시 정각) 근데 버스보다 종점의 스탬프 찍는 게 더 중요하기에 스탬프 후딱찍고 뛰어서(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큰 길로 나갔습니다.	2010.07.09	남
그리고 갤러리 개장시간에는 매포소에서 올레스탬프를 찍어주니깐 꼭 잊지 마세요~	2010.09.03	여
갯둑과 해변대길을 마지막으로 남쪽나라 횡집 앞에서 스탬프를 찍고 11월 9일 11시 18분이라고 적고나서 이번 일정을 마감하였습니다.	2010.11.13	남
좌회전해서 조금더 올라가야 있는 스탬프 찍는곳. 예잇. 반대로 한참을 가는바람에 다시 돌아왔자네!!! 그래도 도장찍고 나니. 기분 싹 좋아졌어!!! ㅎㅎ	2010.11.26	여 20대
외돌개에서 만난 사무국. 스탬프 신나게 찍어주고...외돌개는 도대체 어땠? ㅎㅎㅎ 담에 7코스에서 보지머~~~ 이러면 그냥 와버렸네요..-_-;	2011.03.20	여 2~30대



스탬프를 찍어 기분이 좋거나 중요하게 생각함 (계속)		
그래서 3코스는 시작점에서 스탬프만 찍고 패스~~ㅋㅋ 그리고 김영갑 갤러리까지 차로 이동해서 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친착하게 끝지점에서 영광의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스탬프 찍는 곳을 못 찾았지만 근무중인 해양경찰분께 물어 무사히 깔끔하게 끝낼수 있었습니다.	2011.08.07	여 40대
작년에는 스탬프 찍는게 그냥 너저분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간세 머리 속에 쑥 들어가 있어서 너무 이쁘고 기분 좋았습니다.	2011.08.17	여 2-30대
중간지점 까지 가는 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마다 중간지점에 있는 스탬프 찍는 맛에 그래도 힘내고 걸었는데~	2011.09.20	
전날 12코스를 걸음으로써 이제 패스포트의 스탬프는 모두 찍었습니다.	2011.12.22	여 2-30대
드디어 볼니다. 올레 패스포드에 찍는다는 스탬프입니다. 조오기 머리쪽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스탬프를 꼭찍고 출우우울발 ~	2012.03.17	여 20대
스탬프 찍는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못찾아 실망함		
아 또, 패스포트 구입한 사람으로서요// 패스포트 스탬프 찍는 곳을 정확히 몰라, 코스 올레지기 분에게 문의드렸는데..두 세번 전화드리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구요~ 또 1코스 중간지점에 스탬프 찍어주는 곳의 경우, 모르시는 분은 그냥 지나쳐서 지나갈수도 있겠단 생각이.. 스탬프 찍는 장소에 대한 표시가 따로, 눈에 띄게 해주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2010.01.10	남 2-30대
그리고 올레 패스포트가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에... 공항에서 구입하였죠. 언젠가는 전 코스를 완주할 목표를 세우고 스탬프를 채울 재미에 신이 났었어요. 그런데...3코스 시작점에 스탬프를 찍으러 갔건만, 굳게 닫혀있는 문.. _ _ _; 아무리 바수기라고 해도 주말(토요일)에다가 오전 10시가 넘어서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처음부터 실망. 그치만 어쩔 수 없죠.	2010.02.01	
오소리 마을을 지나고성리 마을을 지나고 고성윗마을을지나 대수산봉입구를 쫘에서 2코스 중간 스탬프 찍는 곳이 아까 지나쳐온 고성리 마을에 홍마트란걸 알았다. 박OO,김OO 두 사람이 홍마트에가 스탬프도 찍고 라면도 사와 라면을 끓여 점심 식사를 하고 대수산봉에 오르니 성산일출봉도 보이고 알오름도 보이고 경치가 장관이다 <중략>혼인지에도착했는데 쉬는 날이다 문은 다 닫혀있고 혼인지 정보센터에서 스탬프를 찍으라고 안내책자에 있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다 할 수 없이 운령포구로 가니 운령포구 쉼터가 스탬프 찍는 곳이다	2010.05.01	남 30대
그리고 1코스 종점 부분에 스탬프 찍는 곳이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 찾은건지는 몰라도 찾질 못했습니다만...	2010.09.28	남
출발점인 광령1리 사무소나 마을회관, 청년회 사무소 등 어디에도 기념 스탬프가 없더군요. 아직 준비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것인지...근처 가게와 주민들께 물어 봐도 아는 분들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2010.10.15	
또 문이 닫혀있어서 다음날 찍으러 갔더니만 종합센터 맞은편 정자에 스탬프가 널그러니 있습니다...지금 생각해도 웃음만..ㅎㅎ..	2010.11.11	
12코스 끝점표시가 있는곳에 스탬프가 없어 좀 해맸습니다. 스탬프는 포구앞 작은가게에 있더군요.가이드북에 있는 12코스길 안내자에게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2011.06.09	여 4-50대
여기가 중간 스탬프 찍는 곳인데 캄캄하고 걷는 바람에 못 찍었습니다. 황개천 다리 옆 화장실에 있다는데..... 못보고 그냥 지나쳐 왔나봅니다.	2011.08.24	여 2-30대
안내소에서 스탬프 찍으려고 패스포트를 샀는데 14코스인가 지나서부터는 찍는 도장을 못찾아서 대충 찍고 다녔네요. 패스포트 구입 비용이 제주올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011.10.11	남 30대
종점 스탬프는 왜 그리도 잘 숨겨 뒀는지	2011.11.01	
스탬프의 파손 또는 잉크 부족으로 찍지 못하여 실망함		
3코스 종점에서 패스포트에 확인 스탬프를 찍으려고 보관함을 열어보니 4코스 시작 스탬프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왜 파손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여러가지 상상만 해보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맘으로 글을 씁니다 아름다운 올레를 위해 늘 힘쓰시는 올레사무국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제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01.21	남
[덧글] 3코스 출발점에서는 스탬프 잉크가 다 떨어져 스탬프가 희미하게 찍혔습니다. 스탬프 잉크 바뀌야 겠는데..... (이 것도 부탁드립니다)	2010.01.21	
어제 큰맘먹고 올레길을 계속적으로 걷기 위해 1코스를 시작으로 패스포트를 구입후 시작을 하였습니다. 1코스 시작점 안내소에서 구입을 하여 간단하게 사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중달리 해안도로에 있는 구간에서 중간에 스탬프를 찍는 곳에서 잘찍고 마지막 광치기해안에 가서 도착지점에 확인을 하는데.. 다른곳에서는 찍어 주시던데... 광치기해안의 경우 스탬프찍는곳이지 문의를 하여도 다들바쁘신듯 정확하게 말씀도 해주지 않고 스탬프가 보여 이것으로 찍으면 되냐고 물어봐도 별 반응이 없이 대충 그렇게 하라고 할 뿐...그리고 스탬프도 찍기 힘들정도로 약한 인주등..... 시작은 즐겁게 하였는데 끝이 별로였습니다.....	2010.10.18	남



스탬프의 파손 또는 잉크 부족으로 찍지 못하여 실망함 (계속)		
1코스는 새벽6시에 시작하여 패스포드에 스탬프를 찍지못했구요..안내책에 나와있는 지명대로 새벽(아침)의 풍경을 느꼈습니다...1코스에서 아쉬운건..아마..성산포항에서 성산일출봉 가는 뒷길에 자갈이라 차들의 먼지일 까..광치기해변의 횡진의 불친절함 스탬프에 약이없어서 물을 부어서...ㅎㅎ... <중략> 애 중점에서 스탬프는 책자에는 온평 혼인지 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정보센터가 아니라 종합센터입니다. 또 문이 닫혀있어서 다음날 찍으러 갔더니 종합센터 맞으면 정자에 스탬프가 날그러니 있습니다..지금 생각해도 웃음만..	2010.11.11	
8월 28일, 아주 뜨거운 날! 월평포구에서 시작해 햇볕을 마주보며 열심히 걸어 대평포구에 일사병을 극복하며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나루 간세 스탬프보관함에 스탬프가 완전히 손상이 되어 있었고, 잉크도또한 없고... 스탬프를 찍으려고 걷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할때 찍고 힘차게 출발했는데...중간지점인 주상절리에서도 놓쳐서 좀 아쉬웠는데.....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래요! 기분 좋게 완주했다는 보이는 증표니까요...	2011.09.01	
이번에 친구와 함께 올레 10코스를 걸었는데요~ 중간지점에 스탬프가 완전히 마모되서 도장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흠... 그 중간지점 까지 가는 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마다 중간지점에 있는 스탬프 찍는 맛에 그래도 힘내고 걸었는데~ 그렇게 마모가 되어있어서 참 슬펐다능...	2011.09.20	
비온 후의 스탬프 보관함 문제 <중략> 16코스 시작점인 고내포구에 도착해 스탬프를 찍으려고 꺼내보니 밤새 내린 비로 스탬프가 완전 물을 먹어서 침범침범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찍으려고 노력해봐도 희미하게만 찍히고 물만 잔뜩 묻구요. 그 후에 시작점뿐만 아니라 이틀동안 걸은 14, 16코스 스탬프 6개 중에 물을 먹지 않은 것은 14코스 시작점인 저지마을 스탬프 뿐이었습니다. 스탬프 보관함이 한판을 짜맞추어 만들다보니 보관함 상부에 틈이 있고 그 곳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렇게 된거 같은데요. 앞으로 비도 많이 오고 할텐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스탬프 교체비용도 솔찬히 들어갈거 같고, 스탬프 찍으려고 설레는 맘으로 온 올레꾼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닐거 같아요...저는 스탬프 하나 사서 들고 다녀야 겠다고 했습니다. ^^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거 같아요.	2012.04.02	
스탬프 보관함에 락에 락 통을 넣어두고 그곳에 스탬프 보관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우수운 모양이 되겠고,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곧 닥쳐올 장마나 태풍에도 물 먹지 않은 스탬프를 만날수 있지 않을까요? 스탬프 찍으려고 패스포드 산 올레꾼 정도라면 락엔락 열고 닫고 하는 수고로움쯤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여 줄거 같은데요. 아닐까요?	2012.04.02	
가는 코스마다 올레스탬프를 찍었는데요.. 14-1 중간코스 오설록에서 스탬프를 찍으려고 봤더니 스탬프가 전부 마모되고..깨져 있더군요 저야 제주도 사니..뭐 아무때나 가서 찍고오면 되지만.. ^^ 타지역 분들은..아쉬울거 같아요.. 아..그리고.. 중점부분에서도 버스정류장에서 스탬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중착점이..생태학교라서 거기에서 찍자..했는데..가보니..거긴 스탬프가 없더라고요..친구한테..무지 미한할뻔 했습니다. 간단한..안내 문구정도 있으면 아주~ 좋을거 같습니다~	2012.05.29	
1코스 마지막 스탬프가 희미하게 나옵니다. 스탬프 보충제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2.07.28	남
어느 곳의 스탬프들은 잉크가 없어 잘 안찍혀 지터군요 사무국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레길 다니시는 분들이 스탬프 하나씩 들고 다니다가 잉크가 떨어진 곳에서는 바꿔 주시면 어떨까요? 그 곳의 스탬프는 패스포드의 다른 구간보다 더욱 뿌듯한 느낌이 날 듯합니다.	2012.08.02	
스탬프를 못찍어 실망함		
그러나..... 중착점에서 역시 스탬프는 찍을 수 없었어요. 저의 올레 패스포트에 달랑 도장 하나밖에 찍을 수 없었습니다. 스탬프를 받기 위해선 또 한번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1-1 우도코스는 페이지에 공간조차 없더라고요...;; 당연히 스탬프도 없구..)	2010.02.01	
올레길은 '증거' 가 필요한 곳이 결코 아니다. 올레길을 걷는 사람 중 그 증거가 목표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올레꾼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솔직히 아쉬웠다. 이왕 걷는 것, 도장이나 잘 찍어둘걸.	2010.07	여 40대
아직까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레 1-1코스는 패스포트에 스탬프 찍는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도장 모으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록이 남지 않아서 많이 안 가신다고 합니다. 미리 참고하시구요.	2010.11.28	2-30대
저지리마을회관 =스탬프가 없으니 약간 허무 꼭~꼭~ 눌러 찍는 재미가 쏠쏠한데....	2011.02.24	
올레 코스를 걷는 많은 이들 중에는 코스별 스탬프 찍는 재미와 기쁨, 성취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코스 다음에는 그러한 공간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는 12코스까지 외에는 안 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스탬프 없는 공간에도 속히 추가로 만들어 주었음 하는 바람이 있네요.	2011.04.13	
스탬프를 찍는 장소의 의미성이 약하여 실망하거나 혼란스러움		
스탬프들이 보통 안내소나 가게 밖에 덩그러니 있으니 알아서 찍어야 하는 곳이 대다수임.	2010.06.09	
중간스탬프를 찍는 이교동 상모리 마을입구도 빼먹었기에 11코스를 완주하는 게 의미없어졌다고 11코스 반포기 상태의 마음으로 남은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중략> 화장실로 먼저 달려갔는데 화장실에 스탬프 찍는 게 있어서 의아했지만 꾸욱 스탬프를 찍고 정난주 마리아 묘를 둘러봤습니다.	2010.07.09	남
제주도민이지만,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해 구입한 패스포트에, 스탬프를 찍으려 두번째 방문한 11코스였는데...중간스탬프 지점아... 정난주 마리아 묘 화장실!!! 두번째 깜짝 놀랐습니다...ㅎㅎ	2010.11.18	여
정난주 마리아 성지 =아무도 없다 스탬프는? 화장실 옆에 앉아서 햇살 받으며 간단한 점심요기 (땀을 많이 흘려 화장실 안감 — 스탬프가 여기 있다 ^^;;)	2011.02.24	여

